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2018. 8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2018. 08.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홍 은 경

-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정보센터
-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기후변화 정책 및 평가 박사, Ph. D.
  (Interdisciplinary Ph. D. in Climate Change Policy and Assessment)

주요 연구 실적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ODA 사업 방향성 논의: 외국 국제개발협력기관 및 KOICA의 기후 전략 및 정책 사례 중심으로 2016, KOICA
▷ GCF 능력배양사업 분석 및 KOICA 기후변화사업 적용가능성 연구 2016, KOICA
▷ 환경 ODA 사업으로의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사업, 연구보고서, 2014, KOICA
▷ Enhancing Readiness Programs for the Green Climate Fund, KOICA Working paper, 2014, KOICA
▷ 한국 ODA 중점협력국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연구보고서, 2014, KOICA
▷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013, KOICA

김 선 영

-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정보센터
- 맨체스터대학교 국제개발학 농촌지역경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and Management of Rural Development) 석사

주요 연구 실적

▷ 2017. "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수행체제." 『국제개발협력』vol.4:85-124.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저자).

공동연구원

김 수 진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정보센터 연구보조원
-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국제개발부(아프리카 개발전공) 석사

송 민 재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정보센터 연구보조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전공) 석사 수료

최 민 호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정보센터 연구보조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행정학 전공) 석사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서론 ····· 1

1. 한국 개발협력 정책방향 ····· 1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
3. 주요 공여국 원조 현황 분석 목적 ····· 2
4. 주요 공여국 분석 개요 ····· 3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3

Ⅱ. 주요 공여국 현황 및 전략 ····· 4

1. 호주(Australia) ····· 4
2. 오스트리아(Austria) ····· 15
3. 벨기에(Belgium) ····· 24
4. 캐나다(Canada) ····· 35
5. 체코(Czech Republic) ····· 46
6. 덴마크(Denmark) ····· 55
7. 핀란드(Finland) ····· 65
8. 프랑스(France) ····· 75
9. 독일(Germany) ····· 86
10. 그리스(Greece) ····· 96
11. 헝가리(Hungary) ····· 104
12. 아이슬란드(Iceland) ····· 112
13. 아일랜드(Ireland) ····· 123
14. 이탈리아(Italy) ····· 133
15. 일본(Japan) ····· 143
16. 룩셈부르크(Luxembourg) ····· 152
17. 네덜란드(Netherlands) ····· 162

18. 뉴질랜드(New Zealand) ····· 174
19. 노르웨이(Norway) ····· 183
20. 폴란드(Poland) ····· 194
21. 포르투갈(Portugal) ····· 206
22. 슬로바키아(Slovakia) ····· 216
23. 슬로베니아(Slovenia) ····· 225
24. 스페인(Spain) ····· 233
25. 스웨덴(Sweden) ····· 244
26. 스위스(Switzerland) ····· 255
27. 영국(United Kingdom) ····· 266
28. 미국(United States) ····· 277

Ⅲ. 결론 ····· 289

1. OECD DAC 국가 비교 ····· 289
2. 각국의 ODA 수행기관 및 사업 ····· 291
3. 향후 연구 방향 ····· 292

부록 ····· 293
부록 1 DAC 개요 ····· 293
부록 2 DAC 회원국 원조통계 ····· 295
부록 3 한국의 원조체계 및 지원추이 ····· 305

표 목차

〈표 1〉 호주 외교통상부 2017–2018년 원조 예산 항목 ····· 5
〈표 2〉 호주 외교통상부 원조 프로그램 우선과제별 전략 ····· 10
〈표 3〉 호주 외교통상부 국내외 인력현황 ····· 12
〈표 4〉 호주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 13
〈표 5〉 오스트리아 ODA 예산항목 ····· 17
〈표 6〉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 사업 전략 ····· 20
〈표 7〉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인력 현황 ····· 21
〈표 8〉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 주요사업 개관 ····· 22
〈표 9〉 2017 벨기에 개발협력 집행 예산 ····· 25
〈표 10〉 벨기에 정부의 개발협력 주제별 전략 ····· 30
〈표 11〉 벨기에 개발협력 관련 기관 인력현황 ····· 32
〈표 12〉 벨기에 DGD 주요사업 개관 ····· 33
〈표 13〉 캐나다 2018/19 IAE ODA예산 ····· 36
〈표 14〉 2017–18 GAC 부서별계획 우선목표 및 전략 ····· 41
〈표 15〉 캐나다 GAC 프로그램별 상근 인력 구성 ····· 43
〈표 16〉 캐나다 GAC 주요사업 개관 ····· 44
〈표 17〉 2018–2020 체코 개발협력 예산 규모 ····· 47
〈표 18〉 CzDA의 비전 및 중점 가치 ····· 51
〈표 19〉 외교부 및 CzDA 인력 규모 추이 및 전망 ····· 52
〈표 20〉 체코 CzDA 주요 사업 개관 ····· 53
〈표 21〉 Danida 2018년 ODA 예산항목 ····· 57
〈표 22〉 Danida 전략 ····· 61
〈표 23〉 Danida 인력현황 ····· 62
〈표 24〉 덴마크 Danida 주요사업 개관 ····· 63
〈표 25〉 핀란드 정부 2018 개발협력 예산항목 ····· 66
〈표 26〉 핀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전략 ····· 70
〈표 27〉 핀란드 외교부 개발정책부서 인력현황 ····· 72
〈표 28〉 핀란드 외교부 주요 사업 개관 ····· 73
〈표 29〉 프랑스 개발협력 예산항목 ····· 76

〈표 30〉 AFD 주요 우선순위 ····· 81
〈표 31〉 AFD 인력현황 ····· 83
〈표 32〉 프랑스 AFD 주요 사업 개관 ····· 84
〈표 33〉 독일 BMZ 2017년 예산 항목 ····· 87
〈표 34〉 GIZ 2017–2019 새로운 전략 ····· 92
〈표 35〉 GIZ 인력 여성비율 ····· 93
〈표 36〉 GIZ 지역별 인력 구성 ····· 93
〈표 37〉 독일 GIZ 주요 사업 개관 ····· 94
〈표 38〉 2011–2015 그리스 외교부 지역별 전략 목표(안) ····· 100
〈표 39〉 그리스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 102
〈표 40〉 헝가리 개발협력 중점 분야 및 목표 ····· 109
〈표 41〉 헝가리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 110
〈표 42〉 아이슬란드 2015–2016년 ODA 예산 현황 ····· 114
〈표 43〉 아이슬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전략 2013–2016 ····· 119
〈표 44〉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2012–2016 인력 현황 ····· 120
〈표 45〉 아이슬란드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 121
〈표 46〉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ODA 예산 항목 ····· 125
〈표 47〉 아일랜드 Irish Aid 프로그램 우선과제 ····· 128
〈표 48〉 아일랜드 Irish Aid 해외인력 현황 ····· 130
〈표 49〉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 131
〈표 50〉 2018년 이탈리아 ODA 예산항목 ····· 134
〈표 51〉 AICS 2016–2018 목표 ····· 139
〈표 52〉 이탈리아 국제개발협력 인력 변화 ····· 140
〈표 53〉 이탈리아 AICS 주요사업 개관 ····· 141
〈표 54〉 2018년 일본 ODA 예산항목 ····· 144
〈표 55〉 제4차 JICA 중기계획 주요사항 ····· 149
〈표 56〉 일본 JICA 주요 사업 개관 ····· 150
〈표 57〉 2016년 룩셈부르크 개발협력 부서별 예산 ····· 154
〈표 58〉 LuxDev 인력 현황 ····· 159
〈표 59〉 룩셈부르크 LuxDev 주요사업 개관 ····· 160
〈표 60〉 네덜란드 2018 ODA 예산 초안 ····· 164
〈표 61〉 네덜란드 외교부의 무역과 개발협력 ····· 169
〈표 62〉 네덜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2011년·2016년 인력 현황 ····· 171

〈표 63〉 네덜란드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 172
〈표 64〉 NZAP 예산항목 ····· 175
〈표 65〉 NZAP 2015–19 전략 계획 ····· 179
〈표 66〉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국제개발국 인력 현황 ····· 181
〈표 67〉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 181
〈표 68〉 노르웨이 2018년 ODA 예산항목 ····· 185
〈표 69〉 Norad 2016년 전략 ····· 190
〈표 70〉 노르웨이 Norad 주요사업 개관 ····· 192
〈표 71〉 폴란드 2016 개발협력 예산 현황 ····· 196
〈표 72〉 폴란드 외교부 Polish aid 2016–2020 우선순위 분야 ····· 201
〈표 73〉 폴란드 외교부 개발협력부서 세부 과 및 해당인력 ····· 203
〈표 74〉 폴란드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 204
〈표 75〉 2014 포르투갈 ODA 주요 예산 배분 ····· 207
〈표 76〉 Camões, IP 주요 역할 및 핵심 가치 ····· 211
〈표 77〉 Camões, IP 본부 인력 현황 ····· 212
〈표 78〉 EPE 프레임워크 해외 인력 네트워크 ····· 213
〈표 79〉 포르투갈 Camões, IP 주요사업 개관 ····· 214
〈표 80〉 2014년 슬로바키아 부처별 ODA 예산 배분 ····· 217
〈표 81〉 슬로바키아 개발협력(SlovakAid)의 목표 및 주요 수단 ····· 221
〈표 82〉 슬로바키아 국제개발협력 인력 현황 ····· 222
〈표 83〉 슬로바키아 SAIDC 주요 사업 개관 ····· 223
〈표 84〉 슬로베니아 개발협력의 분야별·지역별 우선순위 ····· 229
〈표 85〉 슬로베니아 국제개발협력 인력 및 프로젝트 현황 ····· 230
〈표 86〉 슬로베니아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 231
〈표 87〉 스페인 ODA 예산항목 ····· 234
〈표 88〉 AECID 전략 ····· 239
〈표 89〉 AECID, SGCID 인력변화 ····· 241
〈표 90〉 스페인 AECID 주요 사업 개관 ····· 242
〈표 91〉 2018년 스웨덴 ODA 예산항목 ····· 246
〈표 92〉 스웨덴 개발협력 전략문서 내 Sida의 역할 및 전략 ····· 251
〈표 93〉 Sida의 스웨덴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및 주요사업 개관 ····· 253
〈표 94〉 2016년 스위스 ODA 예산 배분 ····· 257
〈표 95〉 2017–2020 스위스 국제협력 중기전략 ····· 261

〈표 96〉 스위스 SDC 주요사업 개관 ····· 264
〈표 97〉 2017년 영국 ODA 예산항목 ····· 268
〈표 98〉 DFID–재무부 새로운 원조전략 ····· 273
〈표 99〉 영국 국제개발협력 인력현황 ····· 274
〈표 100〉 영국 DFID 주요 사업 개관 ····· 275
〈표 101〉 미국 개발협력 예산항목 ····· 279
〈표 102〉 USAID 2014–2017 전략(JSP) ····· 284
〈표 103〉 USAID 인력현황 ····· 285
〈표 104〉 미국 USAID 사업 개관 ····· 287
〈표 105〉 2008년–2017년 전체공여국 및 DAC 회원국의 ODA 현황 ····· 296
〈표 106〉 OECD DAC 회원국의 유·무상 원조 현황 ····· 297
〈표 107〉 한국 원조 연도별 지원현황 ····· 308

그림 목차

〈그림 1〉 호주 2000–2017년 원조규모 ····· 4
〈그림 2〉 호주 외교통상부 의회승인절차 ····· 6
〈그림 3〉 호주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7
〈그림 4〉 호주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7
〈그림 5〉 호주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8
〈그림 6〉 호주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9
〈그림 7〉 오스트리아 2000–2017년 원조규모 ····· 15
〈그림 8〉 오스트리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8
〈그림 9〉 오스트리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8
〈그림 10〉 오스트리아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9
〈그림 11〉 오스트리아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9
〈그림 12〉 벨기에 2000–2017년 원조규모 ····· 24
〈그림 13〉 벨기에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6
〈그림 14〉 벨기에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7
〈그림 15〉 벨기에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7
〈그림 16〉 벨기에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8
〈그림 17〉 캐나다 2000–2017년 원조규모 ····· 35
〈그림 18〉 캐나다 GAC 의회승인절차 ····· 37
〈그림 19〉 캐나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38
〈그림 20〉 캐나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39
〈그림 21〉 캐나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39
〈그림 22〉 캐나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40
〈그림 23〉 체코 2000–2017년 원조규모 ····· 46
〈그림 24〉 체코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48
〈그림 25〉 체코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49
〈그림 26〉 체코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49
〈그림 27〉 체코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50
〈그림 28〉 덴마크 2000–2017년 원조규모 ····· 55
〈그림 29〉 덴마크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58

〈그림 30〉 덴마크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58
〈그림 31〉 덴마크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59
〈그림 32〉 덴마크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60
〈그림 33〉 핀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 65
〈그림 34〉 핀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67
〈그림 35〉 핀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68
〈그림 36〉 핀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68
〈그림 37〉 핀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69
〈그림 38〉 프랑스 2000–2017년 원조규모 ····· 75
〈그림 39〉 프랑스 AFD 예산 의회승인절차 ····· 78
〈그림 40〉 프랑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79
〈그림 41〉 프랑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79
〈그림 42〉 프랑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80
〈그림 43〉 프랑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80
〈그림 44〉 독일 2000–2017년 원조규모 ····· 86
〈그림 45〉 독일 의회승인절차 ····· 88
〈그림 46〉 독일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89
〈그림 47〉 독일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90
〈그림 48〉 독일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90
〈그림 49〉 독일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91
〈그림 50〉 그리스 2000–2017년 원조규모 ····· 96
〈그림 51〉 그리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98
〈그림 52〉 그리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98
〈그림 53〉 그리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99
〈그림 54〉 그리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99
〈그림 55〉 헝가리 2003–2017년 원조규모 ····· 104
〈그림 56〉 헝가리 양자 및 다자원조 비율 ····· 105
〈그림 57〉 헝가리 2015년 양자원조 지출 구성 ····· 106
〈그림 58〉 헝가리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06
〈그림 59〉 헝가리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07
〈그림 60〉 헝가리 2014–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07
〈그림 61〉 헝가리 2014–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08
〈그림 62〉 아이슬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 112

〈그림 63〉 아이슬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15
〈그림 64〉 아이슬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16
〈그림 65〉 아이슬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16
〈그림 66〉 아이슬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17
〈그림 67〉 아일랜드 2000–2017년 원조규모 ····· 123
〈그림 68〉 아일랜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26
〈그림 69〉 아일랜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26
〈그림 70〉 아일랜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27
〈그림 71〉 아일랜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27
〈그림 72〉 이탈리아 2000–2017년 원조규모 ····· 133
〈그림 73〉 이탈리아 AICS 의회승인절차 ····· 135
〈그림 74〉 이탈리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36
〈그림 75〉 이탈리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37
〈그림 76〉 이탈리아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37
〈그림 77〉 이탈리아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38
〈그림 78〉 일본 2000–2017년 원조규모 ····· 143
〈그림 79〉 일본 ODA 예산 의회승인절차 ····· 145
〈그림 80〉 일본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46
〈그림 81〉 일본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46
〈그림 82〉 일본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47
〈그림 83〉 일본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48
〈그림 84〉 룩셈부르크 2000–2017년 원조규모 ····· 152
〈그림 85〉 룩셈부르크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55
〈그림 86〉 룩셈부르크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56
〈그림 87〉 룩셈부르크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56
〈그림 88〉 룩셈부르크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57
〈그림 89〉 네덜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 162
〈그림 90〉 네덜란드 ODA 예산 의회승인절차 ····· 165
〈그림 91〉 네덜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66
〈그림 92〉 네덜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67
〈그림 93〉 네덜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67
〈그림 94〉 네덜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68
〈그림 95〉 뉴질랜드 2000–2017년 원조규모 ····· 174

〈그림 96〉 뉴질랜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76
〈그림 97〉 뉴질랜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77
〈그림 98〉 뉴질랜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77
〈그림 99〉 뉴질랜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78
〈그림 100〉 노르웨이 2000–2017년 원조규모 ····· 183
〈그림 101〉 노르웨이 원조예산 의회승인절차 ····· 186
〈그림 102〉 노르웨이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87
〈그림 103〉 노르웨이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88
〈그림 104〉 노르웨이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89
〈그림 105〉 노르웨이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189
〈그림 106〉 폴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 194
〈그림 107〉 폴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197
〈그림 108〉 폴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198
〈그림 109〉 폴란드 2000–2017년 다자기구 지원규모 ····· 199
〈그림 110〉 폴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199
〈그림 111〉 폴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00
〈그림 112〉 포르투갈 2000–2017년 원조규모 ····· 206
〈그림 113〉 포르투갈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08
〈그림 114〉 포르투갈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09
〈그림 115〉 포르투갈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09
〈그림 116〉 포르투갈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10
〈그림 117〉 슬로바키아 2000–2017년 원조규모 ····· 216
〈그림 118〉 슬로바키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18
〈그림 119〉 슬로바키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19
〈그림 120〉 슬로바키아 2013–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19
〈그림 121〉 슬로바키아 2013–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20
〈그림 122〉 슬로베니아 2005–2017년 원조규모 ····· 225
〈그림 123〉 슬로베니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26
〈그림 124〉 슬로베니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27
〈그림 125〉 슬로베니아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27
〈그림 126〉 슬로베니아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28
〈그림 127〉 스페인 2000–2017년 원조규모 ····· 233
〈그림 128〉 스페인 ODA 예산 의회승인절차 ····· 235

〈그림 129〉 스페인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36
〈그림 130〉 스페인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37
〈그림 131〉 스페인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37
〈그림 132〉 스페인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38
〈그림 133〉 스웨덴 2000–2017년 원조규모 ····· 244
〈그림 134〉 스웨덴 의회승인절차 ····· 247
〈그림 135〉 스웨덴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48
〈그림 136〉 스웨덴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48
〈그림 137〉 스웨덴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49
〈그림 138〉 스웨덴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49
〈그림 139〉 스위스 2000–2017년 원조규모 ····· 255
〈그림 140〉 스위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58
〈그림 141〉 스위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59
〈그림 142〉 스위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59
〈그림 143〉 스위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60
〈그림 144〉 SDC 및 SECO 부문별 인력 현황 ····· 263
〈그림 145〉 영국 2000–2017년 원조규모 ····· 266
〈그림 146〉 영국 DFID 예산 의회승인절차 ····· 269
〈그림 147〉 영국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70
〈그림 148〉 영국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71
〈그림 149〉 영국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71
〈그림 150〉 영국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72
〈그림 151〉 영국 국제개발협력 인력 구성비 ····· 274
〈그림 152〉 미국 2000–2017년 원조규모 ····· 277
〈그림 153〉 미국 USAID 예산 의회승인절차 ····· 280
〈그림 154〉 미국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281
〈그림 155〉 미국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282
〈그림 156〉 미국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282
〈그림 157〉 미국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283
〈그림 158〉 2016년 DAC 회원국 총 ODA 규모 ····· 295
〈그림 159〉 2016년 DAC 회원국 ODA/GNI 비율 ····· 295
〈그림 160〉 2008년–2017년 전체 공여국에서 DAC 회원국이 차지하는 ODA 비중 ····· 296
〈그림 161〉 2016년 OECD DAC 국가별 유·무상원조 비중(%) ····· 297

〈그림 162〉 2016년 DAC 회원국 원조규모 상위 15개국의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 298
〈그림 163〉 2016년 DAC 회원국 원조규모 하위 14개국의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 299
〈그림 164〉 2016년 OECD DAC 국가별 비구속성 원조 비중(%) ····· 300
〈그림 165〉 2016년 DAC 회원국 분야별 지원 현황 ····· 301
〈그림 166〉 2016년 OECD DAC 국가별 양자원조 대비 행정비 비중(%) ····· 302
〈그림 167〉 2012–2016년 DAC 회원국의 지역별 지원 현황 ····· 303
〈그림 168〉 DAC 회원국의 2016년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 304
〈그림 169〉 2016년 한국 양자 및 다자원조 비중 ····· 308
〈그림 170〉 2016년 한국 유·무상원조 비중 ····· 308
〈그림 171〉 한국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 309
〈그림 172〉 한국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 309
〈그림 173〉 한국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 310
〈그림 174〉 한국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311

Ⅰ. 서론

1. 한국 개발협력 정책방향

가. 한국의 ODA[1] 지원현황

□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도에 총 2,320백만달러의 ODA를 제공함.

○ 양자원조 1,622백만달러(69.9%),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698백만달러(30.1%)

○ 양자 원조 중 무상 원조가 958백만달러(60.7%), 유상원조가 637백만달러(39.3%)를 각각 기록

□ 한국의 ODA는 지난 시간동안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6년도 ODA/GNI 비율은 0.16%[2]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나.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방향

□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방향)** 한국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개발 관련 범지구적 과제 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임.

○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ODA 선진화 방안」을 채택, 2015년에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수립함.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0%로 높일 계획이며, ODA 시스템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함.

2) ODA/GNI 비율 = 총ODA(순지출기준) / 명목국민총소득(GNI) × 100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선진공여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KOICA는 최신 국제원조 동향 및 규범, 주요 원조공여국의 개발전략 및 정책 동향, 사업 추진 방식 및 모범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 방식 개선에 활용하여 오고 있음.

□ 급변하는 최근 동향 파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최신 전략, 조직체계, 예산, 인력, 핵심 사업 및 신사업 추진 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체계적이고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KOICA는 개발협력 지식 플랫폼으로서,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ODA 산업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선진공여국의 주요 정책, 실시 체계, 사업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형화하여 주기적인 발간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3. 주요 공여국 원조 현황 분석 목적

□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정책 및 사업수행체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조사·분석함.

○ **(공여국 정보의 접근성)** OECD DAC에 가입되어 있는 총 30개국의 공여국 중 한국과 유럽연합을 제외한 28개국에 대한 집약적인 정보의 접근이 가능함.

○ **(최신정보의 제공)** 선진공여국의 주요 전략 및 정책동향, 신사업추진 동향, 원조실시체계, 주요 핵심사업 동향 등 파악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동향 및 참고자료로 활용

4. 주요 공여국 분석 개요

□ **(조사분석 대상)** OECD DAC에 가입되어 있는 총 30개국의 공여국 중 한국과 유럽연합을 제외한 28개국에 대하여 조사함.

□ **(연구주요내용)** 본 연구에서 28개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원조개요 및 산하 원조기관들의 정책 및 사업수행체계를 살펴 봄.

- 전략 및 목표·조직체계·인력[3]·예산·의회승인절차·주요사업 정리
- 각 기관의 정책일관성 측면 정리
- 공여국의 자원배분[4] 형태 및 실행방법
- 성과관계체계 및 수행방법

○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원조실시체계 및 관련통계, DAC 회원국 관련 통계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작성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선진공여국의 원조체계 및 사업수행에 대한 조사·연구는 수행된 바 있었으나, OECD DAC의 모든 국가가 아닌 주요 공여국에 대한 정보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음. 이에 OECD DAC 모든 국가의 원조체계 및 사업 동향을 정리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일부 국가에서 인력규모(명)가 소수점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기한 것임.

4) 각 공여국의 원조액(총 원조규모, 분야별 및 지역별 원조현황 등)은 OECD 통계사이트(http://stats.oced.org/)의 순지출액(Net Disbursement)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순지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을 사용함.

Ⅱ. 주요 공여국 현황 및 전략

1. 호주(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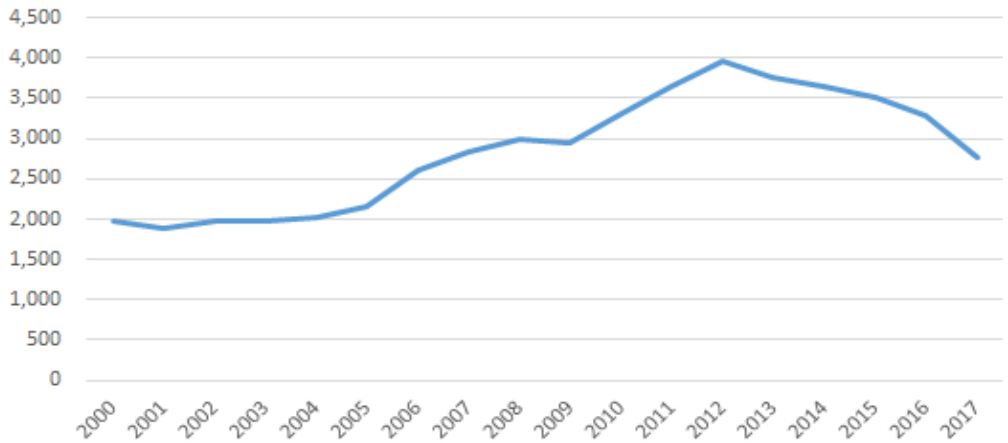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인도-태평양 지역에 원조를 집중하며 국익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함.

○ **(현황)** 2000년 이후 호주의 원조 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해오다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17년 기준 ODA 총액 2,761백만달러, ODA/GNI 비율 0.30% 기록

〈그림 1〉 호주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1995년 호주 해외원조 전담기구로 AusAid가 설립되었으나 2013년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산하 프로그램으로 통합됨.

○ **(핵심문서)** "2017-18 예산포트폴리오(The Australian Government Foreign Affairs and Trade portfolio)"및 "2017 외교정책백서(Foreign Policy White Paper)"에서 원조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국익 증진에 있음을 명시

○ **(정책일관성)** 외교통상부에서 총 ODA 중 약 94%를 집행하며, 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나머지 6%를 집행함. 2018년 호주 OECD DAC 동료검토에 따르면 AusAid의 외교통상부 통합 후 호주 원조의 정책일관성이 제고됨.

□ **(예산)** ODA 예산은 크게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과 글로벌 프로그램 예산으로 구성

○ 각 프로그램 예산의 주요 항목별 예산 금액 및 비중은 아래와 같음.

⇒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백만달러, %): 태평양(678, 41%), 동아시아(492, 30%), 범지역(253, 15%), 서남아프리카(164, 10%), 양성평등기금(41, 2%), 아프리카·중동(39, 2%)

⇒ 글로벌 프로그램(백만달러, %): 인도주의·긴급구호·난민지원(297, 32%), 다자협력 현금지원(291, 31%), UN·연연방 및 국제기구(206, 22%), NGO·자원봉사 및 지역단체 프로그램(136, 15%)

○ 2017-2018년 호주 정부 ODA예산 29억 달러 중 94%를 외교통상부에서 총괄하며 그 외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 호주연방경찰, 재무부, 이민국 등 기타 부서에서 소규모로 관할

〈표 1〉 호주 외교통상부 2017-2018년 원조 예산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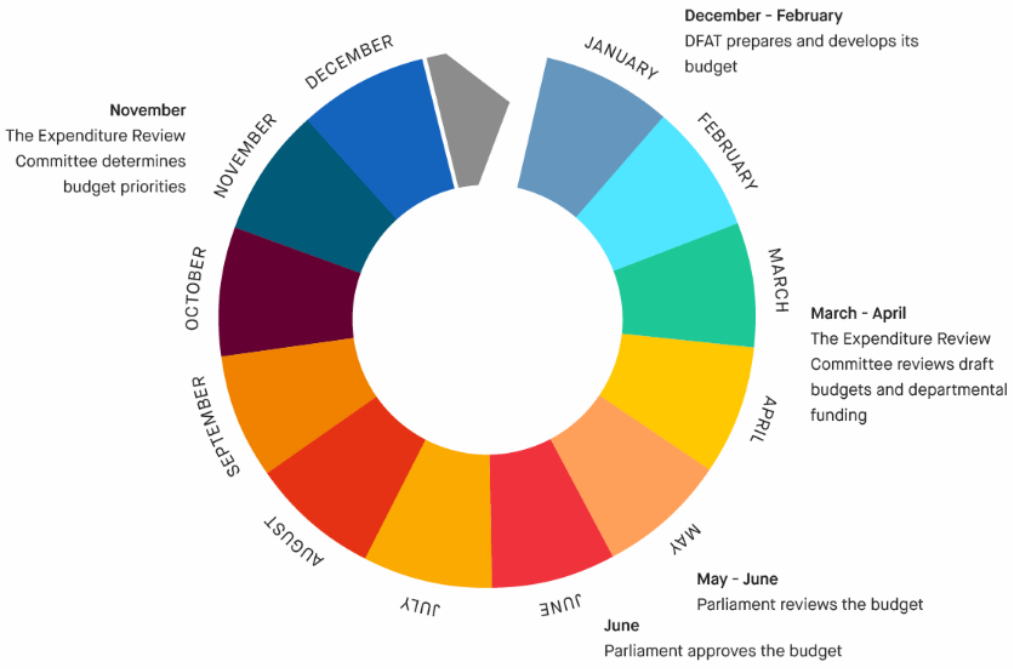
ODA 예산 항목 2017-2018	백만, 호주달러	백만, 달러
외교통상부 -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2,243	1,667
태평양	912	678
동아시아	662	492
범 지역 프로그램	341	253
서남 아프리카	221	164
아프리카·중동	52	39
양성 평등 기금	55	41
외교통상부 - 글로벌 프로그램	1,252	930
다자협력 현금 지원	391	291
인도주의적 지원, 긴급구호, 난민 지원	400	297
UN, 영연방 및 국제기구	277	206
UN 산하기관	68	51
국제 보건 프로그램 분담	135	100
기타 다자협력기구	74	55
NGO, 자원봉사 및 지역단체 프로그램	183	136
외교통상부 - 부서	249	185
기타 부서	237	176
조정	-68	-51
전체	3,912	2,909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australia) (접속일:2018.04.05.)

□ **(의회승인절차)** 10-12월에 새로운 이니셔티브 논의에 착수하여 의회 승인까지 약 7-8개월 소요

○ **(의회승인 처리과정)** 의회승인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성: 1) 총리, 재무부 및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지출검토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에서 예산 우선순위 결정; 2)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안 준비; 3) 지출검토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부서별 자금 조달 검토; 4) 의회 예산 검토; 5) 의회 예산 승인

〈그림 2〉 호주 외교통상부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australia) (접속일: 2018.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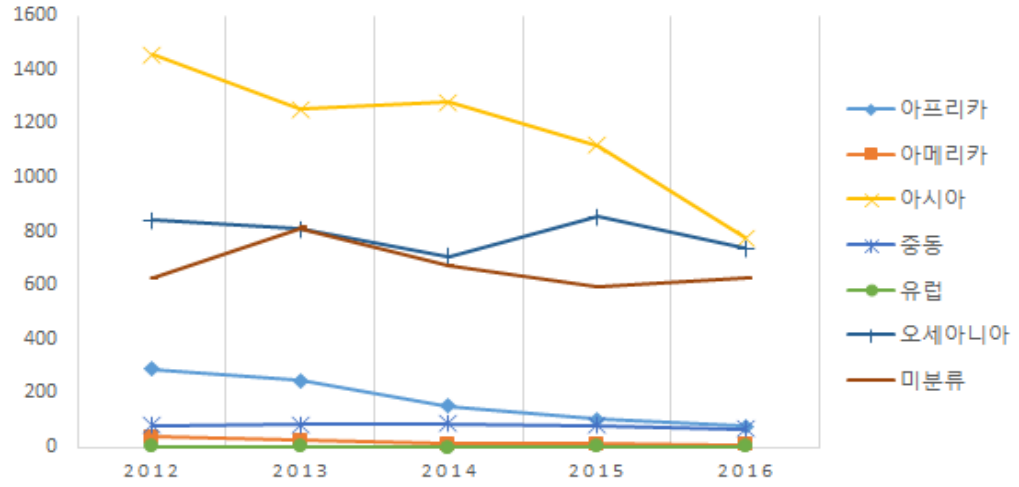
□ **(지역배분)** 호주 원조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

○ 2012-2016년 지역별 양자원조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가 5,876백만달러로 약 40.5%를 차지하나 최근 급감하는 추세이며, 두 번째는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3,945백만달러(약 27.2%)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시아(5,876, 40.5%), 오세아니아(3,945, 27.2%), 미분류(3,324, 22.9%), 아프리카(866, 6.0%), 중동(396, 2.7%), 아메리카(94, 0.7%), 유럽(5, 0.0%)

〈그림 3〉 호주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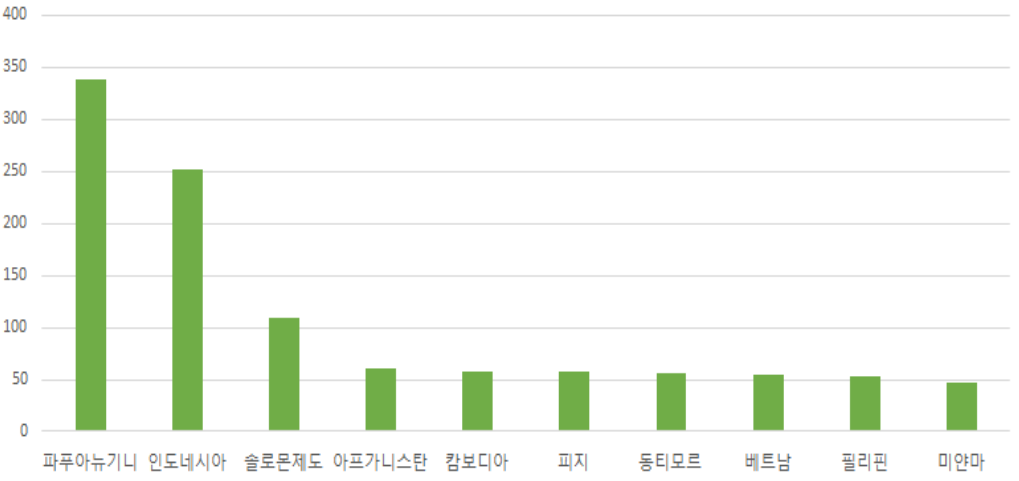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지원이 339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상위 10개국 중 대다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밀집

〈그림 4〉 호주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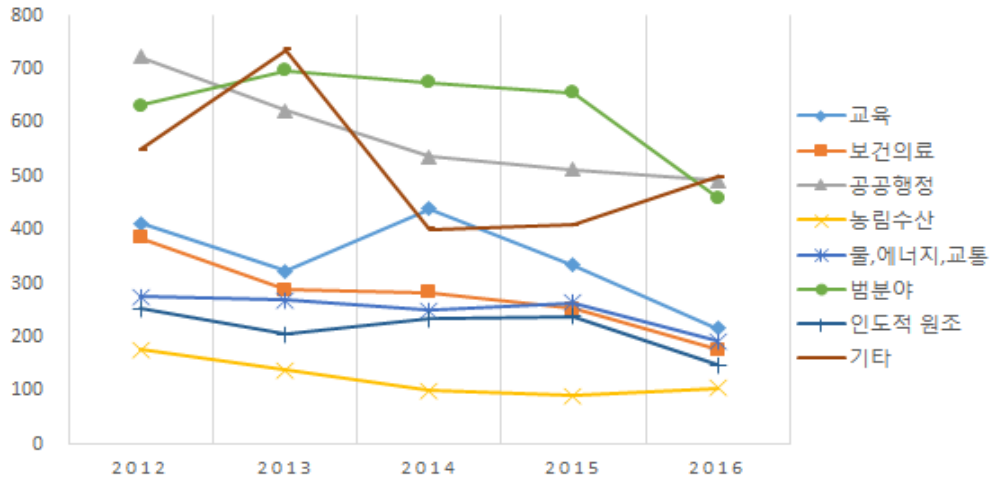
□ **(분야배분)** 범분야 및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

○ 2012-2016년간 범분야 및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인 원조 규모에서 하락세가 지속됨.

⇒ 기타 분야는 주로 공여국 행정비(1,096백만달러) 및 공여국 내 난민지원(379백만달러)으로 구성되며 2012-2014년간 급증 및 급락 추세는 공여국 내 난민지원 규모의 등락에 기인함.

〈그림 5〉 호주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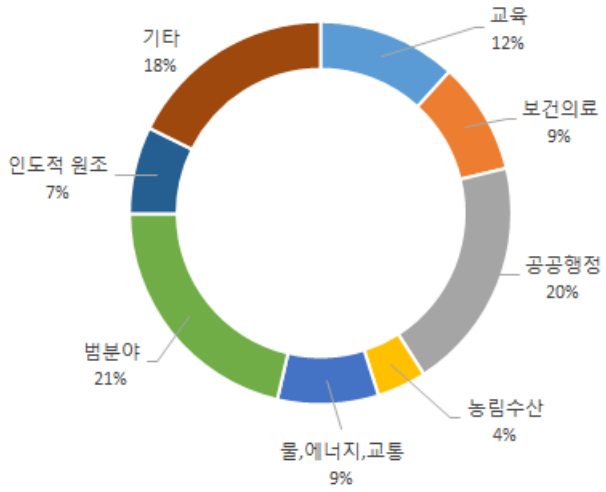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5.12.)

○ 2012-2016년간 호주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4,673백만달러로 그 중 범분야의 비중이 21.3%, 공공행정 분야의 비중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범분야(3,125, 21.3%), 공공행정(2,889, 19.7%), 기타(2,595, 17.7%), 교육(1,727, 11.8%), 보건의료(1,389, 9.5%), 물·에너지·교통(1,254, 8.5%), 인도적 원조(1,081, 7.4%), 농림수산(614, 4.2%)

〈그림 6〉 호주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5.12.)

나.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전략 및 목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국익 증진에 궁극적 목표를 둠.

○ 2017년 11월 발표한 외교정책백서에서 호주 외교통상부는 '국익 추구의 연장선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빈곤 해소와 경제 안정성 제고' 를 개발정책의 우선순위로 강조

○ 호주 정부 원조프로그램 정책문서[5]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2020년까지 ODA 총액의 20%를 무역 제한요소 완화에 지원할 예정이며, 원조 사업활동의 80%를 젠더이슈 해결과 연계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설정

5) DFAT. (2014).

〈표 2〉 호주 외교통상부 원조 프로그램 우선과제별 전략

우선과제	전략
1. 인프라 및 무역	• 교통, 에너지, 물·위생, ICT 인프라 투자 • 무역 및 투자 정책 지원 • 국제교역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활성화 • 민간 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지식 및 기술 개발
2. 농수산 및 수자원	• 국가 경제 산출량 증대 • 빈곤층 소득 증대 • 식량, 영양, 수자원 안보 개선
3. 효과적 거버넌스	• 부산효과적개발협력파트너십,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글로벌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발 거버넌스 및 효과성 제고
4. 교육 및 보건	• 교사 훈련 지원, 커리큘럼 및 교육평가 개선 • 여아 및 장애아동 교육 지원 •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훈련 및 개발 • 분쟁피해지역 교육접근성 제고 및 빈곤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 •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혁신적 접근법 및 연구 투자 • 교육정책 관리 및 책무성 강화 • 공공보건시스템 역량 강화 • 국경지역 보건 위험요소 제거 •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및 영양 접근성 제고
5. 회복력 구축	• 호주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인도-태평양 지역 재난 대응 • 국제 인도주의 체제에 대한 대응 개선 • 호주 NGOs 및 국제 인도주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업 • 기후변화 취약지역의 회복력 구축 • 호주민간봉사단(Australian Civilian Corps)을 통한 인접지역 분쟁 안정화 및 재난 복구 지원 • 국가사회보호시스템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수원국 정부와 협업
6. 젠더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 인권 보호 및 활동 지원 • 책무성 강화 • 민주주의 체계, 시민사회 지원, 대중매체 독립 등 거버넌스 제도 지원

자료: DFAT(2014) 및 DFAT 홈페이지(http://dfat.gov.au/aid/Pages/australias-aid-program.aspx) (접속일: 2018.06.20.)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조직체계)** 외교통상부 국제개발협력국 주관 및 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외교통상부 장관 아래 3실(branch) 5국(group) 체제로 구성은 아래와 같음.[6)]

⇒ 3실: 1) 이사실; 2) 전략정책실; 3) 내부감사실

⇒ 5국: 1) 서비스전달국; 2) 무역·투자·기업연계국; 3) 인도-태평양국; 4) 국제안보·인도주의 지원국; 5) 국제개발협력국

○ 외교통상부 산하 원조 관련 기관 외에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등과 농업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체계 구축

□ **(인력)** 해외 파견인력이 국내 근무인력을 상회

○ 2017년 6월 기준 호주 국내인력 2,960명, 해외인력 3,316명 고용

○ 해외인력은 현지고용(Locally Engaged Staff overseas, LES)인력 2,419명과 해외파견 정규인력(Australian Public Service staff, APS) 897명으로 구성

⇒ 지역별 정규인력 파견 비중: 아시아 44%,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18%, 중동 및 아프리카 13%, 유럽 11%, 아메리카 9%, 다자협력기구 5%

6) 자세한 사항은 호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dfat.gov.au/about-us/our-people/Pages/organisation-structure.aspx) 참조

〈표 3〉 호주 외교통상부 국내외 인력현황

(2017년 6월 기준, 단위: 명)

지역	정규인력(APS)				현지 고용 인력(LES)		
	여성	남성	성별구분 없음	APS 합계	여성	남성	LES 합계
캔버라 전체	1,543	1,097	3	2,643			
해외인력 전체*	463	434		897	1,330	1,089	2,419
아시아	202	194		396	651	552	1,203
남아시아	36	43		79	88	152	240
동남아시아	125	96		221	391	328	719
북아시아	41	55		96	172	72	244
아메리카	36	42		78	106	80	186
유럽	51	50		101	153	122	275
뉴질랜드 및 남태평양	89	70		159	238	170	408
중동 및 아프리카	60	60		120	142	144	286
다자협력기구(UN, WTO, OECD 등)	25	18		43	40	21	61
국내 및 연방 영토 전체**	232	85		317			
뉴사우스웨일즈	55	15		70			
중북부 연방 지역	7	4		11			
퀸즈랜드	41	12		53			
남부 호주	14	6		20			
태즈메이니아	11	8		19			
빅토리아	75	30		105			
서부 호주	29	10		39			
합계	2,238	1,616	3	3,857	1,330	1,089	2,419
전체 인력	6,276						

* 현지 언어훈련, 단기과제, 교류인력 포함

** 국내 여권사무소 포함

자료: DFAT(2017)

□ **(주요사업)** 보건 분야 R&D 및 성평등 분야 사업에 주력

○ 2017년 외교정책백서에서 보건 및 긴급구호 연구개발(R&D)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호주 정부는 외교통상부 예산과 별도로 동 분야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 공표[7)]

○ 2017-2018년도에 새롭게 개편된 사업성과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호주 ODA 투자의 80%가 성평등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에 사용되도록 의무화됨.

7) Donor Tracker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australia) (접속일: 2018.05.03.)

○ 호주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4〉 호주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호주 국익증진을 위한 국제 실향 대책*	아시아-태평양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도자 동맹**	여성 주도의 태평양 개발***
배경	• 단기성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설계된 인도주의 지원 체계가 최근 전례 없는 규모의 장기간 국제 난민 및 실향민 이슈에 대응하지 못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말라리아 피해가 막대하고 약물내성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베트남-호주 총리 간 동맹 체결	•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들의 고용 및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비전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원조 개선을 통해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 지원	•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여성 역량강화 및 젠더평등 증진
전략 목표	• 실향민 및 난민수용지역(host community)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적 접근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발생률 2010년 대비 75%로 감소	•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 여성들의 정치·경제·사회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장기적 지원(10년간 3억 2천만 호주 달러)
중점 추진 분야	• 레바논,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과 난민수용지역에 양질의 교육 및 일자리 제공 • 아이리스 스캐닝(iris scanning) 및 e바우처 등 혁신 기술을 통한 UNHCR 현금기반원조 지원	•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보건기구(WHO) 지원	• 여성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 •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 여성 대상 폭력 종식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 Finding Solutions to Global Displacement to Advance Australia's Interest
** Asia-Pacific Leaders Malaria Alliance, APLMA
*** Pacific Women Shaping Pacific Development
자료: DFAT(2017), DFAT(2014)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Australian government. 2017. “2017 Foreign Policy White Paper” available at https://www.fpwhitepaper.gov.au/ (접속일: 2017.05.03.).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The Australian Government Foreign Affairs and Trade portfolio.”

DFAT. 2014.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Canberr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2017.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nual Report 2016-17.” Canberr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DFAT) 홈페이지: http://dfat.gov.au/aid/Pages/australias-aid-program.aspx (접속일: 2017.03.22.).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australia (접속일: 2018.03.22.).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4.05.).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4.05.).

2. 오스트리아(Aust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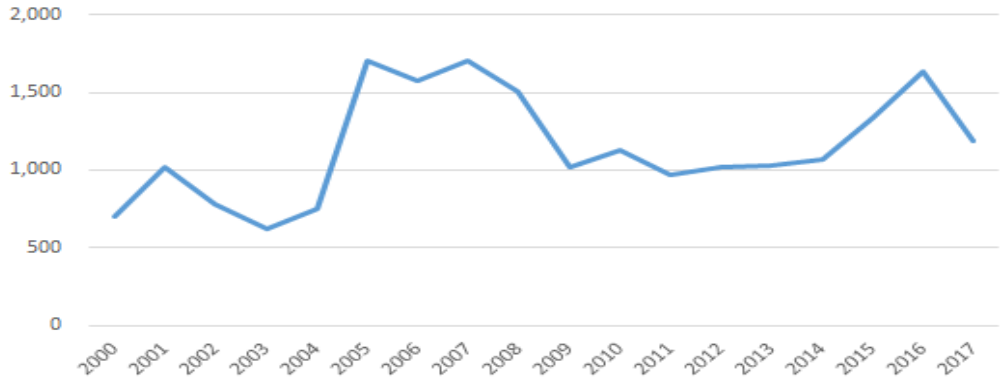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전통적으로 부채탕감액 비율이 압도적이나 최근 공여국 내 난민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

○ **(현황)** 2000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원조규모는 증감을 반복해오고 있으며[8], 2017년 기준 ODA 총액 1,188백만달러, ODA/GNI 비율 0.30% 기록

〈그림 7〉 오스트리아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개발협력연방법(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개발협력법)에 명시된 목표 및 업무를 기반으로 2004년 오스트리아개발협력청(Austria Development Agency, 이하 개발협력청)이 설립됨.

○ 2002년에 채택, 2003년에 수정된 개발협력법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과 개발 장애요소 방지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개발정책은 동 법안에 명시된 아래의 3개 목표에 준거하여 수립됨.

---

8) 오스트리아의 ODA 규모에서 부채탕감액 지원은 상당한 비중을 보이며 총 ODA 규모는 동 지원액의 등락에 따라 2005년 급증하였다 2009년 급락하는 양상을 보임(OECD Stats 데이터, 접속일: 2018.03.28.). 오스트리아 ODA에서 부채탕감액은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구속성 원조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동 비율이 2010년 95%에서 2015년 36%로 대폭 감소하며 DAC 회원국 평균 78%에 크게 하회함에 따라, 2015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바 있음.

⇒ 1)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 2) 민주주의·법치·인권·굿 거버넌스 증진을 통한 평화 및 인간안보 확보; 3)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 보존 및 천연자원 보호

○ **(핵심문서)** 연방유럽통합외무부(Federal Ministry for Europe, Integration and Foreign Affairs, 이하 외무부)는 "2016-2018년도 3개년 개발협력정책사업(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2016-2018)"에서 개발정책을 세계화 시대의 자유와 안보를 위한 투자로 보고, 전사회적·범정부적 과제로 천명하며, 아래 5개 개발목표를 제시함.

⇒ 1) 빈곤 완화 기여, 평화 및 인간안보 보장,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촉진, 환경 보호 등 개발협력법에 명시된 정책 목표에 부응; 2) 세계 빈곤 지역의 인권, 자유, 자기결정권 신장;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협력국의 목표에 부응; 4) 특정 부문에서 오스트리아의 노하우, 역량, 경험 공유; 5) 보건, 환경, 기후 시스템 등 글로벌 공공재 보호

○ **(분절화)** 2016년 ODA 재원을 보면 타 연방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다수의 자금을 분담하고[9], 개발협력청 분담 비율은 약 6%에 그침.

□ **(예산)** 양자 및 다자 ODA 예산별로 기관에 따라 예산항목 구성

○ 개발협력청 ODA 예산은 2018년 기준 85백만유로로, 총 양자 원조액의 약 9%에 그치며, 그 외 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방정부 등에서 주요 예산 관할

⇒ 2018년 기관별 양자원조 예산 관할 비중: 연방정부(무상원조) 86%, 개발협력청 9%, 지방정부 5%

⇒ 외무부는 2021년까지 개발협력청 원조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발표[10]

○ **(원조예산 수립과정)**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협력청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구상하며 연방재정법(Federal Finance Act)에 준거하여 집행

○ 오스트리아 및 EU 기업과의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PS4D(Private Sector for Development)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민간 부문을 원조 예산의 새로운 재원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정부는 4개년 국가예산 체계(framework)에 맞춰 다년간의 ODA 계획을 수립하는 등 ODA 예측가능성 제고에 힘쓰고 있음.

---

9) 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FMF)에서 약 42%, 내무부(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FMI)에서 약 22%, 지방정부(Provinces & municipalities)에서 약 15% 분담(FMEIFA, 2017: 41).

10) ADA. (2016).

〈표 5〉 오스트리아 ODA 예산항목

(단위: 백만유로)

예산항목	2017(안)	2018(안)
1. 양자 ODA	1,010	974
1.1 ADA 오스트리아개발협력(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ADC)	85	85
운영비	68	68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기금	8	8
ADA 행정비용	9	9
1.2 기타 공적 공여기관	925	889
1.2.1 연방정부 - 무상원조	869	841
양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FMEIFA, FMF, ADB)	45	45
구속성 기술원조	105	105
부채탕감	565	549
Grants for loan finance	35	35
인도주의적 원조	25	25
행정비용(FMEIFA, FMF)	17	17
망명신청자	72	60
기타 무상원조	5	5
1.2.2 지방정부	55	47
1.2.3 양자 차관 및 주식투자	1	1
2. 다자 ODA	490	492
2.1 UN산하기관	15	15
2.2 국제금융기구	221	221
2.3 기타 기관	5	5
2.4 EU	249	251
합계	1,500	1,466
ODA/GNI (%)	0.42%	0.40%

자료: FMEIFA(2016a)

□ **(지역배분)** 최근 아시아 원조액 하락 및 유럽 지역 지원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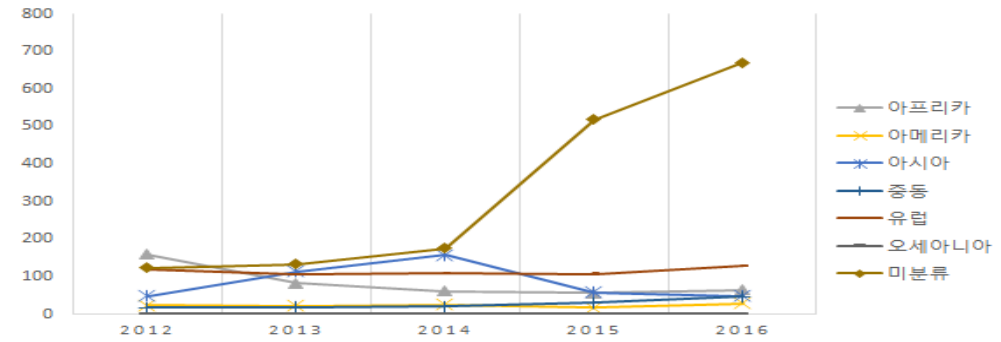
○ 지역별 양자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미분류액이 1,619백만달러로 약 49.1%를 차지하며, 특히 2014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두 번째는 유럽 지역으로 571백만달러(약 17.3%)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1,619, 49.1%), 유럽(571, 17.3%), 아시아(425, 12.9%), 아프리카(424, 12.9%), 중동(134, 4.1%), 아메리카(118, 3.6%), 오세아니아(3, 0.1%)

⇒ 2014년 이후 급증한 미분류 지원액의 주요 증가분은 공여국 내 난민지원액에서 나타남.

〈그림 8〉 오스트리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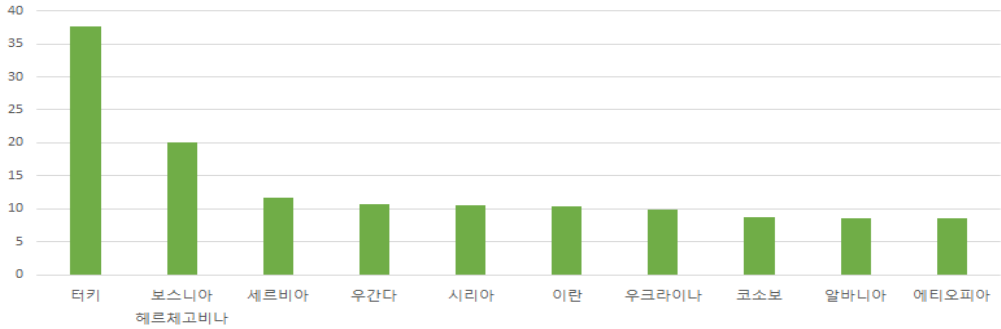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터키에 대한 지원이 38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등 분쟁 취약 지역과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동부 아프리카에 집중

〈그림 9〉 오스트리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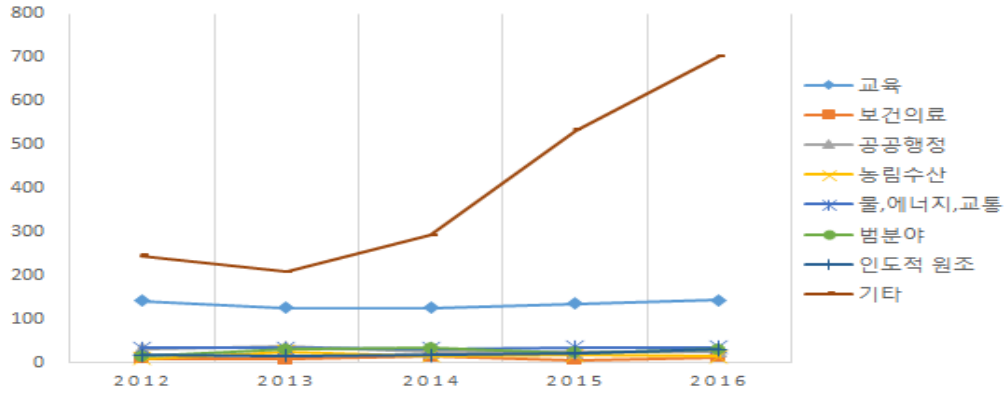
□ **(분야배분)** 교육 분야에 집중해왔으나 최근 공여국 내 난민지원액 급증

○ 분야별 양자 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1,983백만달러(5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두 번째는 교육 분야로 672백만달러(20.2%) 지원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1,983, 59.7%), 교육(672, 20.2%), 물·에너지·교통(168, 5.1%), 공공행정(139, 4.2%), 범분야(130, 3.9%), 인도적 원조(101, 3.0%), 농림수산(81, 2.4%), 보건의료(49, 1.5%)

〈그림 10〉 오스트리아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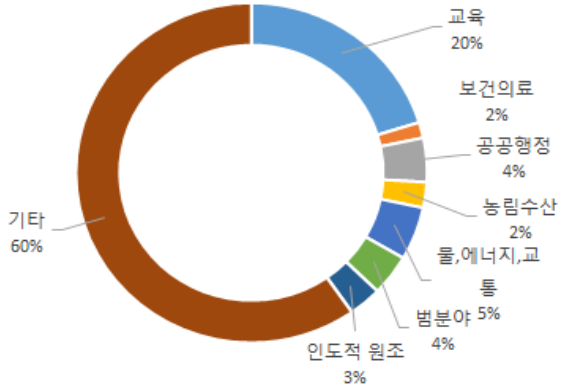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2012-2016년 오스트리아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3,323백만달러로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합계 기준 기타 분야는 주로 부채탕감액 196백만달러(10%) 및 공여국 내 난민 지원액 1,242백만달러(63%)으로 구성되며, 특히 2014년 이후 기타 분야 급증의 주요 증가분은 공여국 내 난민지원액에서 나타남[11]

〈그림 11〉 오스트리아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11) 오스트리아는 2016년 기준 공여국 내 난민지원액에서 DAC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함(OECD, 2017).

나. 오스트리아개발협력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 **(전략 및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를 주도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역량 센터로서의 위상 제고

○ "2014년 개발협력청 사업전략(ADA Business Strategy 2014)"에서 개발협력청 고유 가치로 1) 지속가능성 및 평등한 파트너십; 2) 공평성 및 결속; 3) 진실성, 투명성 및 책임감; 4) 신뢰, 존중 및 상호배려; 5) 성과, 헌신 및 개별 책임감(individual responsibility)을 명시함.

○ 상기 전략에 따르면 개발협력청은 아래 3개 주제별(theme) 전략 및 세부 목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 1) 효과적 협력; 2) 역량 강화; 3) 지식 증진 및 공유

〈표 6〉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 사업 전략

사업 전략	세부 목표
효과적 협력	• 오스트리아개발협력(ADC)의 절차적 방향성 및 계획, 우선국가 및 지역에 부합하도록 사업 시행 방안을 결정함. • 협력국 내에 사업 및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최대한 이용함. • 모든 사업 지역 및 프로젝트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측정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영 방침을 주류화하고 일관적으로 적용함. •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촉진하고 민간 협력 및 파트너십을 제고함. •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역량 강화	• 인정받는 역량 센터 및 타 공여국의 사업 이행 협력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체계적인 전문 역량 증진을 통해 연방기관으로서 인식 제고 •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수요기반 협력 • 비용 효율성, 기관역량 및 절차 개선 • 지역 조정 기구로서 해외사무소의 역할 강화
지식 증진 및 공유	• 국내 및 국제 플랫폼에서 지식 교환 및 개발정책 담화에 적극적 참여 •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에 대한 노력과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 • 협력국 및 오스트리아 국내에 ADC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ADA(2014)

□ **(조직체계)** 외무부 개발협력청이 개발협력 주관 부서이나 권한 및 영향력이 미비하며 오스트리아개발은행, 재무부 등 타부처 및 기관의 참여가 다대함.

○ 외무부 및 오스트리아개발은행(Austrian Development Bank) 외 재무부,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 국방·체육부 등 6개 연방 부처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체계를 구성함.

○ 외무부 산하 원조 집행기구인 개발협력청은 비엔나 본부 외 해외 사무소 11개로 구성

⇒ 개발협력청 본부 조직 체계: 전무이사 아래 4부서(프로그램·프로젝트국제지원, 시민사회자금지원, 재무·감사, 일반행정)로 구성

⇒ 개발협력청 해외사무소 설립 지역: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우간다 캄팔라,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코소보 프리슈티나, 알바니아 티라나, 몰도바 키시너우, 조지아 트빌리시, 부탄 팀부, 팔레스타인 라말라, 아르메니아 예레반, 모잠비크 마푸투

○ 개발협력법에 따르면 외무부에서 정책형성 및 조정 등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무부에서 타 정부 부처에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은 전무함.[12)]

□ **(인력)** 개발협력청 인력은 감소 추세이며 주요 감소분은 해외인력에서 나타남.

○ 2013년 기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관련 인력은 총 226명으로, 외무부 33명, 개발협력청 146명, 재무부 15명, 오스트리아개발은행 32명으로 구성

⇒ 개발협력청 인력은 2009년 162명에서 2013년 146명으로 감소하여 본부인력 83명과 해외인력 63명으로 구성. 2009년 대비 2013년 해외인력이 16%(12명) 감소함.

○ 2015년 오스트리아 OECD DAC 동료검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예산 제약으로 개발협력 인력관리 및 기술전문가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음.

〈표 7〉 오스트리아 개발협력 인력 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명)

기관	고용 형태(Type of staff)			2009	2013
외무부	전문가 및 외교관			21	22
	수습직원(trainees)			2	3
	보조원(support)			10	8
개발협력청	전문가	본부		87	83
		해외사무소	본부파견	23	16
			해외채용	52	45
		기타 파견직(other missions)		-	2
재무부	금융 전문가	본부직		10	10
		국제금융기관 파견*		6	5
오스트리아개발은행	전문가(금융, 법률, 리스크)			11	29
	보조원			2	3
합계				224	226

* re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자료: OECD(2015)

12) OECD. (2015).

□ **(주요사업)** 파트너 협력 사업으로 원조일치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함

○ 오스트리아 정부는 전통적으로 시민사회 및 기업, NGO 등 지역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원국 전략에 부합하는 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등, 2015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원조일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8〉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 주요사업 개관

	기업파트너십프로그램*	해외재난기금**	부르키나파소 청년층 고용·창업·전문능력 지원 사업***
배경	•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빈곤 경제성장의 유인으로써 효율적 민간 부문의 필요성	• 난민 문제, 자연재해, 식량안보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속출	• 분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말리와 접경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 5개 지역의 회복력, 평화 및 안정성 증대를 위해 공평한 경제적 기회의 확대가 요구됨.
비전	• 기업이익 및 수원국의 보편적 복지 달성	• 위기상황에 직접적인 대응 및 재건 지원	• 부르키나파소 지방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전문·창업 기술 지원
전략 목표	• 오스트리아 및 유럽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개발 가치를 가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간 2천만 유로 자금 지원	• 창업, 고용 및 소득창출 활동을 통한 지방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소득 증진 • 정부, 시민단체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및 회복력 강화
중점 추진 분야	• 오스트리아개발협력(ADC) 우선과제 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이라크, 레바논, 네팔, 시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재난 및 분쟁지역에서 식량안보 및 긴급구호 지원	•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에서 기업가정신 및 고용 증진을 위한 개발·고용기금**** 도입 • 기업 활동 및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소득창출 투자프로젝트 및 농촌 기업 지원 •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 개발

* 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
** Foreign Disaster Fund, FDF
*** Rehabilitation of Flood Protection Infrastructure – European Commission(EC) funds
**** Development and Employment Fund
자료: ADA 홈페이지(http://www.entwicklung.at/en/) (접속일: 2018.06.27.), FMEIFA(2017), ADA(2013)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ADA. 2013. “Guidelines for Business Partnerships” available at http://www.entwicklung.at/fileadmin/user_upload/Dokumente/Unternehmen/Englisch/Guidelines_for_Business_Partnerships.pdf (접속일: 2018.03.28.).

ADA. 2014. “Austria Development Agency Business Strategy 2014.”

ADA. 2016. “ADA’s unit for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s://www.enterprise-development.org/wp-content/uploads/Ada-Member-Update.pdf (접속일: 2018.03.28.).

FMEIFA. 2016a.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2016–2018.” Vienna: FMEIFA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MEIFA. 2016b. “ODA Report 2015.” Vienna: FMEIFA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MEIFA. 2017. “ODA Report 2016.” Vienna: FMEIFA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ment of Austria (GoA). 2003. “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2002), including its Amendment (2003).” Vienna: GoA available at www.entwicklung.at/uploads/ media/development_cooperation_law_01.pdf (접속일: 2018.03.28.).

OECD. 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Ireland 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peer-reviews/peer-review-austria.htm (접속일: 2018.03.28.).

OECD. 2017. “Austria Mid-term Review.”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peer-reviews/Mid-Term-Review-Austria-2017.pdf (접속일: 2018.03.28.).

ADA 홈페이지: http://www.entwicklung.at/en/ (접속일: 2018.03.28.).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3.2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3.28.).

3. 벨기에(Belg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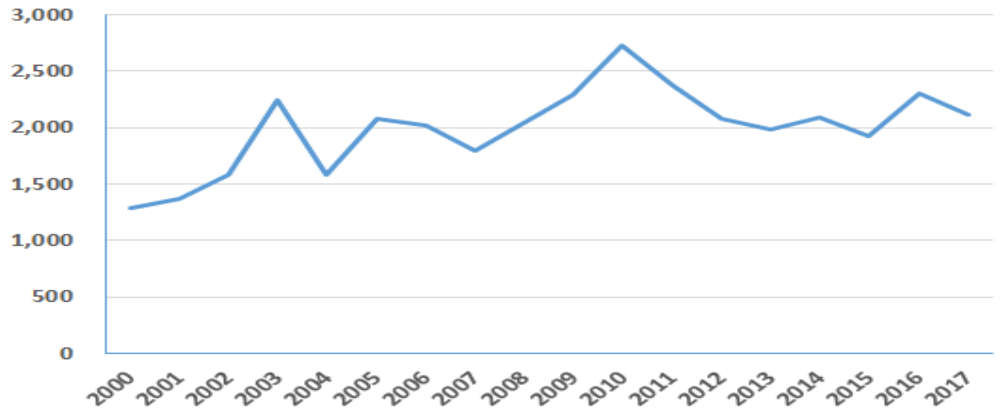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취약국과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중점으로 하며 2018년 1월 개발협력 수행기관 Enabel이 신설됨.

○ **(현황)** 2000년 이후 벨기에의 원조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나 2010년 최대 규모 기록 이후 다소 주춤한 형태로 2017년 원조규모 2,111백만달러, ODA/GNI 비율은 0.45% 기록

〈그림 12〉 벨기에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21.)

○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GNI대비 원조규모를 DAC 국가 평균이상으로 할당하였고, 2003년 0.6%의 최대 수준을 기록 후 꾸준히 0.4%를 상회해옴.[13]

○ **(핵심문서)**[14] 2016년 10월 벨기에의 공공분야, 민간분야,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국제개발을 위한 벨기에 SDG 헌장(Belgian SDG Char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서명함으로써 벨기에의 SDGs 달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13) OECD Data 홈페이지(https://data.oecd.org/oda/net-oda.htm#indicator-chart) (접속일: 2018.04.27.).
14) 벨기에 FPS 홈페이지(https://diplomatie.belgium.be/) (접속일: 2018.04.30.).

⇒ 국제개발을 위한 벨기에 SDG 헌장에서 밝히는 다섯 가지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건강; 2) 재생가능한 에너지; 3) 디지털화; 4) 농업과 영양; 5) 지속가능한 기업

* 본 헌장의 목표는 벨기에의 기업,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주체들, 공공부문이 상호 보완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의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SDGs를 달성하는 데에 있음.

□ **(예산)**[15] 2016년 벨기에의 ODA 예산액은 총 1,160백만유로가 집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1,106백만유로가 집행됨.

○ 2016년 기준 ODA 예산 중 다자원조에 대한 예산이 전체대비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7년 기준 다자원조 예산으로 약 346백만유로가 할당되어 31%의 비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민간부문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증가로, 2016년 4%에서 2017년 10%로 그 비중이 증가함.

〈표 9〉 2017 벨기에 개발협력 집행 예산

(2017년 기준)

	2017년 집행예산	
	천유로	%
생계 프로그램	1,462	0%
국가 프로그램	256,002	28%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175,222	16%
다자원조	346,225	31%
민간부문 프로그램	112,152	10%
인도주의적 프로그램	170,000	16%
국제 기금 기후 정책	45,262	4%
총	**1,106,325**	**100%**

자료: DGD(2018)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15) DGD. (2017: 8, 2018: 11).

□ **(지역배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그 규모가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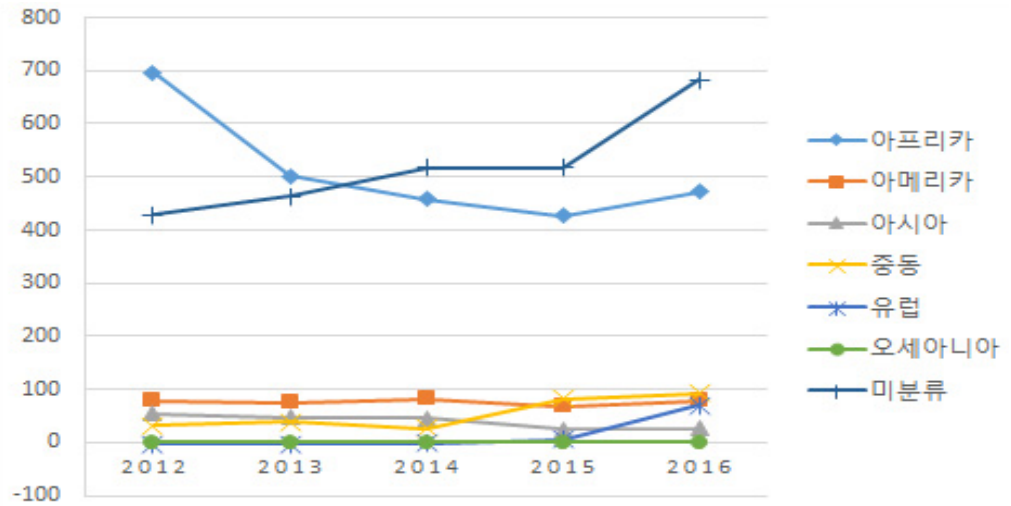
○ 2016년을 기준으로 미분류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33.1%(471.4백만달러)를 차지하며 두 번째는 중동지역으로 약 6.5%(92.9백만달러)를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2610, 42.8%), 아프리카(2554, 41.9%), 아메리카(384.8, 6.3%), 중동(273, 4.5%), 아시아(199, 3.3%) 등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2012년 약 697백만달러(전체 원조대비 약 54.2%)까지 기록하였으나, 이후 450백만달러 수준을 유지

〈그림 13〉 벨기에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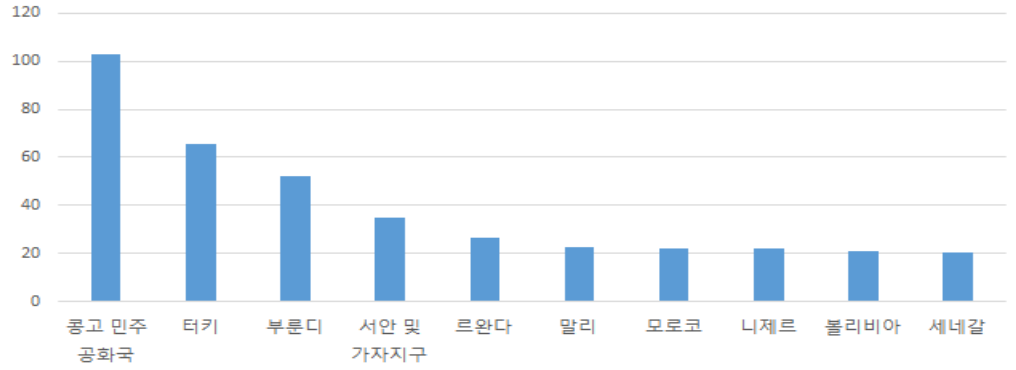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2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원이 103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터키, 부룬디 등이 차지

〈그림 14〉 벨기에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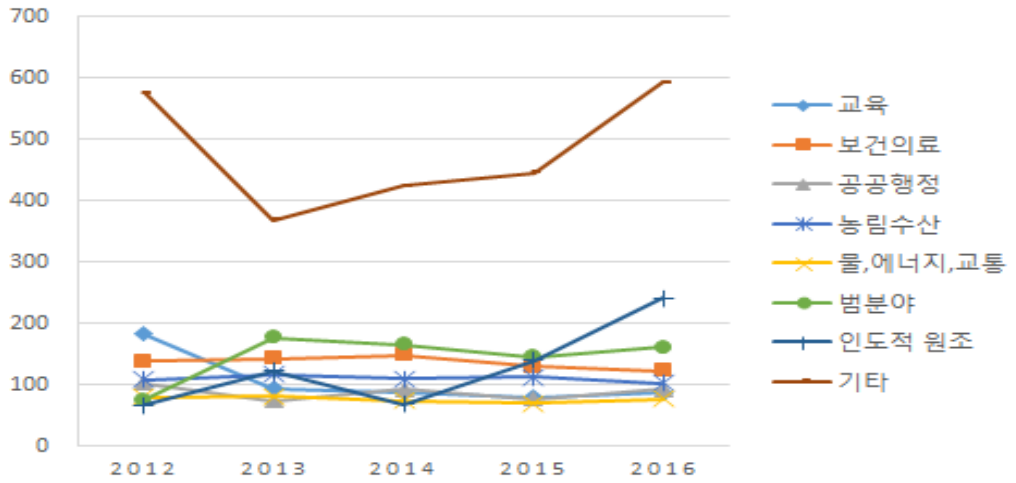
□ **(분야배분)** 최근의 난민사태로 인해 인도적 지원 및 공여국 내 난민지원이 급증한 형태

○ 2012-2016년간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 분야는 급증한 공여국 내 난민지원에 기인하여 2016년 기준 전체 기타 분야 지원에서 약 63% 차지

⇒ 2012–2016년 난민 지원 규모 현황(백만달러): 2012년(113), 2013년(134.4), 2014년(159.8), 2015년(231), 2016년(376)

〈그림 15〉 벨기에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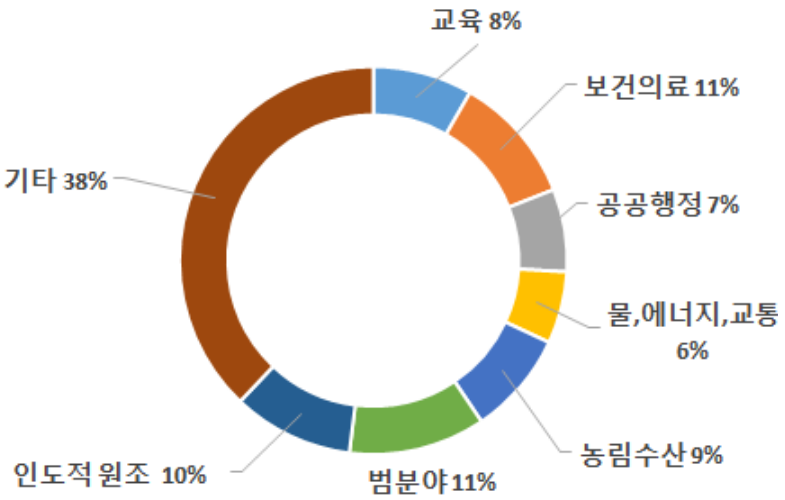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간 벨기에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6,342백만달러이며, 7대 주요 분야 중에서는 범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2,406, 37.9%), 범분야(724, 11.4%), 보건의료(680, 10.7%), 인도적 원조(639, 10.1%), 농림수산(548, 8.6%) 등

〈그림 16〉 벨기에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벨기에 개발협력·인도적원조총국(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16]

□ **(전략 및 목표)** 벨기에 개발협력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파트너십 환경 내에서의 빈곤감소를 강조[17]

○ 2002년 연방정부 현대화의 일환으로 개발협력·인도적원조총국(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이하 DGD)이 벨기에 외교부(Federal Public Service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PS) 산하로 통합됨.[18]

○ 2001년 벨기에 민관협력 도모를 위해 개발재원기관인 BIO(Belgian Investment Company for Developing Countries)가 창설

○ 2018년 1월 벨기에 개발협력 정책의 시행기관인 **Enabel** 창설

⇒ **Enabel**은 DGD가 설정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수행을 담당

⇒ **Enabel**의 전신은 1998년 창설된 벨기에 개발협력 수행기관인 벨기에 기술 협력단(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이하 BTC)이며, Enabel이 그 역할을 계승함.

* **Enabel**은 전신인 BTC 보다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타 벨기에 공공서비스 및 EU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업무가 **Enabel**을 통해 수행 될 것이며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협동에 있어서 혁신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등 더욱 유연하다는 조직적 특성이 있음.[19]

○ DGD는 전략적 정책노트(Strategic Policy Note)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지님.

---

16) **Enabel**의 최근 신설에 따른 정보 미흡으로 인해 하기 벨기에 개발협력의 정보는 벨기에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인도적원조총국(DGD)의 기조와 방향을 기본으로 함.
17) 벨기에 외교부 홈페이지: https://diplomatie.belgium.be/en/ (접속일: 2018.04.27.)
18) 벨기에 외교부 홈페이지: https://diplomatie.belgium.be/en/ (접속일: 2018.04.27.)
19) DGD. (2018) p4.

〈표 10〉 벨기에 정부의 개발협력 주제별 전략

주제	정책전략		
농업과 식량안보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행동전략		• 시장과 가치사슬에서 농부들의 참여 확대 • 굿 거버넌스에 기여 • 연구 및 혁신 지원
	중점 범분야		• 영양 • 성평등과 여성 권리 향상 • 지속가능한 농업
벨기에 식량안보기금 (Belgian Fund for Food Security)	대상그룹 및 우선순위 분야		•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 회복력 및 취약인구 • 유아, 산모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환경과 천연자원 • 지속가능한 가족농업
개발을 위한 디지털 (Digital for Development, D4D)	전략적 우선순위		• 빅데이터의 더 나은 활용 • 포용적 사회를 위한 디지털 활용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디지털 활용
환경	삼중 트랙 접근	환경보호를 위한 주제별 통합	• 교육 • 기초 인프라 • 의료서비스 • 농업과 식량안보 • 자연재해 예방
		분야별 환경 지원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 지속가능한 토지사용 • 지속가능한 삼림 • 도시에서의 통합된 폐기물관리
		상보성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국가프로그램과 지역조직의 상보성과 시너지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HIV/AIDS	• 인권기반접근을 통한 AIDS 대응 • 수원국의 AIDS 정책 지원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제적 대응 향상		
성생식 건강과 인권	• 국가정책에 성생식 권리 통합 도모 • 여성과 여아의 성평등과 여성 권리 증진 도모 •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관심 집중 • 의료 시스템 강화 • AIDS의 국제적 접근 도모 • 인식제고와 정보 및 교육 지원		

자료: FPS 홈페이지(https://diplomatie.belgium.be/) (접속일: 2018.04.30.)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조직체계)**[20] 벨기에 외교부 소속의 DGD는 아래와 같이 총 다섯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음.

○ **지역부서(D1):** 지역에 기반한 이슈들을 제기하는 정보센터이며, 수원국의 상황과 니즈(needs)에 따라 부서의 활동이 달라짐.

○ **주제별 부서(D2):**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벨기에의 주제별·분야별 지식을 개발하고 DGD내의 다른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의견 제공

⇒ 또한 D2 부서는 다자 및 여타 인도주의적 기관들과의 제도적이고 전략적인 대화를 담당

○ **시민사회 부서(D3):**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과 시민사회 기구들과의 협력을 담당하며 지역별로 작동함.

○ **조직관리부서(D4):** DGD의 전략적 미션을 지원

○ **인도적원조 및 체제전환부서(D5):** 인도적 원조와 체제전환 및 개발 담당

□ **(인력)**[21] 현지사무소 및 대사관에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함으로써 현장중심 인력 체계를 구성함.

○ 2014년 기준 DGD 본부에 150명, 대사관에 73명이 근무하였지만 2019년까지 22명의 대사관인력과 39명의 본부 인력이 은퇴할 예정

○ BIO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대적인 인력삭감이 있었음.

⇒ 2010년 기준 DGD 본부의 직원 수는 173명으로 23명이 감소하였고, BTC(현 Enabel)는 2010년 대비 총 202명의 직원이 감소

20) 외교부 홈페이지(https://diplomatie.belgium.be/)
21) OECD. (2015) p53.

〈표 11〉 벨기에 개발협력 관련 기관 인력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명)

DGD	
본부	150
대사관원(attachés)	73
BTC(현 Enabel)	
본부	183
국외거주 직원(기술직, 대사관 및 현지사무소 직원)	253
18개의 개도국 사무소 총 직원	1,000
BIO	
본부	40

자료: OECD(2015)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주요사업)** 벨기에 자체적 동기에 의한 프로그램과 국제동향에 발맞춘 동기에 의한 프로그램의 혼재로 다양한 주제별 분야의 개발사업 진행

○ 벨기에는 인도적 지원, 포용적 성장, 사회개발, 기후·환경·자원, 사회통합·분쟁예방, 개발교육, 그리고 개발을 위한 디지털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자체적인 개발정책 수립뿐만이 아니라 SDGs, 파리선언, 개발을 위한 유러피안 컨센서스(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의 달성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음.

⇒ 유러피안 컨센서스는 2005년에 이뤄진 선언으로 EU 국가들의 빈곤종식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중심으로 그 가치와 목표, 원칙, 공동의 공약이 정의됨.

○ 각 프로그램 별로 별도의 정책노트(Policy Note) 혹은 전략문서를 마련하여 모든 사업에 대해 체계성을 갖추고 있음.

○ 벨기에 DGD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12〉 벨기에 DGD 주요사업 개관

	개발을 위한 디지털 활용*	벨기에 식량안보 기금**	개발을 위한 무역 센터***
배경	• 다양한 개발 주체들과 목표들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벨기에 개발협력의 장점을 살리는 하나의 도구로써 디지털화를 추진	• 2010년에 실시된 벨기에 식량안보 기금(BFFS)은 현재 벨기에 생존 기금(Belgian Survival Fund)으로 재출범	• 2005년 홍콩에서 열린 WTO의 국제회의에서 EU가 2010년부터 2억유로를 무역관련 개발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서약을 계기로 벨기에의 무역에 대한 지원 실시
비전	• 벨기에 개발협력의 영향을 한층 강화시키는 변혁에 기여하기 위한 디지털화의 폭넓은 활용	• 식량안보와 관련한 모든 영역을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위한 비전으로 출범	• 생산자 지원 • 정보의 공유 및 확산 • 인식 제고
전략 목표	• 더 나은 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 포용적 사회를 위한 데이터: 민주적 포용, 재정적/경제적 포용, 양질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디지털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점으로 한 파트너국가의 식량안보 도모, 파트너국가 내 취약인구의 식량 불안정성 해결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도모 • 개발도상국의 영세기업(micro enterprise) 및 중소기업들의 시장 접근성 확대
중점 추진 분야	• 에너지 • ICT 인프라 • 굿 거버넌스와 리더십 • 지속가능성	• 입수 가능성(availability) • 접근성(access) • 안정성(stability) • 균형 잡힌 영양 소비	• 공정무역 • 지속가능한 무역 • 개도국에서의 유기농업 상표 시스템

* Digital for Development, D4D

** Belgian Fund for Food Security

*** Trade for Development Centre

자료: FPS 홈페이지(https://diplomatie.belgium.be/en/policy/development_cooperation) (접속일: 2018.04.30.)

참고문헌

DGD. 2017. “Annual Report 2016.” Brussels.

DGD. 2018. “Annual report 2017.” Brussels.

FPS. 2007. “Strategic Policy Note: Aid for Trade.” Brussels.

FPS. 2016. “Strategic Policy Note: Digital for Development (D4D) for the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Brussels.

OECD. 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Belgium.” Paris: OECD.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홈페이지: https://diplomatie.belgium.be/ (접속일: 2018.04.30.).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4.30.).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4.30.).

4. 캐나다(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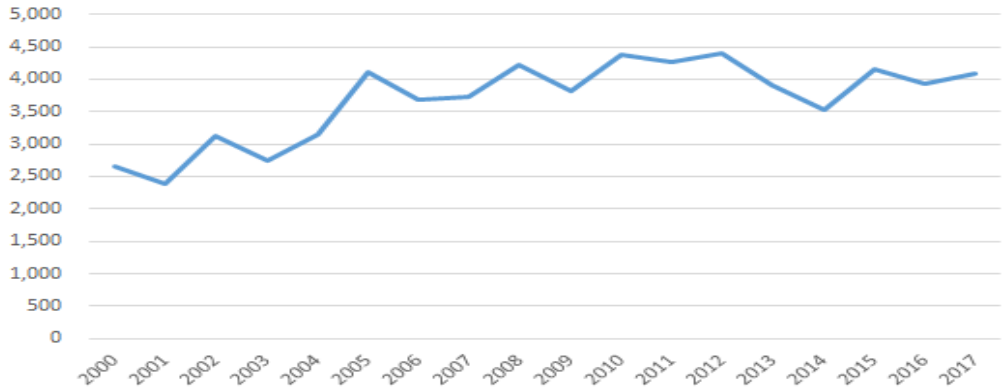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을 기조로 하며, 트뤼도 총리 취임 후 젠더이슈, 성생식 및 모자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확대

○ **(현황)** 2000년 이후 캐나다의 원조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2017년 기준 ODA 총액 4,090백만달러, ODA/GNI 비율 0.26% 기록

〈그림 17〉 캐나다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1968년 원조 전담기구로 캐나다국제개발단(Canad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이 설립되었으나 2013년 외교통상개발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DFATD)로 통합되었으며, 2015년 외교통상개발부는 캐나다상무부(Global Affairs Canada, 이하 GAC)로 명칭이 변환됨.

○ 2008년에 발효된 '공적개발원조 책무성법률(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에서 캐나다 ODA가 빈곤감소에 목적이 있으며 원조효과성 원리에 부합함을 천명함.

○ **(핵심문서)** "2017-18 GAC 부서별계획(Departmental Plan)"에서 건설적인 국제 협정에 기반한 국제평화 및 안보, 인도적 원조 강조

○ **(정책일관성)** 2015-16 부서별계획부터 꾸준히 정부의 외교·통상·개발 정책 간 일관성 확보를 첫 번째 프로그램(Program1.1: Integrated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Policy)으로 두고 각 부서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네트워킹 강조

□ **(예산)** 의회에서 예산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감사를 담당하고 재무부 및 GAC 국제개발부에서 예산 배정 및 관리

○ 하원재정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FINA)에서 매년 8월 차기 년도 사전 예산 회의 절차로 시민사회단체 및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을 초청하여 의견 수렴

○ 하원 외교·국제개발 상임위원회 (The Standing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FAAE)에서 GAC 운영 및 관리를 감사하며 의회 예산 회의 기간 중 국제개발부 장관 청문회를 개최하지만, GAC 예산선 변동에는 영향력 미비

○ 재무부 장관 및 GAC 국제개발부 장관이 개발자금 조달을 총괄하며, 국제개발부 차관보가 GAC 예산 배정 관리

○ 국제원조기금(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 이하 IAE)이 캐나다 정부 ODA 주요 예산 재원으로, 90% 이상을 차지[22]

〈표 13〉 캐나다 2018/19 IAE ODA예산

IAE	백만캐나다달러	백만달러
주요 개발 부문	3,615	2,828
국제금융기구	1,344	1,051
인도주의적 지원	194	152
평화 및 안보	33	26
2018년도 추가 예산 (New Budget 2018 Funding)	527	412
위기대응 자금(Crisis Pool)	271	212
전략 우선순위 자금	172	135
합계	**5,186**	**4,057**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canada) (접속일: 2018.04.12.)

22) 2014/15 회계연도 기준 캐나다 ODA 총액의 98% 차지(https://donortracker.org/ country/canada) (접속일: 2018.03.15.)

□ **(의회승인절차)** 3월에 차기 예산안 논의에 착수하여 재무장관의 최종 예산 발표까지 약 1년 소요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차기년도 3월 31일까지가 캐나다의 회계연도로 구분되고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은 중앙정부기관(추밀원사무처, 재무부, 재무부 이사회) 및 유관부서, 의회, 외부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아래 6개 과정으로 진행

○ **(의회승인 처리과정)** 의회승인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구성: 1) 각 부서에서 예산 초안 작성 및 검토; 2) 사전 예산 회의; 3) 중앙정부기관 및 부서 간 예산 전략 수립; 4) 재무부에서 예산회의보고서 작성; 5) 재무장관이 예산전략을 구체화하고 내각에서 검토 후 총리 및 재무장관이 최종 의사결정; 6) 재무장관 예산 발표 연설

〈그림 18〉 캐나다 GAC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canada) (접속일: 2018.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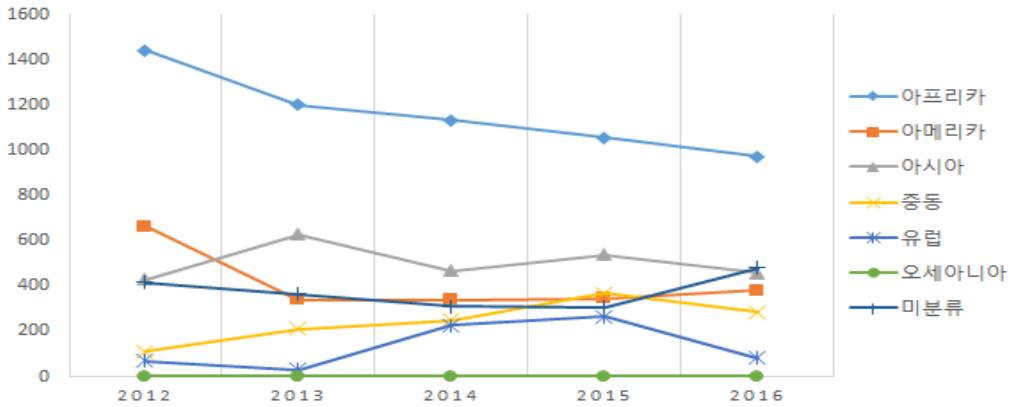
□ **(지역배분)** 아프리카 원조에 집중하나 최근 감소 추세

○ 지역별 양자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40.9%(5,803백만달러)를 차지하나 최근 감소 추세이며,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으로 약 17.8%(2,519백만달러)를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5,803, 40.9%), 아시아(2,519, 17.8%), 아메리카(2,071, 14.6%), 미분류(1,880, 13.3%), 중동(1,223, 8.6%), 유럽(678, 4.8%), 오세아니아(11, 0.1%)

〈그림 19〉 캐나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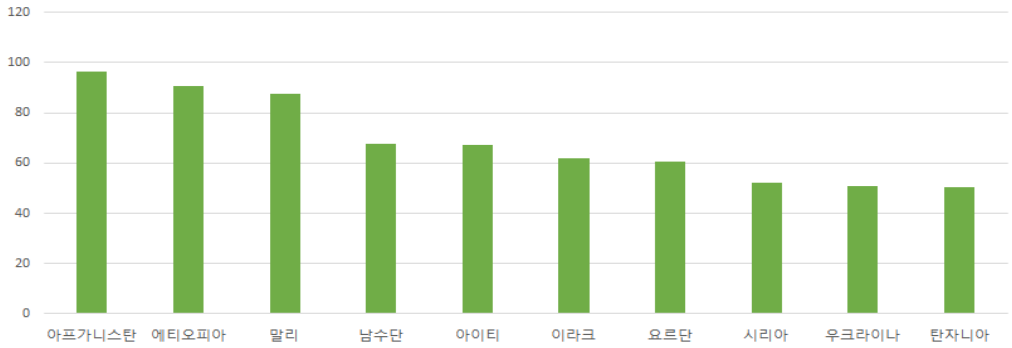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약 96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에티오피아, 말리, 남수단, 아이티, 이라크 등)이 차지

〈그림 20〉 캐나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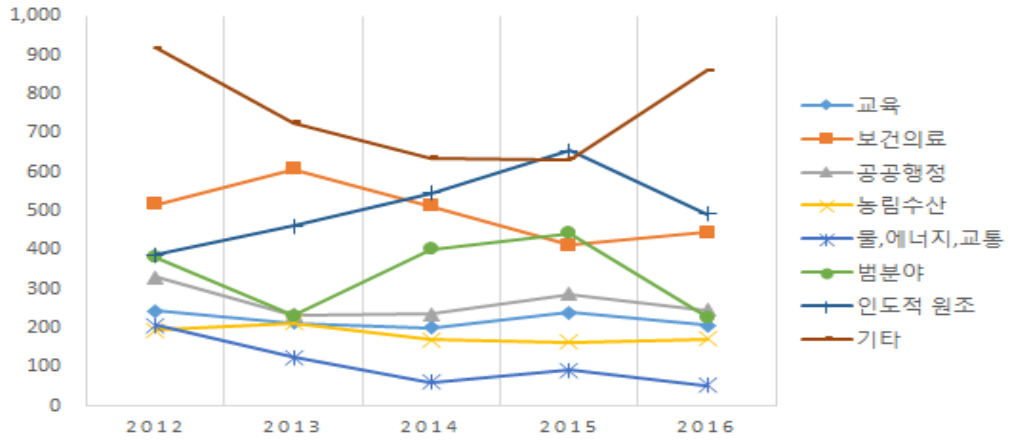
□ **(분야배분)** 인도주의적 원조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 급증 추세

○ 2012-2016년간 기타 분야 지원이 3,776백만달러로 가장 높으며 2015년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최근 다시 증가함. 두 번째는 인도적 원조로 2,541백만달러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 이후 급감

⇒ 2012-2016년 5년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3,776, 26.3%), 인도적 원조(2,541, 17.7%), 보건의료(2,496, 17.4%), 범분야(1,685, 11.7%), 공공행정(1,331, 9.3%), 교육(1,104, 7.7%), 농림수산(913, 6.4%), 물·에너지·교통(536, 3.7%)

〈그림 21〉 캐나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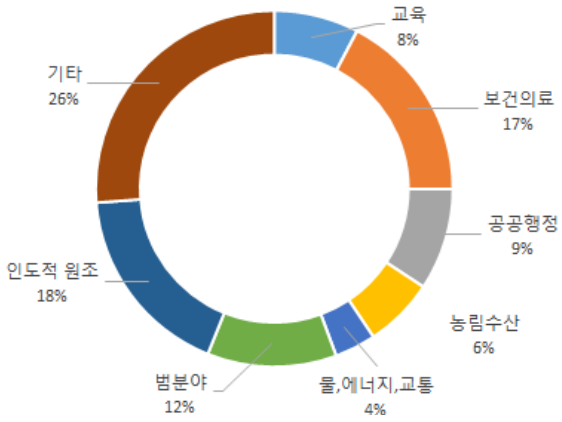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 2012-2016년간 캐나다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4,382백만달러로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기타분야 총액에서 주요 세부항목으로는 공여국 내 난민지원이 31%, 공여국 행정비용이 26%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특히 최근 기타분야 급증은 공여국 내 난민지원 증가의 시기 및 규모와 상통함.

〈그림 22〉 캐나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나. 캐나다 상무부(Global Affairs Canada)

□ **(전략 및 목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원조 사업을 수행하나 최빈국 및 취약국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도주의적 기조가 강함.

○ 매년 부서별 결과보고서(Departmental Results Report)를 기반으로 차기년도 부서별 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의 9개 프로그램 중 3개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함.

⇒ 2017-18년도 부서별계획 국제개발협력 관련 프로그램 및 목표:

1) 국제안보 및 민주주의 발전(외국정부·시민사회·국제기구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평화 및 안보 확보, 민주주의 토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 및 빈곤 경감);
2) 국제개발(취약국 및 개발도상국 내 빈곤 및 불평등 완화);
3) 긴급재난 자금 지원 및 인도주의적 원조를 통해 무장충돌, 식량부족,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의 취약성 완화

○ 2017-18년도 부서별계획에서 1) 건설적인 국제협정 및 신(新) 리더십을 통한 국제평화·안보·인도주의 지원; 2) 캐나다 국익증진을 위한 양자사업 파트너 및 미국과의 관계 강화; 3)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 구현에 기여; 4) 국제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다양화를 통한 캐나다 및 세계 번영 추구를 우선목표로 설정

〈표 14〉 2017-18 GAC 부서별계획 우선목표 및 전략

우선목표	전략
1. 건설적인 국제협정 및 신(新) 리더십을 통한 국제평화·안보·인도주의 지원	• 국제 분쟁 관리 및 취약 지역에서의 평화구축 노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협정 및 투자 증대 •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등 안보 이슈 전략기구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기여 강화 • 인도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대응
2. 캐나다 국익증진을 위한 양자사업 파트너 및 미국과의 관계 강화	• 경제, 무역, 안보, 방위, 에너지, 환경, 국제제도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효과적 협력 •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종합적인 협정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도모 • 전략 정책, 무역, 안보 이슈에서 G7국가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업
3.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 구현에 기여	•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최빈층의 생계 및 존엄성 제고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국제원조 비전 이행 • 빈곤퇴치 및 포용적 거버넌스 달성을 위한 국제 및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추구 •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 및 환경 보호에 기여 • 개발도상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경제성장 촉진
4. 국제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를 통한 캐나다 및 세계 번영 추구	• 규범에 기반한 교역환경 조성 및 무역장벽 완화 • 자유무역협정 및 사후관리 증진, 유망 수출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캐나다 수출 시장 확대 및 다양화 • 노동, 환경, 성평등, 투명성, 포용적 경제성장 등의 이슈를 고려한 진보적인 무역 의제 주도 •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와의 연계 강화 및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시장과의 결속 구축

자료: GAC(2017a: 3) 저자재구성

□ **(조직체계)** GAC는 외교부, 국제개발부, 국제통상부로 구성

○ GAC에서 원조 예산 집행 및 관리를 주관하나, 캐나다의 개발협력 체계는 의회, 재무부 등 정부기관 외에도 시민사회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음.

⇒ 2016년 발표된 "개발 및 인도적원조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The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Civil Society Partnership Policy)"에서 캐나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원칙 및 목표로 1) 소외계층의 의견 반영, 2) 지역사회 및 정부 간 협력 확대, 3)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의 참여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및 책무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GAC는 매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동 정책의 이행에 관한 회의를 소집함.

○ GAC 조직체계는 3부(외교부, 국제개발부, 국제통상부) 외 국제경제관계조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발협력 관련 팀(unit)은 1) 국제이슈·개발; 2) 국별프로그램; 3) 전략·정책; 4) 개발혁신을위한파트너십팀으로 구성[23]

□ **(인력)** GAC 프로그램별로 인력을 구성하며, 국제원조 및 빈곤완화 프로그램에 전체 인력의 약 10% 배치

○ 2016-17 회계연도 기준 총 11,101명의 상근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국제원조 및 빈곤완화 프로그램 3개에 1,107명(전체 인력의 약 10%) 배치

23) CAIDP 홈페이지(https://www.caidp-rpcdi.ca/content/gac-organizational-chart-amc-structure-organisationelle) (접속일: 2018.04.12.)

〈표 15〉 캐나다 GAC 프로그램별 상근 인력 구성

GAC 프로그램별 인력						
프로그램 및 내부서비스	2014-15	2015-16	2016-17 (예상값)	2017-18 (안)	2018-19 (안)	2019-20 (안)
전략 성과 1: 캐나다의 국제안건						
1.1 외교, 무역, 개발정책 간 통합성	854	816	830	832	832	832
1.2 외교, 옹호(advocacy), 국제협정	1,548	1,644	1,649	1,663	1,663	1,657
소계	2,402	2,460	2,479	2,495	2,495	2,489
전략 성과 2: 국제통상 및 영사 서비스						
2.1 국제통상	1,241	1,311	1,359	1,364	1,364	1,364
2.2 영사서비스 및 긴급상황 관리	433	371	433	433	433	433
소계	1,674	1,682	1,792	1,797	1,797	1,797
전략 성과 3: 국제원조 및 빈곤 완화						
3.1 국제안보 및 민주주의 개발	225	137	156	168	168	166
3.2 국제개발	786	696	882	892	892	886
3.3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	55	40	69	70	70	69
소계	1,066	873	1,107	1,130	1,130	1,121
전략 성과 4: 캐나다 해외 네트워크						
4.1 해외네트워크 거버넌스, 전략지시 및 공통서비스	4,049	4,287	4,151	4,147*	4,147	4,145
4.2 해외고용 계약조건 관리	54	53	55	56	56	56
소계	4,103	4,340	4,206	4,203	4,203	4,201
내부 서비스						
내부 서비스	1,797	1,533	1,517	1,534	1,534	1,533
합계	**11,042**	**10,888**	**11,101**	**11,159**	**11,159**	**11,141**

* 해외 채용 인력 포함

자료: GAC(2017)

□ **(주요사업)** 성평등 및 인권기반접근을 강조한 원조 사업이 주류

○ 트뤼도 총리 취임 후 캐나다 정부는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을 발표하며 원조 사업 전 분야에서 성평등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접근을 강조함.

○ GAC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표 16〉 캐나다 GAC 주요사업 개관

	캐나다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	모자 사망률 감소를 위한 청소년 생식권 달성 사업**	회복력기반접근을 통한 식량불안정 해소 사업***
배경	• 캐나다 국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7년 6월 캐나다 정부는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을 발표함.	• 볼리비아 12개 지역에서 성생식 보건 서비스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니제르,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해 GAC와 세계식량계획(WFP)이 2017-2021년간 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식량원조 사업을 실시할 예정
비전	• 성평등 제고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 퇴치	• 볼리비아 취약계층 모자 사망률 감소 및 청소년기 여성·여아의 생식 보건 및 권리 제고	• 회복력 구축 및 식량원조 의존성 감소
전략 목표	•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 접근 • 증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국제원조	• 청소년에게 친화적이고 문화적 정서를 고려한 인권기반접근	• 사업대상국 인구의 (특히 여성과 아동의) 회복력 및 식량안보 개선
중점 추진 분야	•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 인간존엄성 • 포괄적 경제성장 • 환경 및 기후변화 • 포괄적 거버넌스 • 평화 및 안보	•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정책 행정 관리 • 생식보건의료 • 가족계획	• 특정 수혜자들의 즉각적인 식량 수요에 대응 • 생계 회복 • 자산 보호 • 식량 불안정을 야기하는 부정적 요소 제거

* Canada's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 Achieving Reproductive Rights for Adolescents, Reducing Maternal and Newborn Mortality

*** Addressing Protracted Food Insecurity Through Collaborative Resilience-Based Approaches

자료: GAC 홈페이지(http://www.international.gc.ca/) (접속일: 2018.06.14.)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GAC. 2016.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2016–17.” available at http://international.gc.ca/gac-amc/publications/plans/rpp/rpp_1617.aspx?lang=eng (접속일: 2018.03.14).

GAC. 2017. “Departmental Plan 2017-18.” available at http://international.gc.ca/gac-amc/publications/plans/dp-pm/dp-pm_1718.aspx?lang=eng (접속일: 2018.03.14.).

GAC. “2016 International Assistance Reveiw.” available at http://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priorities-priorites/what_we_heard-que_nous_entendu.aspx?lang=eng&_ga=2.137824435.2046176891.1520988177-894640829.1520815820 (접속일: 2018.03.15.).

GAC. “Canada’s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available at http://www.international.gc.ca/gac-amc/campaign-campagne/iap-pai/index.aspx?lang=eng (접속일: 2018.03.15.).

Canad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fessionals (CAIDP) 홈페이지: https://www.caidp-rpcdi.ca (접속일: 2018.04.12.).

Donortracker-Canada: Donor Tracker (https://donortracker.org/country/canada (접속일: 2018.03.14.).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12.).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5. 체코(Czech Re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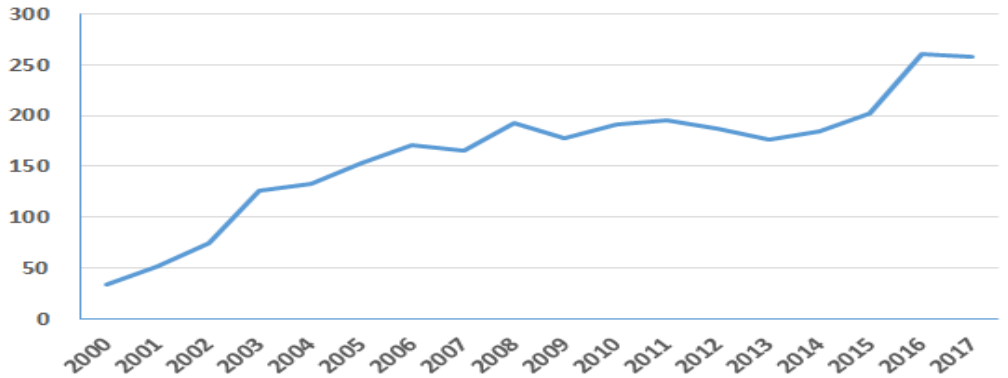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원조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원조분절화 극복을 지향

○ **(현황)** 2013년 DAC 가입 이후 원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원조규모 258 백만달러 및 ODA/GNI 비율 0.13% 기록

〈그림 23〉 체코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08년 개발협력전담기관인 체코개발청(Czech Development Agency, 이하 CzDA) 설립 및 2010년 151호 법안인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반적 체계 설정

○ **(핵심문서)** "2010-2017 체코 개발협력전략"을 발전시킨 "2018-2030 체코 개발협력전략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f the Czech Republic 2018-2030)" 문서를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에서 발간하여 개발협력 목표 및 우선순위 제시

○ **(분절화)** 2016년 OECD DAC 동료검토는 체코의 원조가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사업수행 분야가 분산되어있는 점을 지적함.[24]

⇒ 동 보고서는 분절화로 인한 높은 행정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체코는 사업접근 방식을 프로젝트 위주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하는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

□ **(예산)** 핵심전략문서에 기반한 "양자 개발협력 연간계획(Annual Plan for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과 연 2회 전망(bi-annual outlook)이 체코의 원조 예산 프레임워크를 반영[25]

○ 차년도 예산 계획은 6월 중에 정부에 의해 승인되고 해당 계획은 중점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 배분을 포함하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외교부부터 다른 부처까지의 예산 배분을 승인함.[26]

○ CzDA는 양자 간 ODA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외교부는 중장기 전략 및 연간지출 계획 범위 내에서 원조계획과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27]

⇒ 일부 부처의 경우, 각 부처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양자 간 ODA 사업이 존재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개발협력 연간계획에 포함되어 있음.[28]

〈표 17〉 2018–2020 체코 개발협력 예산 규모

(단위: 1000 체코코루나)

	2018	2019(예상)	2020(예상)
외교부(MFA - CzDA 포함)	**939,166**	**1,036,166**	**1,036,166**
양자 간 개발협력(MFA - CzDA 포함)	696,166	733,166	733,166
CzDA - 주제별 협력	395,789	-	-
CzDA - 기타 수단	138,377	-	-
MFA - 개발 활동	122,000	-	-
아프가니스탄 - 예산지원	40,000	40,000	40,000
인도적 원조	180,000	230,000	230,000
체제전환 협력(Transition cooperation)	63,000	73,000	73,000
교육청년체육부	**112,000**	**115,000**	**115,000**
보건부	**3,000**	**3,000**	**3,000**
전체	**1,054,166**	**1,154,166**	**1,154,166**

자료: CzDA 홈페이지(http://www.czechaid.cz/) (접속일: 2018.04.09.)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24) OECD. (2016) p45.
25) MFA of Czech Rep. (2016a) p33.
26) MFA of Czech Rep. (2016a) p33. & OECD. (2016) p54.
27) OECD. (2016) p49.
28) OECD. (2016) p54.

□ **(지역배분)** 다양한 지역 및 국가에 분산된 형태의 지원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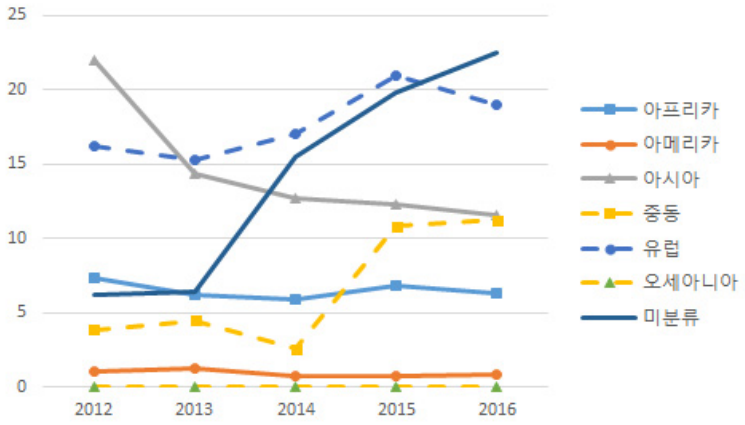
○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미분류지역, 중동, 유럽에 대한 원조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유럽(88, 29.3%), 아시아(73, 24.1%), 미분류(70, 23.4%), 중동(33, 10.9%), 아프리카(33, 10.8%) 등

⇒ 공여국 내 난민 지원에 관한 비용이 2012년 8백만달러에서 2016년 18백만달러로 증가하여 2016년 미분류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4〉 체코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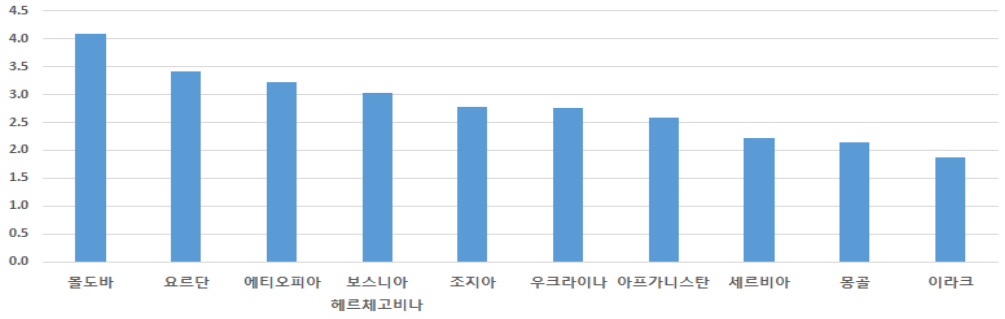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몰도바, 에티오피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등의 "2018-2030 체코개발협력전략" 중점협력국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함.

⇒ 2016년 기준, 상위 10개 수원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39.4%(28.1백만달러)이나, 약 80개국에 평균 0.5백만달러 규모의 분산된 원조를 제공함.

〈그림 25〉 체코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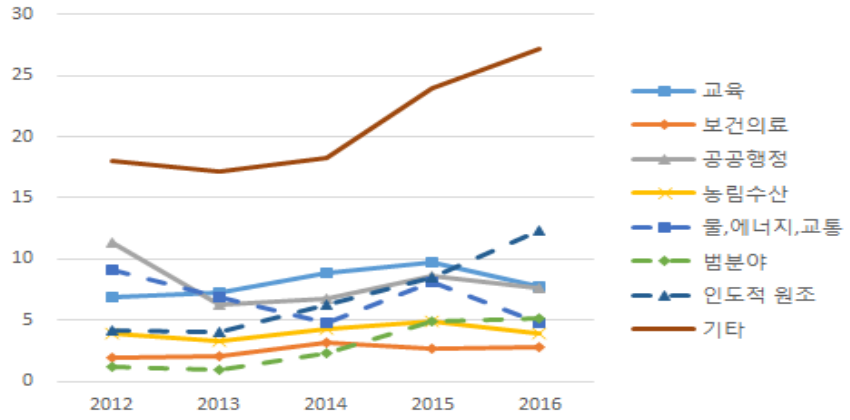
□ **(분야배분)**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인도적 원조 금액이 2012년 4백만달러에서 2016년 12백만달러로 증가하였고 "체코 개발협력전략"은 인도적 원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는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원조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난민관련 지출의 증가로 기타 분야의 원조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개별 분야에서는 인도적 원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26〉 체코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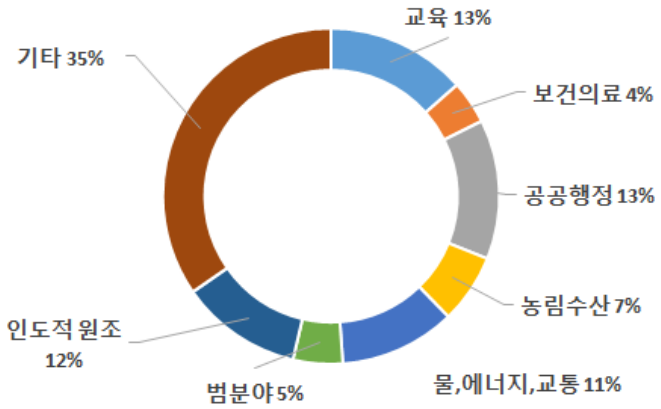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체코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302백만달러이며 그 중 난민 지원을 포함하는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105, 34.6%), 교육(41, 13.5%), 공공행정(41, 13.5%), 인도적 원조(35, 11.7%), 물·에너지·교통(34, 11.1%) 등

〈그림 27〉 체코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체코 개발청(Czech Development Agency)

□ **(전략 및 목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외교부 전략에 상응하여 기관의 비전과 목표 설정[29]

○ 외교부는 "2018-2030 체코 개발협력전략"의 발표를 통해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그 안에서 체코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상위 목표를 명시함.[30]

⇒ CzDA는 Agenda 2030과 체코의 2030전략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전 및 주요 가치를 명시하고 있음.

29) MFA of Czech Rep. (2017) p4.
30) MFA of Czech Rep. (2017) p8.

〈표 18〉 CzDA의 비전 및 중점 가치

비전	중점 가치
• 가용한 경험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지원함. • 지속가능한 지구와 국제사회에서 체코의 좋은 평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개선함. • 체코의 자원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개발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함. • 시민사회와 현지의 발전 단계를 지원하여 더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함. • 개발 과정에서 민간 분야의 개입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파트너 국가로의 투자를 유도함. • 기관 차원에서 범분야의 가치를 강조하며, 파트너십·지속가능성·투명성을 추구함.

자료: CzDA 홈페이지(http://www.czechaid.cz) (접속일: 2018.06.27.)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CzDA는 빈곤퇴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2030 체코 개발협력전략"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섯 개의 중점협력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감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몰도바, 잠비아)외에도 여러 국가들에서 삼각협력 프로젝트 및 독자 프로젝트를 추진함.[31]

□ **(조직체계)** 외교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CzDA가 수행하는 구조이며, 개발협력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율[32]

○ 외교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부서에서 개발정책의 통일성 추구, 부처 간 대화 및 조정, 시민사회의 참여 촉진 등의 역할 수행

○ CzDA 본부의 경우 네 개의 주요부서로 구분되며 각각 1) 지역부서(Territorial Department); 2) 사업수립부서(Formulation Department); 3) 파트너관계부서(Partner Relations Department); 4) 행정부서(Administration Department)로 구성[33]

⇒ 지역부서는 파트너 국가들의 개발 수요 및 프로젝트 모니터링 담당, 사업수립부서는 보조금 제안서·입찰 등 프로젝트 문서 관리 담당, 파트너관계부서는 지역 프로젝트·민간부문과의 협력·개발협력 결과 홍보 업무 등을 담당, 행정부서는 재무 및 인적자원 관리 등 조직 전반 지원

31) CzDA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코소보, 몰도바, 몽골, 팔레스타인,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예멘, 잠비아 등의 국가에서 활동.
32) 김지현. (2015) p10. & MFA of Czech Rep. (2017) p7.
33) CzDA의 자세한 조직구성 및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CzDA 홈페이지(http://www.czechaid.cz/en/our-work/) 참고

○ CzDA는 유럽개발협력네트워크(Practitioners' Network for European Development Cooperation)의 일원으로서 다른 유럽 공여국 원조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도 협력하고 있음.

⇒ 이외에도 체코개발협력포럼(Czech Foru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비정부기구협회, 개발협력기업인플랫폼(Entrepreneurs' Platfor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등을 통해 체코의 비정부기구 및 민간분야 참여자들과의 협력 또한 도모

□ **(인력)** 제한된 수준의 인력을 운용중이나, 향후 ODA 예산 증액과 함께 인력 충원 예정

○ 2016년 기준 외교부에 17명, CzDA에 2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OECD DAC 동료검토는 적합한 수준의 인적자원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체코 외교부와 CzDA의 과제라고 지적[34]

⇒ 이와 관련하여 2016 OECD DAC 동료검토는 체코 개발협력분야의 미흡한 인력수급 및 역량의 부족을 취약점으로 언급하였으나, 향후 계획된 인력 증원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표 19〉 외교부 및 CzDA 인력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명)

	2015년	2016년 현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외교부(MFA)	13	17	+3	+2	+2	+1
개발협력청(CzDA)	17	23	+5	+4	+3	+3

자료: MFA of Czech Rep(2016b)를 OECD(2016)에서 재인용 및 MFA of Czech Rep(2016a)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외교부와 CzDA의 인력 외에도 각 정부부처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는 1-2명의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배치인력 수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수에 따라 상이함.[35]

□ **(주요사업)** 중점협력국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지원 도모

○ 양자 간 사업의 발굴·형성·재원·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에 CzDA가 개입하며, 기타 공여국과 함께 참여하는 삼각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34) OECD. (2016) p52.
35) MFA of Czech Rep. (2016a) p32.

○ “2018-2030 체코 개발협력전략”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섯 개 중점협력국가(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몰도바, 잠비아)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

○ CzDA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0〉 체코 CzDA 주요 사업 개관

	몰도바 사회적 섹터에 대한 지원 및 원조 사업*	에티오피아 남부국가민족주 지역의 포괄적 교육 지원 사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목재 및 산림 관리 사업***
배경	• 몰도바의 사회적 섹터 개발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	• 남부국가민족주(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지역에서 포괄적인 교육시스템의 수요 증대	• 보스니아 산림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산림자원 관리 필요성 증대
비전	• 사회적 섹터 및 지역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 연령·성별·장애·인종·경제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포용적 교육시스템 구축	• 산림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 배양
전략 목표	•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몰도바 사회적 분야 활동인력들의 수준을 향상	• 공동체, 학교, 교육시스템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포괄적 초등교육 수준 달성을 추구하며, 타 국가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	• 현지의 교육수료인력이 교육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산림정책 결정과정의 개선
중점 추진 분야	• 의료 분야 관세 조정 •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관세 확립 • 가정보호 서비스의 기능 최적화 등	• 특수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 초등교육 수준에서 학습친화적 환경 조성 • 소외계층 아동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 • 교육당국자 및 교사의 역량 배양	• 체코 전문가가 산림 관리 체계를 담당하는 현지 인력을 교육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절차의 개선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Support and Assistance to the Social Sector of Moldova

** Supporting Inclusive Education in Dilla and Hossana Woredas in SNNPR, Ethiopia

*** Development of Ecological Production of Wood and Forestry Management in Bosnia and Herzegovina

자료: CzDA 홈페이지(http://www.czechaid.cz) (접속일: 2018. 04. 12.)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김지현. 2015.『신흥공여국 ODA 정책과 현황: 체코』. 성남:한국국제협력단.

MFA of Czech Republic. 2016a. “DAC Peer review of the Czech Republic Memorandum 2016.”

MFA of Czech Republic. 2016b. “Czech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in 2016 and Estimates for 2017 and 2018.” Prague.

MFA of Czech Republic. 2017.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f the Czech Republic 2018-2030.” Prague.

OECD.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Czech Republic 2016.” Paris: OECD.

CzDA 홈페이지: http://www.czechaid.cz/ (접속일: 2018. 04. 12.).

MFA of Czech Republic 홈페이지: https://www.mzv.cz/ (접속일: 2018. 04. 09.).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6. 덴마크(Denmark)

가. 원조개요

□ **(총괄)** 원조예산의 대폭 증대와 빈곤퇴치 의무를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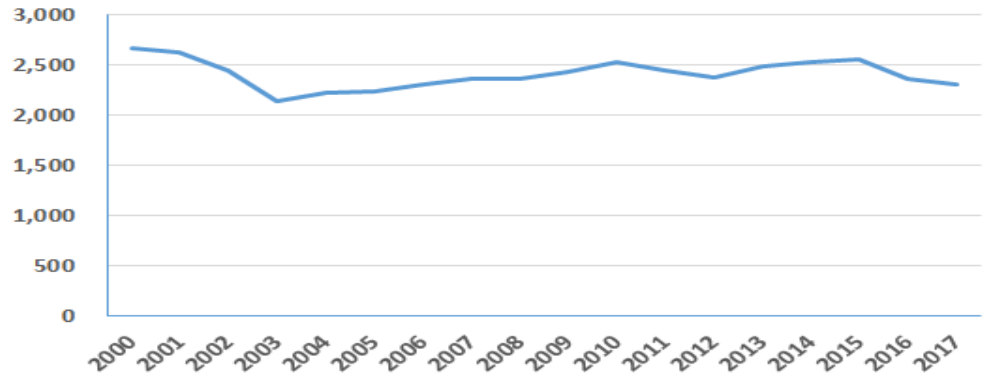
○ **(현황)**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덴마크의 총 공여금액은 세계 10위권을 유지, ODA/GNI 비율은 2017년 기준 0.723%이며 원조규모 2,313백만달러 기록

⇒ 덴마크는 모범적인 공여국가로서 1978년부터 UN 권고기준인 0.7%를 꾸준히 초과하여 달성해 옴.[36]

⇒ 2000년부터 큰 폭의 증감 없는 규모로 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가장 적은 2,143백만 달러, 2000년에 가장 많은 2,672백만달러를 지원

〈그림 28〉 덴마크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 1961년부터 덴마크정부 주도 하에 전개된 개발도상국 지원 캠페인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으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1962년 국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에 관한 법(Bill on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을 제정

⇒ 이에 따라 덴마크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내에 원조사업을 담당할 사무국이 설립된 후 독자적인 원조수행기관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로 변경됨.

⇒ 하지만 1991년에 덴마크의 개발협력이 외교부가 담당하는 독립적인 업무로 조직 개편되면서 Danida라는 이름은 조직의 명칭이 아닌 덴마크 개발협력의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음.[37]

36) 주동주. (2009) p391.

○ 덴마크의 개발협력은 2013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덴마크 “국제개발협력법(Danish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현재 두 번째 수정안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음.[38]

⇒ 덴마크 국제개발협력법에 의하면 덴마크의 개발협력은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주창하는 가치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조

○ **(핵심문서)** 덴마크 정부는 2004년 이후 매년 5개년 원조계획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우선순위를 발표

⇒ 2017년 11월 덴마크 정부는 “세계 2030: 덴마크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행동 전략(The World 2030 – Denmark’s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ion)”의 발표를 통해 이민, 안보, 성장, 인권실현을 강조

○ **(정책일관성)**[39] 개발협력에서의 정책일관성이 뛰어난 국가인 덴마크는 2014년 첫 번째 정책일관성계획 문서 “공통의 주제: 덴마크의 개발 정책일관성을 위한 시행계획(A Shared Agenda: Denmark’s Action Plan for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발표함으로써 자국의 정책보다는 EU의 개발정책 기조에 중심을 둘 것이라 표명함.

□ **(예산)**[40] **Danida** 업무는 재정법에 따라 덴마크 세금으로 운용

○ ODA 약정 기반(Commitment-based) 예산할당이 덴마크의 양자원조 관리 시스템의 중심이며, 이로 인해 우선순위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다년(multi-year) 예산 예측이 가능

○ 국회에서 국가 프로그램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된 예산은 5년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며, 재정 법안이 채택되면 해당 예산은 완전히 집행됨.

○ 외교부는 주요 예산선 3개 내에서는 5%까지 유동적으로 개발협력 예산을 재 할당 할 수 있음.

---

37) 덴마크 외교부 홈페이지 (http://workingfordenmark.um.dk/en/mfa-at-work/portfolio-of-work/danida/) (접속일: 2018.04.10.)
38) 덴마크 외교부 홈페이지 (http://um.dk/en/danida-en/) (접속일: 2018.04.10.).
39) OECD. (2016) p17.
40) OECD. (2016) p67.

〈표 21〉 Danida 2018년 ODA 예산항목*

구분	백만 덴마크크로네**
ODA 전체 예산	15,878
외교부 할당 개발도상국 대상 지출 예산	12,655
개발협력 행정비용	730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DIIS)	21.6
EU 개발협력	1,345
정책 및 덴마크 국방을 통한 개발협력 활동	30.1
UN 평화유지활동	20.3
덴마크 국내 난민 수용	965.3
비영리기관 지원	14.9
기타(유엔 지원 등)	96

* 해당 예산은 OECD/DAC 규칙을 따라 구성된 추정치
** 2015년 기준 1달러는 6.728덴마크 크로네[41]
자료: 덴마크 외교부(2018) p15.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지역배분)** 비교적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하나 최근 하락세 기록

○ 2016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27%(454.6백만달러)를 차지하며 두 번째는 중동 지역으로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약 7.6%(126백만달러)를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4,329, 49.0%), 아프리카(2,721, 30.8%), 아시아(950, 10.8%), 중동(560, 6.4%), 아메리카(148, 1.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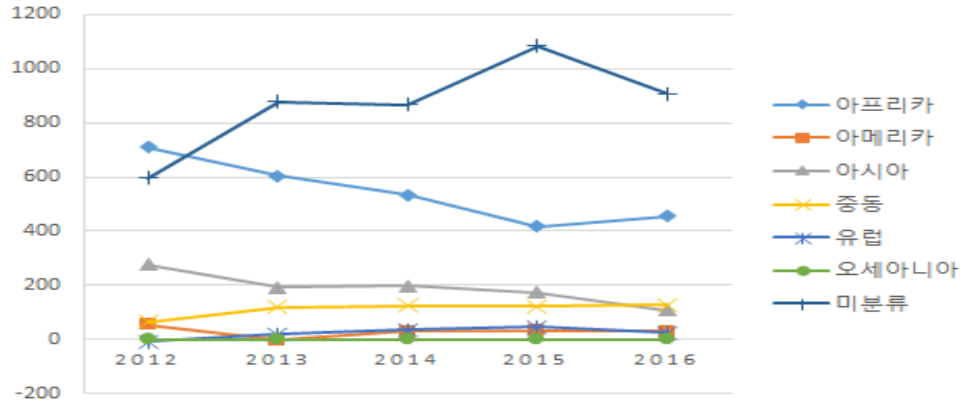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2012년 710백만달러(전체 원조대비 약 42%)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약 15%p 하락한 27%를 기록

⇒ 지난 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전체 아프리카 지역 원조 중 평균 90%를 차지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집중하는 형태

41) OECD Data 홈페이지(https://data.oecd.org/conversion/exchange-rates.htm) (접속일: 2018.04.10.)

〈그림 29〉 덴마크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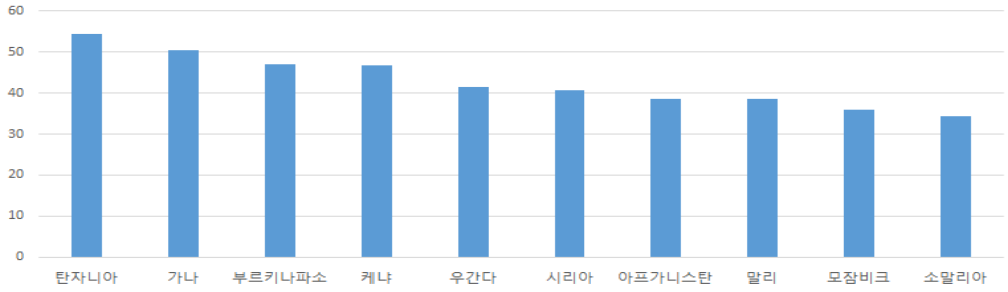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이 54.2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부르키나파소, 케냐, 우간다가 차지

⇒ 탄자니아에 대한 높은 원조는 탄자니아 국가 프로그램인 "굿 거버넌스와 인권 프로그램(Good Governance and Human Rights Programme)"에 대한 지원에 기인함.[42]

〈그림 30〉 덴마크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42) "굿 거버넌스와 인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덴마크 탄자니아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tanzania.um.dk/en/danida-en/good-governance-and-human-rights/) (접속일: 2018.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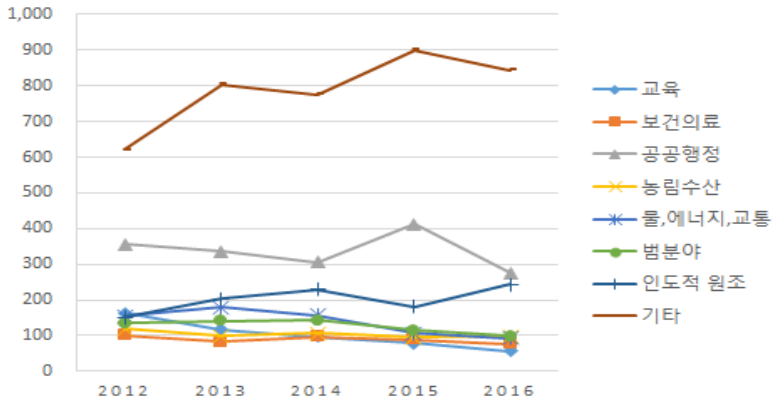
□ **(분야배분)**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원조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최근 기타 분야와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원조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에 타 분야 (범분야, 교육, 보건의료, 물·교통·에너지)는 감소하는 추세

⇒ 2012-2016년간 기타 분야에서 공여국 내 난민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33%이며 총 1,287백만달러를 원조

〈그림 31〉 덴마크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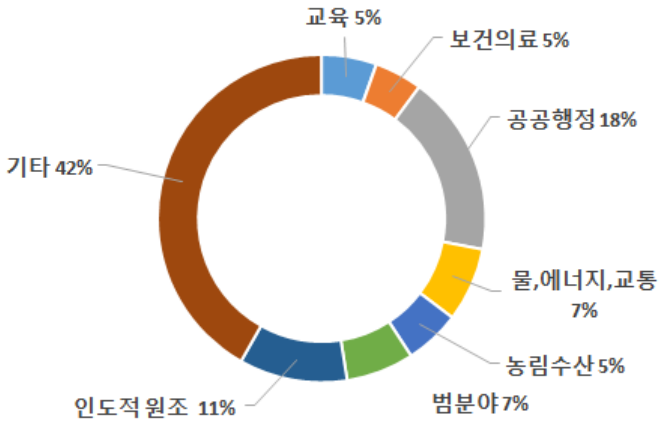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덴마크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9,431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 분야를 제외한 개별 분야에서는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3,944, 41.8%), 공공행정(1,685, 17.9%), 인도적 원조(1,007, 10.7%), 물·에너지·교통(690, 7.3%) 등

〈그림 32〉 덴마크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덴마크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 **(전략 및 목표)**[43] 덴마크 전략상 최초로 인도주의 전략과 개발협력 전략을 통합한 "세계 2030: 덴마크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행동 전략(The World 2030 – Denmark's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ion)"을 2017년 1월에 발표

○ 덴마크는 변화하는 개발협력의 환경과 발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갱신하며 원조의 체계성을 다져옴.

⇒ 구(舊) 전략문서들은 다음과 같음: 1) 2000 덴마크 개발 정책 전략(Denmark's Development Policy Strategy); 2) 2010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 변화할 자유(Freedom From Poverty – Freedom to Change); 3) 2012 더 나은 삶을 향한 권리(The Right to a Better Life)

○ 최신 전략문서인 "세계 2030"에서 덴마크 정부는 '원조'에서 '투자'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성취에 초점을 둠.

43) 덴마크 외교부. (2017a).

〈표 22〉 Danida 전략

전략목표	세부 내용
1. 안보와 개발	• 평화와 안정 구축 및 개발도상국의 회복력 강화 • 교육 및 고용 기회 제공을 바탕으로 난민 보호 강화
2. 이주와 개발	• 불법적 이주 문제 해결 및 본국 송환 협력 강화
3.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	• 에너지, 물, 농업, 식량 등에 중점을 두며 개발도상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경제적 자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
4. 자유와 개발 - 민주주의, 인권, 양성평등	•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장을 위한 활동에 투자 • 차별 없는 사회 지향

자료: 덴마크 외교부(2017a)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Danida는 덴마크 외교부가 시행하는 개발협력 업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협력 업무의 개별 실무는 외교부의 다양한 센터와 부서에서 담당

○ Danida는 덴마크 개발협력의 계획, 실행, 품질보증 업무를 포함하며 현지 채용 직원과 실무 담당 직원이 덴마크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음.

○ 덴마크의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센터와 부서는 다음과 같음: 1) 국제개발협력센터(Centre for Glob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GUS); 2) 국제정치안보센터(Centre for Global Politics and Security, GPS); 3) 유럽/북미센터(Centre for Europe and Northern America, EUNA); 4) 평가부서(Evaluation Department, EVAL); 5) 법률서비스센터(Centre for Legal Services, JT)

⇒ 유럽/북미센터의 경우 EU 회원국, 동유럽 및 동남유럽 국가, 북미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EU의 이웃국가인 동유럽과 동남유럽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덴마크 인접국가 프로그램(Danish Neighbourhood Programme)을 담당함.

⇒ 법률서비스센터는 국제인권과 관련한 덴마크 개발협력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덴마크 개발협력의 전략인 국제인권과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주요 역할을 수행함.

□ **(인력)** 2016년과 2017년 사이 외교부의 대대적인 인력감축 시행

○ 2015년 12월 기준 코펜하겐 본부에 재직 중이던 1,165명의 정규직 인력이 9% 감소되어 2016년 12월 1,065명으로 기록됨.

○ 외교부의 ODA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인력은 2015년 기준 135명에서 2016년 102명으로 감소

○ 현지 인력의 경우 덴마크 ODA 규모 및 우선순위 국가·지역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

⇒ 기존의 우선순위 국가였던 국가들 중 4개의 국가가 배제되면서 2017년 5%의 직원이 감축됨.

〈표 23〉 Danida 인력현황

(2016년 덴마크 외교부 자료 기준)

2003년-2016년 덴마크 외교부 Danida 인력					
	2003.12	2007.12	2011.12	2015.12	2016.12 추정치
본부 총 직원 수(명)	938	923	954	820	742
파견 직원 수(명)	495	459	430	345	323
현지 고용 직원 수(명)	970	1,162	1,337	1,340	1330
현지 사무소 직원 비율(%)	60%	64%	65%	67%	69%
현지 사무소 파견 직원 비율(%)	21%	18%	16%	145	13%
전체 직원 수(명)	**2,403**	**2,544**	**2,721**	**2,505**	**2,395**

자료: OECD(2016) p61.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주요사업)** 최근 '원조'보다 '투자'성격의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사업 수행

○ 파트너십과 민간분야 개발을 강조하여 이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룸.

○ 덴마크 Danida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4〉 덴마크 Danida 주요사업 개관

	덴마크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Danida 역량개발지원 프로그램(DCDSP)**	Danida 시장개발파트너십프로그램***
배경	• 2015년 1월 덴마크 공공단체와 파트너십 관계인 개도국에 자금지원을 위해 착수되었으며, 본래 3개년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덴마크 개발협력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함.	• 1990년에 설립된 Danida Fellowship Centre에 의해 관리 되었던 Danida Fellowship Programme (이하 DFP)이 2012년 실시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2014년부터 Danida Capacity Development Support Programme (이하 DCDSP)로 재개되었음. DCDSP는 DFP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	•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시장개발을 위한 상업지향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의 참여를 도모하여 SDGs 달성에 기여 • 2016년 6월 덴마크 외교부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첫 출범되었으며 2017년 5월부터 시작되는 4개년 프로그램
비전	• 민간 투자와 민관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창출과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SDGs 달성	• 역량개발지원을 통한 덴마크 개발협력의 전략적 우선순위의 촉진과 참여, 책무성, 무차별성과 투명성의 원리 고취	• SDGs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전략 목표	• 덴마크 관계부처와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로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조성 • 덴마크 비즈니스의 장기적 국제화 • 해당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덴마크 양자관계 강화	• 개발도상국 파트너국가들의 향상된 조직성과와 장기적 조직 역량 개발 • 고품질의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덴마크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분야에서 파트너국가의 역량개발 니즈(needs), 수요(demand), 및 준비성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의 도출	• 덴마크 우선순위 국가 중 중소득국(세계은행 기준 2017년 1인당 GNI 수준 4,035 달러)대상 • 상업지향형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수립 및 수행에 대한 자문과 경영, 부분적 재정지원 제공 • 인권기반접근과 젠더심사도구 (Gender Screening Tool) 활용
중점 추진 분야	• 덴마크 당국과 파트너 국가가 설정한 전략적 섹터 협력 (Strategic Sector Cooperation, 이하 SSC) 프로젝트 • SSC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지닌 개발 전문가 배치	• 파트너 기관에 OECD/DAC 정의에 맞춘 역량개발 지원 및 혁신과 가장 모범적인 교육 접근과 방법 제공 • 파트너 국가가 자국의 상황(context)에서 역량개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파트너 국가의 준비성(readiness) 강화	•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결과지표: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지속가능한 소득기회창출 3. 프로젝트 비즈니스 사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4.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수행역량개발 5. 투자 자금조달

* Partnering with Denmark – Danish Authoriti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itiative
** Danida Capacity Development Support Programme
*** Danida Market Development Partnership Programme
자료: 덴마크 외교부(2014, 2016, 2017b)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주동주. 2009. “북유럽 국가의 ODA 발전과정과 현황”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391-418.

덴마크 외교부. 2014. “Policy for Danida Capacity Development Support Programme.”

_____ 2016. “Partnering with Denmark.”

_____ 2017a. “The Government’s Priorities for Danish Development Cooperation 2018.”

_____ 2017b. “Updated Programme Document: Danida Market Development Partnership Programme 2017-2020.”

OECD.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Denmark.” Paris: OECD.

덴마크 외교부 홈페이지: http://um.dk/en/danida-en/ (접속일: 2018.04.10.).

OECD Data: https://data.oecd.org/conversion/exchange-rates.htm (접속일: 2018.04.10.).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4.10.).

7. 핀란드(Finland)

가. 원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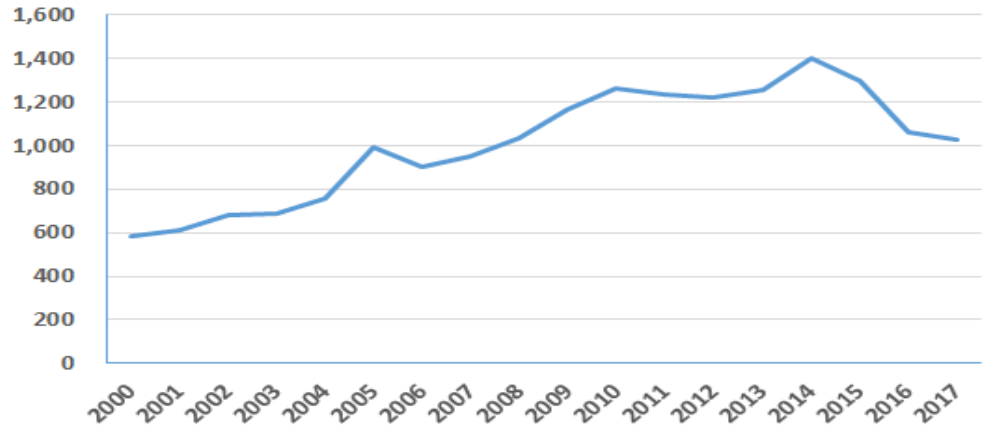
□ **(총괄)**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ODA/GNI 비율 및 총 규모면에서 2014년부터 주춤한 형태

○ **(현황)** 2000년 이후 2010년까지는 원조규모가 꾸준한 증가세에 있었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7년 원조규모 1,024백만달러, ODA/GNI 비율 0.41%기록

⇒ OECD 평가에 따르면 핀란드의 ODA/GNI 비율은 2018년에는 0.38%로 조금 더 감소할 예정이며, 외교부 정책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21년까지 지속될 예정[44]

〈그림 33〉 핀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21.)

○ **(핵심문서)**[45] 2016년 2월에 발간된 정부 개발 정책 보고서 "하나의 세계,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하여(Finland's Development Policy: One world, common future –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UN의 SDGs 목표 달성과 국제 기후 협약, 현 난민 사태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목표와 전략을 표명

44) OECD. (2017) p18.

45) 핀란드 외교부. (2016).

□ **(예산)**[46] 핀란드 정부의 2018년 개발협력 지출예산으로 886.3백만유로(GNI의 0.38%)가 할당될 것으로 추정

○ 전체 개발협력 예산에서 핀란드 외교부(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총 546.3백만유로(전체대비 약 62%) 규모

○ 외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ODA 예산 외에는 개발정책투자의 형태로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개발정책투자 예산으로 130백만유로가 투입될 예정

⇒ 동 예산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기후 대책 관련 지원, 국내유입 난민지원, 핀란드 산업협력기금(Finnfund) 할당 예산, EU 개발협력 예산 등이 포함

〈표 25〉 핀란드 정부 2018 개발협력 예산항목

(단위: 백만유로)

개발협력 예산항목	2017년	2018년
외교부	474	487.5
국가특정 및 지역 개발협력	147	129
다자기구 개발협력	145	169
인도적 원조	71	72.5
시민사회단체 개발협력	65	65
비국가특정 개발협력	33	33
기타	13	19
외교부 외 할당 예산	244	235.5
국내유입 난민 지원	36	32
Finnfund	86	49
민간 위기 관리(Civilian Crisis Management)	15	14
기타	107	140.5
EU 개발협력 예산	163	163
총 ODA 예산	881	886

자료: 아래의 핀란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 개발 협력 전용 인포그래픽 2017-2018 (http://formin.finland.fi/public/default.aspx?nodeid=49314&contentlan=2&culture=en-US) (접속일: 2018. 06. 15.)을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46) 핀란드 외교부 홈페이지(https://um.fi/frontpage) (접속일: 2018.04.16.).

□ **(지역배분)** 아프리카 지역에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나 2014년부터 규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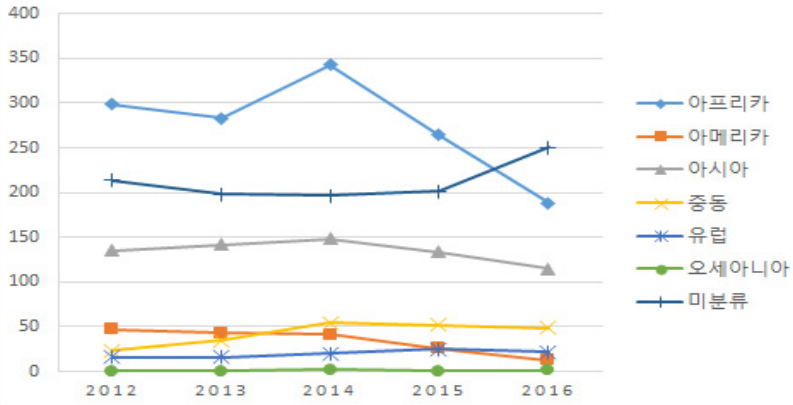
○ 미분류 원조를 제외하고 2016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29.5%(188백만달러)를 차지하며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으로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약 18%(114.7백만달러)를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1,377, 38.3%), 아시아(672, 18.7%), 중동(213, 5.9%), 아메리카(169, 4.7%) 등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2014년 343백만달러(전체 원조대비 약 43%)로 최고규모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그 규모가 하락세를 나타냄.

〈그림 34〉 핀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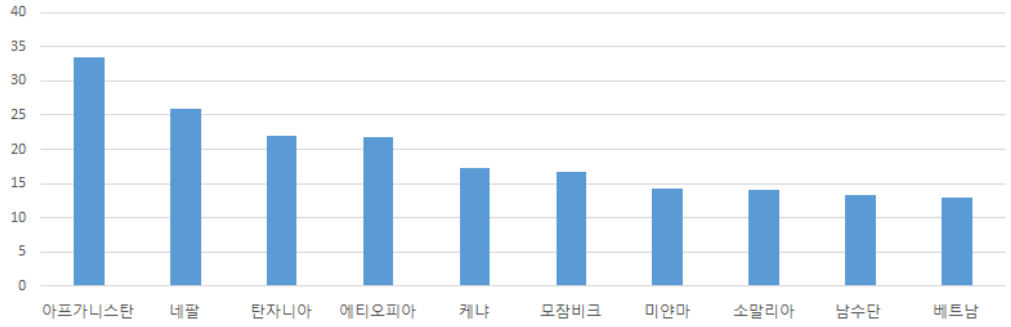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33.5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네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이 차지

〈그림 35〉 핀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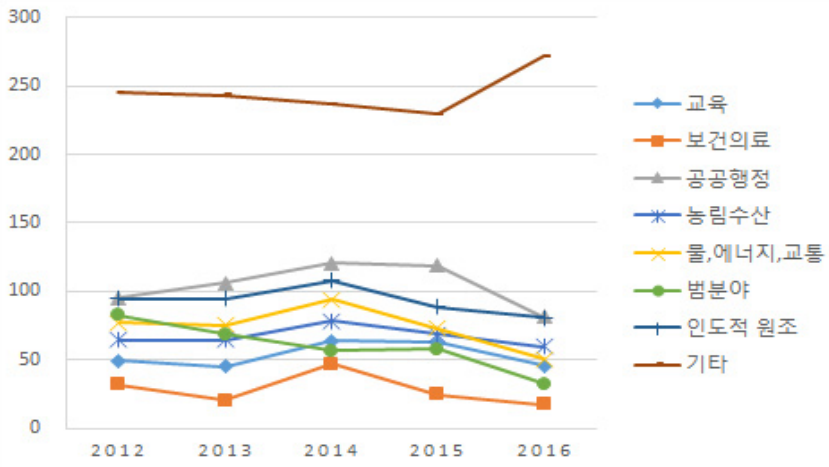
□ **(분야배분)**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분산

○ 2012-2016년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비중이 꾸준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로 분류된 국내 난민지원의 경우 2015년(39.3백만달러) 대비 2016년(130.2백만달러)에 그 규모가 230% 증가

〈그림 36〉 핀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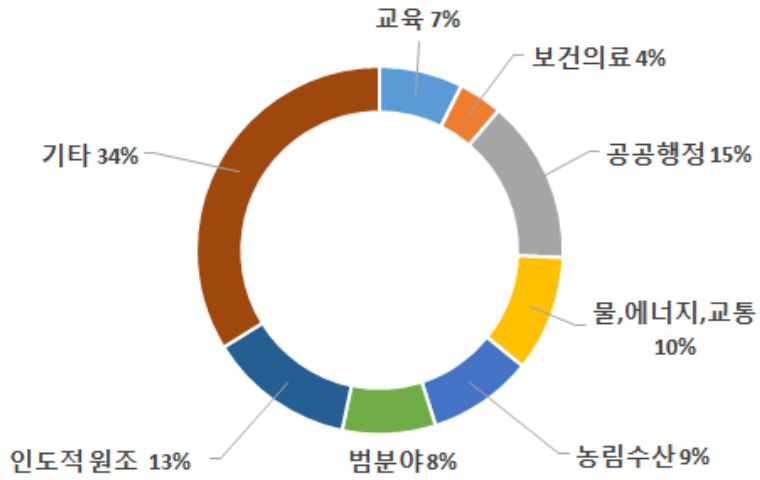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핀란드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3,623백만달러이며 그 중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1,226, 33.8%), 공공행정(522, 14.4%), 인도적 원조(467, 12.9%), 물·에너지·교통(370, 10.2%), 농림수산(335, 9.2%) 등

〈그림 37〉 핀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핀란드 외교부(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 **(전략 및 목표)**[47] 북유럽 사회의 근본 가치이자 원칙인 인권 구현을 주요 목표로 하며 핀란드 외교부가 개발정책 수립 및 개발협력 활동 수행 전반을 관할함.

○ 핀란드 개발정책의 목표는 빈곤 및 불평등의 근절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이며, 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 자체의 자원 활용 능력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핀란드 개발정책의 시행은 2016 개발정책 정부문서 "하나의 세계, 공동의 미래 -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하여(Finland's Development Policy: One world, common future -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네 개의 우선순위로 나뉨.

47) 핀란드 외교부. (2016).

⇒ 1) 여성 및 여아의 지위와 권리; 2)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3) 민주적이고 더 나은 기능을 하는 사회; 4) 식량안보, 물과 에너지 접근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개발정책의 네 가지 우선순위 외에도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한 다섯 가지의 핵심 원칙을 설정함.

⇒ 1) 인권; 2) 개방성(Openness); 3) 일관성; 4) 품질 및 지속가능한 결과; 5) 개발협력국의 자체적인 개발 책임(Partner countries'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development)

〈표 26〉 핀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분야	실천 목표
여성 및 여아의 지위와 권리	• 여성과 여아의 질 높은 교육에의 접근성 및 역량강화
	• 여성과 여아의 질 높은 기본 서비스(보건, 교육, 사회 서비스)로의 접근성 강화
	• 여성과 여아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에의 기회 및 역량강화
	• 여성과 여아의 폭력 철폐 및 삶에서의 의사결정권 강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 여성, 청년, 빈곤층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 구성원에게 양질의 일자리, 생계, 수입 접근성 강화
	• 개도국에서의 더욱 역동적이고 다각적인 민간부문과 경제활동 도모
	• 개도국의 개발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국제 비즈니스 규칙 도모
	• 지속가능한 개발에 이득이 되는 혁신, 새로운 노하우, 가치사슬과 기술 도모
민주적이고 잘 기능하는 사회	•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정치제도의 도모와 동등한 기회를 통한 시민들의 정치 의사결정 영향력 확대
	•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행정과 사법시스템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 효과적인 과세징수를 통한 공공서비스 재원의 증대
	• 시민사회가 기능할 수 있는 환경구현과 언론의 자유 향상
식량안보, 물과 에너지 접근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식량의 생산과 구매에 대한 가능성 향상
	• 깨끗한 식수와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지속가능한 에너지 해결책, 증가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감소하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투자 증대
	• 재생가능한 천연자원과 생태계(숲과 수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 사용, 보호 관리

자료: 핀란드 외교부(2016a)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48] 외교부 산하의 개발정책부서(Department for Development Policy)가 핀란드의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

○ 핀란드 외교부에는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협력 및 정책차관(Under-Secretary of Stat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olicy)이 있으며 개발정책부서는 외교부 9개 부서 중 하나

⇒ 개발정책부서는 핀란드 국제개발협력의 시행계획, 재정기획, 예산편성, 재무행정과 통계 및 보고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과 모니터링을 담당함.

○ 개발정책부서에는 다음과 같이 총 7개의 과가 있음

⇒ 1) 개발정책총괄과 (Unit for General Development Policy); 2) 섹터정책과 (Unit for Sectoral Policy); 3) 시민사회과 (Unit for Civil Society); 4) 개발재원과민간협력과 (Unit for Development Finance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5) 인도적지원정책과 (Uni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olicy); 6) 행정법률개발협력과 (Unit for Administrative and Legal Development Cooperation Matters); 7) 지속가능한개발과기후정책과 (Un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Policy)

□ **(인력)** 2018년 기준 핀란드 정부 정보에 따르면 개발정책부서인력은 총 91명이며, 과에 따라 세부 팀으로 나누어짐.

○ 핀란드 외교부 개발정책부서에는 총 7개의 과가 있으며 세부 팀으로는 총 11팀이 있음.

○ 핀란드 외교부의 세부 인력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48) 핀란드 외교부 홈페이지(https://um.fi/frontpage) (접속일: 2018.04.03.)

〈표 27〉 핀란드 외교부 개발정책부서 인력현황

(2018년 4월 기준, 단위: 명)

개발정책부서 내부(과)	인력 현황
개발정책총괄과	11
개발정책 위원회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2
섹터정책과	16
시민사회과	13
개발재원과 민간협력과	2
다자은행팀(Team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4
민간섹터기구팀(Team for Private Sector Instruments)	4
개발투자팀(Team for Development Investments)	2
인도적지원정책과	7
행정법률 개발협력과	2
법률팀(Team for Legal Issues)	3
경제계획팀(Economic Planning)	2
재무행정팀(Financial Administration)	3
정보시스템팀(Information Systems)	1
통계팀(Statistics)	2
지속가능한개발과 기후정책과	4
유엔개발정책 및 2030 아젠다조정팀(UN Development Policy and 2030 Agenda Coordination)	3
유엔개발시스템 및 환경컨벤션팀(UN Development System and Certain Environmental Conventions)	6
기후정책 및 수자원팀 (Climate Policy and Water)	4
합계	**91**

자료: 핀란드 외교부 홈페이지(https://um.fi/frontpage) (접속일: 2018.04.16.)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주요사업)** 핀란드는 시민사회조직 및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지향

○ 급증하는 인도적 원조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독립적인 인도적 정책을 마련하여 목적, 전략,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

○ 핀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8〉 핀란드 외교부 주요 사업 개관

	세금과 개발을 위한 액션프로그램 2016*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핀란드의 인도적 정책 2012**
배경	• 개발도상국의 과세표준을 강화시켜 잘 기능하는(well-functioning)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국제 탈세 방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위해 외교부와 개발정책에 대하여 시행	• 경제발전을 빈곤퇴치의 주요 기제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의 역할을 강조하며 탄생	• 핀란드 개발정책프로그램 2012***에 근거하여 탄생한 인도적 정책은 2009-2012년 핀란드 감사실이 시행한 업무 감사 권고를 따름.
비전	•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자원 동원에 대한 지원 배증(doubling) 공약	• 무역정책과 개발 • 무역과 투자 • 무역을 위한 원조	• UN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와 EU의 재난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에 발맞춘 원조 프로그램 지원
전략 목표	• 수정된 국제 과세 표준을 시행하여 기업의 국가별 세금 보고 달성 및 탈세와 부패 방지 • 개발도상국의 국내 재원동원과 조세 능력 향상 • 개발도상국에서 시민사회의 세금과 공공서비스의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 제고 •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신빙성 있는 국별 조사 및 분석, 해결방안 마련	• 주인의식 • 일관성 • 대사관의 역할 • 핀란드의 부가가치	• 인명구조와 피해자 고통 경감 • 국제사회의 범분야 원칙 준수 (인류애,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중점 추진 분야	•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Addis Tax Initiative, ATI)[49]의 시행	• 농업, 삼림, 에너지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다섯 개의 중점 항목으로 나뉨: 1) 무역정책과 규제; 2) 무역 개발; 3) 경제 인프라; 4) 생산 능력; 5) 무역조정비용	• UN이 설정한 체계에 따른 우선순위 국가 선정 • 전문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 • EU의 인도적 행동 지원

* Action programme for Tax and Development 2016
** Finland's Humanitarian Policy
*** Finland's Development Policy Programme 2012
자료: 핀란드 외교부(2008, 2012, 2016b)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49)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Addis Tax Initiative): 2015년 7월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에서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2020년까지 조세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지원을 두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송수전, 2017).

참고문헌

송수전. 2017. “국내재원동원(DRM)과 국제 조세 이니셔티브.” 한국국제협력단. 분야별 이슈 리포트 2017-1호.

핀란드 외교부. 2008. “Finland’s Aid for Trade Action Plan 2008-2011.”

핀란드 외교부. 2012. “Finland’s Humanitarian Policy.”

핀란드 외교부. 2016a. “Finland’s Development Policy: One World, common future –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핀란드 외교부. 2016b. “Tax and Development: Finland’s Action Programme 2016-2019.”

OECD.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Finland.” Paris: OECD.

핀란드 외교부 홈페이지: https://um.fi/frontpage (접속일: 2018.04.16.).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8.).

8. 프랑스(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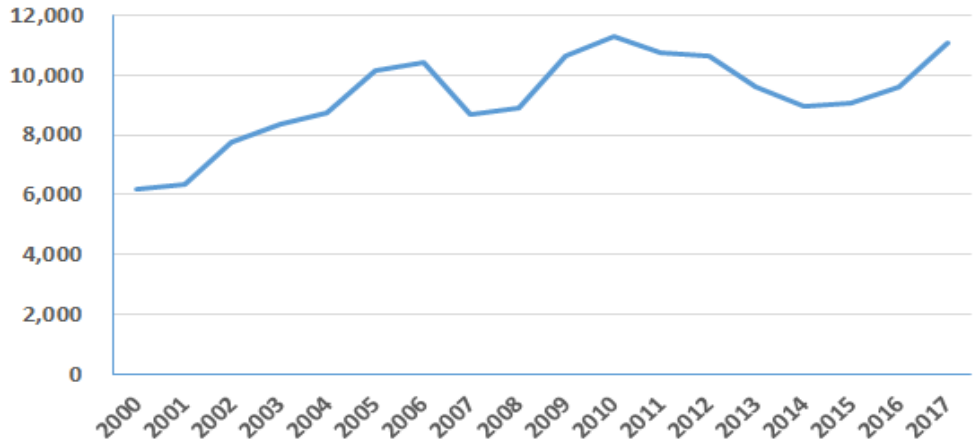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외교기반 원조전략에서 인도적 지원으로 변화 지향

○ **(현황)**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원조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3년간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원조규모 11,057백만달러, ODA/GNI 비율은 0.43% 기록

〈그림 38〉 프랑스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외교 전략에 기반한 원조를 수행해왔으며, 1961년에 설립된 협력부(Ministère de la Coopération)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1998년부터 프랑스 개발협력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이하 AFD)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를 이행[50]

○ **(핵심문서)** 2018년에 새롭게 채택된 전략문서인 "예방, 회복력, 지속가능한 평화(Prevention, Resilience and Sustainable Peace)"를 중심으로 포용적 거버넌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략목표 수립

50) 김종섭 외. (2012) p309.

○ **(분절화)** 2013년 OECD DAC 동료검토는 이전 동료검토에서 지적 되었던 프랑스의 분절화 문제가 AFD의 역할 강화를 통해 일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재원조달의 영역에서 복잡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함.[51]

□ **(예산)** ODA 예산은 크게 일반 예산과 기타 ODA 예산으로 구성

○ 일반 ODA 예산은 경제재정산업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EFI), 유럽외무부(Ministry of European and Foreign Affairs, MEAE), 기타 부서의 예산으로 구분되며, 경제재정산업부와 유럽외무부의 예산은 2017년 전년대비 약 110백만 유로가 증액되어 합계 약 2,700백만유로(ODA 일반 예산의 43%)를 차지

○ 경제재정산업부의 프로그램은 국제금융기구 분담금, 양자 간 원조(주로 AFD를 통한 차관), 손실 채무 보전 등으로 구성되며 유럽외무부의 프로그램은 AFD를 통한 양자 간 증여, UN 등 다자기구 분담금, 유럽개발기금 분담금 등을 포함

○ **(원조예산 수립과정)** 경제재정산업부와 총리실의 예산안 가이드에 따라 유럽외무부가 관련 예산안을 수립하며, 9월에 정부가 예산안 초안 확정 후 의회에 제출

〈표 29〉 프랑스 개발협력 예산항목

2018 ODA 예산 요약	백만유로	백만달러
ODA 일반 예산	6,267	6,932
경제재정산업부(MINEFI) - 110프로그램	961	1,063
01- 다자 경제, 재정지원	594	657
02- 양자 경제, 재정지원	263	291
02-1. AFD 유상	216	239
02-2. 기술지원	30	33
02-3. 일반 예산지원	10	11
02-4. 행정비용	7	8
03- 부채 탕감(AFD 또는 다자은행 및 기금)	104	115
유럽외무부(MEAE) - 209 프로그램	1,738	1,923
02 - 양자 협력	573	634
05 - 자발적 다자협력지원	151	167
07 - 유럽개발기금	850	940
08 - 인적자원	164	182

51) OECD. (2013) p104.

2018 ODA 예산 요약	백만유로	백만달러
기타 부처	**3,567**	**3,946**
고등교육	1,076	1,190
기타부처의 AFD 유상원조 지원액	1,033	1,143
추가 유상 ODA	77	85
난민지원	608	673
기타(기타 관련 프로그램의 ODA)	773	855
기타 ODA 예산 출처	**4,178**	**4,6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분담	1,531	1,694
국별 분담	296	327
유상원조 거래비용(국제기구 등)	661	731
부채탕감	220	243
기타(지역 기관, 물 기관, AFD 비 정부 출처)	462	511
항공권 세금	210	232
자본거래세	798	883
전체	**10,444**	**11,553**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france) (접속일: 2018. 04. 05.)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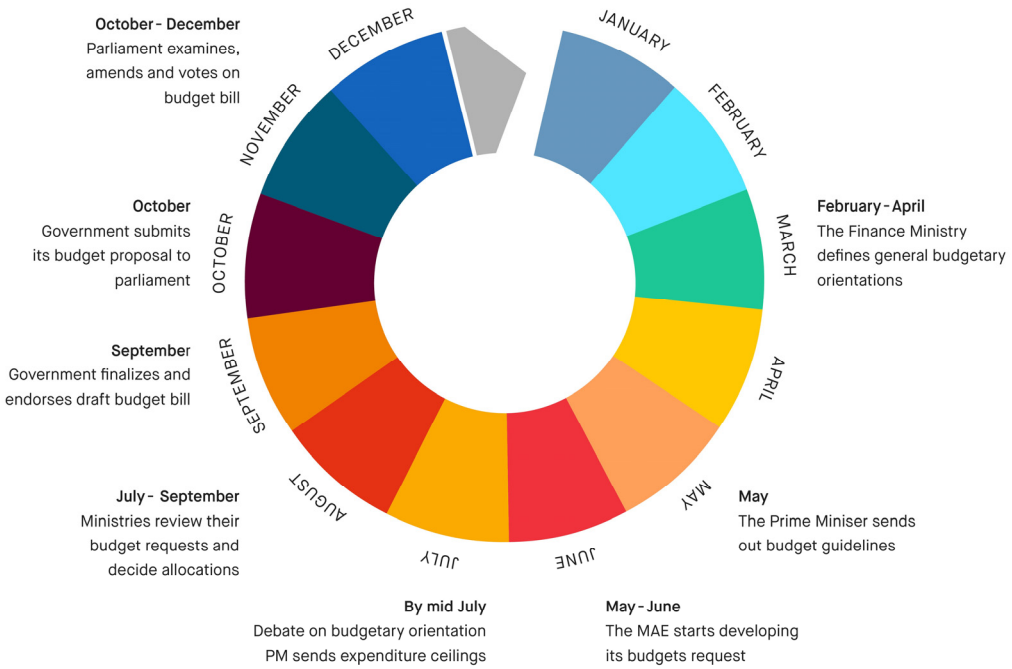
□ **(의회승인절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12월경에 의회가 최종승인

○ 주요 ODA 부문에 관한 개략적 예산은 6월과 7월경에 수립

○ **(의회승인처리과정)** 1) 정부의 예산안 제출; 2) 70일 간 의회의 예산심의·수정; 3) 의회 승인 및 정부지출예산안 확정

⇒ 2-4월에 경제재정산업부가 일반예산 방향을 제시하며 5월에 총리실이 예산 가이드라인 제시, 5-7월에 유럽외무부가 예산 요구안 작성, 7-9월에 총리실에서 예산안 검토 및 배분하며 9월에 정부예산 초안 확정, 10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12월까지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 및 수정 후 표결

〈그림 39〉 프랑스 AFD 예산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france) (접속일: 2018. 03. 16.)

□ **(지역배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경향

○ 2016년 기준, 구 식민지가 주로 분포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이 약 39.3%(2,217백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인 난민 지원을 포함하는 미분류 영역이 전체 대비 약 25%(1,411백만달러)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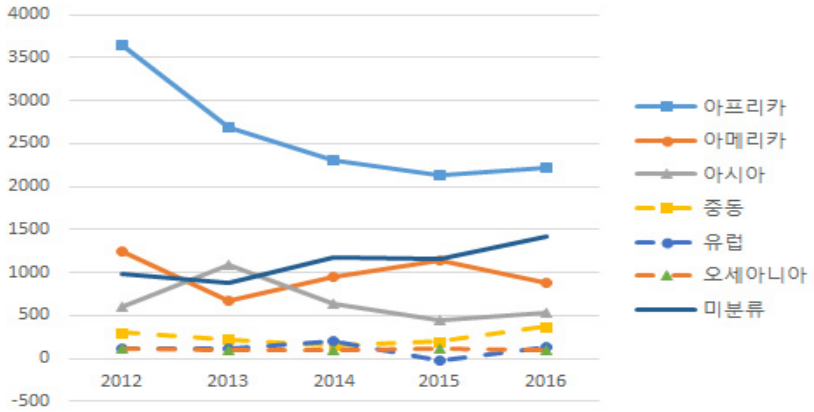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12,993, 44.6%), 미분류(5,617, 19.3%), 아메리카(4,878, 16.8%), 아시아(3,297, 11.3%), 중동(1,242, 4.3%) 등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2012년 3,653백만달러(전체 원조대비 52.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00백만달러 수준으로 감소

⇒ 2012년까지 단행한 코트디부아르 등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부채탕감이 2013년부터 감소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40〉 프랑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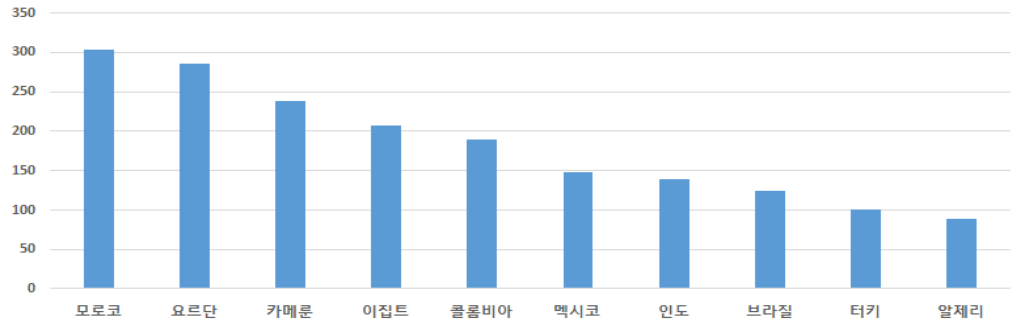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모로코에 대한 지원이 303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요르단, 카메룬, 이집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차지

〈그림 41〉 프랑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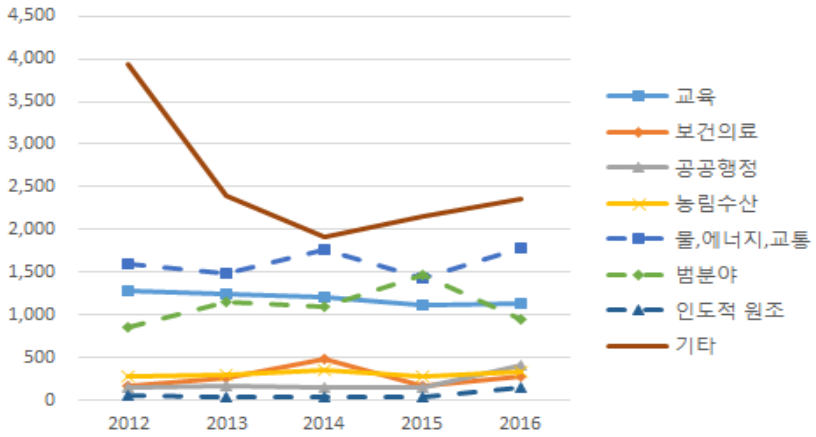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분야배분)**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분산

○ 2012-2014년 부채탕감 금액이 감소하면서 기타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감소하다 2015년 이후 행정비용 및 난민관련 지출의 증가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는 비교적 일정한 규모를 유지

〈그림 42〉 프랑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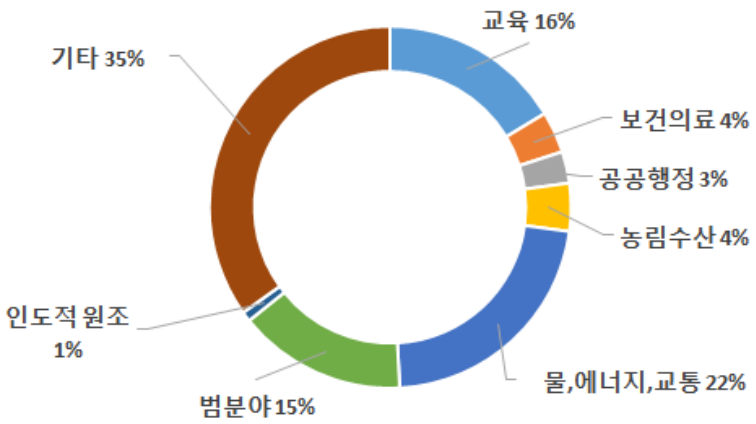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프랑스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36,627백만달러이며 그 중 부채탕감, 행정비용 및 난민비용을 포함하는 기타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12,779, 34.9%), 물·에너지·교통(8,063, 22.0%), 교육(5,979, 16.3%), 범분야(5,524, 15.1%) 등

〈그림 43〉 프랑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프랑스 개발협력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 **(전략 및 목표)** 개발도상국 및 프랑스 해외영토의 생활향상 도모

○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세워왔으나, 최근 마크롱 대통령 취임이후 인도적 지원, 기후문제 등의 국제적 문제들에도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추세[52]

○ 2016년 AFD는 전략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아프리카 지역 문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천명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부처 간위원회(The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CICID)는 AFD의 민간부문·지방정부·EU 및 기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강조함.

⇒ 새롭게 정의된 AFD의 책무는 1) 거버넌스 확립; 2) 문화 및 창의적 산업 육성; 3) 개발교육 및 국제연대; 4) 이주문제 대응; 5) 디지털 기술; 6) 새로운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등을 포함[53]

○ AFD는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공영을 추구함'이라는 목표아래,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주요 분야에서 '50% 목표치'를 제시함.[54]

〈표 30〉 AFD 주요 우선순위

전략목표 분야	세부 내역
기후	• 유·무상 원조의 50%를 환경과 관련된 개발 사업에 지출
성평등	•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50%를 개발과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성평등과 연계
협조융자	• ODA 약정금액의 50%를 파트너들과의 협조융자로 조달 •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해 협조융자 적극 활용
지역사회 및 기업	• ODA 약정금액의 50%를 개발의 다양한 참여자(시민사회, 기업, 지역사회, 은행, 투자기금, NGO 등)의 활동을 위해 지출
아프리카	• AFD가 약정하는 금액의 50%를 프랑스 ODA의 중점협력대상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배분
프랑스어권 지역	• 약정금액의 50%를 불어권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La Francophonie, OIF) 국가들에 지출

자료: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 (접속일: 2018. 05. 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52) 이상미. (2017) p9.
53)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 (접속일: 2018.06.22.)
54)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 (접속일: 2018.06.22.)

□ **(조직체계)** 유럽외무부가 무상원조 정책을 전담하고 경제재정산업부가 차관 등의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2부처 형식에 가까우며, AFD는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구조

○ CICID의 정책방향에 따라 유럽외무부는 기술원조 등의 무상원조 정책을 수립하며 경제재정산업부는 차관(신흥국가 기금, 연구지원 기금) 등의 유상원조 정책을 수립

○ AFD 본부의 경우 7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며 각각 1) 사업운영; 2) 혁신·연구·지식; 3) 전략 및 소통; 4) 재무; 5) 행정; 6) 인사; 7) 리스크관리부서로 구분[55]

○ 그 외에도 프랑스의 지역(Région)과 도(Département), 도시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 및 다양한 단체들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며, 국립탈중앙화협력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CNCD)에서 개별 개발체제를 지원하는 형태를 보임.[56]

○ 아프리카 28개국, 라틴아메리카 8개국, 아시아 태평양 13개국, 프랑스 해외영토 2개 지역, 인근국가 및 중동지역 4개국 등지에서 해외사무소 운영[57]

□ **(인력)** 본부의 인력비중이 높으며 인력규모는 일부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12월 기준 총 2,349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1,418명이 파리 본부에, 592명이 해외사무소에, 339명이 해외준비은행에 근무

⇒ 지역별 파견인력 비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도양 47%, 중동·북아프리카 12%, 아시아 17%, 아메리카·태평양 9%, 프랑스 해외 지부 등 15%[58]

○ 2013년 OECD DAC 동료검토에 의하면 프랑스의 기술전문가들은 협력국 정부 및 타 공여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DAC은 재정지출 변화에 관계없이 인력규모와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59]

---

55) AFD의 자세한 조직도 및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 참고
56) 김종섭 외. (2012) p315.
57)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케냐, 버냉,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카메룬, 모리타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차드, 모로코, 코모로, 모잠비크, 콩고, 니제르, 지부티, 세네갈,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가봉, 토고, 가나, 튀니지, 기니, 우간다),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아이티, 멕시코, 페루), 아시아 및 태평양(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남코카서스), 프랑스해외영토(레위니옹, 마요트섬), 인근국가 및 중동지역(터키,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 (접속일: 2018. 05. 23.).
58) AFD. (2017) p28.

〈표 31〉 AFD 인력현황

구분	2015년(명)	2016년(명)
프랑스 본토	1,088	1,218
해외 사무소	146	170
기술 지원	3	3
임시 근로자	25	27
본부 소계	1,262	1,418
프랑스 해외 공동체	111	109
해외 국가	464	483
현지 고용직원 소계	575	592
AFD 전체	**1,837**	**2,010**
해외 준비은행 본부	95	84
해외 준비은행 현지고용	253	255
해외 준비은행(Overseas Reserve Bank) 전체	**348**	**339**
AFD 그룹(Group)에 의해 운용되는 인력 전체	**2,185**	**2,349**

자료: AFD(2017)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주요사업)** 혁신적 재원을 동원한 금융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수행

○ 파트너 국가별로 차별화 된 사업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수단도 차별화

⇒ 최빈국에는 무상원조, 중소득국에는 공통 관심분야에 관한 협력강화 및 차관제공 등으로 세분화[60]

○ 사업 분야 및 원조수단의 다양성을 AFD 최대의 자산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00여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최초로 9,000백만유로를 초과하는 지원 실적 달성[61]

○ 프랑스 AFD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59) OECD. (2013) p65.
60) MEAE. (2011) p7.
61)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 (접속일: 2018. 03. 16.)

〈표 32〉 프랑스 AFD 주요 사업 개관

	개발금융기관 (PROPARCO*)	기술 전문지식 및 경험공유 기금(FEXTE**)	농업 및 농촌 금융지원 (AGREENFI***)
배경	•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원인 민간부문의 육성을 위해 1977년부터 민간분야 지원	• 중소득국의 성장으로 촉발된 기술 및 정책에 관한 수요증대	• 농촌지역의 성장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필요성 증대
비전	• AFD의 민간부문 금융지원 수단으로써,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기업 양성	• AFD의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득국의 녹색 성장 및 기술발전에 기여	• 신흥국의 생산적·탄력적 농업을 촉진하고 농촌인구의 생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구조 확립
전략 목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양하고 금융보안 및 투명성 강화 • 모니터링 및 임팩트 측정을 위한 지표 관리	• 중소득국 개발 수요 충족 • 공공 정책대화 진행 • 프랑스의 노하우 전수	•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들의 농촌인구에 지속가능한 금융적 지원과 맞춤화된 기술 지원을 제공
중점 추진 분야	• 고객에 전문지식 제공 •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 탄소배출량 감축 • 생물다양성 보호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기술 원조 • 장·단기적 관점에서 전문지식 전달 • 공공기관과의 전략적 협업 • 고등훈련 및 연구 등	• 지역 금융기관의 활동 독려 및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체질개선 • 지역 불균형 감소 및 동반 성장 독려

* Promotion et Participation pour la Coopération Économique

** The Fund for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ience Transfers

*** AFD Group's Agricultural and Rural Finance Label

자료: PROPARCO 홈페이지(https://www.proparco.fr/en) 및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접속일: 2018. 03. 16.)

참고문헌

김종섭 외. 2012.『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미. 2017. “미국・프랑스・한국 신정부 출범과 ODA 동향.”『개발과 이슈』제 30호: 1-20.

AFD. 2017. “AFD Registration Document 2016.” Paris.
MEAE. 2011. “Development Cooperation: a French Vision.” Paris.
OECD. 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France.” Paris: OECD.

AFD 홈페이지: https://www.afd.fr/en (접속일: 2018. 03. 16.).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france (접속일: 2018. 03. 16.).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PROPARCO 홈페이지: https://www.proparco.fr/en (접속일: 2018. 03. 16.).

9. 독일(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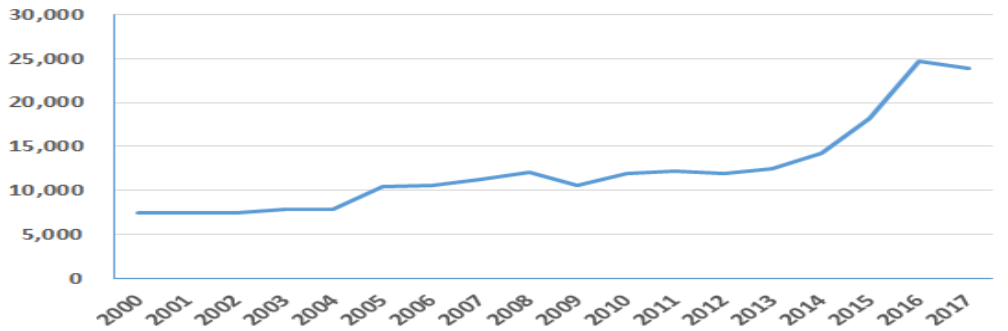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개발협력의 핵심사항이 국내외 정책에 일관적으로 반영

○ **(현황)** 미국에 뒤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2017년 원조규모 23,844백만 달러 및 ODA/GNI 비율 0.66% 기록

〈그림 44〉 독일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독일의 원조는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경제회복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면서 시작됨. 개발협력 초기부터 외교부와 경제부로부터 독립된 개발원조 전담부처인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이하 BMZ)"를 설립하여 운영

○ 통일 이후 동독의 원조정책이 서독으로 통합되며 원조 활동의 통일 및 효과성 제고가 전 독일의 이슈가 되었으나, 빈곤 감축이라는 기조는 항상 독일 개발원조 활동의 중심[62]이 되어옴.

○ **(정책일관성)** 2015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에 따르면 독일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및 SDGs 강조 등 국내외 정책 일관성은 존재하나, 실행 차원에서의 가이드나 정책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구축이 필요[63]

62) 한국국제협력단. (2014) p1.

□ **(예산)** 다양한 경로의 자금 제공기관을 공개하나 분야 및 국별 구체적 예산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 양자원조의 경우 국가별 및 분야별 세부항목은 의회에 '기밀사항'의 형태로 제출하며,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2017년 BMZ 총 예산은 약 8,541백만유로이며 양자 지출이 4,124백만유로로 약 48%의 비중 차지

○ 다자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유럽개발기금에 대한 분담금이며, 전체 다자 지출의 약 53%를 차지

⇒ 유럽개발기금,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등의 주요 다자 기금(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다년도 약정의 형식으로 독일 법령에 따라 책정됨.

〈표 33〉 독일 BMZ 2017년 예산 항목

항목	백만유로	백만달러
양자 지출	4,124	4,562
금융협력	2,220	2,456
기술협력	1,289	1,426
재난대응	500	553
기타분담금	115	127
다자 지출	1,565	1,731
유럽개발기금(EDF)	822	909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관련 다자기구	254	281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230	254
UN 기관	193	213
세계식량계획(WFP)	28	31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	20	22
국제농업개발기금	18	20
개발 은행	924	1,022
세계은행그룹	661	731
아프리카개발은행	190	210
아시아개발은행	72	80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기타단체와의 협력	987	1,092
기타 기여	853	944

63) OECD. (2015) p15.

항목	백만유로	백만달러
실향(displacement) 근본 원인 퇴치	395	437
One World-No Hunger 이니셔티브	220	243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	163	180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안정성 제고 및 발전	70	78
기타	5	6
행정 및 인사 지출	**88**	**97**
합계	**8,541**	**9,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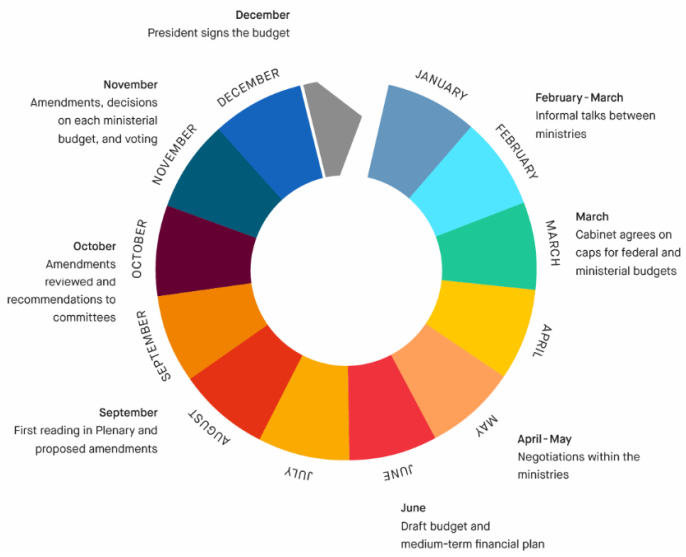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germany)(접속일: 2018.06.28.)

□ **(의회승인절차)** 주요 원조 예산은 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를 중심으로 부처 간 검토를 거치며 연초 예산안 수립은 연말 대통령의 승인으로 결정

○ **(의회승인처리과정)** 의회승인절차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침: 1) 부처 간 조정; 2) 초안 및 중기 재정전략 작성; 3) 부처 협상 및 투표; 4) 대통령 승인

⇒ 2–3월 사이에 부처 간 논의된 예산내역을 기반으로 4–5월에 각 부처 간 협의 및 협상을 진행함. 6월에 의회에서 예산협상 및 정부 제출 초안 작성이 진행되며, 재무장관·재무부·개발부처의 조율이 이 시기에 이루어짐. 9–11월 사이 의회에서의 예산 조정과 함께 BMZ의 예산 배분을 위한 개발위원회 및 예산 위원회 개최 후 조정을 거쳐 11월에 본회의 상정, 투표 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

〈그림 45〉 독일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germany)(접속일: 2018. 0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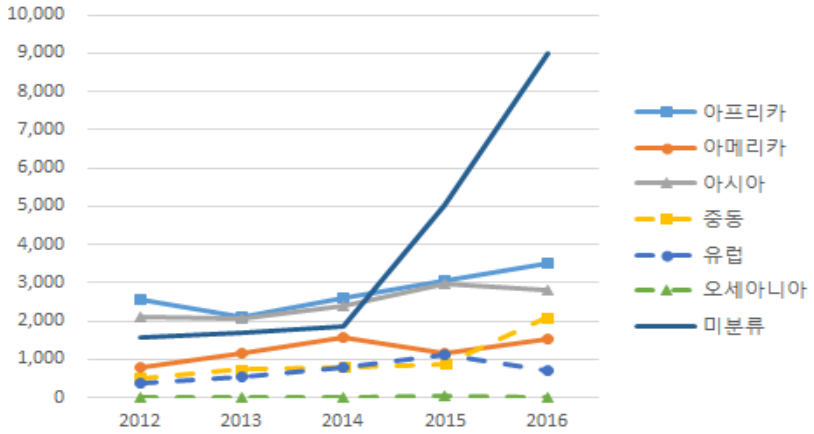
□ **(지역배분)**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난민 관련 지원으로 인한 미분류 영역의 비중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2014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미분류 영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19,161, 31.9%), 아프리카(13,834, 23.0%), 아시아(12,332, 20.5%), 아메리카(6,158, 10.2%) 등

〈그림 46〉 독일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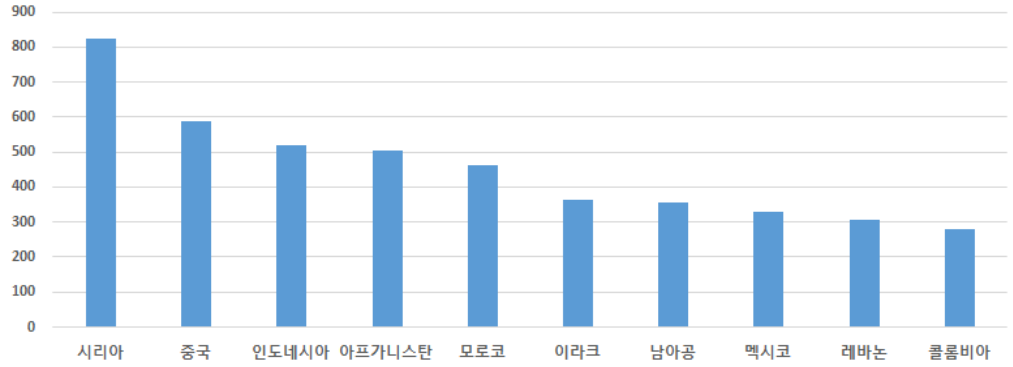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시리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와 모로코, 남아공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뒤를 이음.

⇒ 2016년 주요 수원국 지원 규모(백만달러): 시리아(824), 중국(589), 인도네시아(519), 아프가니스탄(503), 모로코(463) 등

〈그림 47〉 독일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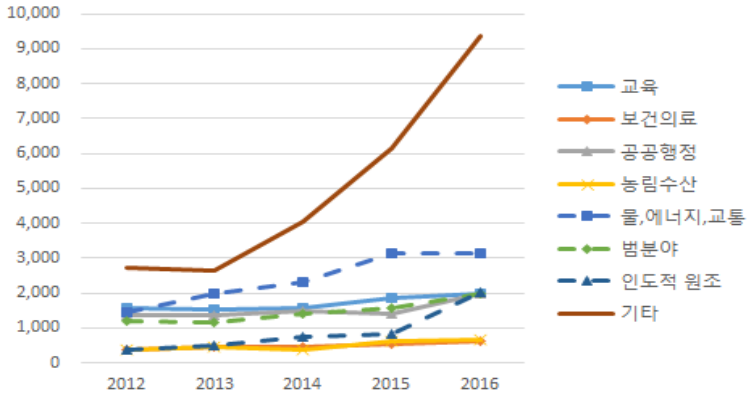
□ **(분야배분)** 다른 분야에 비해 기타분야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2014년까지 100백만달러 규모를 유지하던 난민관련 지원 금액이 2015년부터 급증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기타 분야의 지원규모 또한 크게 증가함.

⇒ 독일 내 난민 관련분야의 총지출액은 2015년 3,049백만달러, 2016년 6,585백만달러로 증가함.

〈그림 48〉 독일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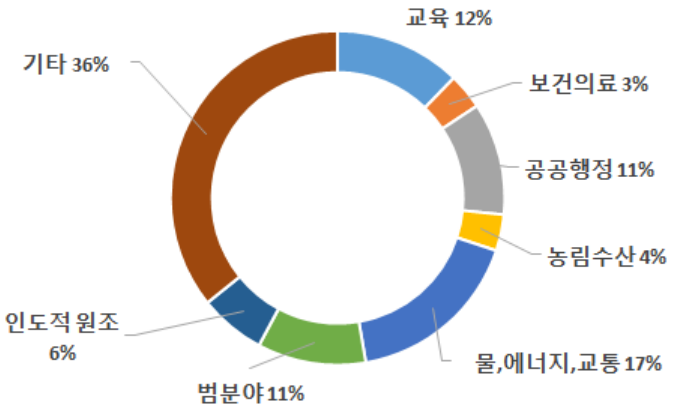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2012-2016년 독일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69,645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35.8%를 기록하였고, 인프라와 관련된 물·에너지·교통 분야의 비중이 17.2%로 두 번째를 차지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24,919, 35.8%), 물·에너지·교통(11,978, 17.2%), 교육(8,523, 12.2%), 공공행정(7,589, 10.9%) 등

〈그림 49〉 독일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나. 국제협력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

□ **(전략 및 목표)** "미래에 집중(Focus on the Future)"전략 하에 2017-2019 GIZ 기관 내 "경영전략(Corporate Strategy)"을 수립

○ GIZ는 파트너 기업 및 국가원조기관 등을 고객으로 정의하여 서비스를 지원

○ 범분야로 지속가능성, 성평등, 디지털 변화를 지정하고 모든 기업전략에 적용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특히 차세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비용 효과성과 책무성을 강조함.

〈표 34〉 GIZ 2017–2019 새로운 전략

전략목표	전략과제
1. 효과성 달성에서의 목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성과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파트너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충족	• 사업관리 시스템의 재편성 및 종합적인 결과물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재조정 • 기관 외부에서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결과발표에 대한 방법을 개선
2. 사업개발의 측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활동	• 2017-2019년 사업파트너들의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분야들에 집중하며, 구체적으로 실향민, 난민 및 이민, 안보 및 안정,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초점을 맞출 것임.
3. 전문성과 연합의 측면: 직원들의 기술 및 동기부여, 즉시 동원 가능한 전문성, 파트너들과의 협력 및 전략적 연합 강화	• GIZ인력에 대한 추가기술 습득, 독일 및 현장에서 과제 수행 시 필요한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하고 계속적인 서비스를 요청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
4. 비용효과성 측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책임성 부여로 비용효과성 향상	• 공적 이익을 영위하는 기관의 속성 상 비용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필수적인 요소임. • 정부와 납세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업무효율성에 대한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검증 가능한 비용효과성에 대한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됨.

자료: GIZ 홈페이지(https://reporting.giz.de) (접속일: 2018. 06. 05.)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19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되며 조직 경영관리는 별도 단위로 운영

○ 유한책임회사인 GIZ는 기술협력전반을 담당하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별 사업에 대한 제안을 BMZ에 제시

○ GIZ 본부의 경우 기관의 자체 경영과 유지를 위한 경영관리부를 두고 있으며 각각 1) 사업개발; 2) 기업 커뮤니케이션; 3) 법무와 법무보험; 4) 준법감시; 5) 감사부로 구성

○ 이외 부서로는 1) 고객관계 및 사업개발; 2) 분야개발; 3) 국별(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 4) 평가; 5) 경영안보; 6) 국제협력교육; 7) 인사·재무·국제서비스 등으로 세분화[64] 됨.

□ **(인력)**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여성관리자 비율을 매년 책정함.

○ 2016년 12월 총 18,26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12,605명이 현지에서 계약한 현지직원으로 70%에 육박[65]

64) GIZ. (2017) p66-67.
65) GIZ. (2017) p3.

○ 전체 인력 중 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이 1,962명,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독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525명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전문가 그룹은 총 2,168명으로 본부 일반직원 수를 상회함.

○ 기관 근무 직원들의 성별을 구분하여 매년 비율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무·관리자 및 본부와 파트너국으로 구분한 성별 통계를 공개함.

〈표 35〉 GIZ 인력 여성비율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총 인력 대비 여성비율						이사회 여성비율		관리직 여성비율					
독일		파트너국		총 인력				독일		파트너국		관리직 전체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66.7	66.7	39.2	41.1	55.6	56.9	50	50	44.7	42	31.1	35.2	36.8	37.9

자료: GIZ(2017)

〈표 36〉 GIZ 지역별 인력 구성*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개발전문가		현지 채용		개발 인력**		통합전문가***		귀국전문가***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사하라이남아프리카	786	830	4,140	4,551	393	348	141	128	159	170
아시아/태평양	451	413	2,428	2,440	138	137	74	64	157	132
유럽/캅카스산맥/중앙아시아	413	413	3,138	3,159	35	15	162	134	73	65
중남미/카리브해	207	217	1,233	1,252	119	105	80	66	52	32
지중해지역/중동	287	260	977	1,167	45	38	28	21	65	35
산업화국	25	35	33	36	0	0	0	0	0	0
합계	**2,169**	**2,168**	**11,949**	**12,605**	**730**	**643**	**485**	**413**	**506**	**434**

* 독일 근무 인력은 제외

** 개발 인력 643명 중 105명은 민간평화봉사단(Civil Peace Service) 전문가로 파견됨.

*** 통합전문가는 국제이주개발센터(Centre for Interatn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CIM)에서 파트너국 고용주에게 파견하는 인력으로, GIZ 및 독일연방고용청(German Federal Emplyment Agency)과 공동으로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있음. 파트너국 고용주가 현지 시세에 따라 통합전문가의 임금을 제공하며 CIM에서 추가 임금(top-up payment)을 지원함. 귀환전문가 또한 CIM에서 추가 임금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자료: GIZ(2017)

□ **(주요사업)** 빈곤 감축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수행

○ 아프리카 대륙의 빠른 인구증가를 예견하고 이에 중점을 두어 민간투자 및 원조 방향의 선회를 강조한 아프리카 마셜플랜 및 글로벌 기아퇴치 이니셔티브를 진행

○ 개발사업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전사적인 사업관리 체제를 개발

⇒ 역량모델 WORKS(Capacity WORKS)를 통한 설득력 있는 전략기획을 지향함.

○ 최근 급증하는 이주 및 난민문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 수행

○ GIZ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37〉 독일 GIZ 주요 사업 개관

	세계는 하나 – 기아퇴치 이니셔티브*	역량모델 WORKS**	중동지역 난민고용지원***
배경	• 충분하고 건강한 식량을 영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개발협력 상황을 고려한 관리 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	• 약 25만명의 시리아 난민과 백만명 이상의 이라크 국내 추방난민의 발생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문제 대두
비전	• 기아와 영양실조의 종식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리 모델로서의 Capacity WORKS	• 난민 수용국(host region) 주민과 정착민의 복지 증진
전략 목표	• 식량권 실현 • 사회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장경제 구축 • 성평등 실현 • 효율성·효과성·투명성 강조	•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전략 지향 (협력주체·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작동가능한 프로그램 구현, 전략 과정에 대한 이해 등) •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혁신	• 난민과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당 지역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중점 추진 분야	• 식량안보 • 재난과 분쟁상황에서 회복력과 식량안보 확보 • 농업식량분야에서의 혁신	• 모성보건 • 환경분야 • 식수 및 위생분야	• 대규모 난민수용소가 존재하는 이라크 북부지역 인프라 개선 • 위생, 응급처치 등의 필수적 지식 전수 • 난민수용소 환경정리 및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난민들에게 수당 제공

* The One World – No Hunger Initiative

** Capacity WORKS

*** Cash for Work in the Middle East

자료: BMZ(2015), GIZ(2012) 및 GIZ 홈페이지(https://www.giz.de/en)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 2014.『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독일 GIZ의 정책 및 수행체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BMZ. 2015. “One World - No Hunger A brief outline of the Special Initiative.”

BMZ. 2017. “Africa and Europe- A New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eace and a Better Future.” Bonn: BMZ.

GIZ. 2012. “Capacity WORKS Success Stories- Examples of Best Practices.” Bonn and Eschborn, Germany: GIZ.

GIZ. 2017. “GIZ Integrated Company Report.” Paderborn, Germany: GIZ.

OECD. 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Germany.” Paris: OECD.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germany (접속일: 2018. 06. 05.).

GIZ 홈페이지: https://www.giz.de/en (접속일: 2018. 06. 05.).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6. 0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10. 그리스(Gre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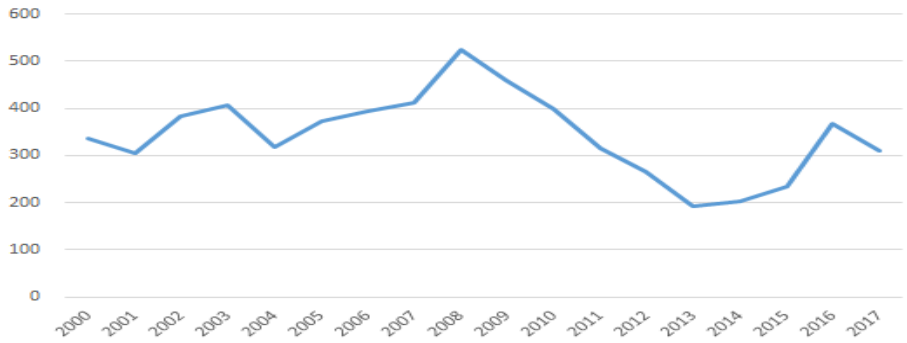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높은 구속성 원조, 분절화, 정부 전략 미완성, 조직체계 비효율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드러남.

○ **(현황)** 2000년 이후 그리스의 원조 규모는 증감을 반복해오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재정위기로 원조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로 2017년 기준 ODA 총액 310백만달러, ODA/GNI 비율 0.16% 기록

〈그림 50〉 그리스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핵심문서)** 재정위기로 2011-15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미완성 상태이며[66], 그리스 정부에서 공표한 최신 자료로 "2015년도 그리스 양자 및 다자 ODA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f the Greek Bilateral and Multilateral Offic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ssistance)" 가 있으나 간략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

○ **(분절화)** 그리스 개발협력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기능이 사실상 제한적이고 다자 원조는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이하 재경부)에서 담당하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자 원조 사업을 시행함.[67]

66) European Commissions 홈페이지(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19.)

□ **(예산)** 재경부에서 예산 준비 및 집행 주관

○ 재경부에서 역년(calender year) 기준으로 매년 예산 준비 및 집행 과정을 주관하며, 그리스 정부 예산은 경상 예산과 투자 예산으로 구성됨.

○ **(원조예산 수립과정)** 1) 예산년도 전년 1월 또는 2월에 경제분석실(Macroeconomic Analysis and Forecast Directorate)에서 예산년도·중기 거시경제 예측 및 분석[68]; 2) 총리 중심 내각 회의에서 전반적인 예산 구성 논의; 3) 5월 회계감사원 예산실(Budget Directorate)에서 예산 안내문(budget circular)을 각 부처에 전달; 4) 6월 공공투자실(Directorate for public Investment)에서 투자 지출지침에 관한 예산 안내문을 각 부처에 전달; 5) 6월 중순까지 각 부처에서 경상 및 투자 예산안 제출

□ **(의회승인절차)**

○ 재경부에서 예산안 수립을 총괄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일반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나, 재경부에서 수립한 예산안이 의회 사전예산회의에서 변동될 여지는 사실상 없음.

○ **(의회승인 처리과정)** 1) 10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재경부에서 의회로 예산안 제출; 2) 의회 경제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산 토론 및 예산안 검토; 3) 의회 총회에서 최소 5일간 예산안 관련 논의 후 투표

□ **(지역배분)** 개별 지역으로는 유럽 지역 원조에 집중하나 양자원조 총액 대비 공여국 내 난민지원액이 압도적인 비중 차지

○ 2012-2016년 지역별 양자원조 총액은 약 390백만달러이며 그 중 지역 미분류 원조액이 280백만달러로 71.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개별 지역으로는 유럽 원조액이 66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나 2013년 전년대비 86% 감소 후 미비한 증가세가 지속됨.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280, 71.9%), 유럽(67, 17.1%), 중동(17, 4.3%), 아프리카(15, 3.9%), 아시아(9, 2.3%), 아메리카(2, 0.5%), 오세아니아(0.01, 0.0%)

⇒ 2014년 이후 지역 미분류 원조액의 급증은 공여국 내 난민지원액 급증의 시기 및 규모와 상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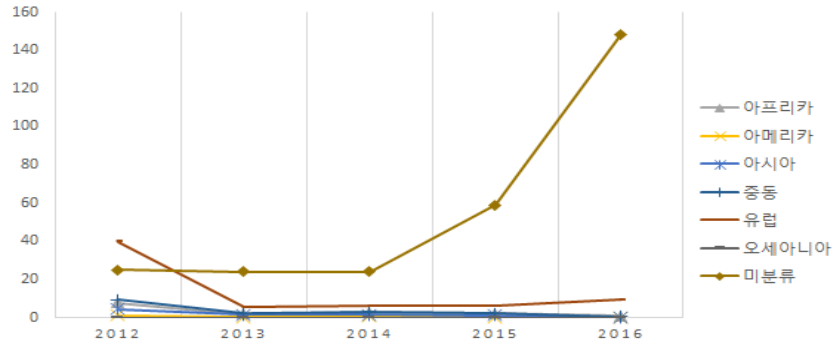
---

67) 상동

68) 그러나 동 분석이 사실상 각 정부 부처의 예산 수립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그리스 예산의 통합성이 저해됨(OECD, 2008).

〈그림 51〉 그리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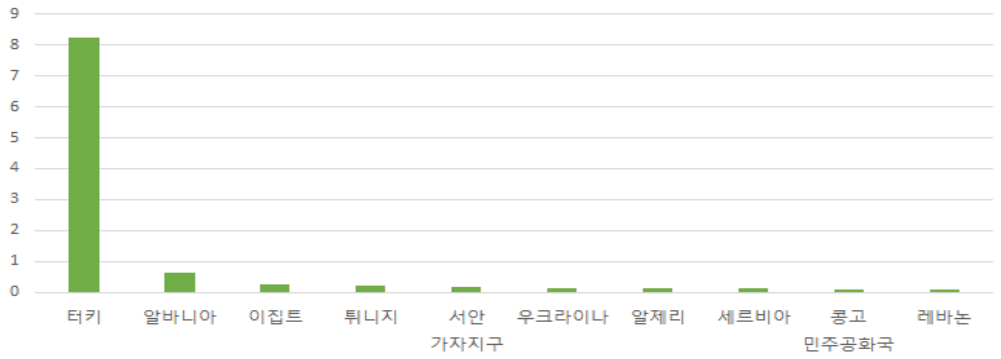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05.2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터키에 대한 지원이 8.2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지역 미분류 지원금을 제외한 양자원조 총액의 75%를 차지함. 그 외 알바니아, 이집트, 튀니지 순으로 지원하였으나 각 국가별 백만달러 미만 수준의 미비한 지원에 그침.

〈그림 52〉 그리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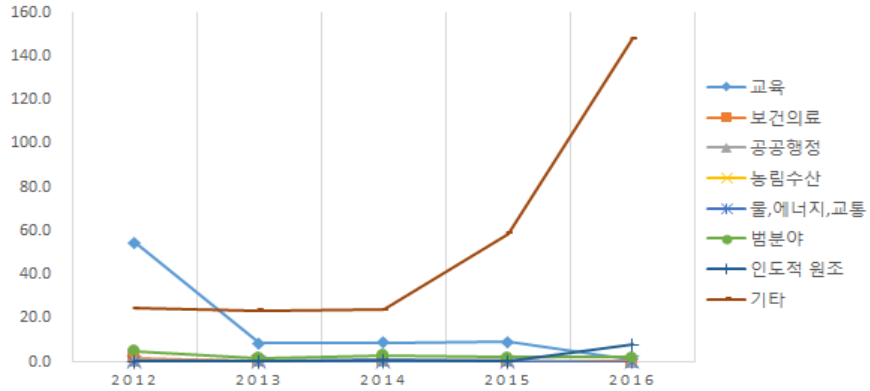
□ **(분야배분)** 공여국 내 난민지원에 집중

○ 분야별 양자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기타 분야 지원이 약 278.8백만 달러(71.6%)로 가장 많으며 특히 2014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 두 번째는 교육 분야로 82.2백만달러(21.1%) 지원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279, 71.6%), 교육(82, 21.1%), 범분야(14, 3.5%), 인도적 원조(9, 2.4%), 보건의료(3, 0.7%), 공공행정(2, 0.6%), 물·에너지·교통(0.3, 0.1%), 농림수산(0, 0.0%)

〈그림 53〉 그리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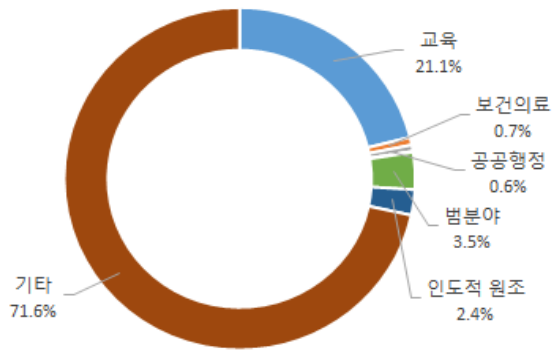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 2012-2016년 그리스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389.5백만달러로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 분야 세부 항목으로는 2012–2016년 합계 기준, 공여국 내 난민지원 256백만달러(92%)와 공여국 행정비용 21.3백만달러(8%)로 구성

〈그림 54〉 그리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나. 그리스 외교부(Helleni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전략 및 목표)** 경제 및 외교적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인접국 지원전략 수립

○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집행위원회의 총국(Directorate-General Hellenic Aid, 이하 **DG Hellenic Aid**)이 2008년 수립한 계획에서는 식량안보 지원, 이주, 환경 및 기후변화 개선, 인신매매 방지, 무역인프라 및 생산역량 강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체제 조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설정[69]

○ **DG Hellenic Aid**는 개발협력정책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5개년 개발협력 프로그램(2011-15)"을 준비하였으나 재정위기로 현재까지 미완성 상태[70]

〈표 38〉 2011-2015 그리스 외교부 지역별 전략 목표(안)

지역/국가	전략목표 및 지원근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 평화·안정성·안보 증진
	• 국제사회의 우선 지원 지역에 그리스의 입지 마련
흑해 지역 및 중동 :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팔레스타인 행정관할 지역	• 평화·안정성·안보 증진
	• 국가 간 협력 강화
	• 인접국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 이민의 점진적 감소
	• 남동 유럽은 1990년대 초부터 그리스의 전략 지역에 해당
	• 지리적 위치상 그리스의 안전·복지가 동 지역의 경제번영·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됨.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집트, 레바논	•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완료
흑해경제협력기구(BSEC)*를 통한 흑해 인접국 지원	• 그리스개발기금(Greek Development Fund)을 통한 BSEC 프로그램 지원
발칸 반도 :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발칸반도 경제재건 계획(Hellenic Plan for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the Balkans, HiPERB) 이행
기타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앙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및 민주주의 제도 증진. 이라크 내 타 공여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
	• 중앙 아시아: 일부 선정된 개발 및 민주화 조치의 시험적 시행

* The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BSEC)
자료: MFA(2011b)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OECD, 2011에서 재인용)

69) UNECE 홈페이지(https://www.unece.org/)(접속일: 2018.07.04.)
70) European Commissions 홈페이지(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19.)

□ **(조직체계)** 외교부 **DG Hellenic Aid**에서 개발정책을 총괄하나 재경부에서 다수 다자원조 집행

○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집행위원회의 총국(Directorate General)인 **DG Hellenic Aid**에서 그리스 개발정책 기획 및 조정 담당

○ 2011년 기준 **DG Hellenic Aid** 본부는 하기 6개 사업실 외 NGO사업승인위원회, 평가실, 고문 등으로 구성됨.

⇒ 1) 긴급구호·식량원조실; 2) 재건·개발실; 3) 지리적전략실; 4) NGO·개발교육실; 5) 기술서비스실; 6) 행정·경제서비스실

○ 그리스 개발협력 정책 실행에 있어 외교부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며, 다수의 재원이 재경부를 통해 다자 원조에 사용되거나 각 부처를 통해 개별 양자원조에 사용됨.[71]

○ 2011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조직의 상부 비대화와 전략적인 인력 구성 및 관리 부족으로 조직체계 단순화 및 효율성 강화를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받은 바 있음.

□ **(주요사업)** 인접국 대상 원조 사업 및 교육 분야 구속성 기술협력 사업에 주력

○ 전통적으로 지중해 지역 및 발칸반도의 인접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 사업에 집중

○ 장학금 및 연수생 교육기관압 지원 간접비용(Imputed student cost)[72] 등 구속성 기술협력형태의 사업비율이 높음.

⇒ 그리스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2013년 2.7%에서 2014년 22%로 증가였으나 2014년 DAC 회원국 평균 80.6%에 크게 하회

○ 그리스 외교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71) European Commissions 홈페이지(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19.)

72) 공여국 정부가 대학 등 자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스포츠, 예술, 예술이론, 언어학 및 문화연구 분야 유학생들을 위한 비용은 동 자금으로 포함하지 않음.(독일연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SocietyState/PublicFinanceTaxes/PublicFinance/OfficialDevelopmentAssistance/Glossary/ImputedStudentCosts.html?view=getColorboxEntry) (접속일: 2018.06.25.)

〈표 39〉 그리스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EU 지중해 지역 물 이니셔티브*	발칸반도 경제재건 계획***
배경	• 모든 지중해 지역국의 관심사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2003년 EU지중해지역물이니셔티브(MED EUWI)가 발족된 이후 그리스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동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여 시행함.	• 경제 외교의 일환으로 남동 유럽 지역 인접국과의 교류에 특히 전념함
비전	• 그리스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여 및 효과적인 원조 관례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제공	• 남동 유럽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 및 수원국의 유럽식 관점 지원
전략 목표	• 개발도상국에서 물 관련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지속가능개발을위한정상회담** 목표 달성	• 발칸반도 7개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 프로젝트 및 투자, 연구 활동 지원
중점 추진 분야	• 지중해 지역 수요 중심에 따른 관련 전문 기술 제공	• 생산 투자 촉진 및 인프라 현대화 • 공공행정 및 지방정부 현대화 • 법치 및 민주주의 제도 지원 • 경제불평등 해결 • 전문훈련 제공

* The Mediterranean Component of the EU Water Initiative, MED EUWI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 Hellenic Plan for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the Balkans, HiPERB
자료: OECD(2011: 17), MFA(2011a)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MFA. 2011a. “Hellenic Plan for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the Balkans (HiPERB) 2002-2011.”

MFA. 2011b. “Draft 5-yea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ssistance Programme 2011-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Athens: DG Hellenic Aid. available only in the Greek language. unpublished.

MFA. 2016. “Annual Report of the Greek Bilateral and Mult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ssistance Year 2016.” Athe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G Hellenic Aid.

OECD. 2008. “Budgeting in Greece.” available at https://www.oecd.org/gov/budgeting/42007249.pdf (접속일: 2018.04.19.).

OECD. 201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Greece 201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European Commissions 홈페이지: 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19.).

MFA 홈페이지: https://www.mfa.gr/en/the-ministry/structure/hellenic-aid.html (접속일: 2018.04.19.).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dac/greece.htm (접속일: 2018.04.19.).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2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UNECE 홈페이지: https://www.unece.org/ (접속일: 2018.07.04.).

11. 헝가리(Hung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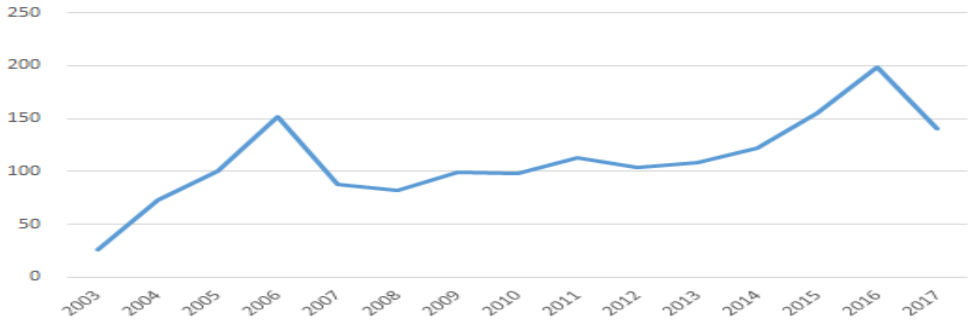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2016년 DAC 가입 후 인력 및 제도적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주력

○ **(현황)** 2003년 이후 헝가리의 원조 규모는 2007년 급감 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 다시 하락하여 ODA 총액 140백만달러, ODA/GNI 비율 0.11% 기록.[73] 2016년에 30번째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함.

〈그림 55〉 헝가리 2003–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헝가리국제개발원조비영리기구(Hungar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Non-profit Co., HUN-IDA)가 2004-2009년 헝가리 외교통상부 양자 국제협력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74]

○ 2015년 7월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원조에 관한 법률(the Act XC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시행

○ **(핵심문서)** 2014년 3월 헝가리 정부는 "2014-2020년 헝가리 국제개발협력전략 및 인도적 원조 전략개념(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and Strategic

73) 헝가리 정부는 2030년까지 ODA/GNI 비율 0.33% 달성을 공표함(OECD, 2017).
74) 헝가리 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약소하여 시행기관 선정 시 다년 계약이 어려운 이유로 공공조달 절차를 둘러싸고 HUN-IDA 및 비정부개발기구들(Non-government development organizations) 간 긴장 상태가 존재함(Hoebink, 2010: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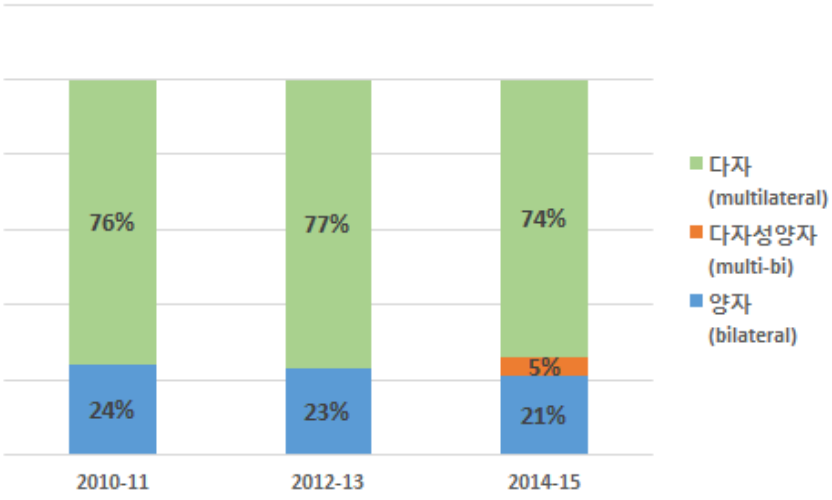
Concep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of Hungary for the period 2014-2020, 이하 IDC 전략)"을 공표하고, 국익과 국제적 책임을 모두 고려한 개발 목표 및 원칙을 제시함.

○ **(분절화)** IDC 전략 문서는 헝가리 협력국의 넓은 범위로 인해 정책 분절화, 효과성 및 가시성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협력국 수를 10개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힘.[75]

□ **(예산)** 예산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비율이 높아 다자원조가 양자원조를 압도적으로 상회함.

○ ODA 예산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및 국제기구 분담금 비율이 높아, 2015년 총 ODA의 30.4%를 양자원조, 69.6%를 다자기구에 지원하며 DAC 회원국 다자원조 평균 비율 26.2%를 크게 상회함.

〈그림 56〉 헝가리 양자 및 다자원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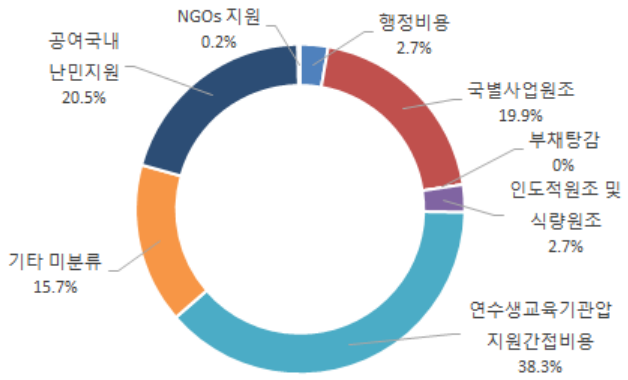


* 총 지출금(Gross Disbursements), 2년 평균치 기준
자료: OECD(2017)

○ 2015년 양자원조의 약 38%가 연수생 교육기관압 지원 간접비용(imputed student costs)에[76], 국별 사업 및 공여국 내 난민지원에 각 20% 지원됨.

75) MFA. (2013).

〈그림 57〉 헝가리 2015년 양자원조 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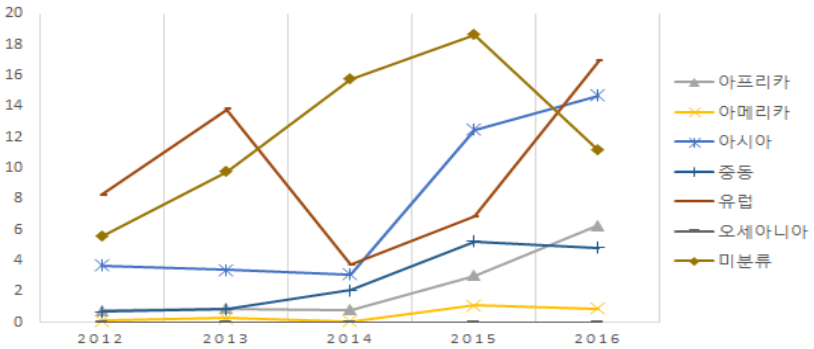
자료: OECD(2017)

□ **(지역배분)** 최근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원조에 집중하는 경향

○ 지역별 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미분류 제외) 유럽 지역에 대한 지원이 49.5백만달러(28.2%)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에 37.4백만달러(21.3%)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61, 34.7%), 유럽(50, 28.2%), 아시아(37, 21.3%), 중동(14, 7.8%), 아프리카(12, 6.7%), 아메리카(3, 1.4%), 오세아니아(0, 0%)

〈그림 58〉 헝가리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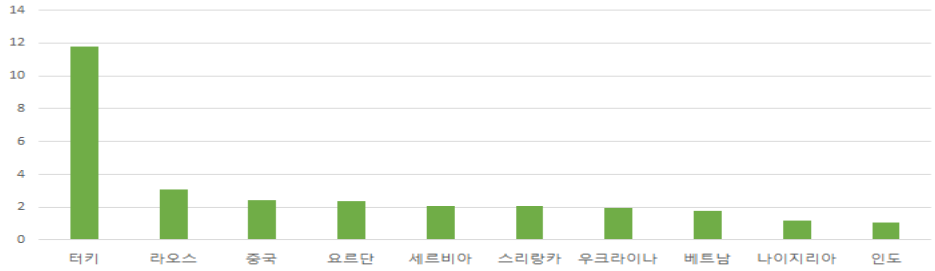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76) 공여국 정부가 대학 등 자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스포츠, 예술, 예술이론, 언어학 및 문화연구 분야 유학생들을 위한 비용은 동 자금으로 포함하지 않음.(독일연방통계청 홈페이지: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SocietyState/PublicFinanceTaxes/PublicFinance/OfficialDevelopmentAssistance/Glossary/ImputedStudentCosts.html?view=getColorboxEntry) (접속일: 2018.06.25.)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터키에 대한 지원이 11.8백만달러로 양자원조 총액의 2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원 규모를 보임.

〈그림 59〉 헝가리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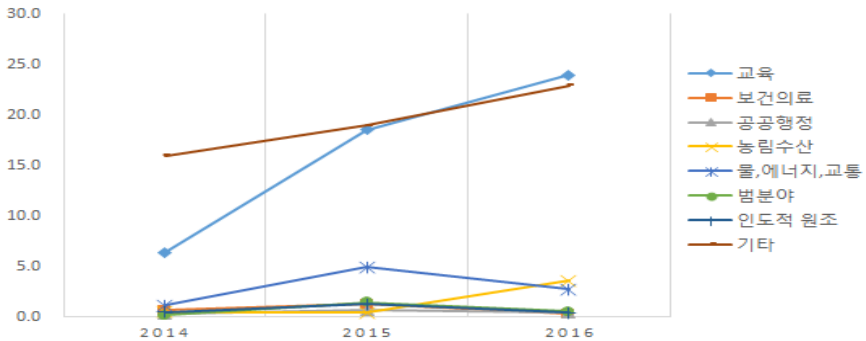
□ **(분야배분)** 최근 원조 규모 및 증가율 측면에서 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공여국 내 난민지원도 증가하는 추세

○ 분야별 원조 현황을 보면 2014-2016년 합계 기준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57.8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교육 분야로 48.9백만달러 지원

⇒ 2014-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58, 45.3%), 교육(49, 38.3%), 물·에너지·교통(9, 6.9%), 농림수산(4, 3.5%), 보건의료(2, 1.7%), 범분야(2, 1.7%), 인도적 원조(2, 1.7%), 공공행정(1, 1.0%)

〈그림 60〉 헝가리 2014-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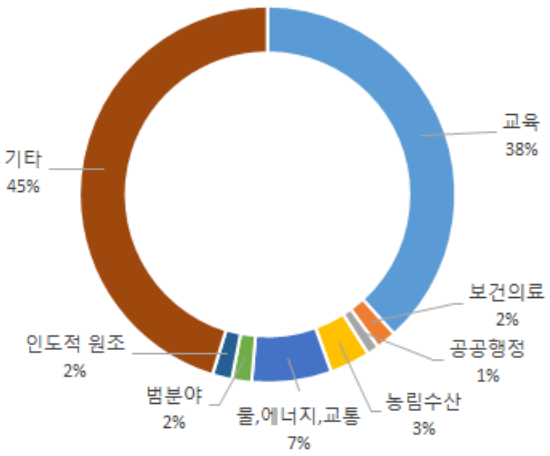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2014-2016년 헝가리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27.8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 분야 주요 세부 항목은 2014-2016년 합계 기준 공여국 내 난민지원 28.4백만달러(49%)와 미분류 20.4백만달러(35%)로 구성

〈그림 61〉 헝가리 2014-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나. 헝가리 외교통상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전략 및 목표)** 지식이전 및 경험공유 분야에서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도모

○ IDC 전략 문서에서 헝가리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기반으로 정책 목표를 "국제적 빈곤 및 불평등 감소와 국제 안보·평화·지속가능한개발·민주주의·인권·법치의 증진"으로 설정하되,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정책 수립

⇒ 또한 인력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개발 조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하며, 헝가리 개발협력 정책의 비교 우위 분야를 훈련, 지식이전, 경험공유 분야에 둠.

〈표 40〉 헝가리 개발협력 중점 분야 및 목표

중점 분야	○목표
제도적 개발	• 체제전환 및 통합 경험 공유를 통한 법치 및 민주주의 구조 강화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중앙·지역·분야별 행정부의 제도적 역량 구축, 시민사회 강화
녹색성장, 환경 및 기후 보호	• 농촌 및 도시 개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위생, 기후변화 적응
인간 개발	• 교육, 보건, 문화, 기회균등, 소수자 및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제도 개발, 과학적 협력(scientific cooperation)

자료: MFA(2013)

□ **(조직체계)**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부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민간자문위원회가 주요 원조 의사결정 주도

○ IDA 전략문서에 따르면 헝가리 개발협력 및 인도적 원조 사업의 계획 및 실행은 외교통상부 소관이나, 실제 외교통상부는 전체 ODA의 20%만 담당

○ 개발협력 정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외교통상부에서 의장직을 배출하는 개발협력정부위원회(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mental Committee)가 있고, 부처 간 전문실무단(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of Experts)에서 동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실무를 진행함.

⇒ 외교통상부, 학계, 정당, 이익단체,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민간자문위원회(IDC Civil Advisory Board)의 의견이 개발협력정부위원회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됨.

⇒ 헝가리 개발협력 정책 실행에 시민사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역할은 미비

□ **(주요사업)**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발 사업에 주력

○ 지식이전, 체제전환기 경험 공유, 연구개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발 사업에 주력하며, 인프라 개발 사업으로는 주로 수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 지원

○ 헝가리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41〉 헝가리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헝가리 정부 장학금 사업*	메콩강 상업어종 사료 개발**
배경	• 기술협력 및 지식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헝가리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	• 베트남 수경재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및 알갱이 사료(pellet feed)로의 수요 변화에 따라 상업 어종 사료 공급에 대한 연구개발(R&D)이 요구됨.
비전	• 협력국의 경제·문화 발전 및 협력국과의 경제 및 외교 관계 증진, 상호 이해 제고	• 저비용·고품질의 사료 공급을 통한 베트남 수경재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목표	• 헝가리 내 외국인 학생 수 증가 및 헝가리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장려 • 협력국 교육 담당 부처와 양자 교육 업무협정 체결	• 메콩강 지역의 수경급이(aqua-feed) 기술 개발 • 양국 연구기관의 공동개발사업을 통한 협력 강화
중점 추진 분야	• 학·석·박사과정 및 예비과정 프로그램의 생활비(stipend), 의료보험, 주거수당 지원	• 어류영양(fish nutrition), 어류 증식 및 양식 등 메콩강 지역 수경재배업 및 관련 제조업 분야

* Stipendium Hungaricum Scholarship Programme

** Development of Feed Supply for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in the Mekong Delta

자료: OECD홈페이지(http://www.oecd.org/dac/peer-reviews/peer-review-hungary.htm) (접속일: 2018.04.18.), Tempus Public Foundation홈페이지(http://www.tka.hu/international-programmes/2966/stipendium-hungaricum) (접속일: 2018.04.18.), L.D. Trung 외(2007)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Hoebink, P. (Ed.). 2010. “Europe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Between the Local and the Global.” Amsterdam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www.jstor.org/stable/j.ctt46msvd.

L.D. Trung, N.V. Hao, K. Valentinyi and L. Varadi. 2007. “Development of Feed Supply for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in the Mekong Delta: Result and experence of a Hungarian ODA projec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FA). 2013.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and Strategic Concep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of Hungary 2014-2020.”

OECD. 2016. “Hungary joins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vailable at http://www.oecd.org/newsroom/hungary-joins-the-oecd-development - assistance-committee.htm (접속일: 2018.04.16.).

OECD. 2017.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Paris: OECD Publishing. available at http://dx.doi.org/10.1787/dcr-2017-en

Aid Management Platform public portal of the Government of Moldova (AMP) 홈페이지: http://amp.gov.md/portal/node/28?language=en (접속일: 2018.04.16.).

European Commissions 홈페이지: 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16.).

OECD. “Hungary'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ttp://www.oecd.org/hungary/hungarys- official-development-assistance.htm (접속일: 208.04.16.).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2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12. 아이슬란드(Ic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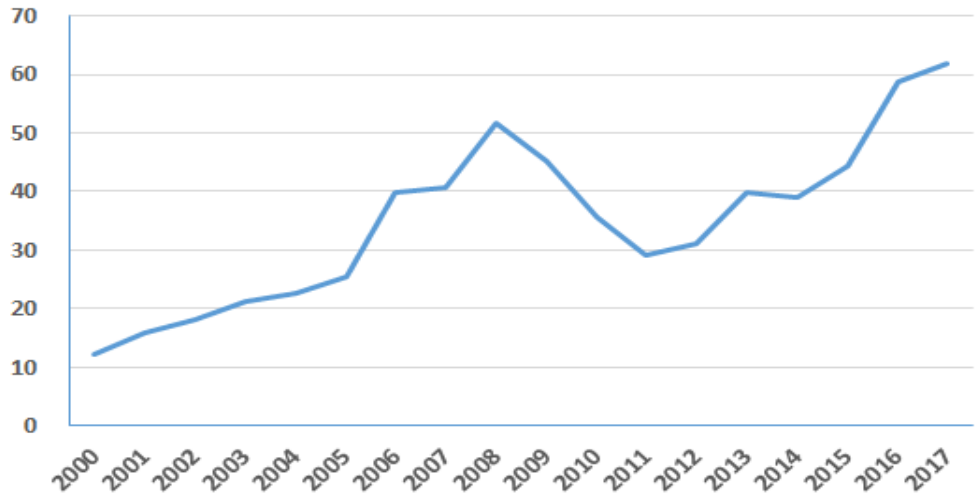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2013년 OECD DAC 회원국이 된 아이슬란드의 원조는 소수의 특정 협력국 및 다자기관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며 2018년 6월 기준 새로운 개발협력정책문서 준비 등 내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현황)** DAC 가입 이후 꾸준히 ODA/GNI비율 0.2%를 상회하며 2017년 원조규모 62백만달러, ODA/GNI 비율은 0.288% 기록

〈그림 62〉 아이슬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21.)

○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 최빈국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음.[77]

77) 아이슬란드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government.is/ministries/ministry-for-foreign-affairs/) (접속일: 2018.06.23.)

○ **(핵심문서)**[78] 원조의 최대 규모치를 기록한 해인 2008년 10월 1일에 아이슬란드 국회는 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인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률(Act no.121/2008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효함.**

⇒ 본 법령의 제정은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최초로 규율과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2018년 6월 기준 본 법령의 가장 최근 수정안인 2015년 수정안에 따라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은 그 방향성 및 주요 시행 주체 등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함.

⇒ 대표적인 변화로는 아이슬란드 양자원조를 담당하던 독립 개발협력청인 ICEIDA(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모든 업무가 아이슬란드 외교부로 통합 개편되었다는 점과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주요 계획 도구가 3개년 전략에서 5개년 정책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등이 있음.

□ **(예산)** 양자원조에 대한 원조가 대부분의 ODA 예산 차지

○ 2018년 기준 아이슬란드 외교부에서 개발협력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은 전체 대비 37%임.[79]

○ 전체 ODA 예산 중 2014년에는 83%가, 2015년에는 78%가 양자원조로 할당이 되었으며, 양자원조는 세 개의 중점국(말라위, 모잠비크, 우간다)에 집중됨.

⇒ 해당 세 중점국에 대한 원조는 2016년 전체 양자원조의 44%를 차지

⇒ 양자원조 예산배분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뉨: 1) 다자기구를 통한 다자성양자; 2) 파트너국 내 지역별 프로그램; 3) NGO가 수행하는 입찰 프로젝트[80]

⇒ 2018년 6월 기준 모잠비크와의 파트너십이 만료되어 현재 아이슬란드의 양자 중점국은 말라위와 우간다 두 국가로 축소됨.

⇒ 세 개의 중점국 각각의 국별 전략보고서에 연간 최소·최대치 지출이 명시되어 있음.

○ 2016년 아이슬란드 공공 재정 법규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예산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이는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예산계획의 변화와 발맞춘 행보임.[81]

⇒ 아이슬란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2015년 수정안에 따라 개발협력의 주요 계획 도구를 3개년 전략에서 5개년 정책으로 개정한 바 있음.

---

78) 아이슬란드 정부. (2016).
79) 아이슬란드 외교부. (2018) p2.
80) OECD. (2017) p41.
81) 상동 p55.

〈표 42〉 아이슬란드 2015–2016년 ODA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아이슬란드크로나)

ODA 예산 구분	2015	2016
총 양자 ODA	**1,863**	**1,797.4**
(2015까지 ICEIDA 관할 예산)	**1,669.6**	**1,603.8**
말라위	527.8	519.9
모잠비크	424.6	357.8
우간다	443	554.3
자원과 협력	133.8	155.2
특별 업무(Special Task)	17.9	16.6
본부 운영 비용	122.5	-
테러피해지역 재건비용	**193.4**	**193.6**
아이슬란드 평화유지군	171	146.2
그 외	22.4	47.4
총 다자 ODA	**1,784.4**	**2,232.2**
유엔기구	799.5	1,210.8
세계은행 그룹	778.5	779.9
기타 다자협력 기구	206.4	241.5
기타	**1,610.4**	**3,070.9**
유엔대학교 장학금 프로그램	538.9	562.7
NGO 지원금	328.2	298.7
난민지원	131.3	261.2
망명신청자 지원	491.9	1634.4
팔레스타인 지역 개발프로젝트	22.8	5.7
운영 비용	82.8	261.5
그 외	14.5	46.7
총 ODA*	**5,257.8**	**7,100.5**
ODA/GNI 비율(%)	**0.24%**	**0.28%**

* 총합과 각 세부항목의 합은 차이가 있으나 이 자료는 원 자료의 값을 그대로 반영함.

자료: ICEIDA 홈페이지(http://www.iceida.is/media/pdf/ODA-2006-2016-28.pdf) (접속일: 2018.08.27)을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지역배분)** 세 개의 중점협력국이 모두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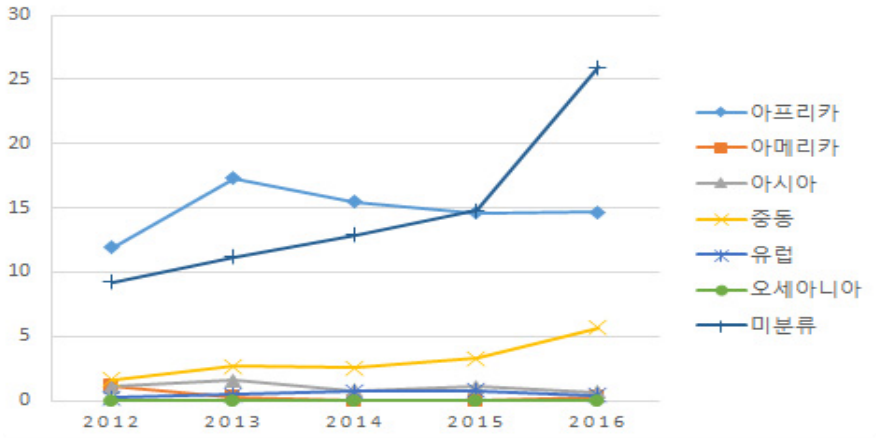
○ 2016년을 기준으로 미분류 제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30.8%(14.7백만달러)를 차지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74.08, 42.7%), 미분류(74.01, 42.7%), 중동(15.86, 9.1%), 아시아(5.1, 2.9%) 등

○ 중동 지역에 대한 원조는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5.7백만달러 지원

〈그림 63〉 아이슬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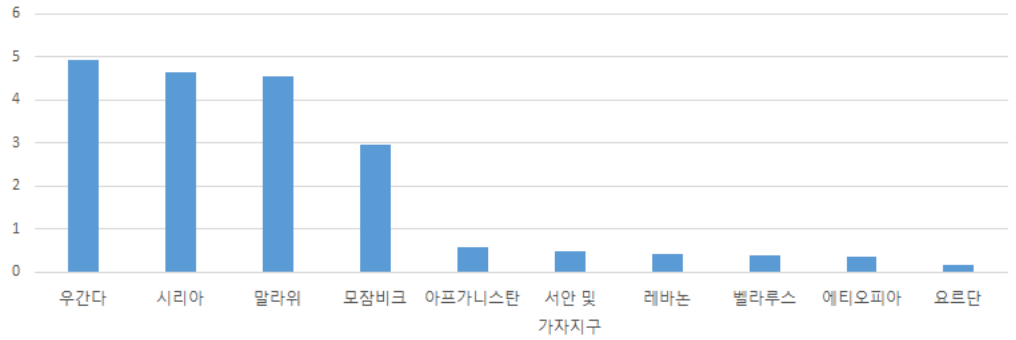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우간다에 대한 지원이 4.9백만달러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시리아(4.6백만달러)와 다른 두 중점국인 말라위(4.5백만달러), 모잠비크(2.9백만달러)가 차지

〈그림 64〉 아이슬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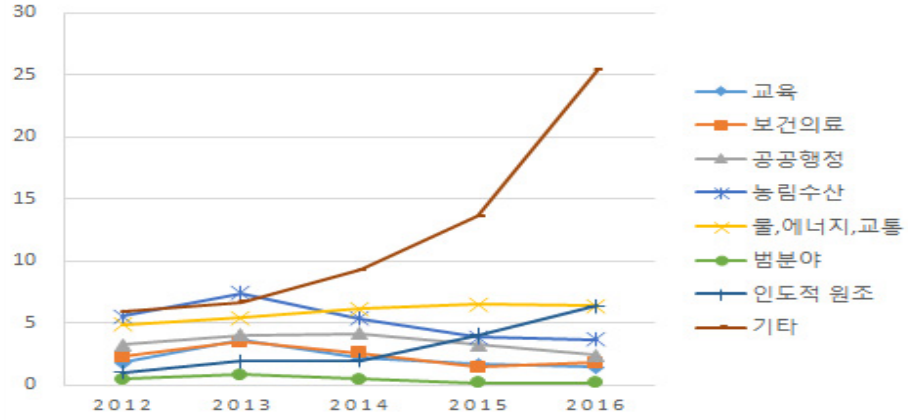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분야배분)** 세 중점국에서 진행하는 농수산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2012년과 2013년에는 농수산 분야에 최다 지원하였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공여국 내 난민지원에 대한 원조가 급속히 상승

○ 2012-2016년 기타분야를 제외한 물·에너지·교통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림수산 분야 역시 비슷한 규모를 기록

〈그림 65〉 아이슬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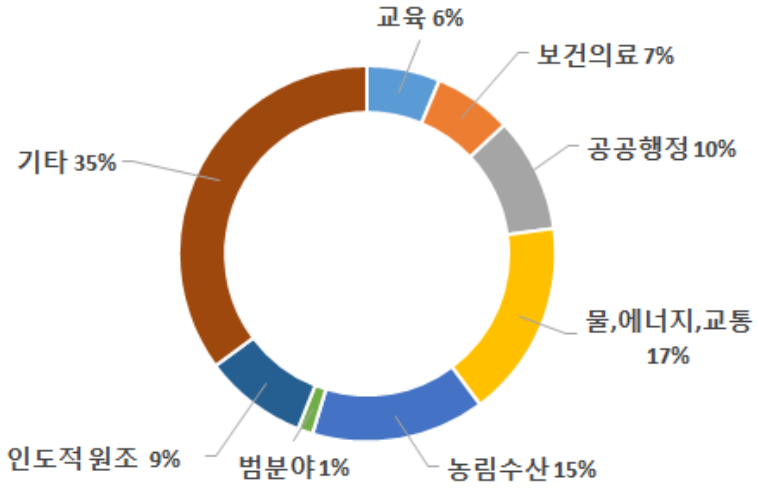
○ 2012-2016년 아이슬란드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73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를 제외한 물·에너지·교통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61, 35.1%), 물·에너지·교통(29, 16.9%), 농림수산(26, 14.9%), 공공행정(17, 9.8%) 등

○ 물, 에너지, 교통 분야를 합산한 분야에 대해서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에너지 분야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세 분야에 대한 세부 원조 비율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2012년과 2013년 동안 각각 87%와 79%를 차지하다, 2013년부터 물 분야에 대한 원조가 점차 증가

〈그림 66〉 아이슬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아이슬란드 외교부(Iceland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 **(전략 및 목표)**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청의 통합 개편 및 새로운 개발정책 수립에 따라 전략 및 목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2018년 4월 아이슬란드 외교부 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최신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남: 1)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고, 빈곤과 불평등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증대된 기회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이슬란드 외교부의 역량 지원; 2) 식량 안보의 개선 및 평등,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근간으로 한 경제발전 촉진; 3) 인도적 원조와 개발협력 간 조정의 강화를 통한 사회의 회복력 증대 및 재건의 신속한 처리

⇒ 더불어 본 연간보고서는 상기 나열된 세 가지 목표에 따른 총 여덟 개의 세부 조치(measure)를 설정하였고, 각 조치별 2018년 예산을 발표함.

○ 상기 외교부의 최신 목표 및 계획 외에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정책 2017-2021 초안(Iceland's draft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2017-2021)"이 공식 발간 예정에 있음.[82]

○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정책 2017-2021 초안"에 따르면 최신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에서 결과중심관리(Results Based Management), 구체화된 지역별 초점, 임지복구(land restoration), 성평등, 기후변화가 강조됨.

⇒ 본 초안 문서에서 밝힌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정책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견고한 사회적 인프라를 통한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 (교육, **성평등**, 보건, 식수위생); 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향상된 식량안보와 포용적 발전 도모 (임업, 지열에너지, **임지복구, 기후변화**); 3) 인도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의 회복탄력성 향상과 평화구축활동 지원

* 굵게 표시된 용어는 본 초안 정책문서에 의해 새로이 강조되는 분야

○ 2017-2021 개발협력정책 초안문서가 공식적으로 발간되지 않은 2018년 6월 현재 아이슬란드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3-2016 (Strategy for Ice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2013-2016)"이 여전히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목적과 전략을 규정하는 핵심문서로 기능을 하고 있음.[83]

---

82) 아이슬란드 외교부. (2016) p9.

83) 아이슬란드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is/ministries/ministry-for-foreign-affairs/) (접속일: 2018.06.24.)

〈표 43〉 아이슬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전략 2013–2016

우선순위 분야	1. 천연자원	수산업, 재생가능한 에너지
	2. 사회적 인프라	교육과 보건
	3. 평화 구축	굿 거버넌스, 재건
	4. 범분야	성평등, 환경
우선순위 지역	말라위	교육, 보건, 위생
	모잠비크	보건, 어업
	우간다	보건, 어업, 지구개발
	아프가스탄, 팔레스타인	중점국은 아니지만 평화구축, 난민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명시
중점 다자 기관	The World Bank Group	
	UNICEF	
	UN Women	
	United Nations University	
인도적 원조 중점 기관 *인도적 원조는 아이슬란드 개발정책의 중요한 요소	The World Food Programme(WFP)	
	The UN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CERF)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OCHA)	
	UNHCR	

자료: 아이슬란드 외교부(2013b)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조직체계)**[84] 기존에 양자원조를 담당하던 독립 개발협력청(ICEIDA)의 모든 기능 및 권한이 2016년 외교부에 통합되어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국이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업무를 담당.

○ ICEIDA 통합 이전 다자협력 업무를 담당하던 외교부 산하의 국제개발협력부(Depart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가 2016년 1월 1일 국제개발협력국(Director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신설되어 양자 및 다자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권한을 가짐.

○ 2018년 기준 아이슬란드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국은 총 네 개의 팀으로 구성됨: 1) 양자개발협력; 2) 다자개발협력; 3) 인도적원조; 4) 지역및민간부문협력

84) OECD. (2017) p49.

○ 2015년까지는 개발협력에 관한 두 개의 자문조직으로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와 국제개발협력심의회(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가 있었으나, 2016년 개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로 통합하여 자문 시스템 강화

⇒ 개편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전략 좌담을 담당하는 유일한 포럼이 되었으며 외교부장관과 외교부의 정책형성 및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실행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

⇒ 본 위원회는 일 년에 최소 두 번 외교부장관, 시민사회조직, 학계, 사회파트너, 의회의 좌담 개최

□ **(인력)**[85]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아이슬란드 개발협력관련 예산의 삭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이 감소

○ 2016년 12월 기준 총 46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21명의 외교부 직원과 6명의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 19명의 현지 고용직원으로 구성됨.

○ 개발협력 인력들은 성과기반 관리와 평가에 대한 훈련을 받음.

⇒ 더욱이 최근 이뤄진 ICEIDA의 통합 개편으로 인해 외교부의 인력들에 대한 개발 관련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표 44〉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2012–2016 인력 현황

(정직원 기준; 단위: 명)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본부 주재 직원				
ICEIDA 직원	12	10	9	
외교부 직원	9	9	11	21
현지 파견 직원	5	7	6	6
현지 고용 직원	25.5	28	19	19
총 직원	51.5	54	45	46

자료: OECD(2017: 53)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85) OECD. (2017) p53.

□ **(주요사업)** 특정 중점협력국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사업 수행

○ 각 수원국별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45〉 아이슬란드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지열 탐사 프로젝트*	성평등 정책**	유엔대학교 장학금 프로그램***
배경	• 북유럽개발자금(Nordic Development Fund, 이하 NDF)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아이슬란드 외교부와 세계은행이 함께 출범할 지온 협정 파트너십(Geothermal Compact partnership)의 개시 프로젝트	•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 2013-2016에 따라 성평등을 범분야 뿐만이 아닌 하나의 구체적인 중점 목표로 설정	• 유엔대학교(The United Nations University)는 1973년 아이슬란드에 설립되었으며,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주요 부분임.
비전	• 동아프리카지구대(The Rift Valley)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탐사 및 정찰 역량 향상을 통한 지열 개발 및 활용의 전문가 양성	•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아이슬란드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고, 궁극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함.	• 연구와 역량개발, 지식전달을 통해 개발도상국 중점의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
전략 목표	• 잠재적 지열대의 현실적 평가 • 굴착대상 확인 후 차후 시행 계획 설립 • 계획 시행에 대한 역량 개발 및 굴착 탐사 프로젝트 진행	• 성평등 정책에 남성들의 참여 도모 • 아이슬란드의 외교 서비스 • 인권으로서의 성평등 • NGO 프로젝트 모니터링	• 파트너국가에 단기강좌 형태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아이슬란드 대학교에서의 석사학위 프로그램 제공
중점 추진 분야	•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열 지식 함양 및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열 에너지 개발	• 교육 • 보건 • 천연자원과 환경 • 여성·평화·안보	• 어업 훈련 프로그램(1979, 1998) • 임지복구 훈련 프로그램(2010) • 성평등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2013)[86]

* Geothermal Exploration Project

** Gender Equality Policy

*** United Nations University Scholarship Programmes

자료: ICEIDA 홈페이지(http://www.iceida.is/iceida-projects/nr/1488) (접속일: 2018.04.23.), 아이슬란드 외교부(2013a, 2013b)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86) 프로그램 원문은 각각 차례대로 다음과 같음: The UNU Fisheries Training Programme UNU-FTP) 1979 & 1998, The UNU Land Restoration Programme (UNU-LRT) 2010, The UNU Gender Equality Studies and Training Programme (UNU-GEST) 2013

참고문헌

아이슬란드 외교부. 2013a. “Gender Equality in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아이슬란드 외교부. 2013b. “Strategy for Ice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2013-2016.”

아이슬란드 외교부. 2016. “OECD DAC Peer Review of Iceland Memorandum.”

아이슬란드 외교부. 2018. “Icelandic Foreign Affairs 2018 - Excerpt from the report b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o Parliament 2018.”

아이슬란드 정부. 2016. “Act on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tute Book (ed. 145a).”

OECD.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Iceland.” Paris: OECD.

아이슬란드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is/ (접속일: 2018.06.24.).

ICEIDA 홈페이지: http://www.iceida.is (접속일: 2018.04.23.).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8.).

13. 아일랜드(Ir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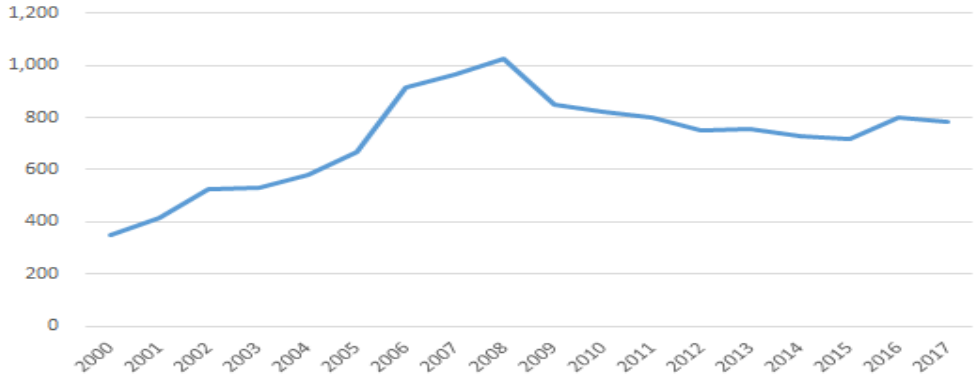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도적 원조 및 긴급구호에 집중

○ **(현황)** 아일랜드의 원조 규모는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 기준 원조 총액 784백만달러, ODA/GNI 비율 0.30% 기록

〈그림 67〉 아일랜드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1974년 아일랜드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관할 프로그램으로 Irish Aid가 설립됨.

○ **(핵심문서)** "아일랜드원조백서(White Paper on Irish Aid 2006)"에서 정치적·전략적 원조 동기와 구분하여 최빈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아일랜드의 원조 신념으로 강조

⇒ 아일랜드 원조백서를 기반으로 "2013년 아일랜드국제개발정책(One world, One future, Ireland's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발표하고, "빈곤과 기아 극복을 위한 인간의 역량 강화 및 권리·잠재력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87]"을 비전으로 명시

87) "A sustainable and just world, where people are empowered to overcome poverty and hunger and fully realise their rights and potential"A sustainable and just world, where people are empowered to overcome poverty and hunger and fully realise their rights and potential(GOI, 2013)"

○ **(정책일관성)** 무역·농업·조세·이주 등 비원조(non-aid) 분야와의 개발협력 연계성을 고려하여, 아일랜드원조백서에서 개발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아일랜드 개발협력 5대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담당부처로 부서간개발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Development) 설립

□ **(예산)** 외교통상부 ODA 예산 주요 항목은 양자 및 기타협력(무상원조) 지원금과 긴급 인도주의 지원금으로 구성됨.

○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 수립 후,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에서 ODA 총예산의 약 70~80%를 관할[88]하고 재무부, 해양·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rue, Food and the Marine) 등 기타 부처에서 나머지 분담

○ 수원국의 우선과제 및 시스템에 기반하여 원조 예산을 구성하며, 2014년 기준 비구속성 원조율 100% 달성

○ 부산 효과적 개발협력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1개국을 제외한 모든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5개년 국별 프로그램 예산을 수립하는 등 원조 예산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을 경주함.

○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2014년 및 2015년도 ODA 예산항목은 빈곤 및 기아 감소 대책 에 관한 아래 5개 항목으로 구성

⇒ 빈곤 및 기아감소 대책 예산 항목 및 비중(%): 1) 행정비용 5.9%; 2) 양자 및 기타협력(무상원조) 지불금 68%; 3) 긴급 인도주의 지원 12%; 4) 개발도상국 이익을 위한 국제기금 지불금 6%; 5) 국제연합 및 기타 개발기관 지원 8.1%

88) 연례보고서인 DFAT(2016, 2017)에 따르면, 2014년 77%, 2015년 74%, 2016년 66%의 수치를 나타냄.

〈표 46〉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ODA 예산 항목

(단위: 1,000 유로)

예산항목*	2014	2015
A. 빈곤 및 기아 감소 대책	479,163	476,623
A.1·2 - 행정비용	28,148	28,308
A.3 - 양자 및 기타 협력 (무상원조) 지불금	326,015	315,965
개발도상국 양자협력 프로그램	175,160	164,816
비정부기관 협조융자(Co-Financing) 등 시민사회 협력	86,924	84,690
주요 서비스 지원 - 글로벌보건이니셔티브	4,000	7,310
주요 서비스 지원 - 글로벌HIV/AIDS이니셔티브	12,600	12,110
주요 서비스 지원 - 글로벌교육이니셔티브	3,150	4,300
포괄적 경제성장 지원 - 농업 및 사회보호	9,820	7,500
아프리카 전략	900	650
복구 지원	7,500	13,000
긴급구호이니셔티브	4,180	2,000
안정기금(Stability Fund)	4,000	3,000
세계은행 재정공동지원	1,000	1,000
성평등 및 인권 거버넌스	1,800	1,800
회복력 구축 - 기후변화 및 환경	4,200	4,790
회복력 및 영양	2,500	2,500
봉사단 관련 프로그램	1,200	1,050
기타 지출	7,081	5,449
A.4 - 긴급 인도주의 지원	57,500	58,500
A.5 - 개발도상국 이익을 위한 국제기금 지불금	28,610	37,460
A.6 - 국제연합 및 기타 개발기관 지원	38,890	36,390

* Appropriation in aid 공제금(각 년도별 1,150 유로) 항목 제외

자료: DPER(2014)을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지역배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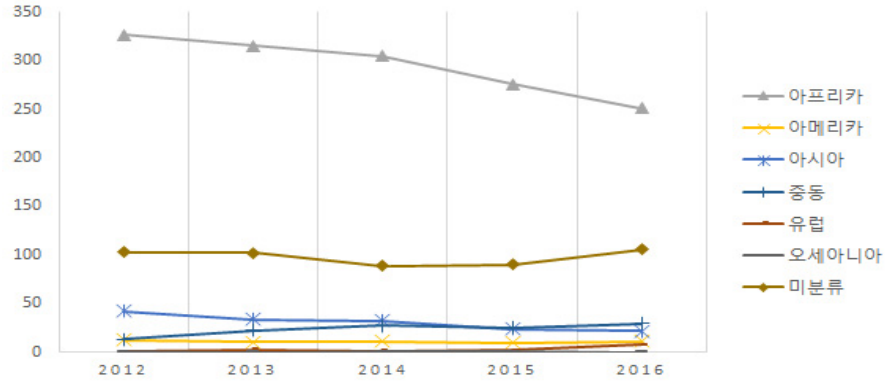
○ 지역별 양자 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1,474백만달러(64.0%)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1,474, 64.0%), 미분류(489, 21.3%), 아시아(153, 6.7%), 중동(117, 5.1%), 아메리카(54, 2.4%), 유럽(13, 0.6%), 오세아니아(0.4, 0.0%)

○ 미분류 제외시 2012-2016년 원조금 규모에서 아시아가 두 번째로 지원규모가 높으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단일 년도 기준으로는 중동 지원규모가 약 30백만달러로 아시아 지원규모 22백만달러를 상회

〈그림 68〉 아일랜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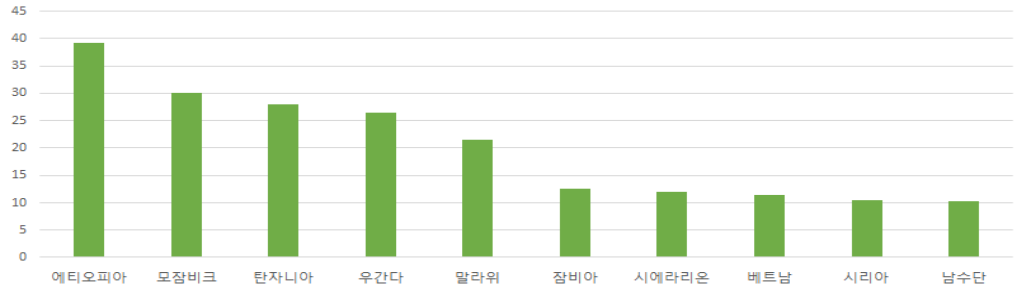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검색일: 2018.05.2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간다, 말라위 등 사하라이남 지역에 분포

〈그림 69〉 아일랜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검색일: 2018.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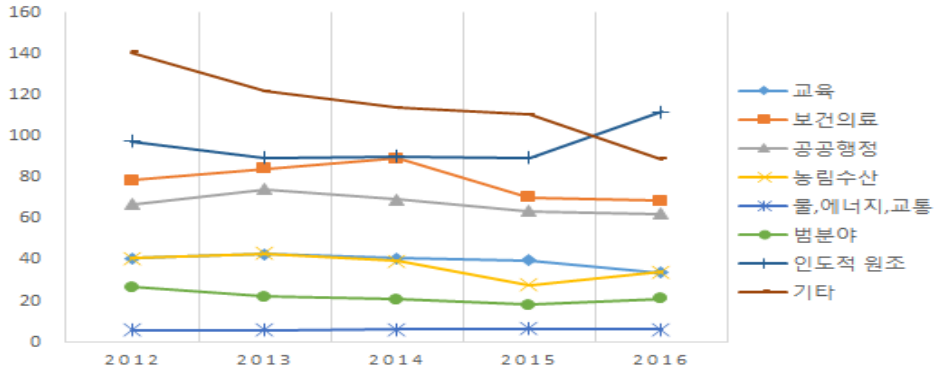
□ **(분야배분)** 개별분야로 인도적 원조와 보건 분야 비중이 가장 높으나, 보건의료 분야 비중은 최근 2년간 하락하는 추세

○ 분야별 양자 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기타 분야 지원이 576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나 최근 하락세이며, 두 번째로는 인도적 원조로 479백만달러 지원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576, 25.0%), 인도적 원조(479, 20.8%), 보건의료(391, 17.0%), 공공행정(336, 14.6%), 교육(198, 8.6%), 농림수산(185, 8.0%), 범분야(109, 4.7%), 물·에너지·교통(30, 1.3%)

〈그림 70〉 아일랜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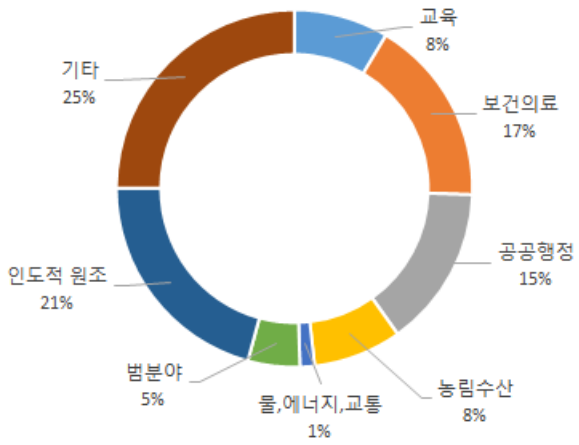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2012-2016년 아일랜드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2,305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기타분야 주요 세부항목: 공여국 행정비용 27%(154백만달러), 상품원조 24%(140백만달러), 기타 사회 인프라·서비스 24%(136백만달러), 미분류 20%(116백만달러) 등

〈그림 71〉 아일랜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나. 아일랜드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89]

□ **(전략 및 목표)** 취약국 및 최빈국 중심의 인도적 원조 경향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목표로 아래 6개의 우선과제 설정

⇒ 1) 기아 퇴치; 2) 취약국 지원; 3) 환경 및 기후변화; 4)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5) 무역 및 경제 성장; 6) 인권 및 책무성

○ 중점협력국(Key Partner Countries)으로 에티오피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 9개국을 선정

〈표 47〉 아일랜드 Irish Aid 프로그램 우선과제

우선과제	수행기준
1. 기아 퇴치	• 기아 및 영양결핍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대응 • 소작농 권익 제고 등 기아의 근본 원인 해결 • SUN(Scaling Up Nutrition) 운동 원칙에 입각한 다분야·다자 접근 방식 채택
2. 취약국 지원	• 취약국 문제 해소를 위한 평화, 안보, 개발 분야로의 범정부적이고 일관된 기여
3. 기후변화	• 기후변화 국제 협정 준수 및 아일랜드 개발협력 사업에서 기후 변화 분야의 우선화 • 협력국 정부 및 지역단체의 기후변화 회복력 제고
4. 무역 및 경제 성장	• 개발, 정치, 무역, 경제 부문 간 일관된 협정 체결 • 개발도상국 및 주요 협력국의 포용적 경제 성장 및 무역 역량 강화
5. 필수적 사회서비스	• Irish Aid 프로그램 협력국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지원 •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주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무성 강화 및 정책 지원 • 소외계층의 주요 서비스 접근성 보장
6. 인권 및 책무성	• 불평등 및 빈곤의 근본 원인 해소와 취약계층 수요 충족을 위한 인권 중심 사업 • 효과적이고 대상이 명확한 거버넌스 정책과 민주주의, 법치, 책무성 제고 사업 실시
7. 인도적 지원	• 인류애, 공평성, 독립성, 중립성에 근거한 인도적 개입

자료: **Irish Aid** 홈페이지(https://www.irishaid.ie/news-publications/publications/publicationsarchive/2014/september/framework-for-action/) (접속일: 2018. 04. 09)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89) 아래 자료는 아일랜드 외교통상부의 전반적인 정보가 아닌 **Irish Aid**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중점을 둠.

□ **(조직체계)**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에서 **Irish Aid** 프로그램 관할

○ 외교통상부는 아래 7개 본부 부서와 80개 재외공관으로 구성

⇒ 외교통상부 본부: 1) 개발협력; 2) 무역; 3)유럽; 4) 정치; 5) 사내서비스; 6) 재무; 7) 법무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에서 **Irish Aid** 프로그램을 관할하며, **Irish Aid** 프로그램 내부 조직 구성은 아래와 같음.

⇒ **Irish Aid** 프로그램 내부 조직 구성: 1) 아프리카(Africa Unit); 2) 시민사회·개발교육(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Education); 3) 평가·감사(Evaluation & Audit); 4) 인도주의(Humanitarian Unit); 5) 다자협력(Multilateral Unit); 6) 정책일관성·연구(Policy Coherence and Research Unit)

○ 외부 고문 기관으로 아일랜드원조자문그룹(Irish Aid Expert Advisory Group)이 있으며, 외교통상부 장관 및 국제개발부 장관에 원조 정책에 관한 제언을 제공함.

□ **(인력)** **Irish Aid** 인력은 주로 본부 정규직 및 해외 현지채용 인력으로 구성

○ 2008년 정규직 기준 국내 개발협력국 본부(더블린 및 리머릭)에 145개, 중점협력국에 **Irish Aid** 해외 파견 39개 직제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외 현지채용직제는 290개 규모로 운용함.

⇒ 국가별 파견인력 비중: 에티오피아 22.4%, 탄자니아 16.2%, 잠비아 15.9%, 모잠비크 12.8%, 우간다 12.8%, 레소토 5.6%, 남아프리카공화국 5.6%, 베트남 4.7%, 동티모르 1.9%, 시에라리온 1.2%, 말라위 0.9%

○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개발협력국 인력 및 인건비가 감축됨.

○ 2014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개발협력국 인력의 개발협력 기술 수준 미흡과 뚜렷한 인력 관리 전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음.

〈표 48〉 아일랜드 Irish Aid 해외인력 현황

(2008년 기준)

	사업대상국	구분				
		외교관	전문가	현지 프로그램 인력	현지 보조인력	합계
그룹1	에티오피아	2	3	24	43	72
	잠비아	2	2	25	22	51
	레소토	1	1	10	6	18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11	5	18
그룹2	모잠비크	2	4	25	10	41
	말라위	2	1	0	0	3
	탄자니아	2	3	15	32	52
	우간다	2	3	21	15	41
	베트남	3	1	6	5	15
	동티모르	1	1	1	3	6
긴급구호	시에라리온	0	1	0	3	4
	합계	18	21	138	144	321

자료: DFAT(2008)

□ **(주요사업)** 최빈국 및 취약국 대상 인도적 원조 사업

○ 제1우선과제로 기아 퇴치 목표를 선정하고 빈곤 종식 사업을 진행해 옴.

○ 2010년대 시리아 내전 및 유럽 난민 위기 등의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여 인도주의적 원조 사업을 확대하고 분쟁 및 난민 이슈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노력 강조

○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Irish Aid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표 49〉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긴급구호 이니셔티브*	여성 권리 신장 사업**	빈곤 종식***
배경	• 시리아 내전 등 중동지역 분쟁 및 세계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난민 이슈	• 아일랜드성평등원조정책2004****에 따라, 모든 원조 프로그램 및 정책에 여성의 권리 및 수요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함	• 세계 무역 경제 체제의 상호의존성 심화에 대한 인식 및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비전	• 국제인도법 수호 및 독립성, 중립성, 공평성, 인류애에 기반한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자금 지원	• 젠더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 취약계층의 권리 및 빈곤극복 의지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
전략 목표	• 자금 수요가 가장 긴박한 곳에 차별 없는 지원	• 법률의 보장 아래, 자원 및 혜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접근 및 참여	• 빈곤 완화 및 회복력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과 포괄적 경제 성장 • 거버넌스 및 인권, 책무성 개선
중점 추진 분야	• 영양 • 보건 • 식량안보 • 식수위생 • 생계지원 • 교육 • 젠더기반폭력 • 지뢰제거	• 농업 및 생계지원 • 교육 • 보건 • 여성의 정치 및 경제 의사결정 과정 참여 • 젠더폭력 예방	• 세계 기아 퇴치 • 취약국 집중 지원 • 기후변화 및 개발 노력 • 무역 및 경제 성장 촉진 • 기초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인권 보호 및 책무성 강화

* Rapid Response Initiative

** Women and Girls Count

*** Ending Poverty

**** Irish Aid Gender Equality Policy

자료: DFAT(2017) 및 Irish Aid 홈페이지(https://www.irishaid.ie/) (접속일: 2018.03.21.)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DFAT. 2008. “Irish Aid Management Review – Final Report.” Dublin: FSG Consulting.

DFAT. 2014. “Framework for Action Web-Version.” available at https://www.irishaid.ie/media/irishaid/allwebsitemedia/20newsandpublications/publicationpdfsenglish/Action-Framework-Web-Version.pdf (접속일: 2018.04.11.).

DFAT. 2016. “Irish Aid Annual Report 2015.”

DFAT. 2017. “Irish Aid Annual Report 2016.”

DPER. 2014. “2015 Revised Estimates for Public services.”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Government of Ireland(GOI). 2006. “White Paper on Irish Aid 2006.”

GOI. 2013. “One World One Future, Ireland’s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ECD. 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Ireland 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DFAT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rishaid.ie/ (접속일: 2018.03.21.).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2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14. 이탈리아(Italy)

가. 원조개요

□ **(총괄)** 난민 지원 및 다자원조 위주의 ODA 정책 수행

○ **(현황)** 2000년 이후 원조금액이 등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원조규모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 원조규모 5,605백만달러 및 ODA/GNI 비율 0.29% 기록

〈그림 72〉 이탈리아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1987년에 제정된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49호[90]"의 제정 이후, 2014년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125호[91]"의 제정을 통해 2016년에 원조 통합기관인 개발협력청(Italian Agency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AICS) 출범

○ **(핵심문서)** 제 125호 법률에 의거, 중기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문서를 채택하며, "2016-2018 3개년 계획문서(Three-year Programming and Policy Planning Document 2016-2018)"에서 이탈리아의 중점협력국 및 원조전략 제시

○ **(분절화)** 원조 통합기관인 AICS는 국내 수준에서의 분절화 극복 노력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14년 OECD DAC 동료검토는 이탈리아 원조의 분절화 문제(프로젝트 승인 과정, 현지 사무소와의 관계 개선 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92]

90) New Discipline of Italy's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91) General Law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예산)** 외교 및 국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외교부)가 ODA 관련 주요 예산흐름을 관리하며,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또한 난민 문제에 관한 많은 비용을 담당함.

○ 2018년 ODA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가 가장 많은 비중인 39%(1,700백만유로)를 집행하며,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내무부에서 32%(1,402백만유로)의 ODA 예산을 집행

○ **(원조예산 수립과정)** 경제재무부가 제안한 예산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조예산이 수립되며, 외교부 장차관·경제재무부 장관·국무총리 등이 원조예산 수립에 영향력 행사

⇒ 일반 예산절차 이외에도, 정부는 'Milleproroghe Decree(One Thousand Extension Decree)'라는 법령을 12월 말에 의회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ODA 예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93]

〈표 50〉 2018년 이탈리아 ODA 예산항목

예산항목	백만유로	백만달러
외교부	**1,198**	**1,325**
개발협력 관련	1,049	1,191
AICS	514	569
유럽개발기금	470	520
다자 및 긴급구호 분담금	42	47
기타	23	25
경제협력 및 국제관계	25	27
평화 및 국제안보	96	106
기타	28	31
이주문제 협력	13	15
유럽 통합	0.1	0.1
기타	15	16
경제재무부	**1,700**	**1,881**
EU 일반예산 분담금	1,088	1,203
국제경제 및 재정정책	562	622
부채경감	50	55

92) OECD. (2014) p17.
93)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italy) (접속일: 2018. 04. 06.)

예산항목	백만유로	백만달러
내무부	1,402	1,550
난민 수용 비용	1,402	1,550
기타 부처	69	77
합계	4,369	4,833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italy) (접속일: 2018. 04. 06.)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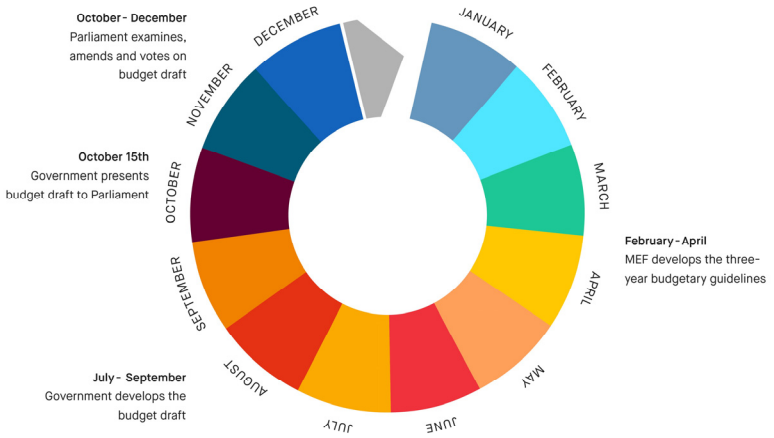
□ **(의회승인절차)** 경제재무부가 작성하는 3년 예산계획 및 해당년도의 예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 이탈리아 원조 예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는 총리, 경제재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및 차관으로 구성

○ **(의회승인 처리과정)** 의회승인절차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침: 1) 정부의 예산안 제출; 2)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3) 의회의 예산안 조정 및 승인

⇒ 2–4월에 경제재무부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의 예산 지침과 관련한 "경제 및 재무계획문서(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를 작성하며 이를 4월에 양원에서 승인, 7–9월에 내각에서 예산안 초안을 작성, 10–12월에 의회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토의 진행, 12월 말에 관련 위원회에서 세부예산 배정 및 전체 의회가 예산안을 표결함.

〈그림 73〉 이탈리아 AICS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italy) (접속일: 2018. 03. 19.)

□ **(지역배분)** 이탈리아의 원조는 해외지역 원조보다 공여국 내 난민 관련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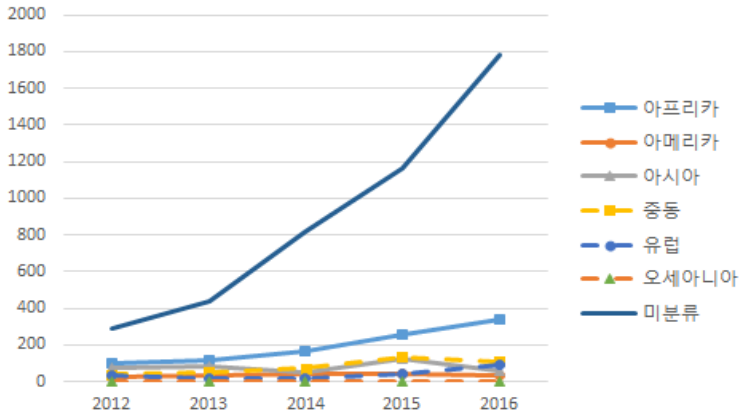
○ 2012-2016년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중동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4,493, 67.7%), 아프리카(977, 14.7%), 중동(409, 6.2%), 아시아(386, 5.8%), 유럽(198, 3.0%), 아메리카(171, 2.6%) 등

○ 난민의 주요 이동경로인 지중해와 인접한 이탈리아는 난민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여국 내 난민지원을 포함하는 미분류 영역 및 주요 난민발생지역인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임.

〈그림 74〉 이탈리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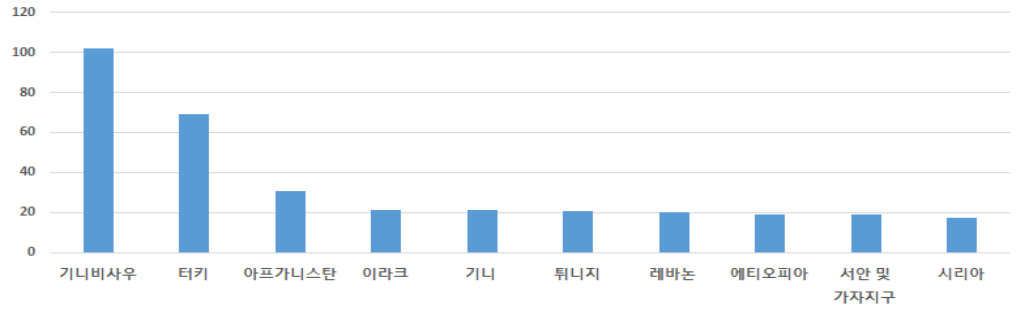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기니비사우에 대한 지원이 102백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터키, 아프가니스탄 등이 차지

⇒ 난민관련 지출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2016년 상위 10개 수원국에 대한 지원(341백만달러)은 전체 양자원조(2,420백만달러) 대비 약 14%에 불과

〈그림 75〉 이탈리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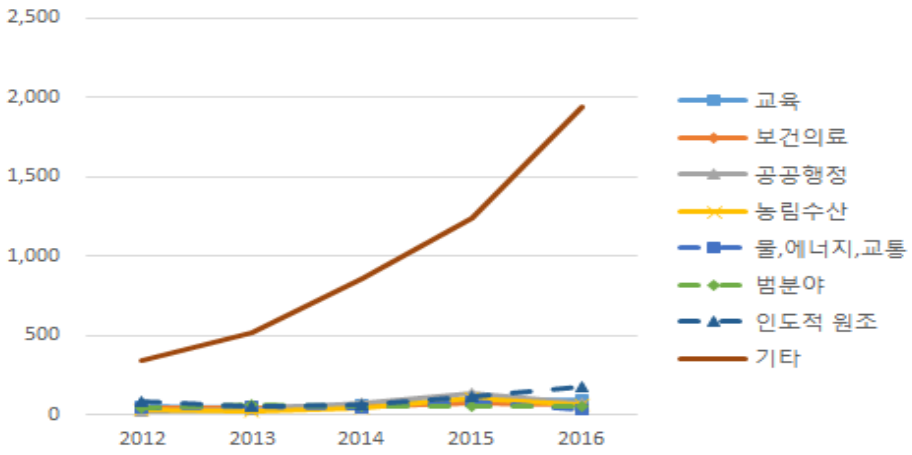
□ **(분야배분)** 이탈리아 ODA의 분야별 배분 또한 기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2-2016년 난민과 관련된 지원 금액의 증가로 기타분야의 비중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공여국 내 난민관련 비용은 2012년 220백만달러에서 2016년 1,665백만달러로 약 650% (1,445백만달러) 증가

〈그림 76〉 이탈리아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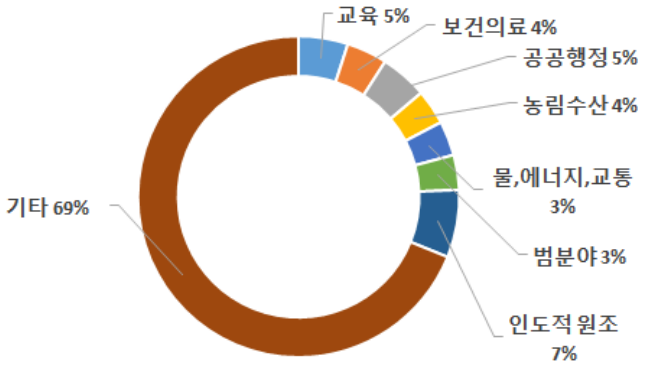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이탈리아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7,100백만달러이며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분야들은 비교적 균등한 비중의 지원 규모를 보임.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4,891, 68.9%), 인도적 원조(482, 6.8%), 교육(352, 5.0%), 공공행정(337, 4.7%) 등

〈그림 77〉 이탈리아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이탈리아 개발협력청(Italian Agency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전략 및 목표)**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써 SDGs에 부합하는 이탈리아 개발협력의 전략 및 목표 재정립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125호 1항은 빈곤 퇴치·불평등 완화·인권증진 및 성평등 달성·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확립을 이탈리아 국제개발협력의 중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ICS의 임무를 '개발협력 계획(initiative) 일체의 과정과 관련된 운영과 기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AICS는 매년 3개년 계획문서의 채택을 통해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며, "2016-2018 3개년 계획문서"는 SDGs에 상응하는 중점 영역을 설정함.

⇒ 상기 계획문서는 1) 거버넌스·인권·불평등 감소; 2) 이주와 개발; 3) 보건; 4) 교육; 5)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6) 환경·기후변화·에너지 개발; 7)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8) 민간분야 개발 등으로 중점 영역을 세분화함.[94]

⇒ 아래의 표는 이탈리아와 AICS가 따라야할 목표를 정리한 내용이며, 계획문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이탈리아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명시함.

〈표 51〉 AICS 2016–2018 목표

주요 목표	세부 사항
1. 사회적 지속가능성	• 인간 웰빙을 위한 조건 확보(식량 안보, 보건, 교육 등)
2. 경제적 지속가능성	• 소득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환경적 지속가능성	• 자연 자원 및 유산의 보호와 재생을 보장
4. 제도적 지속가능성	• 강력한 제도·권리·정의·민주주의 확립

자료: 이탈리아 정부(2016)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이탈리아 국제개발 협력은 개발협력부처 간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CICS)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며, AICS는 외교부의 산하에서 개발협력 관련 조직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 수행

○ AICS는 외교부 산하에서 개발협력 분야 참여자들 간의 연결을 담당하며, AICS 내부 조직은 기술분야, 행정분야, 지역사무소의 3개 주요부서로 구분됨.

○ CICS가 추구하는 정책일관성 하에서 AICS는 정부부처, 국가기관, 연구소,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 수행

⇒ 정부기관으로는 이탈리아 외교부 및 국영은행(Cassa Depositi e Prestiti) 등을 비롯해 피렌체대학교(University of Florence), 생물기상학연구소(Institute of Biometeorology), 지중해 농경연구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등과 업무협약 체결[95]

○ AICS의 본부는 크게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며 각각 기술영역(경제개발, 인간개발, 환경 및 영토,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긴급구호, 민관협력 등 6개부서)과 행정영역(법무, 재무, 인사, IT, 조달 등 5개부서)으로 구분[96]

○ AICS는 총 20곳에서 해외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의 지역에 분포

⇒ 아프리카 9개국, 중동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7개국, 중남미 3개국, 유럽 1개국에서 운영[97]

94) 이탈리아 정부. (2016) p25-47.
95) AICS 홈페이지(https://www.aics.gov.it/home-eng/aics/partnerships/) (접속일: 2018. 05. 23.)
96) AICS의 자세한 조직도 및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AICS 홈페이지(https://www.aics.gov.it/) 참고
97) 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 아시아

□ **(인력)** 독립기관 출범으로 인한 개발협력 조직 인력변화

○ 2016년을 기준으로 255명의 인력을 고용하였고(167명이 로마 본부에, 88명이 해외에 근무), 2017년을 기준으로 252명을 고용하여 최근 인력규모를 250명 수준으로 유지

○ 2014년 OECD DAC 동료검토는 이전의 동료검토에서 지적했던 이탈리아 개발협력 인력들의 처우와 기술적 전문성의 개선에 대해 고무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전문지식 및 분석적 역량을 더욱 배양할 것을 권고[98]

⇒ 지역 관리자급 인력이 매년 해당 직위에 재지원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등 고용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1년 단위의 계약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지적됨.

〈표 52〉 이탈리아 국제개발협력 인력 변화

(단위: 명)

년도		2013	2016	2017
구분		개발협력국(DGCS*)[99]	AICS	
본부	외교관	30	167	-
	기술 전문인력	29		
	관리인력	254		
해외	정규직	35	88	-
	임시 기술인력	101		
	현지 관리인력	92		
합계		541	255	252

* Direzione Generale per la cooperazione allo sviluppo(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자료: OECD(2014), AICS(2016), AICS(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레바논, 미얀마,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베트남), 중남미(쿠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유럽(알바니아). AICS 홈페이지(https://www.aics.gov.it/home-eng/aics/field-offices/) (접속일: 2018. 05. 23.)

98) OECD. (2014) p17.

99) 개발협력국(DGCS)은 이탈리아 외교부 산하의 개발협력 관련 조직으로, 2016년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AICS가 출범하기 전까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함.

□ **(주요사업)**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한 활발한 난민 관련사업 지원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및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지역적 유사성을 지닌 국가들에 확산될 수 있는 우수 사업(best practices)에 집중적으로 지원[100]

○ 이탈리아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계획(flagship initiatives) 착수를 통해 연대와 대화를 추구하는 이탈리아의 대외이미지 제고[101]

⇒ 성평등, 이민자 문제, 식량 안보 및 농업 문제 등의 분야에서 이탈리아 개발협력의 상징성 부각

○ AICS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53〉 이탈리아 AICS 주요사업 개관

	여성할례 폐지사업*	요르단강 서안지구 농업환경 개선사업**
배경	• 부르키나파소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성의 생식기를 절제하는 여성할례가 만연한 상황 고려	• 요르단강 서안지구 및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
비전	•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증진	• 생산성 증대 및 소득개선을 통한 주민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
전략 목표	• 여성할례 폐지를 통한 여성인권 증진	• 자급을 위한 식량생산능력 제고 • 팔레스타인 농업 가구의 소득 개선
중점 추진 분야	•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할례 문제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및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금 제공 • 현지 정부와 의회가 여성할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유도	• 생산량 및 생산성, 지속가능성 증대 • 축산낙농업관련 자원관리 및 접근성 개선

* BanFGM: for the Abolishment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 From the Water to the Market: a Great Challenge for the Small Farmers and the Women Producing Milk Products in the West Bank

자료: Openaid 홈페이지(http://openaid.esteri.it/en) (접속일: 2018. 06. 25.)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00) 이탈리아 정부. (2016) p57.

101) 이탈리아 정부. (2016) p57.

참고문헌

이탈리아 정부. 2016. “Three-year Programming and Policy Planning Document 2016-2018.”

AICS. 2016. “AICS Annual Report.” Rome: AICS.

AICS. 2017. “AICS Annual Report.” Rome: AICS.

OECD. 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Italy.” Paris: OECD.

AICS 홈페이지: https://www.aics.gov.it/ (접속일: 2018. 03. 19.).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italy (접속일: 2018. 04. 06.).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Openaid 홈페이지: http://openaid.esteri.it/en/ (접속일: 2018. 03. 19.).

15. 일본(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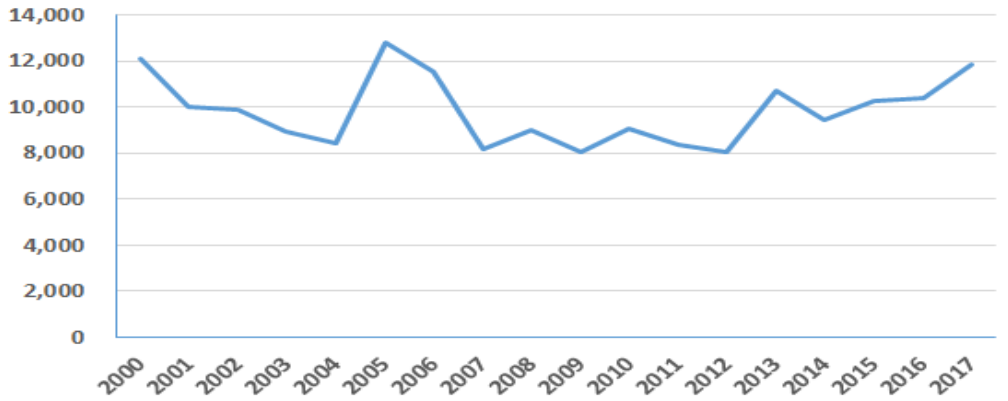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원조전략 및 전략목표

□ **(총괄)** 국익에 공헌하는 원조에 강조점을 두며 유·무상 통합 운영

○ **(현황)** 2017년 총 공여금액 면에서 세계 4위 규모이나, ODA/GNI 비율은 0.23%로 OECD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림 78〉 일본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일본의 원조는 패전 이후 배상외교로 배상을 경제발전에 공헌토록 하는 '경제전략'[102]에서 1970대 이후로는 정치적 신념을 강조하며 자국기업의 경제적 이해와 원조를 연계시켜 옴.

⇒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DAC에서 정한 빈곤해소의 최우선 방향에 동조하고 있지 않음.[103]

○ **(핵심문서)** 2017년 "개발협력헌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을 중심으로 국익에 공헌하는 개발협력을 강조하며 평화·안정·번영을 추구

○ **(유무상통합)** 2008년 무상기관인 JICA(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유상기관인 JBIC(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통합됨. 이로 인해 집행 및 관리가 용이해졌으며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104]

---

102) 박홍영. (2006) p56.

103) 주동주 외. (2009) p53.

□ **(예산)** 다양한 출처로부터 예산이 유입되며 계획과 운영 관리에 있어 예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

○ 2018년 예산 기준, 전체 ODA 중 약 1/4은 일반예산 항목에 귀속되며 일반예산 중 외무성에서 집행하는 비율은 약 80%를 차지함.

○ 외무성은 ODA를 세 가지로 분류: 양자 무상원조, 기술협력, 다자기관 협력(개발은행 지원은 제외)

○ 재무성은 전체 ODA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대부분은 "재정투자 및 차관프로그램(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이하 FILP)"을 통해 정부채권에서 자금이 유입되며 JICA의 차관 프로그램에 사용됨.

⇒ 정부 채권의 경우 다자개발은행 부문에 사용하도록 예산이 배정됨.

〈표 54〉 2018년 일본 ODA 예산항목

구분	백만달러	백만엔
일반 예산	**5,091**	**553,800**
외무성	3,993	434,400
무상원조	1,475	160,500
기술협력 (JICA)	1,383	150,500
다자협력	476	51,800
기타 원조	660	71,800
재무성	714	77,600
기타부처 및 기관	384	41,800
특별회계	**9**	**1,000**
투자 및 채권	**1,989**	**216,400**
UN 및 관련 기관	383	41,700
다자개발은행	1,606	174,700
재정투자 및 차관 프로그램	**12,812**	**1,393,800**
재무성 등에 의한 기술협력	637	69,300
JICA 차관, JICA 투자채권 등	12,175	1,325,500
ODA 총합계	**19,901**	**2,165,000**
차관 상환	**6,628**	**721,013**
ODA 순합계	**13,273**	**1,444,000**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japan) (접속일: 2018. 07. 04.).

104) 한국국제협력단. (2013) p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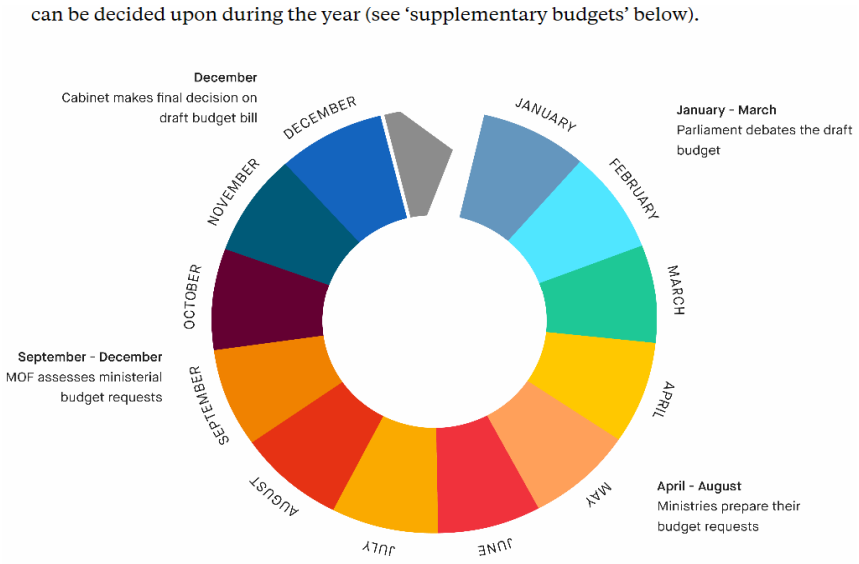
□ **(의회승인절차)** 회계 연도 기준에 따라 매년 4월부터 일년 간 예산 승인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다년도 사업의 경우 수상의 자유재량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결정이 가능

○ 매년 확정되는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국제보건사업을 위한 예산 등 다년도 예산 필요 시 수상의 재량으로 예산안 편성이 가능

○ **(의회승인처리과정)** 1) 의회의 예산 초안 협상; 2) 부처의 예산신청; 3) 재무성의 예산신청 평가; 4) 내각의 예산안 확정의 절차로 진행됨.

⇒ 4–8월에 각 부처들의 예산신청내역을 기반으로 9–12월에 재무성에서 각 부처의 예산신청안 평가 후, 12월 내각에서 초안 예산내역을 확정함.

〈그림 79〉 일본 ODA 예산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japan) (접속일: 201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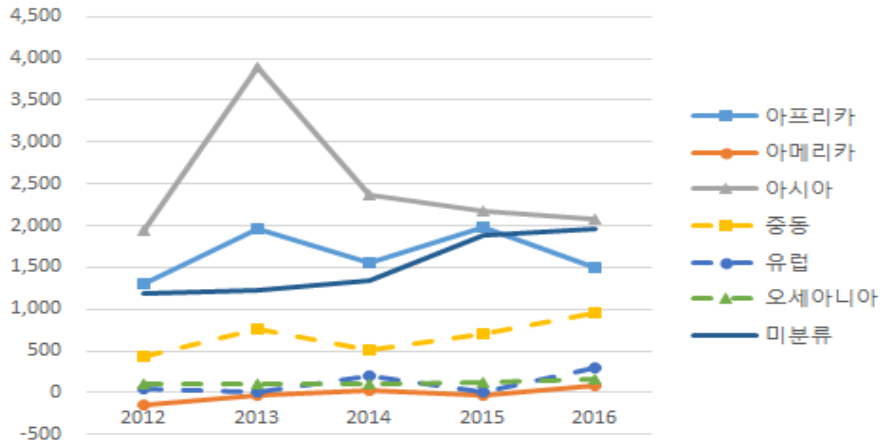
□ **(지역배분)** 최근 일본의 지역별 원조는 아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임.

○ 아시아에 대한 원조 비율이 가장 높으며 5년간 양자 원조금액 합계의 37.9%를 차지함. 두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25.3%를 차지하며 중동 등의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시아(12,453, 37.9%), 아프리카(8,302, 25.3%), 미분류(7,613, 23.2%), 중동(3,376, 10.3%)

〈그림 80〉 일본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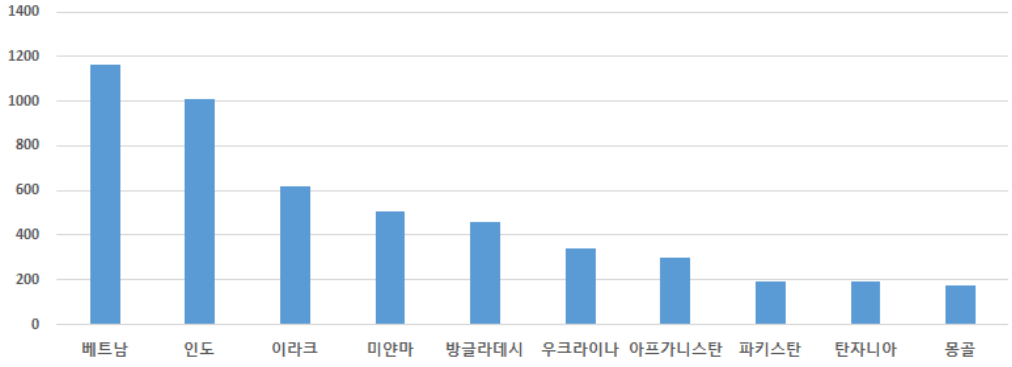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베트남에 대한 원조 규모가 중동,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원조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함.

○ 상위 10개 수원국 중 아시아 및 중동국가들이 8개국으로 원조의 지역적 편차가 높으며,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이 아닌 국가는 우크라이나 및 탄자니아가 해당됨.

〈그림 81〉 일본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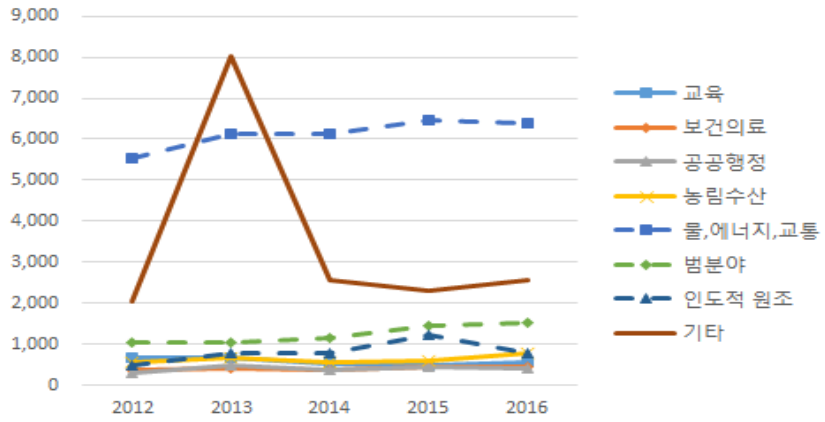
□ **(분야배분)** 일본의 분야별 원조는 기본 인프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 범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최근 기타분야를 제외한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2013년 미얀마에 대한 일반예산지원 및 부채탕감 금액의 급증으로 기타분야의 지원비중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평년 수준을 회복함.

〈그림 82〉 일본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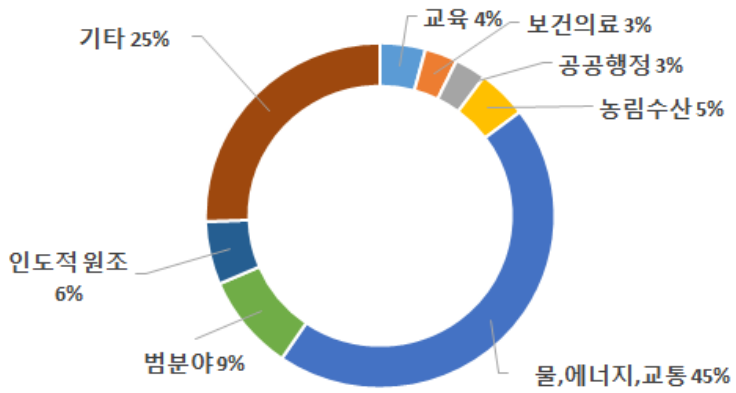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2012-16년 일본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68,500백만달러이며, 그 중 물·에너지·교통 분야에 대한 비중이 44.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물·에너지·교통(30,673, 44.8%), 기타(17,487, 25.5%), 범분야(6,194, 9.0%), 인도적 원조(4,049, 5.9%) 등

〈그림 83〉 일본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나.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전략 및 목표)** 지역·국·분야별 전략을 통해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및 원조정책 달성을 목표로 함.

○ 외무성에서 매년 초 작성하는 "개발협력의 우선정책(Priority Poli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에 주요 전략이 포함되며 해당 문서는 예산 배분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기획·집행의 근간을 이룸.[105]

⇒ 일본 ODA 관련 문서: ODA헌장, ODA 중기전략, JICA 중기계획, JICA 연도별 계획, 개발활동을 위한 JICA 경로, JICA 국별 분석문서 등[106]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JICA의 제4차 중기계획(The 4th Medium-term Plan)은 다음과 같은 중점운영분야, 우선순위 및 구체적 계획(Concrete initiatives)을 설정함.

⇒ JICA는 일본 정부의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발협력을 둘러싼 국제적 노력(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명시함.

105) 한국국제협력단. (2013) p250.
106) 상동, pp260-261.

〈표 55〉 제4차 JICA 중기계획 주요사항

중점운영분야	우선순위	구체적 계획
1. 각 국가의 개발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개인의 역량 강화 2. 개발협력과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일본 내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 강화 3.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며, 국제사회의 선도자 역할 수행 4. 안보조치 강화	1. 주인의식과 파트너십의 강조를 통해 상호신뢰를 확립하는 개발협력 추구 2. 인간안보의 개념에 입각한 인간중심 접근 추구 3. 전략적 운영 강화 및 JICA 운영의 질 개선 4. 명확하고 통일된 정보 제공	• 우선목표에 대한 해결노력 (질적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평화 등의 범지구적 가치 공유, 국제적 문제 대응) • 일본의 파트너십 강화 • 사업수행을 위한 토대 강화 (대외홍보, 연구, 사업평가 등) • 지역별 우선사항 해결 • 안보조치 강화 • 기타 운영측면의 사항 개선 (효과성 개선, 적극적 역할 추구) 등을 설정

자료: JICA(2017)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JICA는 외무성과 재무성 산하에서 유·무상원조를 통합 집행하며 사업 실행 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 JICA 조직은 크게 6개의 지역 부서로 구성되며 각각 1) 동남아·태평양; 2)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캅카스; 3) 남아시아; 4)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5) 아프리카; 6) 중동 및 유럽 지역으로 구분

○ 분야 단위의 부서로는 각각 1) 경제기반시설 및 평화구축; 2) 인간개발; 3) 글로벌 환경; 4) 지역개발; 5) 산업개발 및 공공정책 등의 다섯 부서로 세분화[107] 됨.

□ **(인력)** 높은 해외봉사단 의존율을 보이며 본부인력은 도쿄에 집중

○ 2016년 연보 기준 해외봉사단을 제외하고 1,864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1,170명이 도쿄에, 440명이 해외사무소에 근무

⇒ 지부 현황: 일본 내에 도쿄를 제외하고 15개의 지부가 존재하며 홋카이도, 도호쿠, 요코하마, 간사이, 큐슈 등에 약 250여 명이 근무[108]

○ 2017년 9월 기준 해외봉사단 총 인원은 2,276명으로 봉사단 수가 전체 JICA 직원의 숫자를 상회함.

⇒ 봉사단 현황: 일반봉사단(20–39세) 1,920명 및 시니어봉사단(40–69세) 356명

107) 2017년 12월 13일 JICA 본부 Operations Strategy Department 직원과 이메일을 통해 확인함.
108) 홋카이도(삿포로, 오비히로), 도호쿠, 쓰쿠바, 도쿄, 요코하마, 호코리쿠, 주부,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니혼마쓰, 고마가네 등

□ **(주요사업)** 국가 단위의 원조 전략목표 하에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에서 사업까지 일관성을 유지함.

○ 일본의 ODA는 일본 원조 전략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슈 및 인간안보 제창(Addressing global issues toward achieving SDGs and promoting human security)”하에 재해위험 감소 프로그램, “지역 활성화(Regional Revitalization)” 목표 하에 “한 마을 한 제품 이니셔티브(One Village One Product)”를 포함하는 등 정책과 사업이 동일전략 목표 하에 연계

○ 일본의 원조가 전략적 외교 및 경제적 역할을 하는 이유로 양자원조의 형태가 80%를 차지함. 따라서 일본의 특색을 반영하는 양자사업이 대다수임.

○ JICA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56〉 일본 JICA 주요 사업 개관

	한 마을 한 제품*	내일을 위한 스포츠**	재해위험 감소 프로그램***
배경	• 오이타(Oita)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거 진행되었던 일본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국제개발에 도입	• 2015년 JICA는 일본 프로 축구단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협력을 이루고자 함.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및 재난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개도국에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으로 적용
비전	• 지역제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 증대 및 경제 개발	•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홍보 이니셔티브	• 글로벌 이슈에 공헌
전략 목표	• 자립과 창의성 • 인적자원개발 •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국제적 행동	• 평화 도모 • 지역적 개발 •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	•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실제로 구현하고자 함
중점 추진 분야	• 지역개발: 공동체에 지역 상품의 가치창출을 통해 소득증대	• 스포츠 홍보 • 스포츠 용품 제공 및 교체 • 국가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등	• 개발도상국의 조기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에 대한 전과정 숙지 •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 최소화

* One Village One Product
** Sport for Tomorrow
*** Disaster Risk Reduction
자료: Mukai & Fujikura(2015) 및 JICA(2016)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박홍영. 2006.『일본 ODA와 국제정치』. 파주: 한울.

주동주 외. 2009.『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서울: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2013.『타 해외원조기관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체계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JICA. 2016. “JICA 2016 Annual Report.” Tokyo.

JICA. 2017. “JICA 2017 Annual Report.” Tokyo.

Kanako Mukai & Ryo Fujikura. 2015. “One Village One Product: Evaluations and Lessons Learnt from OVOP Aid Projects.” Development in Practice. 25:3, 389-400.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japan (접속일: 2018. 06. 05.).

JICA 홈페이지: https://www.jica.go.jp/english/ (접속일: 2018. 06. 05.).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6. 0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16. 룩셈부르크(Luxembo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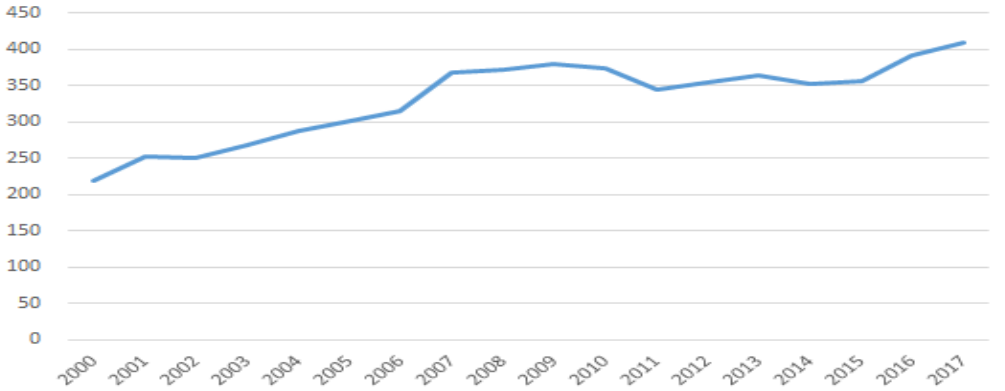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협력국 수를 제한하고 사회분야에 집중하여 원조효과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109]

○ **(현황)** 2000년 이후 룩셈부르크의 원조 규모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 기준 ODA 총액 408백만달러, ODA/GNI 비율 1.00% 기록[110]

〈그림 84〉 룩셈부르크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원조 집행 전담기관으로 1978년 룩셈부르크국제협력개발청(Lux-Development, 이하 **LuxDev**)이 비공개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형태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정부에서 9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111]

○ 1996년 개발협력법(Development Cooperation Act)이 제정된 이래로 2002년, 2017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에서 비정부개발기구 및 룩셈부르크 정부 간 협조융자비율(co-financing rates) 상한선을 80%로 지정

109)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newsroom/luxembourg-is-a-generous-aid-donor-and-solid-ally-to-developing-partners.htm) (접속일: 2018.04.23.)

110) 룩셈부르크는 2017년 ODA/GNI비율에서 DAC회원국 중 스웨덴에 이어 2위 기록(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4.23.)

111) European Commissions 홈페이지(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23.)

○ **(핵심문서)** 2012년 수립된 "개발협력전략(STRATÉGIE GÉNÉRALE 2012)"에서 사회 분야에 원조 집중, 협력국 수 제한[112], ODA/GNI 비율 1% 유지 목표 등을 강조

⇒ 동 전략에서는 룩셈부르크의 역사[113]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원조 동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빈곤 퇴치 및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책일관성)** 부처 간개발협력위원회(Inter-Ministrial 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개발협력 정책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유관 부처들 간의 대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 부처 간 개발협력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114]

⇒ 룩셈부르크 주요 외교 정책으로 외교(Diplomacy)·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방위(Defence) 정책 간 일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3D 접근을 지향[115]

⇒ 반면 2017 OECD DAC 동료검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정부가 UN 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자 원조의 분절화가 우려됨.[116]

□ **(예산)** 외무부 개발협력국에서 ODA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

○ 2016년 기준 외무부에서 룩셈부르크 ODA 예산의 82%(288.32백만유로), 재무부에서 11%(38.06백만유로)를 주관

○ 개발협력국 예산은 개발협력기금(67%, 190.17백만유로), 인도주의적개입 보조금(13%, 36.99백만유로), 비(非) EU 국제기구 기부금(8%, 23백만유로) 등으로 구성

---

112) 현재 **LuxDev**는 4대륙 12개국에서 사업을 실시하며 주요 협력국은 카보베르데,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세네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라오스, 베트남 9개국(LuxDev 홈페이지: http://luxdev.lu/en) (접속일: 2018.04.23)

113) 룩셈부르크는 2차례의 세계대전 후 외국 원조를 받아 경제 재건을 시작했고,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를 이민 노동자를 활용하여 대처함. 2012 개발협력전략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역사가 룩셈부르크 개발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설명함.

114) OECD. (2017) p54.

115) 이러한 접근은 특히 말리 및 니제르 국가협력사업(Indicative Co-operation Programmes, ICPs)에서 잘 드러남(상동 p54).

116) 상동. p55.

〈표 57〉 2016년 룩셈부르크 개발협력 부서별 예산

(단위: 유로)

부서별 예산 항목	승인 예산	ODA 순지출액
외무부	313,965,480	288,320,246
정책실	14,779,770	3,076,341
국제경제관계국	1,455,000	879,011
이민국	209,756	142,454
방위국	11,280,000	1,467,917
개발협력국	285,130,045	282,754,522
해외파견직원 파견수당	993,409	966,200
해외파견직원 정착비용	117,500	117,180
개발협력 및 인도주의적개입 사업 해외 출장비	520,000	513,490
운송비, IT장비 대여 및 유지관리	24,000	13.992
개발협력 인지 제고 사업	90,000	67,500
세미나 및 회의 개최 비용	90,000	88,321
개발도상국 해외사무소	440,000	460,949
개발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620,000	618,636
개발협력 복리후생비(휴가 등)	60,000	78,827
개발협력 인지제고 사업 NGO 지원금	2,020,000	1,790,266
Cercle de Coopération(룩셈부르크 개발 NGO 플랫폼) 보조금	350,000	350,000
개발협력: 경제·기술 지원사업, EU 인도주의적 개입, 기타 같은 목적의 지출	10,020,000	10,019,480
개발협력: 비 EU 국제기구 주제별 사업 지원	18,058,000	18,055,876
개발협력: 비 EU 국제기구 예산 기부금	23,000,000	23,000,000
개발협력: 비 EU 국제기구 예산 분담금	457,000	267,260
인도주의적 개입 보조금	37,000,000	36,999,943
개발도상국 해외사무소: 구매비용	60,000	59,253
개발협력기금(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1,910,945	190,168,833
상환금		- 881,483
문화·고등교육·연구부	244,205	110,303
재무부	38,890,000	38,057,063
마약밀매퇴치금		1,385,563
EU 분담금		22,811,079
행정부	99,736,454	3,580,722
보건부	361,750	264,401
총ODA		**353,143,813**
GNI		34,550,000,000
GNI/ODA(%)		1.02%

* 총합과 각 세부항목의 합은 차이가 있으나 이 자료는 원 자료의 값을 그대로 반영함.
* 외무부 개발협력국 외 타 부서 예산 세부 항목은 생략함.

자료: MFEA(2016)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지역배분)** 룩셈부르크는 중·서부 아프리카에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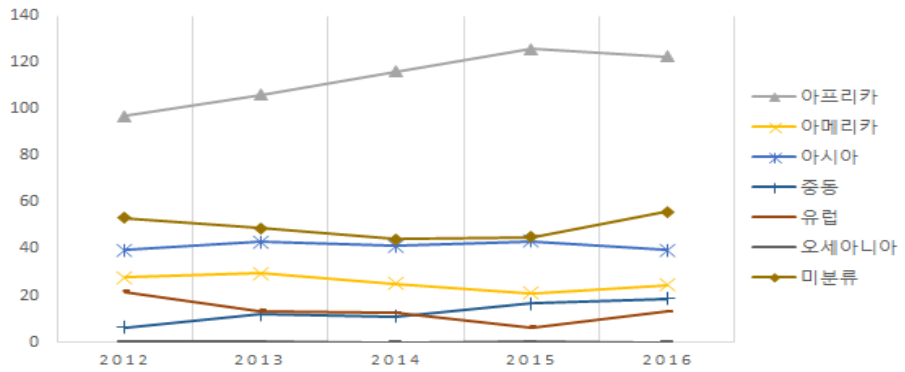
○ 지역별 양자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미분류 제외) 아프리카 지역 원조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원조액의 44.3%(568백만달러)를 차지했으며,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으로 16.1%(207백만달러)의 비중을 나타냄.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568, 44.3%), 미분류(247, 19.3%), 아시아(207, 16.1%), 아메리카(128, 10.0%), 유럽(67, 5.2%), 중동(65, 5.0%), 오세아니아(1, 0.0%)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2015년 126백만달러로 동년도 총 ODA의 49%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폭 감소

〈그림 85〉 룩셈부르크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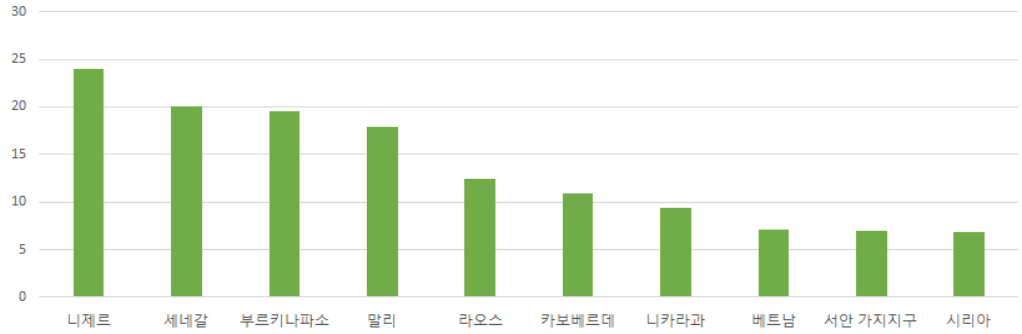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니제르에 대한 지원이 약 24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중·서부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말리, 라오스 등)이 차지

〈그림 86〉 룩셈부르크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검색일: 2018.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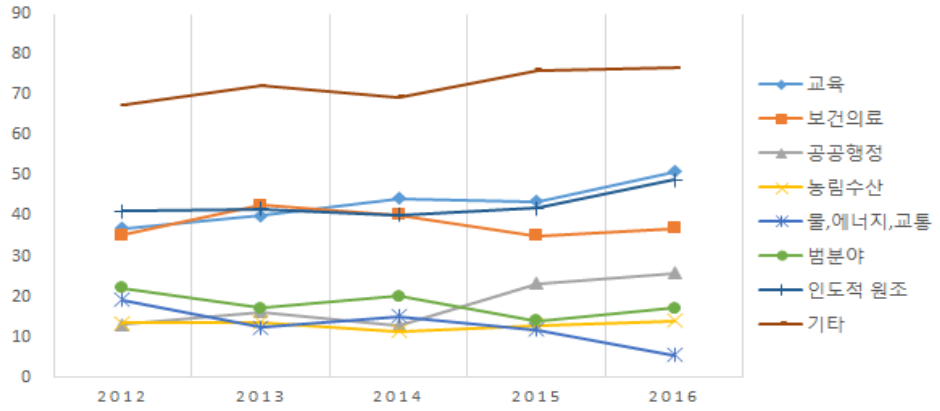
□ **(분야배분)** 교육·인도적 원조·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비중

○ 분야별 양자 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362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단일 분야로는 교육, 인도적 원조, 보건의료 세 분야에 비슷한 규모로 지원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362, 28.0%), 교육(216, 16.7%), 인도적 원조(214, 16.6%), 보건의료(190, 14.7%), 공공행정(91, 7.1%), 범분야(90, 7.0%), 농림수산(65, 5.0%), 물·에너지·교통(64, 4.9%)

〈그림 87〉 룩셈부르크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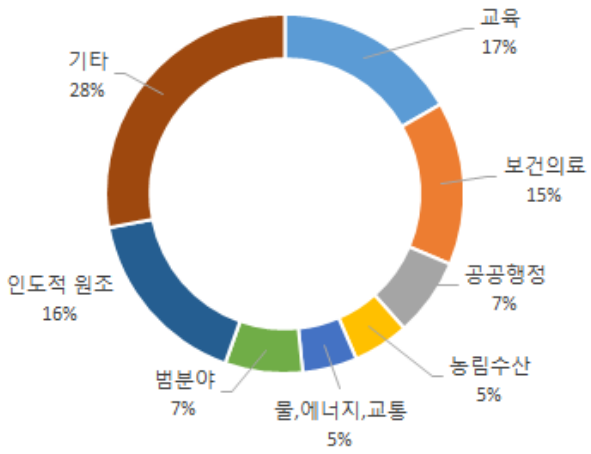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검색일: 2018.05.21.)

○ 2012-2016년 룩셈부르크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292백만달러로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기타분야 총액에서 주요 세부항목은 미분류 32%(117백만달러), 공여국 내 행정비용 26%(94백만달러), 기타 사회 인프라·서비스 10%(37백만달러)로 구성

〈그림 88〉 룩셈부르크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나. 룩셈부르크 국제협력개발청(Lux-Development)

□ **(전략 및 목표)** 인도주의적 동기의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 외무부 개발협력국(Directorat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농업·식량안보, 지역개발, 교육·직업훈련, 환경·기후변화, 보건 등 다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립 및 문서화하고 있으나 주요 전략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온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음.[117]

○ **LuxDev** 미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주요하게 다루며,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시 다양한 방식으로 CSR을 자체 구현하고 있음.[118]

117) OECD. (2017).

○ 2016년 LuxDev 연례보고서에서 1) 지역개발; 2) 교육; 3) 보건; 4) 소액금융; 5)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점 사업 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개발 외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LuxDev는 성공적인 미션 수행을 위한 4대 비전(Vision2020)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룩셈부르크 개발협력 노력을 충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2) LuxDev의 가치를 추구하되, 유연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개발협력 현장의 현실에 부응하는 기관;
3) 역량 구축 및 파트너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성과 달성;
4) 기관의 지식·경험 습득 및 기술 향상에 투자

□ **(조직체계)** 외무부 개발협력국에서 개발협력 정책을 주관하며 LuxDev에서 집행 담당

○ 개발협력국에서 개발협력 정책 기획 및 실행을 주관하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 국제 금융 기구와의 다자협력 체결 담당

⇒ 개발협력국 아래 양자원조 사업은 지역별 담당부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지역협력, 기타지역)로 구분되고, 다자원조 사업은 유럽연합(EU), UN 전문기관, 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서로 구분

○ 원조 집행 전담기관으로 1978년 LuxDev가 비공개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정부에서 98%, 국가신용투자사(Société nationale des Crédits à l'Investissement)에서 2% 지분 소유[119]

⇒ LuxDev 본부의 경우 운영위원회 아래 주요 4개 부서로 구성되며 1) 재무·회계·감사; 2) 사업 고문·전문가; 3) 인사·행정; 4) 리스크관리·평가 부서로 구분[120]

⇒ LuxDev 해외사무소 현황: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소보, 말리, 니제르, 세네갈에 국별 사무소, 마나과[121] 및 비엔티안[122]에 지역 사무소 설치[123]

○ 외무부와 LuxDev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두 달마다 전략 회의, 분기별로 양자원조 포트폴리오 정기 검토 회의를 개최함.

---

118) 예를 들어, LuxDev 본부 사무소에서는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비행기 이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같은 양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119) European Commissions 홈페이지(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23.)
120) 자세한 조직도는 LuxDev(2017) 참조
121) 니카과라, 엘살바도르 프로그램 관할
122)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프로그램 관할
123) LuxDev 홈페이지(https://luxdev.lu/en/agency#vision2020) (접속일: 2018.04.23.)

○ 말리 및 니제르에 신설 공관을 개설하는 등 최근 외무부 재외공관을 확대하고, 룩셈부르크 원조기관인 LuxDev 해외사무소에 권한을 위임하며 지역 조정기구들과의 협력체계 강화

□ **(인력)** 프로젝트성 인력 비중이 가장 높으나 최근 감소 추세

○ 2017년 2월 기준 총 5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부 인력 52명, 해외사무소 인력 52명, 프로젝트 단위 채용 인력 409명으로 구성

○ 2016년 LuxDev 기업혁신 계획(The Optimus 2016 Restructuring Plan)[124]의 일환으로 채용 과정을 개선하고 인력 구성을 재배치하는 등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 노력을 경주함.

○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LuxDev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직원 수는 감소하는 등 해외사무소 역량 강화로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는 LuxDev 인력의 개발협력 시행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58〉 LuxDev 인력 현황

(2017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12	2017
본부		54	52
해외사무소	외국인 직원	9	11
	현지 직원	37	41
	소계	46	52
프로젝트	외국인 전문가	75	73
	현지 채용	380	336
	소계	455	409
합계		555	513

자료: OECD(2017)

□ **(주요사업)** 전통적으로 지역개발 분야 사업에 주력해 옴.

○ 2016년 기준 LuxDev사업의 30%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분류되며, LuxDev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덴마크, 스위스 등 타 공여기관 및 국가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대리 수행하는 등 동 분야에 특화된 개발협력 전략을 보유[125]

124) Optimus 2016 기업혁신 계획으로 LuxDev는 본부 기능을 간소화하고 사업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역 사무소로 위임하는 등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재구성함(LuxDev, 2017; OECD, 2017: 55에서 재인용).

○ 양자 원조의 절반 이상을 보건·교육·지역개발통합 3개 사회 분야에 집중하며, 지역적으로는 최빈국에 52% 지원[126]

○ LuxDev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59〉 룩셈부르크 LuxDev 주요사업 개관

	말리 북부 지역사회 및 경제재건 사업*	기후적응 지역개발·혁신 사업**	마을개발기금***
배경	• 학교, 헬스센터, 시청 등 공공 기반시설의 재건 및 설비 분야에서 지역민의 수요가 파악됨.	• 2007-2012년간 시행된 베트남 투아티엔후에성(Thua Thien Hue), 꽝디엔(Quang Dien)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베트남 및 룩셈부르크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	• 2011년 대출(credit) 및 공동무상보조금(communal grant) 전담 기금을 통해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3년 기준 60개 마을 지원
비전	• 지역경제재건 및 지역 사회서비스 개선을 통한 분쟁 후 지역의 안정화	• 태풍 발생률 및 규모 증가, 홍수 및 가뭄 심각성 증가, 천연자원 및 생태계 피해 심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 징후로부터 지역민들의 생계 및 자산 보호	• 빈곤감소, 지역 민주주의, 공공참여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전략 목표	• 지역경제프로젝트 지원 • 사회안전망을 통한 취약층 지원 • 지자체의 공약 준수를 위한 물질적 지원	• 적응력 있는 사회·경제 개발 및 빈곤감소를 위한 지식, 체계, 자산 증진 • 보호(protection), 이용가능성, 회복력,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성 제고 •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기후적응력 및 시장경쟁력을 갖춘 생산 활동 증대	• 가구당 EUR 230, 마을당 EUR 23,000 금융 지원. 대출의 경우 연이율 7%로 개인당 EUR 18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지원기금의 20%는 최빈 가구 지원 혹은 마을 공익을 위한 비(非)대출 용도로 사용
중점 추진 분야	• 700개 이상 가구의 경제적 자립노력 지원 및 최빈층 2,400여 가구에 사회안전망 제공 • 가오(Gao) 및 팀북투(Timbuktu) 지역 12개 지자체 사회서비스 개선	• 투아티엔후에성 3개 지역에 4년간(2013-2017년) 기후적응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 • 지역정부 및 시민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10개 주요 중점 분야 및 34개 조치(intervention)를 규정함.	• 수원 지역의 주민들이 기금의 사용 용도를 1) 소득창출 소액금융 사업과 2) 공익을 위한 무상지원 사업 중 결정할 수 있음.

* Revival of the Local Economy and Support ot Communities in Northern Mali
** Climate Adapted Lo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roject(CALDIP)
*** The Village Development Fund
자료: OECD(2017), LuxDev홈페이지(https://luxdev.lu/en/)(접속일: 2018.05.10.) 저자재구성

125) LuxDev. (2016).
126)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newsroom/luxembourg-is-a-generous-aid-donor-and-solid-ally-to-developing-partners.htm) (접속일: 2018.04.23.)

참고문헌

Directorat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ion. 2016. "Luxembourg's development cooperation Annual report 2016."

DIRECTION DE LA COOP RATION AU DÉVELOPPEMENT. 2012a. "General Strategy on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ION DE LA COOP RATION AU DÉVELOPPEMENT. 2012b. "MICROFINANCE ET SECTEURS FINANCIERS INCLUSIFS 2012 STRAT GIES ET ORIENTATIONS."

DIRECTION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2014. "SANTÉ2014 STRATÉGIES ET ORIENTATIONS."

LuxDev. 2016. "LuxDev Report 2016 Local Development Success Stories."

LuxDev. 2017. "Optimus 2016 – Bienvenue – Version Mars 2017."

OECD.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Luxembourg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OECD Publishing.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 (접속일: 2018.04.23.).

LuxDev 홈페이지: https://luxdev.lu/en/ (접속일: 2018.04.23.).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newsroom/luxembourg-is-a-generous-aid-donor-and-solid-ally-to-developing-partners.htm (접속일: 2018.05.10.).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2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룩셈부르크 정부 홈페이지: https://cooperation.gouvernement.lu/en/cooperation-au-developpement.html (접속일: 2018.04.30.).

17. 네덜란드(Nether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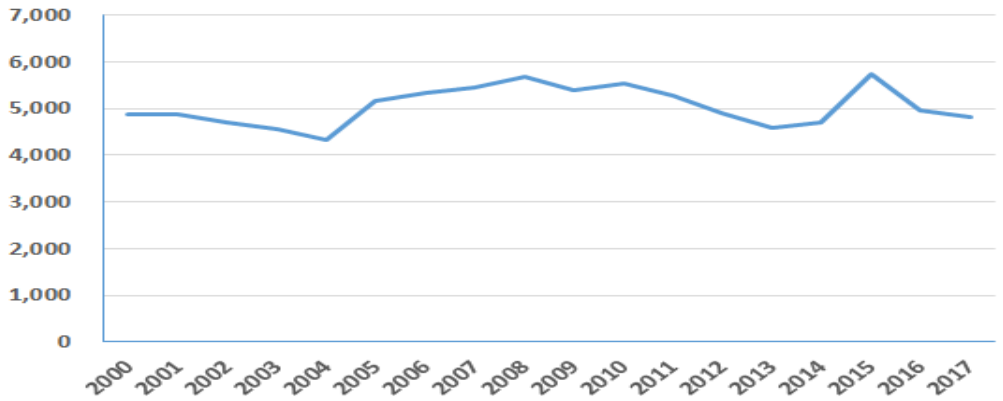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ODA규모와 ODA/GNI 비율 모두 2016년 기준 전체 DAC 회원 국가 중 7위를 기록하며, 최근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점국가 수 감소와 개발정책을 대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현황)**[127] 2000년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원조규모를 유지하는 형태이며 2017년 원조규모 4,822백만달러, ODA/GNI 비율 0.6% 기록

〈그림 89〉 네덜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21.)

○ 2012년 마르크 뤼터 총리(Rutee II 정부)가 ODA 목표치를 낮추려한 행보가 있었지만, 2017년 10월 현 정부(Rutee III 정부)가 발표한 집권정당간합의서(Coalition Agreement)에 따라 ODA 예산이 증가할 예정[128]

⇒ 본 집권정단간합의서는 지난 정부에 의해 삭감된 ODA 예산을 향후 4년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19-2022년 동안 2016년 총 ODA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1100백만달러를 추가로 할당할 것으로 발표

127) Donot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etherlands) (접속일: 2018.04.13.)
128) 네덜란드 정부. (2017) p53.

○ 네덜란드 개발원조는 무역과 개발협력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단독내각각료직(Single Cabinet-level Ministerial Post)의 설립으로 개발협력에 무역과 투자의 목적이 융합되었다는 점이 특징

○ **(핵심문서)** 2013년 발표된 문서 "상승하는 세계: 원조, 무역, 그리고 투자의 새로운 의제(A World to Gain: A New Agenda for Aid, Trade and Investment)"에서 네덜란드 개발협력과 무역의 관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지역별 향후 전략을 발표[129]

⇒ 무역과 투자를 접목시킨 개발협력이라는 동일한 기조 하에 2017년 "집권정당간합의서 2017-2021(Confidence in the Future: 2017-2021 Coalition Agreement)" 에서 수정된 예산 부문 전략을 발표[130]

□ **(예산)**[131] 외교부의 무역·개발협력장관이 과반수의 ODA 예산을 관리하며 외교장관은 이와 독립적으로 ODA 예산을 관리

○ 네덜란드의 ODA 예산은 개발은행과 EU예산 등 다른 부처에도 할당되고 있음.

○ 개발협력단일예산(Honogeneous Budget for Internatioanl Cooperation)은 1997년부터 네덜란드 국가예산에서 예산의 구조로 자리잡혀옴.

⇒ 개발협력단일예산은 부처별 특정 ODA 예산할당을 포함한 각 부처의 외교정책 예산을 포괄.

⇒ 따라서 개발협력단일예산은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외교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무역과 개발협력 예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무역과 개발협력 예산은 주제별 분야에 따라 기획되며 각 주제별 분야 내에서도 양자 프로그램, 보조금 및 다자기구에 대한 기여, 해당 주제와 연관된 기관에 대한 예산선으로 세분화됨.

○ **(원조예산 수립과정)** 2월부터 3월까지 외교부를 포함한 각 부처에서 명년 예산제안서 초안을 작성, 부처별 예산 최대선은 4월/5월에 결정되며, 예산 할당은 5월과 7월 사이에 결정됨.

⇒ 이 과정에서 무역·개발협력장관과 외교장관이 주요 의사결정자이며 국제개발협력장의 주제별 부서가 네덜란드 개발정책의 기획, 조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임.

---

129) 네덜란드 외교부. (2013).
130) 네덜란드 정부. (2017) p54.
131)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etherlands) (접속일: 2018.04.13.)

〈표 60〉 네덜란드 2018 ODA 예산 초안

	미달러, 백만	유로화, 백만
무역과 개발협력	2,604	2,354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	450	407
지속가능한 개발, 식량안보, 수자원	735	664
식량안보:	373	337
보조금	148	134
국제기구 지원	225	204
수자원 관리, 식수 및 위생	220	199
천연자원, 기후변화	142	128
사회적 진보	800	724
성과 생식건강, HIV/AIDS:	460	416
보조금	194	175
국제기구 지원	268	242
여성권한	58	53
기타(시민사회 지원)	282	255
평화와 안보	438	396
인도적 지원(UNOCHA, ICRC지원금 포함)	226	204
법치, 재건, 평화구축	212	192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강화	181	163
다자기구(UN 기구)	145	131
기타	36	32
외교부	618	559
재정부(개발은행에 대한 예산)	339	307
다자 개발 은행	304	275
기타 부처	66	60
기타 ODA 비용	956	864
EU 예산	365	330
국내 난민 수용 비용	591	534
총 ODA*	4,583	4,144

* 총합과 각 세부항목의 합은 차이가 있으나 이 자료는 원 자료의 값을 그대로 반영함.
자료: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etherlands) (접속일: 2018.03.26.)

□ **(의회승인절차)**[132] 내각에서 부처별 차기년도 예산을 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12월경에 의회가 최종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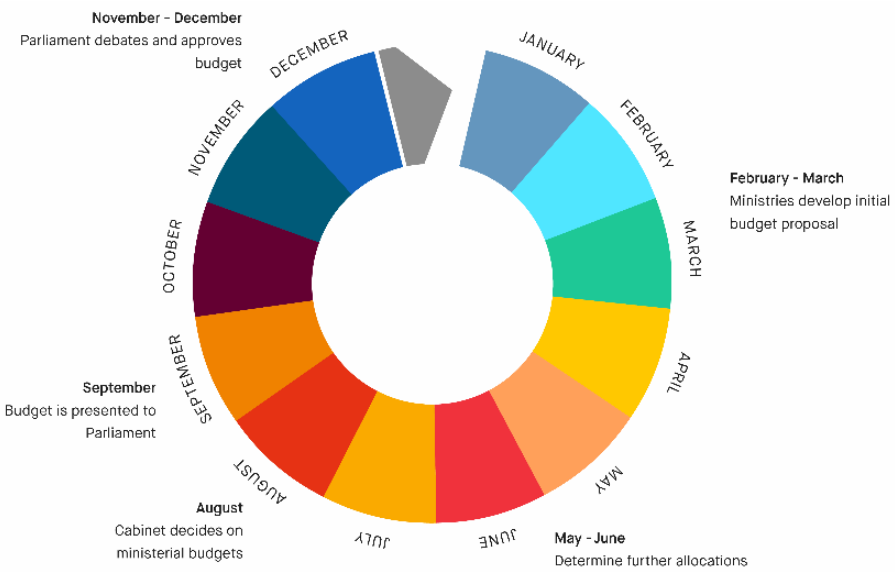
○ 8월경 무역·개발협력장관, 외교장관, 재무장관이 주요 의사결정자가 되어 부처별 예산을 결정

○ 9월경 네덜란드 정부의 예산안을 의회 제출

○ **(의회승인 처리과정)** 1) 정부의 예산안 제출; 2) 11월 말 하원소속의 무역과 개발협력 위원회에 의한 예산 심의 및 수정; 3) 의회 승인 및 정부지출예산안 확정

⇒ 11월–12월에 진행되는 심의는 ODA 예산 초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음.

〈그림 90〉 네덜란드 ODA 예산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netherlands) (접속일: 2018.03.26.)

132)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etherlands) (접속일: 2018.04.13.)

□ **(지역배분)** 아프리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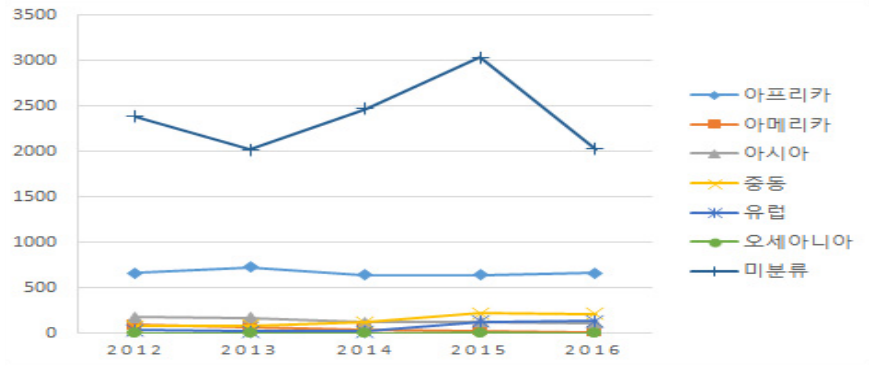
○ 미분류를 제외하고 2016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의 비중이 가장 높은 약 20%(662백만 달러)를 차지하며 두 번째는 중동 지역으로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약 6.6%(210백만달러)를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미분류(11,934, 69.2%), 아프리카(3,327, 19.3%), 중동(711, 4.1%), 아시아(698, 4.0%), 유럽(331, 1.9%), 아메리카(233, 1.4%), 오세아니아(2.9, 0.0%)

○ 전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2012-2016년 평균 96%(3,204백만달러)를 기록

〈그림 91〉 네덜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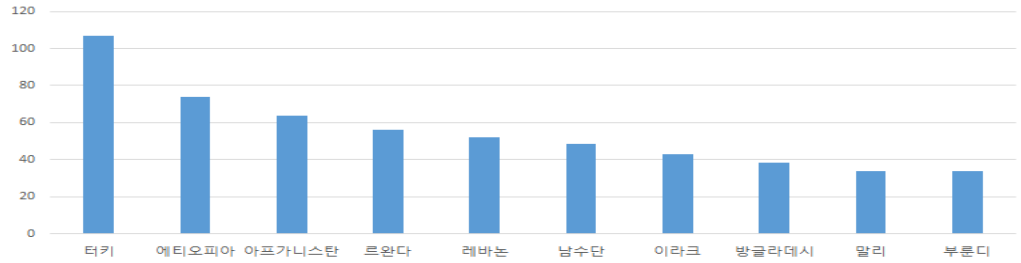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터키에 대한 지원이 106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등이 차지

⇒ 터키에 대한 지원은 터키에 설치된 난민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사회와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짐.

〈그림 92〉 네덜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분야배분)** 상대적으로 공공행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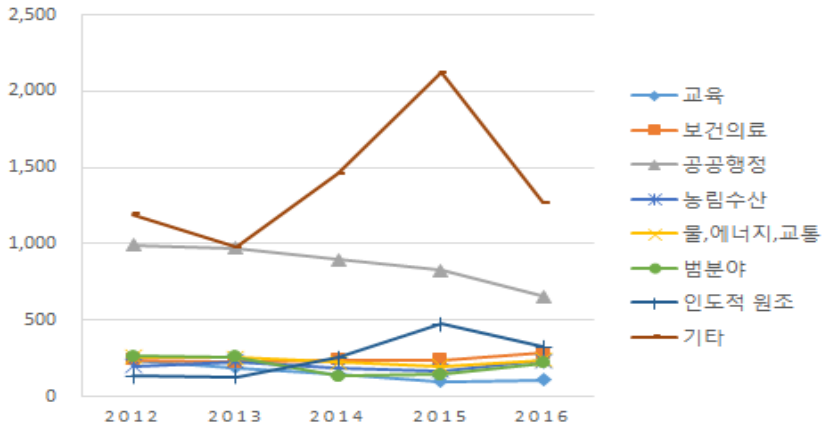
○ 2012-2016년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나타난 기타분야에 대한 급증은 국내 난민지원에 기인함.

⇒ 난민지원의 추세가 기타분야의 추세와 동일하며 기타분야에서 난민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약 62%를 기록함.

〈그림 93〉 네덜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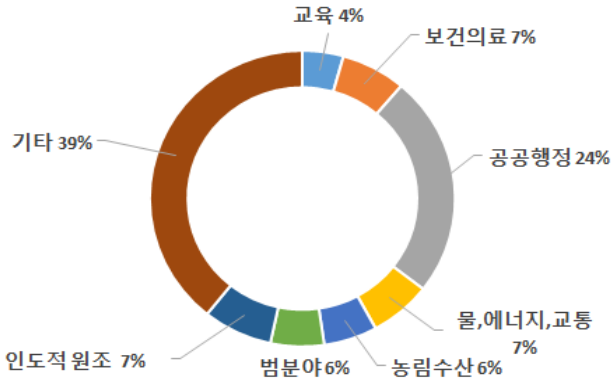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네덜란드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7,885백만달러 이며 그 중 7대 주요 분야에서는 공공행정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7,021, 39.3%), 공공행정(4,339, 24.3%), 인도적 원조(1,316, 7.4%) 보건의료(1,230, 6.9%), 물·에너지·교통(1,174, 6.6%), 농림수산(1,014, 5.7%), 범분야(1,014, 5.7%), 교육(775, 4.3%)

〈그림 94〉 네덜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네덜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전략 및 목표)**[133] 무역과 개발협력의 결합으로 협력국 민간부문 개발을 도모

○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은 외교부 산하의 개발협력 부서가 담당하며 네덜란드 외교 정책 중 개발협력 정책(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을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략 및 목표를 계획함.

○ 네덜란드 개발협력 정책의 핵심은 무역을 결합시킨 개발협력(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으로, 개발협력 정책이 설정한 중점 분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음: 1) 안보와 법치(security and the rule of law); 2) 수자원 운영; 3) 식량안보; 4)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133)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ernment.nl/) (접속일: 2018.04.13.)

⇒ 위의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에 주요한 기제로 국제공공재화(International Public Goods, IPGs)를 설정하여 개발도상국이 각 분야의 국제공공재화를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네덜란드 개발협력과 무역의 결합에 대한 목표, 연결 도구 및 현행 노력 등은 다음과 같음.

〈표 61〉 네덜란드 외교부의 무역과 개발협력

무역과 개발협력 목표	• 단일세대 내에서 극빈 퇴치 • 전 세계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개발 달성 • 네덜란드 기업의 국외 성공 보장
무역과 개발협력의 연결 도구	• 무역과 개발협력의 결합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주재한 네덜란드 기업과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도구를 활용: 1. 민간부문 개발 2.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네덜란드 기업에 대한 무역과 투자
현행 노력	• 전환 기관(Transition Facility):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베트남에 이행 기관을 설립하여 원조에서 무역 관계로의 이행을 조성 •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 증진 센터(Centre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CBI): 저/중소득국에 CBI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 중소기업들이 유럽시장과 남반구의 신흥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 WTO 법률 고문 센터(Advisory Centre on WTO Law): 네덜란드 정부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무역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1999년에 WTO 법률 고문 센터를 설립하여 무역 분쟁 시에 개발도상국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

자료: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ernment.nl/) (접속일: 2018.03.26.)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134] 네덜란드 외교부는 외교장관과 무역·개발협력 장관을 각각 임명하며, 무역·개발협력 장관이 개발협력 전략을 설정하고 대사관이 양자원조를 관리하는 구조임.

○ 총 네 개의 외교부 산하 부서 중 국제개발협력장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DGIS) 직속 부서가 네덜란드 개발협력 정책의 설계 및 조정과 수행을 담당하며, 산하에 총 네 개의 직속부서와 세 개의 관계부서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장 산하 네 개의 직속부서는 다음과 같음: 1) 개발협력실(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3) 지속가능경제개발부(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4) 개발도상국에서의수입증진센터(Centre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CBI)

⇒ 네덜란드 국제개발협력 관계부서는 정무(政務)국장(Director-General for Political Affairs)이 담당하는 두 개의 부서와 유럽협력국장(Director-General for European Cooperation)이 담당하는 단일

134)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ernment.nl/) (접속일: 2018.04.13.)

부서가 있음.

* 정무장 담당의 두 개 관계부서는 다음과 같음: 1) 다자기구및인권부서(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Department); 2) 안정화및인도적지원부서
* 유럽협력장 담당의 한 개 관계부서로는 환경·수자원·기후및에너지부서(Environment, Water, Climate and Energy Department)가 있음.

○ 또한 네덜란드 외교부 내에는 외교부 사무총장 직속으로 총 다섯 개의 지역별 부서가 존재하며, 이 부서들은 외교장관과 무역·개발협력 장관 모두를 보좌하고 통합적으로 업무를 진행

⇒ 다섯 개의 지역별 부서는 다음과 같음: 1) 아시아·오세아니아부; 2) 서반구부(Western Hemisphere Department); 3) 북아프리카·중동부, 4) 사하라이남아프리카부; 5) 유럽부

○ 개발협력 시행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네덜란드의 대사관에서 전략적 계획과 양자 프로그램의 행정을 담당

□ **(인력)** 독립 시행기관을 따로 두지 않아 개발협력관련 인력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전세계적으로 네덜란드 외교부는 150명의 대사 및 총영사,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를 두고 있음.[135]

○ OECD 자료에 따른 2011년과 2016년 네덜란드 외교부 본부의 개발협력관련 정규직과 계약직 인력 추이는 다음과 같음.

⇒ 네덜란드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일자리 삭감으로 인해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

135)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ernment.nl/) (접속일: 2018.04.16.)

〈표 62〉 네덜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2011년·2016년 인력 현황

(2016년 외교부 자료 기준, 단위: 명)

외교부 내 부서 구분	2011년 정규직 인력	2016년 인력		
		정규직	계약직	합계
국제개발협력장 산하 부서	8	6	5	11
개발협력효과성·일관성부서/개발협력실	32	13	2	1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부서	27	40	1	41
지속가능한 경제개발부서	35	29.5	11	40.5
환경·물·기후·에너지부서	47			
포용적 녹색성장부서		50.5	10	60.5
유엔과 국제금융기구부서	43			
인권·성평등·굿 거버넌스·인도적 원조부서	59			
취약국 및 평화구축과	23			
다자기관과 인권부서		58	13	71
안정화 및 인도적 원조부서		41.5	10	51.5
사회개발부서	58	30.5	12.5	43
본부 전체 인력	**329**	**269**	**64.5**	**333.5**

자료: OECD(2017: 58)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주요사업)** 무역을 접목시킨 개발협력이 네덜란드 원조의 특성이자 주된 전략임에 따라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그램이 다대함.

○ 네덜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63〉 네덜란드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개발을 위한 무역*	고등교육 역량개발 이니셔티브**	암스테르담 영양실조 근절 이니셔티브***
배경	• 2014년 네덜란드의 주요 개발정책 문서인 "A World to Gain"에 따라 개발협력에서의 원조와 무역의 새로운 관계에 초점을 맞춤.	• 네덜란드 양자원조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 교육 국제화 기관인 Nuffic이 운영하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파트너 국가의 지속가능한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 Dutch Diamond라 불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을 기반으로 네덜란드 외교부 외 다양한 학계 및 기관****과 함께 전 세계 영양실조 근절을 위해 노력함.
비전	• 무역과 원조의 결합을 통한 가치창출	• 역량강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발전과 빈곤 근절에 기여	• 네덜란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의 영양상태 개선
전략 목표	• 한 세대 내에서의 극빈 근절 • 전 세계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빈곤국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제성장) • 네덜란드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 지속가능성과 학습(learning) • 조직 강화 • 네덜란드 전문성 전파 • 포괄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요소 연결	• 실현가능한 환경 구현 • 지역 재배에서 건강한 삶으로의 도달
중점 추진 분야	• 무역과 개발협력의 연결고리를 위한 기구는 다음과 같음: 1. 민간분야개발 기구 2. 개도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기업을 위한 무역과 투자 기구	• 식량안보 • 수자원 • 안보와 법치 • 여권향상과 성생식 건강	• 대규모 식량 강화 • 여성과 아동을 위한 영양 • 영양을 위한 농업 •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연합

*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Netherlands Initiative for Capacity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NICHE

*** The Amsterdam Initiative against Malnutrition, AIM

**** 암스테르담 영양실조 근절 이니셔티브 협력 기관: SPAR retail, Rabobank Foundation, BoPInc(BoP Innovation Center), GAIN(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Unilever, DSM, AkzoNobel, Wageningen University, ICCO(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Rijk Zwaan, SNY and Hivos

자료: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nl/), NUFFIC 홈페이지 (https://www.nuffic.nl/en/capacity-building/niche), 네덜란드 외교부(2013)을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네덜란드 외교부. 2013. “A World to Gain: A New Agenda for Aid, trade and Investment.”

네덜란드 외교부. 2013. “Zero Hunger, Zero Malnutrition.”

네덜란드 정부. 2017. “Confidence in the Future.”

OECD.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The Netherlands.” Paris: OECD.

네덜란드 교육국제화기구(NUFFIC) 홈페이지: https://www.nuffic.nl/en/capacity-building/niche (접속일: 2018.03.26.).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nl/ (접속일: 2018.04.16.).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netherlands (접속일: 2018.04.13.).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18. 뉴질랜드(New Zea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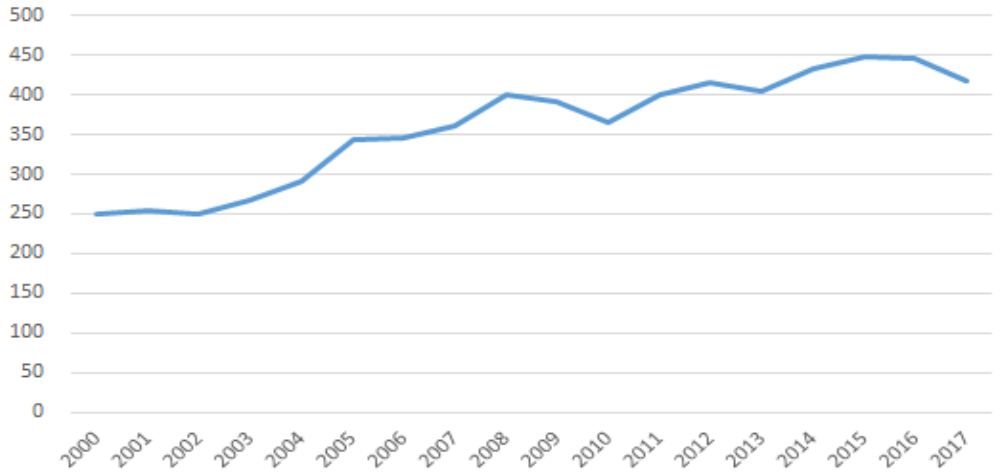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을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원조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

○ **(현황)** 2000년 이후 뉴질랜드의 원조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ODA 총액 417백만달러, ODA/GNI 비율 0.23%를 기록

〈그림 95〉 뉴질랜드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8.05.21.)

○ 2002년 뉴질랜드 원조 전담기구로 뉴질랜드국제개발청(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 출범하였으나, 2009년 외교통상부(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산하 프로그램인 뉴질랜드원조프로그램(New Zealand Aid Programme, 이하 NZAP)으로 통합됨.

○ **(핵심문서)** 뉴질랜드 정부는 2011년 3월 발표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개발정책 성명서(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를 기반으로 원조를 수행함.

○ **(정책일관성)** 외교통상부가 중장기 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비전에 맞춰 구체적인

프로그램 관리 정책이 구축·실행됨에 따라, 뉴질랜드의 대외원조 체계는 전 과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계됨.[136]

⇒ 정책일관성 확보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의 국제 협정에 관한 사안을 외교·국방·무역위원회(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Committee)에서 감독[137]

□ **(예산)** 국가 및 지역별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이 구성되며 대부분의 예산이 태평양 지역 소규모 도서국가에 집중

○ 원조 자금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3년 단위로 전체 예산이 수립되며 세부 항목은 국가 및 지역별 프로그램 단위로 구성됨.

○ 2017-2018년도 태평양 양자 및 지역 원조 예산 대폭 증가로 총 원조 예산액도 전 회계연도 대비 22%의 증가세를 보임.

⇒ 2015-2018년도 예산 세부항목별 금액 및 비중(백만달러, %): 태평양양자(477, 28%), 태평양지역(311, 18%), 다자기관(300, 18%), 장학금(202, 12%), 아시아(176, 10%), 파트너십기금(130, 8%), 인도적 원조(60, 4%),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33, 2%), 비(非)프로그램(22, 1%)

○ 외교통상부에서 선정한 타 정부기관에도 파트너십 기금(Partnership Fund)으로 원조 자금 지원

〈표 64〉 NZAP 예산항목

(단위: 백만달러)

프로그램	2015/16 지출	2016/17 지출	2017/18 예산	2015-18 합계
태평양양자	160.5	134.8	181.8	477.1
태평양지역	94.9	83.4	132.5	310.8
아시아	51.6	58.0	66.2	175.8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11.2	10.7	11.4	33.3
인도적원조	11.9	19.7	28.8	60.4
다자기관	96.9	104.2	98.9	300.0
파트너십기금	39.6	45.4	45.0	130.0
장학금	62.7	68.1	71.4	202.2
비(非)프로그램	4.7	6.2	11.4	22.3
총계	**534.0**	**530.5**	**647.4**	**1,711.9**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fat.govt.nz/en/aid-and-development/our-approach-to-aid/where-our-funding-goes/our-planned-aid-expenditure/) 저자재구성 (접속일: 2018.05.10.)

136) 김세원 외. (2013).
137) OEC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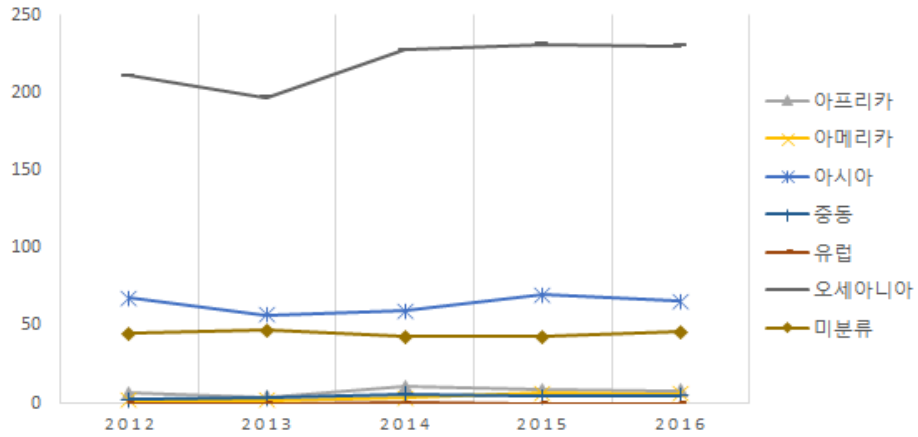
□ **(지역배분)** 인도-태평양 지역 도서 국가에 원조가 집중됨.

○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12-2016년 총 양자원조액의 63.8%를 차지함. 두 번째는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제외) 지역으로 18.6%를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오세아니아(1,097, 63.8%), 아시아(319, 18.6%), 미분류(224, 13.0%), 아프리카(38, 2.2%), 중동(21, 1.2%), 아메리카(20, 1.2%), 유럽(0.22, 0.0%)

〈그림 96〉 뉴질랜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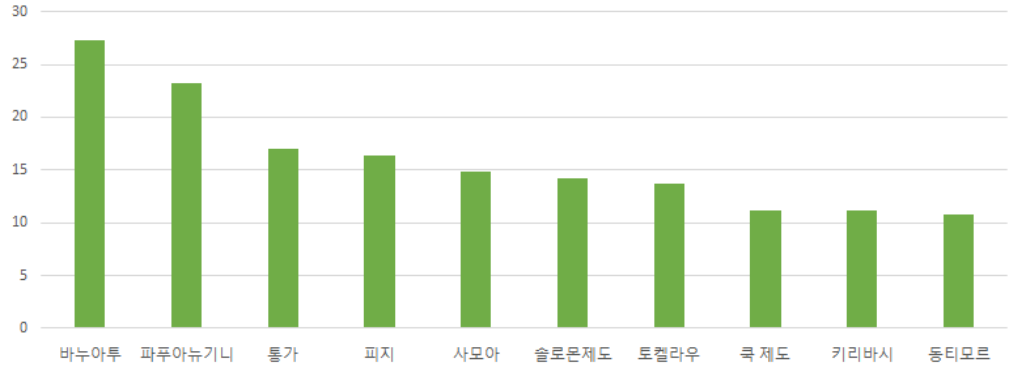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통가, 피지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도서 국가에 원조 집중

〈그림 97〉 뉴질랜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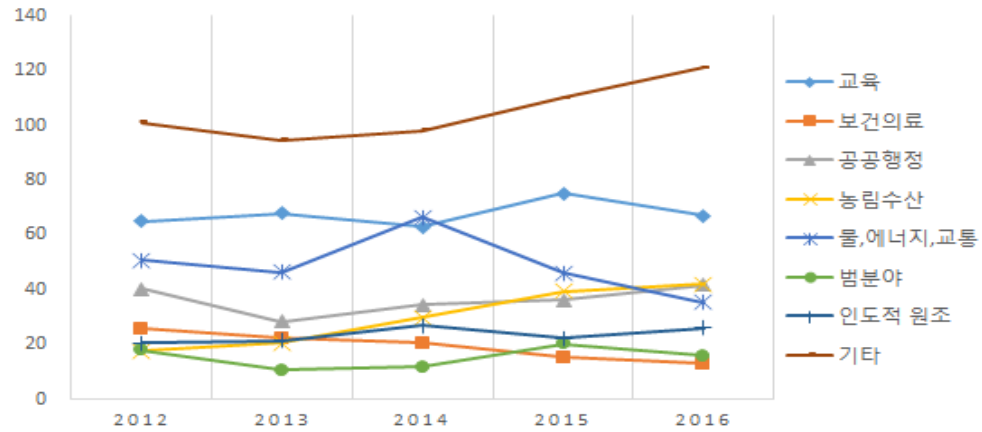
□ **(분야배분)** 기타 분야를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분산 지원

○ 분야별 양자원조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합계 기준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525백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옴. 두 번째는 교육 분야로 338백만달러 지원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525, 30.4%), 교육(338, 19.6%), 물·에너지·교통(245, 14.2%), 공공행정(181, 10.5%), 농림수산(150, 8.6%), 인도적 원조(117, 6.8%), 보건의료(97, 5.6%), 범분야(76, 4.4%)

〈그림 98〉 뉴질랜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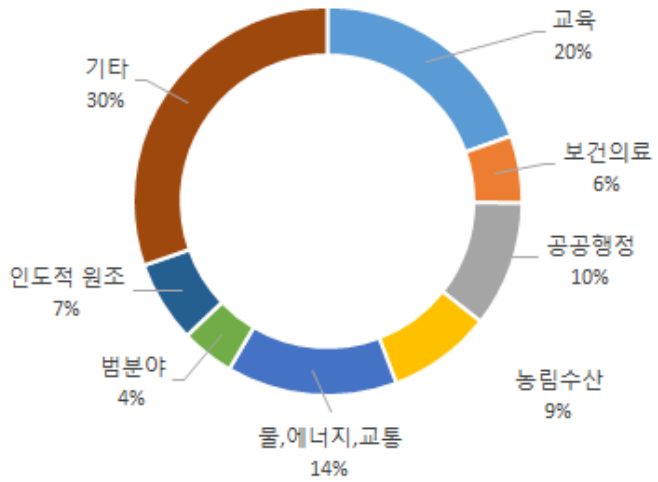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 2012-2016년간 뉴질랜드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729백만달러로 그 중 기타 분야 비중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기타 분야 주요 세부항목: 공여국 행정비용 38%(199백만달러), 상품원조 16%(86백만달러), 공여국 내 난민지원 16%(86백만달러) 등

〈그림 99〉 뉴질랜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5.12.)

나.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전략 및 목표)** 뉴질랜드 지식 및 기술의 효과적 이용을 통한 인접 지역의 번영 및 안정 제고[138]

○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개발국(International Development Group)에서 외교통상부의 외교전략 기조에 근거하여 NZAP의 세부 계획 수립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2015-19년도 원조사업 전략계획(New Zealand Aid Programme Strategic Plan 2015-19)"문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퇴치를 통해

138) MFAT. (2015a).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영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 미션으로 설정하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전략 핵심지역으로 지정

⇒ 상기 문서에 제시된 4대 주제별(theme) 전략은 1) 경제개발 투자; 2) 인간개발 증진; 3) 재난대응 및 회복능력 제고; 4) 안정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으로 구성

〈표 65〉 NZAP 2015-19 전략 계획

4대 주제	자금조달 우선순위
1. 경제개발 투자	• 태평양지역 경제협력협정* 이행 및 무역 촉진, 시장 접근성 제고, 생물보안(biosecurity) 및 관세 체계 개선 • 중소기업 무역·재정 역량 강화 • 노동 이동의 개발 편익 증가(Increase the development benefits of labour mobility) • 항공 및 해상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운송 체계 강화
2. 인간개발 증진	• 위험요소 완화 및 약품·기술·전문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비전염성질병 피해 감소 • 피임 및 생식보건서비스 접근성 제고, 임산부 영양 개선을 통한 모성 보건 강화 • 깨끗한 수자원 및 위생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 서비스 지원 강화 • 경제적 기회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장학금 제공
3. 재난 대응 및 회복력 제고	• 태평양 및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 관리 및 회복 역량 제고 • 기후 변화 대응 계획 및 재난 위험 감소 분야에 집중 투자 • 호주 및 인접지역 긴급 상황 발생 시 경기 회복 지원
4. 안정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인센티브 연계형 재정 지원 및 기술 원조를 통한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의 정책개혁 우선과제 설정 및 이행 지원 •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역량 강화 • 치안 유지 및 교정(矯正), 국경관리 강화와 여성 대상 폭력예방을 통한 지역안전 개선 • 민주주의 및 국가통합체계 강화 • 법정대리 및 사법 체계 강화를 통한 정의 구현

*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PACER Plus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자료: MFAT(2011), MFAT(2015b)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NZAP는 뉴질랜드 외교정책의 기조, 비교우위, 수원국의 개발요구사항이 동시에 충족되는 분야에 초점을 둠.

⇒ 뉴질랜드의 비교우위와 수원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조사업 설계. 주로 어업·농업·관광·신재생 에너지·교육·법 분야에서 뉴질랜드가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요구에 맞게 원조사업 적용[139]

□ **(조직체계)** 외교통상부 국제개발국 총괄 하에 NZAP 전담부서에서 실무 집행

○ 대외원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은 외교통상부 국제개발국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실무적인 운영은 NZAP 전담부서에서 관할

⇒ 2002년 출범한 뉴질랜드국제개발청은 2009년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관할 프로그램인 NZAP으로 통합됨.[140]

○ 2015년 기준 국제개발국은 6부 체제로 1) 태평양개발부; 2) 국제개발부; 3) 인도주의 및 다자지원부; 4) 지속가능 경제개발부; 5) 원조효과성 및 개발전략부; 6)프로젝트 관리부로 구성

□ **(인력)** 2010년 이후 국제개발국 본부 인력이 급감하였으나, 여전히 본부 인력이 해외 사무소 인력을 두 배 가량 상회

○ 2017년 기준 외교통상부 전체 인력은 1,382명으로 뉴질랜드 인력 625명과 해외 인력 757명(파견직 232명 및 현지채용 인력 525명)으로 구성됨.

○ 국제개발국은 2014/15년 상근 인력 기준 총 206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웰링턴 본부에 140명, 해외사무소에 66명 근무. 해외사무소 직원 비율은 2001/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국제개발국 핵심 간부단 및 인력은 대부분 개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교통상부 산하 타 부서로의 이직률이 적음.

⇒ 국제개발청에서 외교통상부 산하 원조프로그램 체제인 NZAP으로 전환하며 일부 업무가 외교통상부 타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2009/10년 대비 2014/15년에 18%의 인원 감축이 있었으며 주로 본부 인력에서 감원

⇒ 2010년 이후 직원 교체율이 약 50%로, 2013년 새로운 정책 우선과제에 맞춘 전문가 인력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인력 충원이 있었음.

---

139) 김세원 외. (2013).
140) 상동

〈표 66〉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국제개발국 인력 현황

국제개발국 인력(명)				
	2001/02	2005/06	2009/10	2014/15
웰링턴 본부 전체 직원	79.00	105.50	186.00	140.00
해외 사무소 전체 직원	23.42	35.86	66.55	66.00
해외 사무소 직원	5.94	8.28	20.53	19.00
해외 사무소 현지 채용 직원	17.48	27.58	45.97	47.00
해외 사무소 직원 비율 (%)	22.87%	25.37%	26.36%	32.04%
합계	102.42	141.36	252.50	206.00

자료: MFAT(2014)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주요사업)**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및 전문성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주요 사업 실시

○ 소규모 공여국으로서 개발 효율성에 중심을 둔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구축과 외교 및 무역 정책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지원에 초점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67〉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개관

	파푸아뉴기니 10년 합동전략*	15-19 주력사업: 신재생 에너지**	15-19 주력사업: 농업***
배경	• 장기적인 개발 성과 달성을 위한 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 정부 간 공동 비전 설정	• 대부분의 태평양 국가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생 잠력이 10%를 하회하며 GDP의 10%를 화석연료 수입에 사용	• 식품안정성 및 생물보안 시스템, 기술, 연구, 개발 시설 등에서 뉴질랜드가 농업분야 비교우위를 가짐
비전	• 파푸아뉴기니 국민들을 위한 장기 발전 성취	• 적정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접근성 제고	• 농업 이익을 통한 경제 및 식량 안보 증진
전략 목표	• 중점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제공 • 실용적 형태의 원조 • 파푸아뉴기니의 금융 및 조달 시스템을 통한 운용	• 태평양 국가 중심 및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 내 지정국을 대상으로 뉴질랜드가 비교우위를 가진 지열에너지 개발 전문성 공유	•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시장중심 농업 체계 증진 • 생물보안(biosecurity) 및 식품안전성 체계(food safety systems) 개선을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 회복력 구축 및 식량 안보 강화
중점 추진 분야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2개 분야 (농업, 에너지)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2개 분야(보건, 교육) • 지역안전(Bougainville 지역)	• 기술 및 인프라 지원 • 에너지 분야의 민간 부문 참여 지원 • 서비스 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산관리 강화	• 시장 파악 • 직업훈련 및 서비스 확대 • 농업장비·기술·인프라 지원 • 응용연구 및 개발, 산업개발 등

* New Zealand-Papua New Guinea: Joint Commitment for Development

** 15-19 Flagship: Renewable Energy

*** 15-19 Flagship: Agriculture

자료: 김세원 외(2013), MFAT(2015a)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참고문헌

김세원 · 김종섭 · 이영섭. 2013.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FAT. 2011.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Wellington: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FAT. 2014.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Memorandum of New Zealand.” Wellingt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FAT. 2015a. “New Zealand Aid Programme Investment Priorities 2015-19.”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MFAT. 2015b. “New Zealand Aid Programme Strategic Plan 2015-19.”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OECD. 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New Zealand 2015.” Paris : OECD

MFAT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fat.govt.nz/en/aid-and-development/ (접속일: 2018.03.26.)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12.)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2.).

19. 노르웨이(Norway)

가. 원조개요

□ **(총괄)**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제별 분야에 대해 다자원조를 통한 지원을 중점으로 함.

○ **(현황)** 2000년 이후 노르웨이의 원조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이며 2017년 원조규모 3,943백만달러, ODA/GNI 비율은 0.99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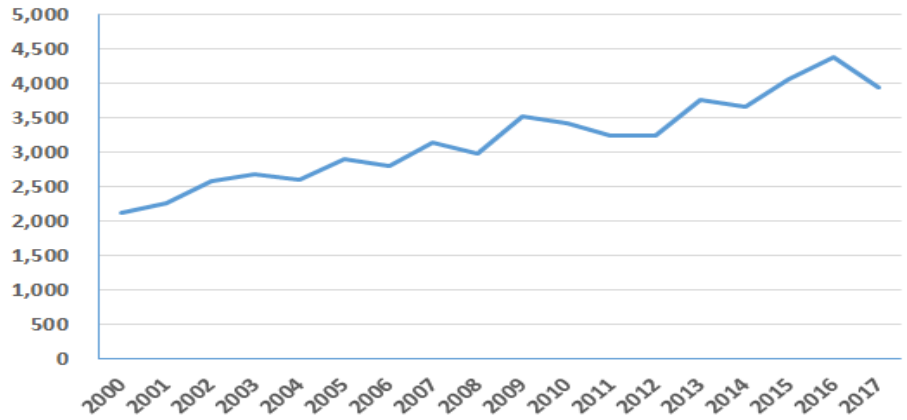
○ 2013년부터 ODA/GNI 비율을 1%로 설정한 목표대로 2016년 기준 동 비율 1.12%를 달성하며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높은 ODA/GNI 비율은 노르웨이 내에서 초당적 합의하에 설정된 목표임.

⇒ 최신 동향으로, 2015년부터 ODA 예산에서 국내 난민 수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141]

〈그림 100〉 노르웨이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21.)

○ **(핵심문서)** 2017년 외교부 백서인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 - SDGs와 노르웨이 개발정책(Common Responsibility for Common Future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Norway's Development Policy)"에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8년 개발원조 예산에서 주요 우선순위로 설정[142]

141)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 (접속일: 2018.03.12.)

□ **(예산)** 외교부가 총 ODA예산에서 91%를 제공하며 Norad(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Norad**)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143]

○ 노르웨이 외교부의 개발협력 예산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주요 범주로 나뉨: 1) 행정비용; 2) 양자원조; 3) 글로벌 계획(Global Scheme)비용; 4) 다자원조

○ 2011년부터 노르웨이의 주제별 이니셔티브에 발맞추어 많은 비중의 ODA 예산이 다자기구에 제공하는 지정예산(earmarked funding)[144]으로 추가됨.

⇒ 지정예산은 양자원조로 책정이 되지만 이에 큰 비중을 두며 다자기구 지원 기조를 유지

⇒ 2016년 기준 노르웨이의 다자기구 지정예산 비중은 22%이며 동일 항목에 대해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11%임.

○ 양자원조에 있어서는 노르웨이의 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이하 CSOs)가 큰 비중을 차지

⇒ 2016년 기준 노르웨이 양자원조 총예산의 22%가 CSOs를 통해 지출되었고, DAC 회원국 평균은 16%로 나타남.

○ 나머지 ODA 예산은 노르웨이 대사관과 **Norad**가 수행하는 현지 프로그램 비용으로 책정

○ 2018년 현재 노르웨이는 10개의 글로벌 계획에 대해 ODA 예산을 책정함(하단의 표 <노르웨이 2018년 ODA 예산항목> 참고).

142)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

143)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 (접속일: 2018.03.12.)

144) 지정예산은 다자기구에 편입되는 예산이나, 공여국이 "자금의 목적, 조건, 기간, 지원국" 등을 지정하여 DAC 통계상 양자 간 ODA로 분류되며 멀티바이 원조(multi-bilateral ODA, multi-bi) 혹은 다자성 양자 원조라고 지칭되기도 함(박명지, 2010).

〈표 68〉 노르웨이 2018년 ODA 예산항목

구분	백만달러	백만 노르웨이크로네
외교부 예산	3,815	32,043
행정비용	230	1,933
양자원조	483	4,061
아프리카	277	2,329
아시아	97	817
중동 및 북아프리카	86	726
라틴아메리카	23	190
글로벌 계획	2,396	20,126
세계보건과 교육	620	5,211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인권	585	4,912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261	2,192
기업 개발	239	2,007
기후, 환경, 재생가능한 에너지	179	1,506
평화, 조화, 민주주의	178	1,493
국내유입 난민 비용	164	1,180
연구, 역량개발, 평가	71	594
체제전환 원조	58	485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41	347
다자원조	686	5,761
유엔기관	423	3,551
다자개발재원기구	225	1,892
부채탕감과 역량강화	38	319
AIIB* 지원 예산	19	162
기후환경부 예산	357	3,000
재정부 예산	5	42
감사원 예산	4	36
교육연구부 예산	2	16
총 ODA 예산	4,183	35,138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 (접속일: 2018. 03. 12.)

□ **(의회승인절차)**[145] 노르웨이 대사관과 Norad가 기초 예산안을 준비, 이를 외교부가 정부 예산선에 맞게 검토

○ 노르웨이의 예산 절차는 2년을 주기로 하며, 예산 준비 업무는 실제 회계연도 1년 전부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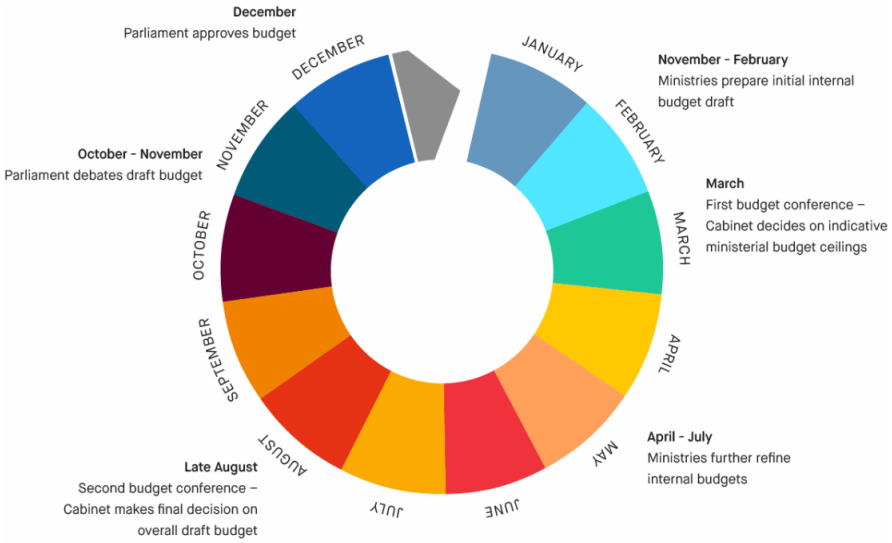
○ **(의회승인 처리과정)** 1) 정부의 예산안 제출; 2) 두 달간(10월-11월) 의회의 예산심의·수정; 3) 의회 승인 및 정부지출예산안 확정

○ 노르웨이 국회 내의 외교방위위원회(Committee of Foreign Affairs and Defense)가 개발정책을 담당

⇒ 외교방위위원회는 정부의 업무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률 입안에 권고사항을 준비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

⇒ 예산 측면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외교부의 예산과 개발에 관련한 전략을 담은 정부의 백서에 대해 논평 및 투표를 실시함.

〈그림 101〉 노르웨이 원조예산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접속일: 2018. 03. 12.)

145)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접속일: 2018.03.12.)

□ **(지역배분)** 아프리카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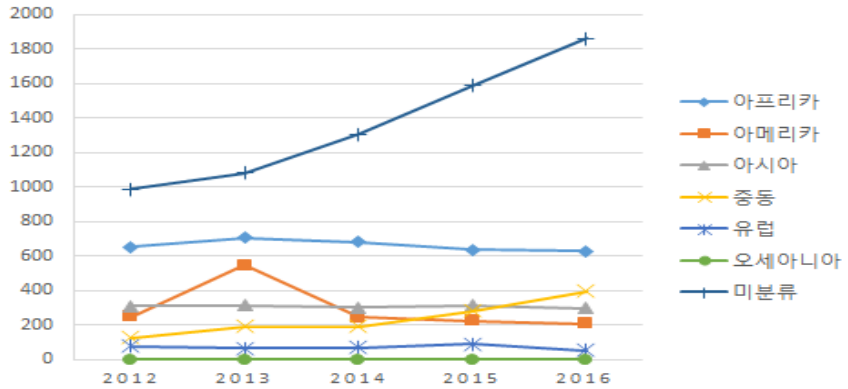
○ 2016년 기준으로 미분류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18.2%(629.4백만달러)를 차지하며 두 번째는 중동 지역으로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약 11.5%(396백만달러)를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6,828, 46.4%), 아프리카(3,309, 22.5%), 아시아(1,542, 10.5%), 아메리카(1,478, 10.0%), 중동(1,189, 8.1%), 유럽(360, 2.5%) 등

○ 중동지역에 대하여 2012년 기준 127.8백만달러에서 큰 폭의 하락세 없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396.3백만달러를 지원

〈그림 102〉 노르웨이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8.)

○ 개별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시리아에 대한 지원이 121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브라질(111백만달러), 아프가니스탄(82백만달러) 등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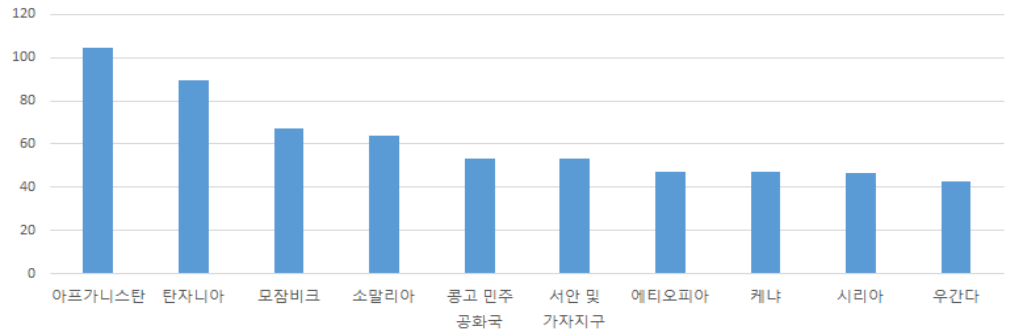
⇒ 브라질에 대한 원조의 경우 노르웨이가 큰 열대우림을 가진 중간소득국가에 대한 원조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을 반영함.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국제 기후 산림 이니셔티브(Norwegian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이하 NICFI)를 통한 ODA 수혜국 중 브라질이 최대수혜국 중 하나로 부상함.[146]

146)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 (접속일: 2018.03.12.)

〈그림 103〉 노르웨이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8.)

□ **(분야배분)** 환경 분야에 집중 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범분야에 대한 원조가 기타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2012-2016년 범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환경보호에 집중하는 국가 전략에 기인함.

⇒ 범분야에 속하는 환경보호 분야는 2012-2016년 전체 범분야 지원 규모 2,634백만달러에서 약 81%인 2,131백만달러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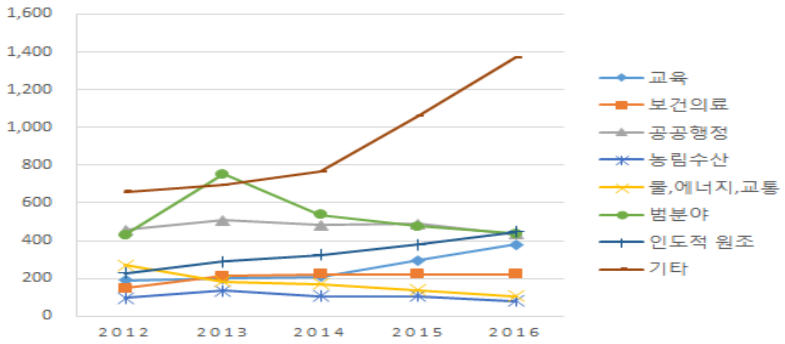
○ 환경보전 관련 프로그램은 지정된 협력국의 삼림벌채에 의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노르웨이는 국제 기후 산림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0년까지 매년 최대 350백만달러 만큼 공여금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공약한 바 있음.[147]

147)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 (접속일: 2018.03.12.)

〈그림 104〉 노르웨이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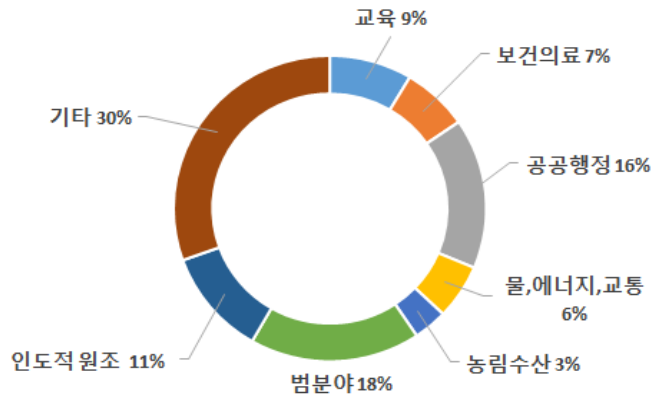
○ 2012-2016년 노르웨이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4,910백만달러이며 그 중 개별 분야로써 가장 높은 비중은 범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4,545, 30.5%), 범분야(2,634, 17.7%), 공공행정(2,371, 15.9%), 인도적 원조(1,673, 11.2%) 등

○ 2016년 기준 양자원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기타 분야는 급증한 난민원조에 기인함.

⇒ 2016년 기준 주요 7대 분야를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난민 지원이 차지한 비중은 약 58%로 1,778백만달러를 지원함.

〈그림 105〉 노르웨이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8.)

나.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전략 및 목표)** 노르웨이 외교부 산하의 Norad는 노르웨이 개발협력의 품질보증을 담당

○ Norad의 근본 미션이자 원칙은 다음의 다섯 가지 업무로 대표됨: 1) 원조 자문 서비스; 2) 품질보증과 모니터링; 3) 보조금 프로그램; 4) 홍보 및 정보제공; 5) 평가

⇒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품질보증과 모니터링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선정하고, 외교부와 대사관에 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품질보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

○ Norad가 제공하는 원조자문 서비스는 다음의 주제별 분야에 중점 되어 있음: 1) 기후변화와 환경; 2)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 3) 교육; 4) 에너지; 5) 보건; 6) 고등교육과 연구; 7) 거시경제와 행정; 8) 개발을 위한 석유자원(Oil for Development)[148]

○ Norad는 5개년 전략문서를 수립하여 전략 목표 및 행동강령을 제시하며, 최신 전략문서인 "개발을 위한 지식: 2020년을 향한 Norad의 전략(Knowledge for Development: Norad's Strategy towards 2020)"에서 설정한 최신의 전략 목표 및 세부 행동강령은 다음의 표와 같음.[149]

〈표 69〉 Norad 2016년 전략

"개발을 위한 지식: 2020년을 향한 Norad의 전략" 6가지 전략 목표
1. Norad의 전문성과 자문서비스를 통한 노르웨이 개발 정책에 지식 기반 제공
2. 최대의 변화와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곳에 노르웨이 원조의 사용
3. 노르웨이 개발협력이 높은 품질기준을 맞추는 것에 기여
4. 책무성과 학습을 위한 독립적 평가의 적극적 활용
5. 노르웨이 일반 대중이 노르웨이의 개발 원조와 달성 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기여
6. 명확하며 관련성이 높은 전문 조직으로서의 Norad

자료: Norad(2016a)

□ **(조직체계)**[150] Norad는 노르웨이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산하 기관으로 8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

○ 노르웨이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Norad)과 개발재원기관(Norfund)이 개발협력 정책 개발, 우선순위 설정, 개발사업 수행의 업무를 담당

148) Norad 홈페이지(https://www.norad.no/en/front/about-norad) (접속일: 2018.06.26.)
149) Norad. (2016a).
150) Norad 홈페이지(https://www.norad.no/en/about-norad/employees/) (접속일: 2018.06.26.)

○ Norad 본부는 8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 1) 평가부서; 2) 홍보(communication)부서; 3) 인사 및 행정부서; 4) 기후·에너지·환경·연구부서; 5) 교육과 세계보건부서; 6) 경제개발·젠더·거버넌스부서; 7) 시민사회부서; 8) 품질보증부서로 구분되며 각 부서는 하위 섹션(section)으로 세부 구분됨.

○ 평가업무는 Norad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써 노르웨이 외교부와 기후환경부(Ministry of Climate and Development)의 예산으로 사용된 ODA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함.

⇒ 따라서 Norad의 평가부서는 발간하는 평가 보고서를 외교부와 기후환경부의 사무차관(Secretary General)에 직접 보고하는 권한을 가짐.[151]

□ **(인력)** 현지 프로그램의 경우 현지 인력 채용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며, 외교부의 개발협력 담당 인력과 Norad의 인력이 독립적으로 존재.[152]

○ 현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지직원과 노르웨이 직원의 비율은 보통 6:4이며,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7:3의 비율로 현지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2013년 기준 Norad의 직원은 총 228명,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 담당 인력은 정규직 544명, 계약직 11명이며 정규직 544명 중 253명이 현지에서 근무하는 파견 직원임.

⇒ 2013년 기준 노르웨이 외교부 재외공관 88개 중 30개 공관에서 양자협력프로그램을 진행

□ **(주요사업)** 자문제공, 보조금지원, 품질보증 및 평가가 본 업무인 Norad의 특성에 따라 국내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에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주요 사업으로 나타남.

○ Norad가 시행 및 관리하는 시민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로 노르웨이 정부가 출범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통합 구성요소 포함됨.

○ 시민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이 사업의 성격을 띄는 유일한 업무임에 따라 Norad가 독립 및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민사회 보조금프로그램의 기본원칙이 존재

⇒ 2018년 6월에 발간된 Norad 문서인 "Norad의 시민사회 지원: 기본원칙(Norad's Support to Civil Society: Guiding Principles)"에 따라 다음의 일곱 가지 원칙을 수립: 1) 지속가능성; 2) 포용성; 3) 파트너십; 4) 정당성; 5) 책무성; 6) 비용 효율성; 7) 지역 감수성(Context Sensitivity)[153]

151) Norad. (2015).
152) OECD. (2013) p63.

○ Norad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70〉 노르웨이 Norad 주요사업 개관

	시민사회에 대한 노르웨이 기후 산림 보조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과 연구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석유자원(OfD)***** 프로그램을 위한 시민사회 보조금프로그램 2016-2018년
배경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활동(REDD+**)에 발맞추어 2008년 4월에 노르웨이 범정부 이니셔티브로 노르웨이 국제기후산림이니셔티브(NICFI)*** 출범	• 노르웨이 개발정책의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인 고등교육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Norad가 2012년 실시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한 노르웨이의 석유자원관리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배경으로 2005년 노르웨이 정부가 범정부적 프로그램으로 실시
비전	• NICFI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여 책무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열대 우림지역의 삼림벌채 감소에 기여	• 저·중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제도 및 기관의 역량 강화	•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역량개발로 OfD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
전략 목표	• 삼림 벌채 및 산림 파괴에 대한 새로운 국제 기후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옹호, 체계적인 홍보 및 토론에 기여 • 개발도상국의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지식의 향상과 새로운 혁신적인 솔루션에 기여 • 원주민과 산림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숲과 관련된 자원 관리에 참여 영향력 증대에 공헌	• 숙련된 노동자의 양성 • 지식 증대 • 근거에 기반 한 정책과 의사결정 • 장기적 관점에서의 양성평등	• 책무성 있는 석유 자원 관리에서의 핵심이 관계 당국의 책무성 이행 여부라 상정하여 협력국 정부의 책무성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 조직에 보조금 지원
중점 추진 분야	• 지속가능한 기반환경(Sustainable landscape) • 지속가능한 상품 공급사슬(Sustainable commodity supply chains) • 분석과 지식생산(Analysis and knowledge production)	• 교육과 훈련 • 보건 • 자연재원관리 • 기후변화와 환경 • 민주적·경제 거버넌스 • 인문학·문화학, 미디어와 홍보 • 남수단 역량개발	• 환경 보전 • 수입 창출과 분배의 투명성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도모 • 노동권 보장

* The Norwegian Climate and Forest Support Scheme to Civil Society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r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REDD+

*** Norway's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NICFI

**** The Norwegian Programme for Capacity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NORHED)

***** Oil for Development

자료: Norad(2016b) 및 Norad 홈페이지(https://www.norad.no/en/front/)/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접속일: 2018.06.26.)

153) Norad. (2018).

참고문헌

박명지. 2010. 대외무상원조의 다자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Norad. 2015. “Instructions for evaluation activities in Norway’s aid administration.”

Norad. 2016a. “Knowledge for Development – Norad’s strategy towards 2020.”

Norad. 2016b. “The Norwegian Climate and Forest funding to civil society – Key results 2013-2015.”

Norad. 2018. “Norad’s Support to Civil Society: Guiding Principles.”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 “Common Responsibility for Common Future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Norway’s Development Policy.”

OECD. 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Norway.” Paris: OECD.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norway (접속일: 2018. 03. 12.).

Norad 홈페이지: https://www.norad.no/en/front/ (접속일: 2018. 06. 26.).

OECD Data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19.).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9.).

20. 폴란드(Poland)

가. 원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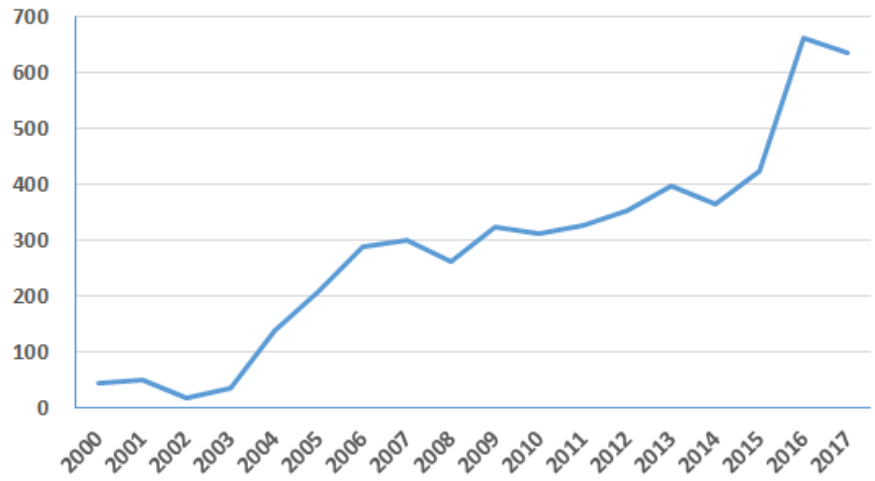
□ **(총괄)** 2013년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폴란드는 ODA 예산의 대부분을 다자원조에 집중하며 그 중 EU에 대한 지원이 주축을 이룸.

○ **(현황)** 2000년 기준 45백만달러에서 시작하여 2016년 662.9백만달러로 원조 규모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2017년 기준 ODA/GNI 비율 0.13% 기록

⇒ 2008년과 2015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지난 16년간 두드러진 하락세 없이 꾸준히 원조의 규모가 증가함.

〈그림 106〉 폴란드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21.)

○ 지난 16년간의 원조 추세를 보았을 때, 2004년부터 다자원조에 집중하는 원조 형태를 보임.

⇒ 양자원조의 경우 2000년 기준 20.55백만달러에서 2016년 기준 약 149백만달러로 7배가 조금 넘는 증가를 보였으나, 다자원조의 경우 2000년 24.86백만달러에서 2016년 약 514백만달러로 20배가 넘는 원조의 증가를 보임.

⇒ 전체 원조규모 대비 2016년 기준 양자원조가 약 22%, 다자원조가 약 78%를 차지

○ **(핵심문서)**[154] 2003년 10월 폴란드 내각에서 “폴란드 개발협력 전략(Strategy for Poland’s Development Cooperation)”을 승인

⇒ 본 전략문서는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라 폴란드 개발협력 시스템의 체계와 기본적인 골자, 목표, 규칙과 원조 메커니즘에 대해 규정

○ 2012년 1월에 “폴란드의 개발협력법(Polish Development Cooperation Act)”이 발효되었으며, 현재는 2013년 11월 개정안을 따르고 있음.

○ 개발협력법에 따라 폴란드는 2012년 3월부터 4년 주기로 전략문서인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Multiannu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을 발간하고 있음.

⇒ 본 문서에는 폴란드 개발협력의 지역별, 주제별 우선순위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본 문서를 바탕으로 폴란드 외교부장관은 연간 개발협력 계획(Annual Development Cooperation Plan)을 작성

* 연간 개발협력 계획은 해당 년도에 시행될 활동들과 조달 가능한 재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예산)**[155] 개정된 개발협력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개발협력조정관을 통해 개발협력 업무 전반을 관리 담당

○ 외교부 외에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이며 모든 차입계약(credit agreements)과 EU 및 기타 다자기금에 할당되는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짐.

○ 과학고등교육부(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가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내무행정부(Ministry of Interior and Administration)가 조지아와 코소보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적 위기 구조작업을 운영함.

○ 2016-2020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간 개발협력 계획에서 명시한 외교부의 업무는 특수목적예산으로 분류되어 “폴란드 개발협력프로그램 시행 및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위한 국제협력(Implementation of the Polish Development Programme and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mocracy and Civil Society)”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배정

⇒ 2016년 이 예산으로 113.3백만 폴란드 즈워티가 할당되었으며, 이는 이전년도 비해 10%가 증가한 금액임.

---

154) Polish aid 홈페이지(https://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04.24.).
155) 폴란드 외교부. (2016a).

〈표 71〉 폴란드 2016 개발협력 예산 현황

(단위: 폴란드 즈워티*)

원조 구분	금액
양자원조	**589,843,390**
동방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188,507,624
아르메니아	661,310
아제르바이잔	199,417
벨라루스	75,646,254
조지아	7,254,774
몰도바	8,451,931
우크라이나	95,034,189
동방 파트너십/국가미분류	1,259,749
북아프리카	752,09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15,851,896
아프리카/국가미분류	4,907,645
라틴아메리카	1,230,462
중앙/남아시아	4,516,428
중동	122,559,777
극동지역(Far East)	-62,290,048
오세아니아	95,971
발칸지역	-17,700,513
지역미분류(폴란드 내에서의 활동 포함)	36,319,699
다자원조	**2,027,112,670**
유엔 시스템	80,147,552
EU	1,583,108,322
세계은행	116,158,957
지역별은행	223,166,962
기타	24,530,878
총 ODA 예산	**2,616,956,060**

* OECD FX rates을 따라 1달러=3.9441폴란드 즈워티

자료: 폴란드 외교부(2016a: 63)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 **(지역배분)** 아프리카와 유럽에 집중한 원조

○ 2016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53.9%(80백만 달러)를 차지하며 두 번째는 유럽 지역으로 약 전체 양자원조 규모 대비 40%(59백만 달러)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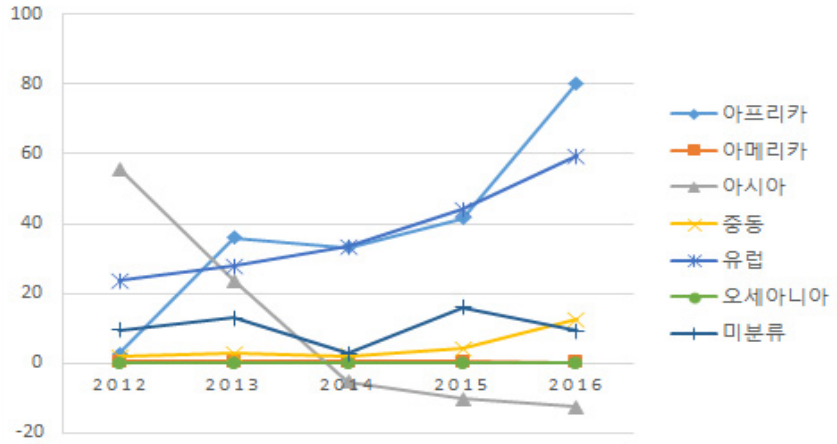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193, 38.1%), 유럽(188, 36.9%), 아시아(51.3, 10.1%), 미분류(50.7, 10.0%), 중동(23.2, 4.6%) 등

○ 아시아에 대한 순지출액은 2014년부터 상환액이 지출액을 상회하여 음의 값을 나타냄.

⇒ 2016년 기준 아시아에 대한 순지출액은 -12.5백만달러를 기록

〈그림 107〉 폴란드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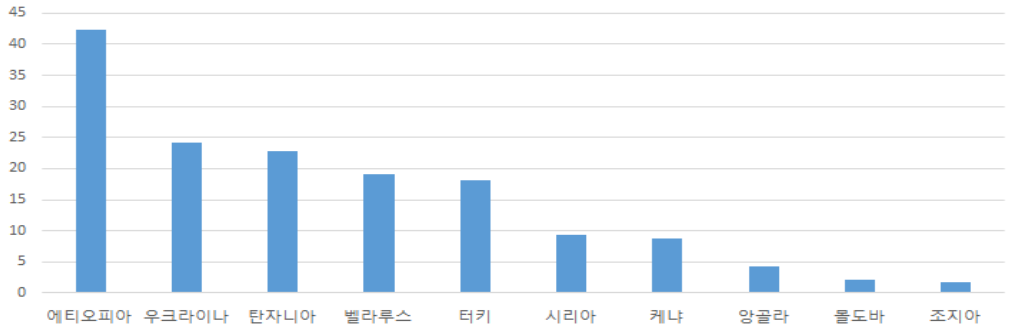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이 약 42.3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벨라루스 등이 차지

⇒ 해당 국가별 원조 지원 규모는 "2016-2020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 문서에서 지정한 우선순위 국가들로 주요 구성

〈그림 108〉 폴란드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폴란드는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 문서에 설정한 우선순위 국가들에 집중한 양자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에 따르면 두 가지 그룹으로 우선순위 국가를 분류: 1) 동방파트너십 국가(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2) 빈곤률이 높거나 체제전환 문제를 겪는 국가(에티오피아,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미얀마, 팔레스타인)

○ 폴란드 개발협력의 가장 큰 특징인 다자원조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타 다자원조 기관에 대한 원조 대비 EU에 대한 원조규모가 독보적으로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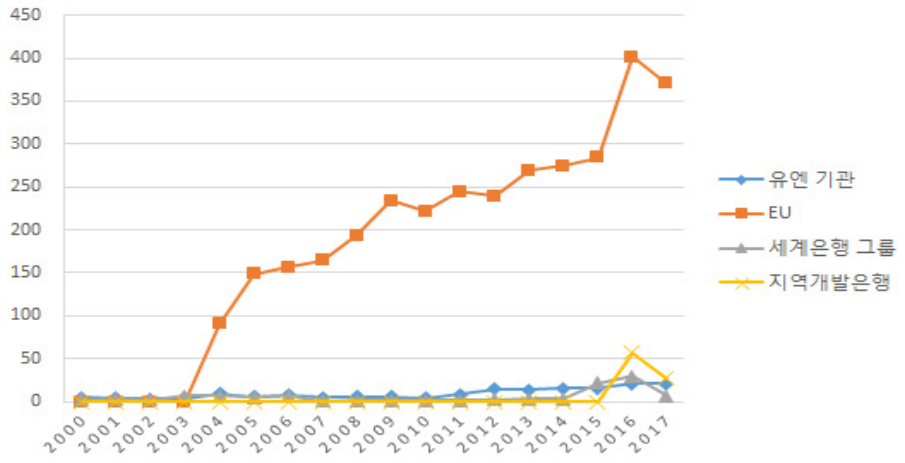
⇒ 2004년부터 실시된 폴란드의 EU에 대한 원조는 90.49백만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 413.53백만달러를 기록하여 규모면에서 350% 이상의 증가를 보임.

⇒ 반면 2014년에 실시된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원조는 0.01백만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 급속한 증가를 이뤄 56.58백만달러를 기록

○ 폴란드 다자원조의 기구별 원조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EU 79%(413.53백만달러), 지역개발은행 11%(56.58백만달러), 세계은행그룹 5%(26.14백만달러), 유엔기구 4%(21.40백만달러)의 비중으로 공여함.

〈그림 109〉 폴란드 2000–2017년 다자기구 지원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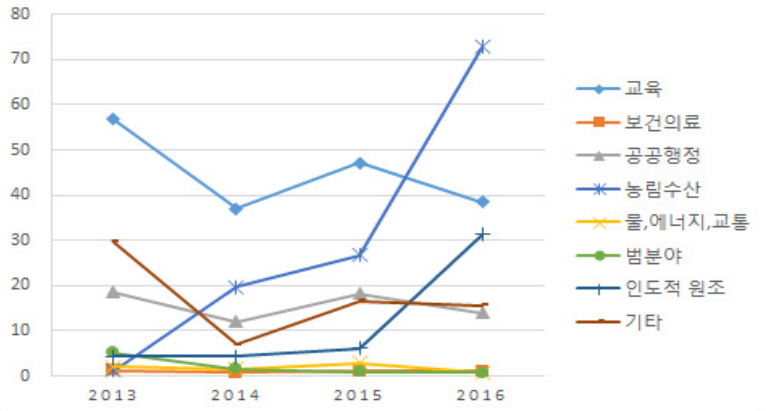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21.)

□ **(분야배분)** 최근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원조가 꾸준히 증가 추세

○ 상대적으로 교육과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원조가 급격히 상승

〈그림 110〉 폴란드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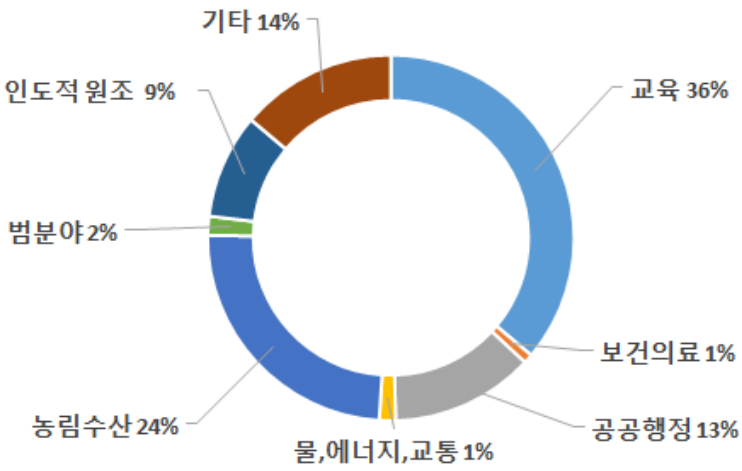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폴란드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497백만달러이며 그 중 교육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교육(180, 36.1%), 농림수산(120, 24.2%), 기타(69, 13.8%), 공공행정(63, 12.6%), 인도적 원조(46, 9.3%) 등

〈그림 111〉 폴란드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폴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Poland, Polish aid)

□ **(전략 및 목표)** EU를 통한 다자원조에 집중하는 기조이며, 양자원조의 경우 폴란드 비정부기구, 타 공공기관, 폴란드과학아카데미 및 대학과 협력하여 우선순위 국가들에게 지원함.[156]

○ 2015년 10월에 폴란드 내각에서 승인된 두 번째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2016-2020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 문서에 따르면 폴란드 개발협력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음:

⇒ 1)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빈곤감소; 2) 국민 건강 증진; 3) 교육의 향상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정부개혁에서의 민주화과정 지원; 5) 현대적 정부제도 건설; 6) 인권의 보장; 7) 시민사회 조성[157]

156) Polish aid 홈페이지(https://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04.24.).
157) 폴란드 외교부. (2015) p12.

○ “2012-2015 다년도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첫 번째 주제별 우선순위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치·경제적 전환 두 가지였지만, 2016-2020년 동안 집중될 주제별 우선순위는 하단의 표와 같음.

〈표 72〉 폴란드 외교부 Polish aid 2016-2020 우선순위 분야

주제별 우선순위 분야	세부 분야 및 내용
굿 거버넌스	• 지역정부강화와 분권화에 초점을 둔 지역 개발 • 공공안보와 시민보호 분야 • 정부 행정의 역량 강화 • 법치 강화 및 부패 방지 • EU 및 여타 국제 표준에 맞춘 법률과 제도의 조화 •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 독립적인 언론
민주주의와 인권	• 민주적 선거 제도 • 인권보장과 시민의 자유 • 시민사회조직 강화 / 시민과의 대화
인적 자본	•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 포용적 교육과 질적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시민 교육 • 사회적 배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
기업가 정신과 민간분야	•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소규모 기업체 • 사회적 경제 • 여성과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 직업교육훈련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개발	• 식량안보 /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 • 시장접근 • 농업에서의 현대기술 활용 / 지역 인프라의 현대화
환경보전	• 재생 가능한 에너지 / 에너지 효율성 • 수자원 관리 / 폐기물 관리 • 자연 및 인공재해에 의한 낙진(fallout) 처리 •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기후변화 예방 및 그에 따른 결과 해결 • 천연자원 보전

자료: 폴란드 외교부(2015: 7)

□ **(조직체계)** 2005년 8월 폴란드 개발협력 시스템 전담부서로 외교부 내 개발협력부서(Depart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개설

○ 개발협력부서는 세 개의 하위조직으로 구성되며, 실무조직으로 과(unit)를 두어 사업 및 기능을 수행

○ 개발협력부서는 폴란드가 제공하는 개발협력과 인도적 원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이 업무의 범위 내에서도 특히 계획, 조정, 모니터링, 평가를 담당

⇒ 개발협력부서는 폴란드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초안 작성, 개발사업 제안서 입찰 정리 및 관리, 국제개발 및 인도주의적 협력 착수와 EU 개발정책의 실행참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

○ 외교부 개발협력부서의 하위 과는 다음과 같음: 1) EU 개발정책 및 다자협력과(Unit for EU Development Policy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2) 동유럽국가 개발협력과(Uni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ountries of Eastern Europe); 3) 기타파트너국 개발협력과(Uni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Remaining Partner Countries); 4) 공보과(Public Communication Unit); 5) 회계과; 6) 인도적지원과; 7) 계획실[158]

○ 외교부장관이 개발협력조정관(National Coordinator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 개발협력 업무를 관리

⇒ 개발협력조정관은 장관 혹은 차관급 지위를 가지며 개발협력정책심의회(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Council)의 지원을 받음.

○ 외교부의 자문기구인 개발협력정책심의회는 개발협력법에 의거하여 창설되어 폴란드 개발협력의 지역별·주제별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자문 제공, 프로그램과 계획의 초안 검토, 현지사업 실행에 대한 연간보고서 검토와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 초안 문서 검토를 수행함.

⇒ 개발협력정책심의회는 각 부처의 대표, 폴란드 국회, 비정부기구, 상원대표, 고용주단체 대표와 학계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159]

□ **(인력)**[160] 외교부 개발협력부서에는 한 명의 부서장과 세 명의 부국장급(Deputy Director) 관리 인력이 있으며, 2016년 기준 81명의 인력이 폴란드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함.

○ 81명의 인력 중 절반 정도가 외교부 개발협력부서 산하 직원으로 구성됨.

⇒ 16명의 정규직원은 대사관에서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33명의 파트타임 직원은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을 담당

158) Polish aid 홈페이지(https://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04.24.)
159) Polish aid 홈페이지(https://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04.24.)
160) OECD. (2017) p55.

○ 2011년부터 시작된 개발협력분야 전문 인력 양성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협력부서장에게 수원국에 상주해있는 인력을 순환보직으로 임명할 권한과 개발협력부서에 외교부 직원을 채용할 권한을 부여

○ 각 과는 국별, 지역별, 혹은 분야별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3~10인으로 구성되며, 2018년 기준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개발협력부서에 속한 직원은 50명가량으로 파악됨.[161]

〈표 73〉 폴란드 외교부 개발협력부서 세부 과 및 해당인력

(2018년 말 기준; 단위: 명)

EU 개발정책과 다자협력과	• EU개발정책 -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조사위원회(ACP*) 및 유럽 개발기금(EDF**) • EU개발정책 - 개발협력조사위원회(CODEV***) • EU개발정책 - 개발협력기구(DCI****) • 원조효과성 및 일관성 • 유엔과 다자협력	6명
동유럽국가 개발협력과	•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 몰도바 개발협력 / 조지아 개발협력 • 장학금 프로그램 /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10명
기타 파트너국 개발협력과	• 동아프리카 개발협력 / 세네갈 개발협력 / 팔레스타인 개발협력 • 소규모 보조금 개발협력/ 봉사단 프로그램	6명
공보과	• 공공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 글로벌 교육 / 홍보이벤트 지원	5명
회계과	• 금융 서비스 및 ODA 보고 • 금융 서비스 및 보조금 관리	5명
인도주의적 지원과	• 국제기구와의 협력 / 이주 • EU 차원 지원 / 인도주의적 지원	5명
계획실	• 정책기획 및 개발협력정책심의회 • 정책 기획 및 TAIEX***** • NGO 협력	4명
독립 부서	• 법률 이슈팀 / 평가팀 / 데이터베이스 관리팀	3명
총		44명

*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Working Party
** European Development Fund
***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 Technical Assist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자료: Polish aid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https://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04.27.)

161) Polish aid 홈페이지(https://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04.27.)

□ **(주요사업)** 폴란드는 다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여기관으로, 특정 주제 및 섹터별로 구체화된 사업보다는 개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 폴란드 외교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74〉 폴란드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장학금 프로그램 (Scholarship programs)	봉사단 프로그램 (Volunteering Programme)
배경	• 폴란드 외교부의 예산으로 조달되고 과학고등교육부의 시행으로 진행되는 장학금 프로그램은 폴란드 외교 정책의 주요한 도구로써 외국 학생들을 폴란드에 초청하여 교육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음.	• 서유럽, 북미,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봉사단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하여 2008년 외교부의 주최로 폴리쉬 에이드 자원봉사 프로그램(Polish Aid Volunteering Programme) 개시
비전	• 외국 장학생들이 폴란드에서 학업하며 머무는 동안 폴란드의 문화, 언어, 관습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나가는 인맥을 통해 폴란드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창출해 내는 데에 기여	• 폴란드 시민들이 개도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폴란드 사회의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개도국 내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함.
전략 목표	• 전문적 역량강화를 통해 동방파트너십국가들 및 여타 파트너십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개발 도모	• 시민사회 조직 및 NGO들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봉사단을 신청
중점 추진 분야	• 석사과정: 자연과학, 수의학, 기술교육, 농수산, 사회과학분야 • 박사과정: 인문학, 신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기술교육, 농수산, 수의학, 지구과학	• 사업 제안서 제출의 경쟁을 통한 선별적 선발로써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음.

자료: Polish aid 홈페이지(http://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04.27.)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폴란드 외교부. 2015. “Multiannu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2016-2020.”

폴란드 외교부. 2016a. “2016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Annual Report.”

폴란드 외교부. 2016b. “2017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OECD.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Poland.” Paris: OECD.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09.).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indicator-chart (접속일: 2018. 05. 18.).

Polish aid 홈페이지: http://www.polskapomoc.gov.pl/ (접속일: 2018. 04. 27.)

21. 포르투갈(Portu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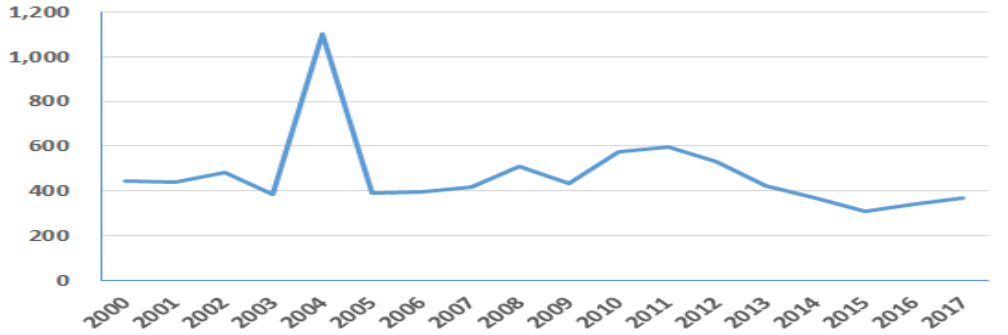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원조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

○ **(현황)** 국내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지출의 축소로 인해 포르투갈의 원조규모 또한 축소된 양상이며, 2017년 원조규모 367백만달러 및 ODA/GNI 비율 0.18% 기록

〈그림 112〉 포르투갈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포르투갈은 2004년 법률 제 13호[162]의 제정을 통해 개발협력 기관의 법적 지위와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2012년에 개발담당기관(Portuguese Institute for Development)과 언어문화담당 조직(Camões Institute)을 통합하여 문화언어협력청(Camões, IP) 출범

○ **(핵심문서)** "포르투갈 개발협력전략문서(Strategic Concept for Portuguese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2014-2020년에 달성할 포르투갈 개발협력의 목표와 수단 등 명시

○ **(분절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를 비롯한 50여개의 공적 주체가 ODA 사업을 수행하여 그 복잡성이 매우 높으나, 통합기관인 Camões, IP가 실적 및 통계의 종합적 관리를 지향[163]

⇒ 2016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포르투갈의 이러한 통합적 관리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164]

---

162) 포르투갈협력기구의 법적 프레임워크 설립 및 법적 지위 정의(Estabelece o enquadramento jurídico do agente da cooperação português e define o respectivo estatuto jurídico)에 관한 법률

163) OECD. (2016) p24.

□ **(예산)** 다양한 공적 주체가 ODA 예산을 집행하며, **Camões, IP**가 이를 통합적으로 취합 및 관리

○ 57개의 공공 주체가 ODA를 수행하는 포르투갈은 2016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지나친 유연성과 분절화를 완화하여 ODA 자금 전달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음.[165]

⇒ 동 보고서는 **Camões, IP**가 과거 동료검토에서 지적되었던 예산 보고 절차 및 데이터 수집을 크게 개선하고, 과거에 비해 ODA 예산 편성이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166]

〈표 75〉 2014 포르투갈 ODA 주요 예산 배분

구분	2014 예산 전체	
	유로	%
포르투갈 정부	319,513,357	99.4
정부(외교부 제외)	284,556,401	88.6
내무부	4,419,061	1.4
농업해양부	254,625	0.1
국방부	1,210,341	0.4
경제부	306,528	0.1
교육과학부	31,082,002	9.7
법무부	731,357	0.2
복지부	10,267,782	3.2
고용 및 사회안전부	7,065,904	2.2
금융부	222,743,627	69.3
환경부	3,314,861	1.0
정부위원회	3,160,313	1.0
외교부	**34,956,956**	**10.9**
Camões, IP	**23,548,027**	**7.3**
기타 공적 기관(의회 등)	1,791,038	0.6
전체	**321,304,395**	**100.0**

자료: OECD(2016)

164) OECD. (2016) p24.
165) OECD. (2016) p38.
166) OECD. (2016) p24.

□ **(지역배분)**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높은 비중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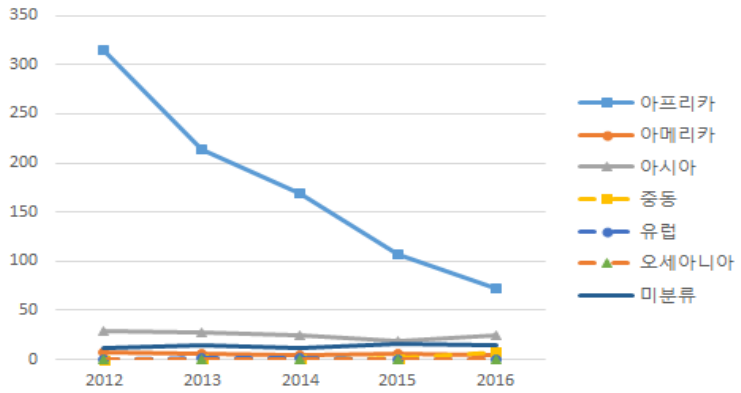
○ 2012-2016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규모 대비 78.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포르투갈의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아프리카의 지원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878, 78.9%), 아시아(124, 11.1%), 미분류(70, 6.3%), 아메리카(29, 2.6%) 등

⇒ 포르투갈의 재정 감축으로 인해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한 원조가 2012년 261백만달러에서 2016년 64백만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등 구 식민지 국가의 감소분이 대부분을 차지

〈그림 113〉 포르투갈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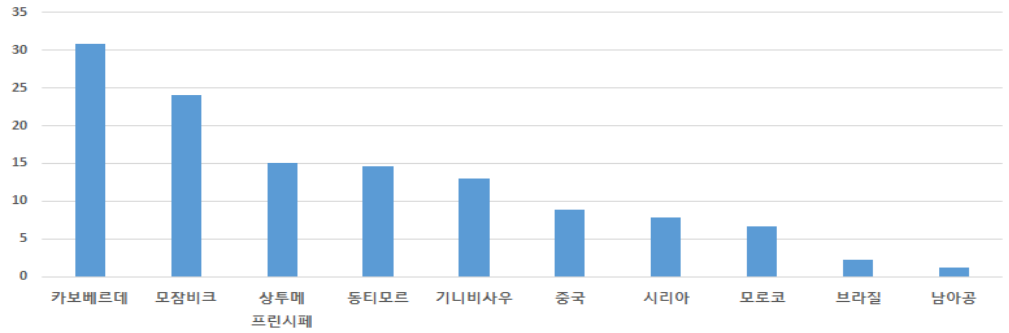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카보베르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등 아프리카의 구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

⇒ 2016년 주요 수원국 지원 규모(백만달러): 카보베르데(31), 모잠비크(24), 상투메프린시페(15) 등

〈그림 114〉 포르투갈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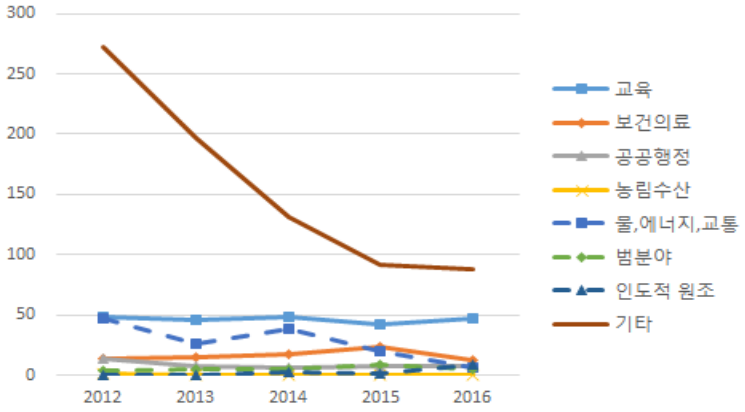
□ **(분야배분)** 포르투갈의 원조는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12-2016년 기타 분야 원조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273백만달러 규모에서 2016년 88백만달러 규모로 감소

⇒ 기타 분야의 지원 규모 감소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자본재(capital goods) 수입지원(import support) 금액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함.

〈그림 115〉 포르투갈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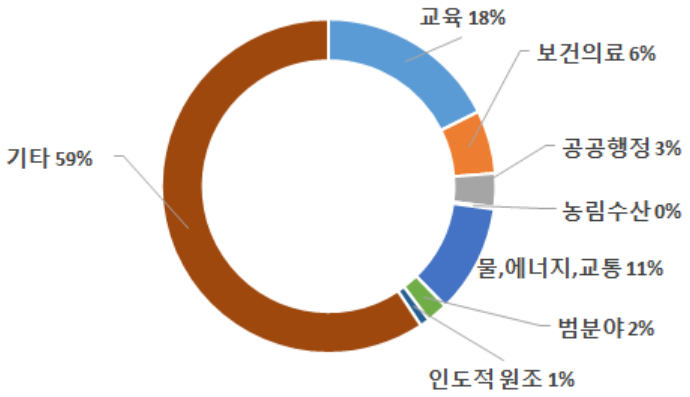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포르투갈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316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780, 59.3%), 교육(232, 17.6%), 물·에너지·교통(138, 10.5%), 보건의료(80, 6.1%) 등

⇒ 교육 분야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Camões, IP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에 기인함.

〈그림 116〉 포르투갈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문화언어협력청(Camões, Institute of Cooperation and Language, IP)

□ **(전략 및 목표)** 전통적으로 분권화 되어있는 포르투갈의 개발협력 환경에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 지향

○ 포르투갈은 외교정책의 세 가지 기조(유럽 통합, 지중해권역 관계 증진, 포르투갈어권 영향력) 하에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발협력정책 인식[167]

○ Camões, IP는 포르투갈 외교정책의 기조 하에서 견고한 사업관리와 서비스의 현대화를 바탕으로 기관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67) Government of Portugal. (2014) p11.

○ **Camões, IP**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 및 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주로 포르투갈어와 포르투갈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역할에 초점을 맞춤.

〈표 76〉 Camões, IP 주요 역할 및 핵심 가치

주요 역할	핵심 가치
포르투갈 개발협력 정책의 제안 및 실행	• 정확성·원조품질·효율성·효과성 달성 • 정직하고 진실한 원조 및 투명성 추구 • 형평성을 지향하고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추구 • 동등한 기회와 차별 철폐를 지향하며 모든 사람들에 공정한 처우 제공
기타 공적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개발협력사업 조정	
포르투갈어 및 포르투갈 문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며 국제사회로의 확산을 도모	
초등·중등·고등 단계에서 해외 포르투갈어 교육 네트워크 관리	
고등교육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외현지 교사 채용 지원	
포르투갈 문화의 세계화 촉진	

자료: Camões, IP 홈페이지(http://www.instituto-camoes.pt/en) (접속일: 2018.06.27.)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주무부처인 외교부 산하에서 포르투갈의 다양한 ODA 주체 통합 지향

○ **Camões, IP**는 크게 이사회, 독립감사기구, 포르투갈어 및 문화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the Portuguese Language and Culture), 협력관련 부처 간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Co-operation, 이하 CIC)로 구성되며 이사회 및 독립감사기구가 상위 관리기구로 작동

⇒ CIC는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실행을 조정 및 촉진하며, 포르투갈어 및 문화자문위원회는 포르투갈어 및 문화 분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 제시

○ **Camões, IP** 이사회는 3개의 주요 조직인 평가감사실(The Office of Evaluation and Audit), 문서커뮤니케이션실(The Documentation and Communication Office), 문화 프로그램실(The Office of Cultural Programmes and Agreements)을 관할

○ **Camões, IP** 본부는 3개의 중간 관리부서(협력 및 서비스, 문화 및 언어서비스, 계획 및 관리서비스)로 구성되며 각각 3~4개의 하위부서를 가짐.[168]

168) **Camões, IP**의 자세한 조직도 및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Camões, IP 홈페이지(http://www.instituto-camoes.pt/en/) 참고

○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포르투갈어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 포르투갈 문화센터 등의 해외협력단위 보유

⇒ 유럽 31개국, 아프리카 20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아시아 9개국 등지에서 활동[169]

□ **(인력)** 기술인력 위주의 인적자원 보유 및 외부 인력풀 활용

○ 본부에 총 17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기술 인력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

⇒ 연례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자급 인력에서 신입인력까지 포괄적인 교육의 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 도모[170]

〈표 77〉 Camões, IP 본부 인력 현황

(단위: 명, 2017년 기준)

구분	2016	2017
이사장	1	1
부이사장	1	1
이사회 임원	2	2
서비스 이사	3	3
본부장	13	13
기술 전문가	98	98
기술 보조	45	45
운영 보조	6	6
전산 담당	4	4
전체	**173**	**173**

자료: Camões, IP(2017)

169) 유럽(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도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로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아프리카(앙골라,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케냐,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튀니지, 짐바브웨), 아메리카(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시아(중국,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오세아니아(호주). Camões, IP 홈페이지 (http://www.instituto-camoes.pt/en) (접속일: 2018.05.23.)

170) Camões, IP. (2017) p14.

○ 포르투갈어 및 문화 교육을 중점분야로 선정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해외교육사업(Ensino Português no Estrangeiro, 이하 EPE)의 프레임워크에 소속된 교사와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표 78〉 EPE 프레임워크 해외 인력 네트워크

(단위: 명, 2017년 기준)

부서	2016	2017
교사	361	361
코디네이터	18	18
전체	**379**	**379**

자료: Camões, IP(2017)

○ 경제 위기로 인한 공공부문 재정 감축, 까다로운 채용절차 등으로 인해 포르투갈의 개발협력 인력은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며, 이는 2016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도 지적됨.[171]

⇒ OECD DAC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직원 능력 평가, 본부 전문 인력 채용 및 권한 위임 등을 통해 포르투갈 개발협력 분야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권고

□ **(주요사업)**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수행

○ 지속가능한개발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나, 주로 포르투갈어와 포르투갈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다수를 차지

○ **Camões, IP**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171) OECD. (2016) p34.

〈표 79〉 포르투갈 Camões, IP 주요사업 개관

	카보베르데 교육시스템 강화 사업*	기니비사우 교수 프로그램 개선 사업**	모잠비크 포르투갈 협력 클러스터 2단계 사업***
배경	• 카보베르데의 취약한 교육 시스템 및 교육부의 관리 역량 부족	• 포르투갈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교육 품질 개선 필요	• UNESCO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모잠비크 섬의 역사적 유산을 보전하는 개발의 필요성 대두
비전	• 카보베르데의 교육부 및 관련기관의 역량 강화	• 기니비사우의 교육 시스템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	• 모잠비크 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체적 역량 강화
전략 목표	• 미취학 단계부터 12학년까지 전반적인 관리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개발	• 교육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교사양성 등 3,200명 규모의 에이전트 양성 • 고등교육(법학 등) 분야의 지원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제도적 역량 강화 및 자치 역량 강화 • 모잠비크섬 전문학교 교육 강화 • 유아교육 및 섬 보존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중점 추진 분야	• 기술-경찰 협력분야와 연계하여 안정된 치안 상황 하에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 카보베르데 예산에 대한 지속적 지원(0.5백만유로 규모)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포르투갈어 교육 • 학교관리 및 행정	• 모잠비크섬 어린이 센터(Children's Centre of the Island of Mozambique) 설립 • 도시환경 개선 • 유기물 재활용 기기 설치 • 범부처와 연관된 사업에 4년간 1백만 유로 규모의 지원

* Reinforc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in Cape Verde

** Quality Teaching Programme in Guinea-Bissau

*** Portuguese Co-operation Cluster in the Island of Mozambique, 2nd stage

자료: Camões, IP(2016) 및 Camões, IP 홈페이지(http://www.instituto-camoes.pt/en) (접속일: 2018.03.23.)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Camões, IP. 2016. “Activity Report.” Lisboa: Camões, IP.

Camões, IP. 2017. “Annual Activity Plan.” Lisboa: Camões, IP.

Government of Portugal. 2014. “Strategic Concept for Portuguese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Portugal.” Paris: OECD.

Camões, IP 홈페이지: http://www.instituto-camoes.pt/en/ (접속일: 2018. 03. 19.).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22. 슬로바키아(Slovak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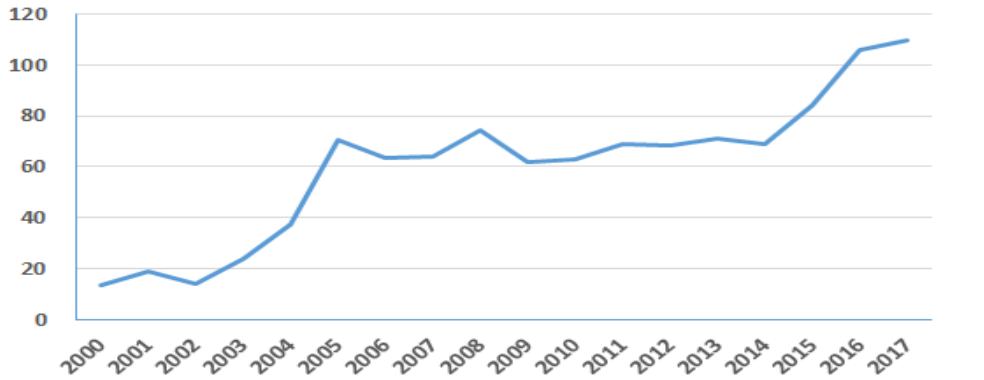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다자원조 및 중점프로그램 국가를 중심으로 원조사업 수행

○ **(현황)** 2014년까지 원조규모가 정체하다 최근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10백만 달러 및 ODA/GNI 비율 0.12% 기록

〈그림 117〉 슬로바키아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5년에 제정된 "공적개발협력에 관한 법률(The 2015 Act on Offici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제도적 틀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인 슬로바키아 국제개발협력단(Slovak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SAIDC)이 사업 수행

○ **(핵심문서)** 2013년 외교유럽부(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이하 외교부)에서 "2014-2018 슬로바키아 개발협력중기전략(Medium-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Slovak Republic for 2014-2018)" 채택을 통해 우선순위 및 주요 전략 제시

○ **(분절화)** 여러 정부부처에서 ODA 예산을 각자 집행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OECD DAC은 예산조정 및 보고에 있어 외교부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172]

□ **(예산)** 재무부가 예산분배 결정권을 가지며, 외교부가 ODA 예산을 일부 조정

○ 10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ODA 예산을 집행하며, 그 중 재무부의 다자 간 원조금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13년 기준, 슬로바키아 양자 간 원조는 13.85백만유로로 전체 ODA의 23%를 차지했으며 다자 간 원조는 47.14백만유로로 77%를 차지[173]

⇒ OECD DAC 특별동료검토는 이와 같은 예산 집행방식이 원조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조정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재무부의 협업을 권고함.[174]

〈표 80〉 2014년 슬로바키아 부처별 ODA 예산 배분

(단위: 유로)

상세 내역	금액	비중
외교부	**6,743,257**	**11%**
외교부- 양자	**5,928,543**	**10%**
외교부- 다자	**814,714**	**1%**
재무부	**48,091,997**	**78%**
재무부 - 양자	**2,622,941**	**4%**
재무부 - 다자	**45,469,056**	**74%**
내무부	2,094,676	3%
교육부	2,353,170	4%
농업부	290,144	0%
환경부	367,890	1%
국방부	24,057	0%
보건부	481,654	1%
경제부	174,798	0%
노동사회가족부	321,797	1%
원자력규제당국	301,456	0%
교통건설지역개발부	40,194	0%
산업번영국	3,362	0%
전체	**61,288,453**	**100%**

자료: SlovakAid(2014)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172) 한국국제협력단. (2015) p19. 및 OECD. (2011) p6.
173) SlovakAid. (2013) p29.
174) OECD. (2011) p6.

○ “2014-2018 슬로바키아 개발협력중기전략”문서는 국내 경제 상황에 발맞추어 계획된 원조금액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양자 간 원조 예산의 증액과 함께 원조수준 및 효과성 증진을 추구할 것으로 제시함.[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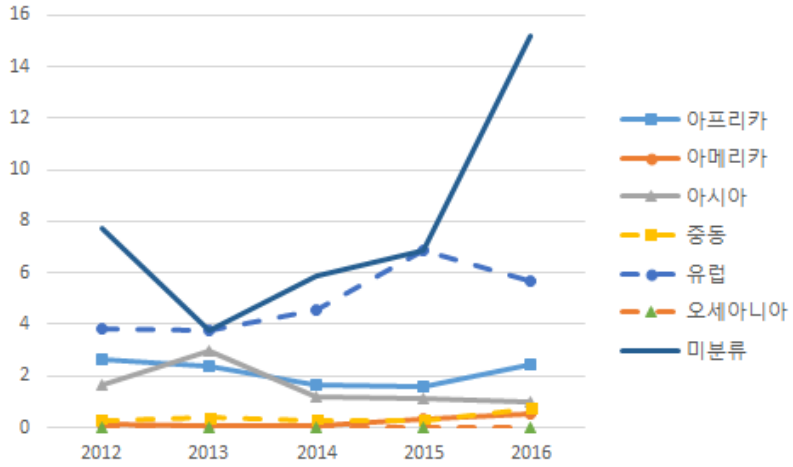
□ **(지역배분)** 유럽 및 기타 개도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 2012-2016년 유럽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미분류 영역에 대한 지원이 전년대비 약 8백만달러 증가하여 15.2백만달러 기록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39, 45.9%), 유럽(25, 28.8%), 아프리카(11, 12.4%), 아시아(8, 9.3%), 중동(2, 2.3%) 등

〈그림 118〉 슬로바키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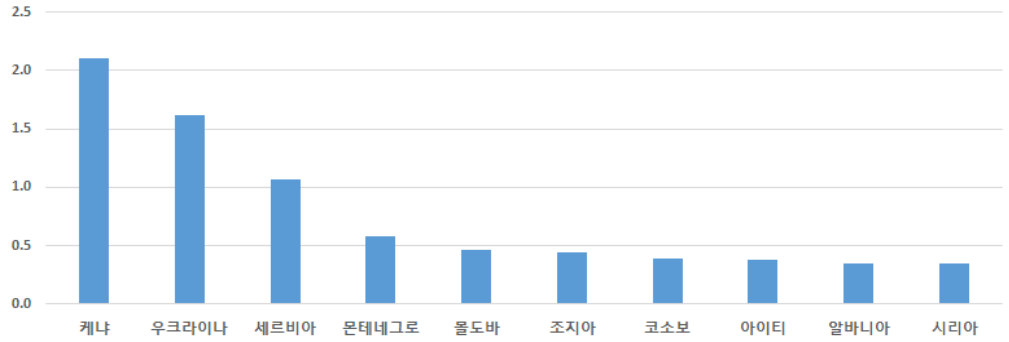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케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점프로그램·중점프로젝트 국가인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이 상위 10개 수원국에 포함

175) SlovakAid. (2013) p29-30.

〈그림 119〉 슬로바키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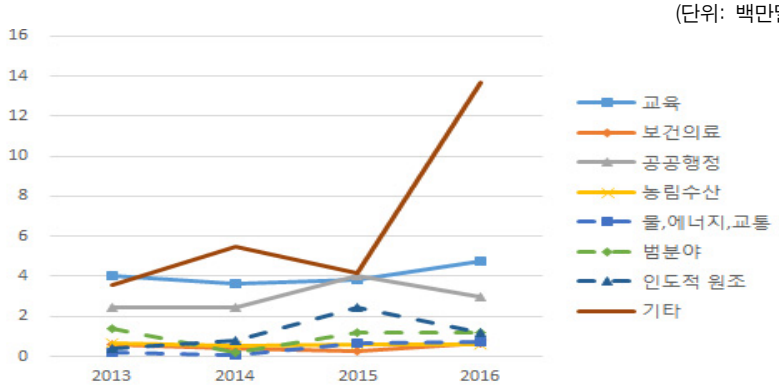
□ **(분야배분)** 교육 분야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

○ 2016년에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년대비 약 230%(9.5백만달러)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뒤를 교육, 공공행정 등의 분야가 차지

⇒ 시리아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비셰그라드(Visegrad)[176] 개발협력 프로젝트 등에 지출하면서 2016년에 기타 분야에 대한 원조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120〉 슬로바키아 2013-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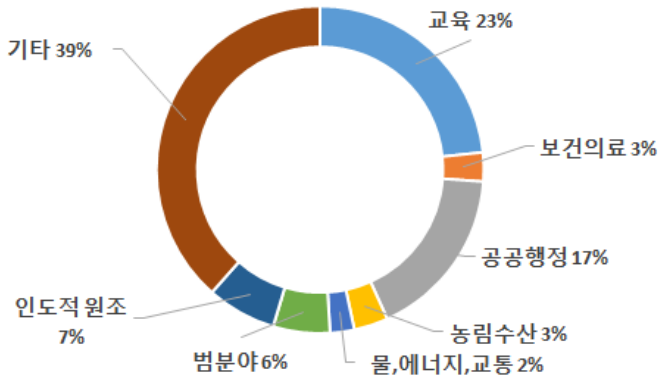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176) 비셰그라드(Visegrad) 그룹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4개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00년에 비셰그라드 기금(Visegrad Fund)을 조성하여 서발칸지역 및 동유럽 국가들의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3-2016년 슬로바키아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70백만달러이며, 중기전략문서의 우선순위인 교육 및 굿 거버넌스 지원으로 교육과 공공행정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3-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27, 38.5%), 교육(16, 23.3%), 공공행정(12, 17.1%), 인도적 원조(5, 6.9%) 등

〈그림 121〉 슬로바키아 2013-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슬로바키아 국제개발협력단 (Slovak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전략 및 목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빈곤 퇴치, 민주주의 강화,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177]

○ 슬로바키아 외교부는 "2009-2013 공적개발원조 중기전략(Medium-Term Strategy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2009-2013)"을 보완한 "2014-2018 개발협력중기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전략문서는 정부와 SAIDC의 비전, 목표,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177) SlovakAid. (2013) p7-10.

〈표 81〉 슬로바키아 개발협력(SlovakAid)의 목표 및 주요 수단

구분	세부 내용
기본 목표	• 교육과 고용을 통한 파트너 국가들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포함한 민주주의 및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지원
주요 수단	• 독립적인 국가기관 설립, 시장경제 확립, 민주주의 원칙 확립 등의 체제전환 경험 활용 •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 경험 활용 • 최근까지 원조 수원국이었던 경험 활용

자료: SlovakAid(2013)을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SAIDC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178]

⇒ 1) 프로그램 국가와의 개발협력; 2) 체제전환 경험을 활용한 프로젝트 국가와의 협력; 3) 인도적 원조; 4) ODA 역량강화, 대중인식 개선 및 개발교육; 5) 지원 프로그램(EU개발프로젝트 협조 융자, 자원봉사 등)

○ 지역적 우선순위는 1) 프로그램 국가; 2) 프로젝트 국가; 3) 인도적지원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야별 우선순위로는 총 7개 분야(교육, 보건, 굿 거버넌스, 농업 및 산림,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시장환경 지원)를 명시

⇒ 지역적 우선순위의 경우, 프로그램 국가 3개(아프가니스탄, 케냐, 몰도바), 프로젝트 국가(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코소보,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국가(남수단)로 세분화

□ **(조직체계)** 외교부 조정 하에, SAIDC가 전담기관으로 활동

○ 외교부가 정부부처들의 개발협력 활동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07년에 양자 협력기관으로써 설립된 SAIDC가 슬로바키아 ODA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함.[179]

⇒ 재무부와 외교부 외에도 교육부, 농업부, 환경부 등의 여러 정부부처들이 ODA 사업 수행[180]

⇒ 외교부는 2007년에 제정된 제 617호 법령에 의거, 1)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 2) 비정부개발기구; 3) 학계; 4) 민간부문; 5) 의회 및 유럽의회대표단; 6) 언론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슬로바키아 ODA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함.

○ SAIDC 본부의 주요 조직은 크게 프로젝트관리부서, 재무관리부서, 지원부서, 통합 및 개혁경험전수센터(Center for Experience Transfer from Integration and Reforms,

178) SlovakAid 홈페이지(http://www.slovakaid.sk/en) (접속일: 2018.06.27.)
179) 한국국제협력단. (2015) p17-20.
180) 슬로바키아 개발협력의 수행체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2011)의 내용 참고

이하 CETIR), 개발협력 외교관조직(Development coordination diplomats)으로 구분되며, 각 부서별로 2~6명의 인원이 근무[181]

⇒ SAIDC는 CETIR과 개발협력 외교관조직을 통해 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 경험 전수를 비롯해, 개발협력 사업에서부터 인도적 원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인력)**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대두

○ 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 및 정부 관료들의 순환보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011년 OECD DAC 특별동료검토는 슬로바키아 외교부 인력들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182]

⇒ 동 보고서는 개발협력 담당 인력들이 2~3년 마다 비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이동해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NGO 관계자들 또한 외교부의 잦은 보직이동이 협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적함.

〈표 82〉 슬로바키아 국제개발협력 인력 현황

(2010년 기준)

기관	직원 수(명)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 외교부 내 개발협력 담당 인력	6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 SAIDC	11.5 (정규직 직원) 3 (계약직 직원)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 기타 부처 및 관계당국 근무자	15*
현지 - 고용된 슬로바키아 인력	3*
현지 - 현지 고용 인력	1*
전체	**39.5***

* 개발협력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포함

자료: OECD(2011)

□ **(주요사업)** 중점프로그램 협력국을 위주로 종합적 원조사업 진행

○ 중점프로그램 국가로 선정된 4개국(아프가니스탄, 케냐, 몰도바, 남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별 국가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 결과의 환류 방안 또한 제시[183]

181) SlovakAid 홈페이지(http://www.slovakaid.sk/en) (접속일: 2018. 04. 27.)
182) OECD. (2011) p25.
183) SlovakAid 홈페이지(http://www.slovakaid.sk/en/publications) 참고

○ SAIDC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83〉 슬로바키아 SAIDC 주요 사업 개관

	개발 프로그램*	체제전환 경험 공유 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대중인식 개선 프로그램***
배경	•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 증대	• 서발칸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에서 슬로바키아 경험의 활용가능성 고려	• 정의로운 사회와 평등·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식 확산
비전	• 교육과 고용을 통한 협력국가들의 인간개발 •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지원	• 슬로바키아 체제전환 경험의 공유를 통한 수원국의 민주화	• 시민들에 대한 지구촌 차원(Global Dimensions)의 교육을 통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
전략 목표	• 4개 협력국가들에 대한 각각의 중점 협력분야를 설정하여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양자협력 추진	• 서발칸, 동유럽 국가 등 슬로바키아 ODA의 주요 프로젝트 국가들의 법체계, 국가기관, 사회민주화 확립 지원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여 책임성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양
중점 추진 분야	• 아프가니스탄: 교육, 안보, 농업 • 케냐: 보건, 교육, 농업, 거버넌스 • 몰도바: 거버넌스, 수자원 및 위생 • 남수단: 보건, 농업	• 재무부가 주관하는 기술지원 사업(개발을 위한 공공재원 프로그램, 슬로바키아 정부와 유럽부흥 개발은행의 기술협력 기금)에 대한 지원	• 외교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학교 및 NGO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세계화 및 상호의존성·글로벌 이슈 및 개발협력·다문화주의·환경문제·인권문제 등의 범분야에 대한 교육 진행

* Development Interventions Programme

** Transformation Experience Sharing Programme

*** 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Programme

자료: SlovakAid 홈페이지(http://www.slovakaid.sk/en/) (접속일: 2018. 04. 30.)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 2015.『신흥공여국 ODA 정책과 현황: 슬로바키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OECD. 2011. “DAC special review of the Slovak republic.”

SlovakAid. 2013. “Medium-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Slovak Republic For 2014-2018.”

SlovakAid. 2014. “Annual report 2014 o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the Slovak republic.”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SlovakAid(SAIDC) 홈페이지: http://www.slovakaid.sk/en/ (접속일: 2018. 04. 27.).

23. 슬로베니아(Slove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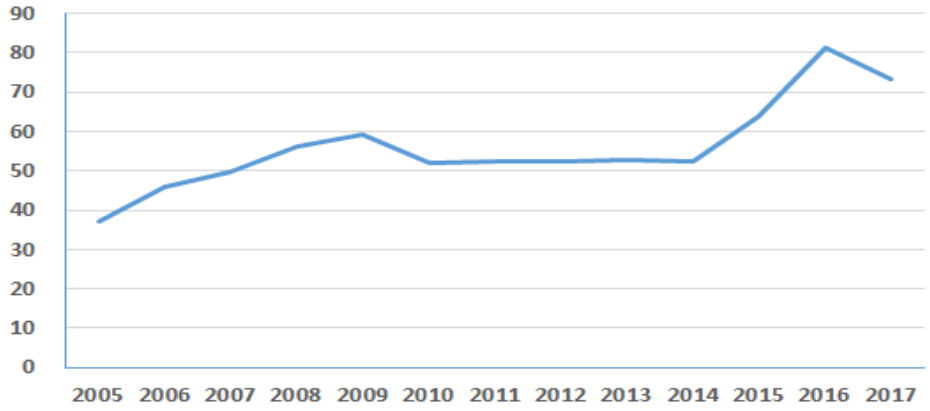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유럽의 중소득 국가들을 위주로 다양한 원조사업 수행

○ **(현황)** 2010년 이후 비교적 일정하던 원조규모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 원조규모 73백만달러 및 ODA/GNI 비율 0.16% 기록

〈그림 122〉 슬로베니아 2005-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06년 "슬로베니아 국제개발협력법(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Slovenia Act)"이 제정되었으며, 원조전담기관 없이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원조사업을 수행

○ **(핵심문서)** 2017년 9월 의회에서 "슬로베니아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에 관한 결의안(The Resolut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f the Republic of Slovenia)"을 채택하였으며, 지구촌 문제 해결에서 슬로베니아의 책무성을 강조

○ **(분절화)** 2017년 OECD DAC 동료검토에 따르면 15개 부처와 4개 기구, 11개 NGO가 양자협력에 관여하는 등 복잡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분절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확립이 요구됨.[184]

□ **(지역배분)** 발칸지역 등 주변 유럽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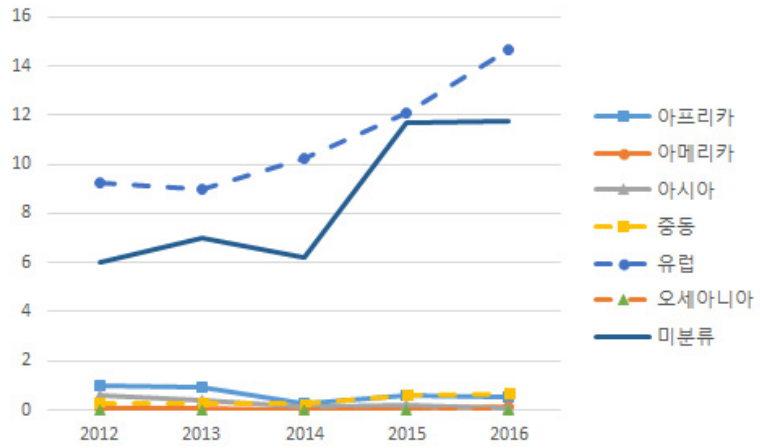
○ 2012-2016년 유럽국가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백만달러가 증가한 14백만달러 규모를 유럽지역에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유럽(55, 52.6%), 미분류(43, 40.6%), 아프리카(3, 3.2%), 중동(2, 2.0%) 등

⇒ 2017년 채택된 의회결의안에서도 서발칸 및 유럽 이웃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에도 비슷한 원조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3〉 슬로베니아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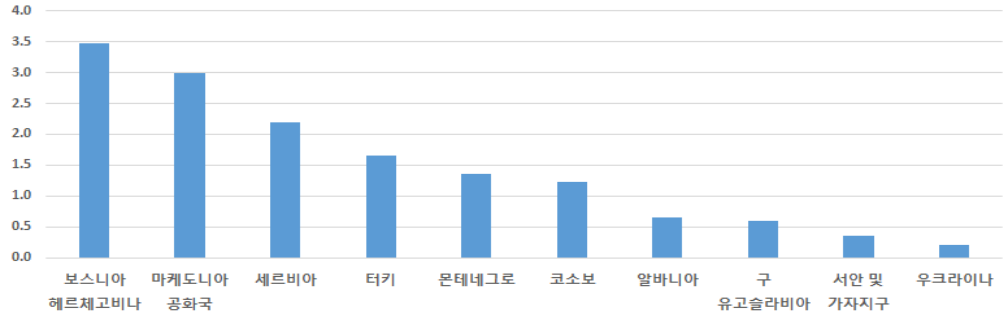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발칸국가를 포함한 인근 유럽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

⇒ 2016년 기준, 상위 10개 수원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약 53%(14.7백만달러)로, 절반 이상의 지원이 유럽 국가들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184) OECD. (2017) p16.

〈그림 124〉 슬로베니아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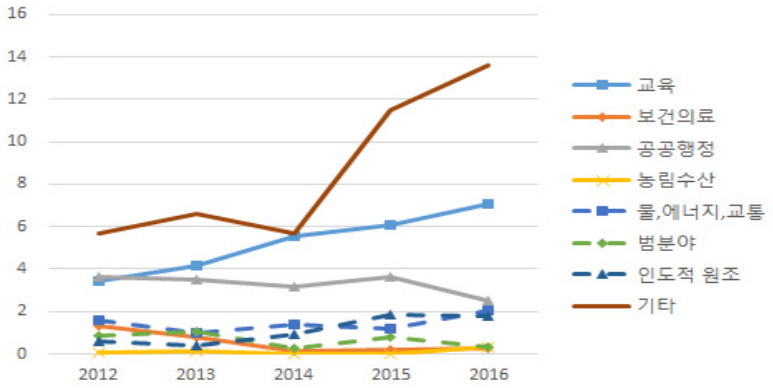
□ **(분야배분)** 기타 분야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양상

○ 2014년을 기점으로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뒤를 교육, 공공행정 등이 차지

⇒ 2014년까지 연간 1백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던 난민 관련 원조금액이 2015년부터 연간 7백만 달러 규모로 증가하여 기타 분야의 비중이 증가함.

〈그림 125〉 슬로베니아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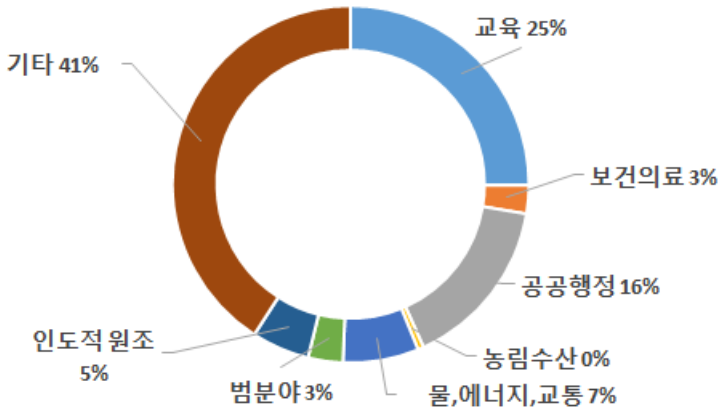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슬로베니아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05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 분야,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43, 40.9%), 교육(26, 25.1%), 공공행정(16, 15.6%), 물·에너지·교통(7, 6.9%) 등

⇒ 의회결의안에 명시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양질의 교육 등을 확립하기 위한 공공행정 분야와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126〉 슬로베니아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슬로베니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 of Slovenia)

□ **(전략 및 목표)** 슬로베니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행

○ 2017년 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분야별·지리적 우선순위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EU, OECD, UN 등 다자 간 기구와의 협력에서 슬로베니아의 책무성 강조[185]

○ "슬로베니아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분야별 우선순위와 지리적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음.

185) MFA of Slovenia. (2017).

〈표 84〉 슬로베니아 개발협력의 분야별·지역별 우선순위

우선순위	구분	세부 내용
분야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기회의 평등 • 성평등 •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및 에너지원 관리
지역별	서발칸(Western Balkans)	•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유럽이웃국가	•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카보베르데 등

자료: MFA of Slovenia(2017) 및 MFA of Slovenia 홈페이지(http://www.mzz.gov.si) (접속일: 2018. 05. 28.)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1) 수원국 및 국제기구의 수요에 근거한 긴급구호(분야별·지역별 우선순위와 무관한 구호 등); 2) 인도주의적 위기의 여파가 존재하는 지역의 재건; 3) 취약성 및 위험 감소를 위한 예방적 활동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 또한 결의안에 명시[186]

⇒ 해당 문서는 슬로베니아 양자 간 ODA의 최소 10%를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명시함.

□ **(조직체계)** 외교부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부처 및 기관에서 사업 수행

○ 국제개발협력 부처 간 협력체(Interministerial Working Bod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가 계획 및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위원회(Council of Expert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가 자문역할 수행

⇒ 국제개발협력 부처 간 협력체는 정부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모니터링·계획·조정·재원배분·성과평가를 담당하며,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위원회는 개발협력분야와 관련하여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된 결의안(resolution)의 초안을 작성함.

○ 양자 간 원조사업은 정부부처 및 기타 기관이 각각 수행하며, 주요 주체들로는 1) 유럽전망센터(Centre for European Perspective, 이하 CEP); 2) 인간안보강화 ITF(ITF Enhancing Human Security, 이하 ITF); 3) 국제개발협력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186) MFA of Slovenia. (2017).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CMSR); 4) 금융우수센터(Centre of Excellence in Finance, 이하 CEF); 5) NGOs 등이 존재[187]

⇒ 외교부가 조정역할을 수행하지만, 앞서 언급된 CEP 등의 개발협력사업 수행주체들이 외교부를 제외한 기타 정부기관들과 협업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는 등 전달체계의 복잡성이 존재함.

□ **(인력)** 제한된 인력규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업무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역량개선이 요구됨.

○ 2015년 기준 15개 정부부처 및 기관, 4개의 정부설립 기구, 11개의 NGO를 포함한 96개의 개발협력 주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4개 정부설립기구에 총 65명의 인력 근무

⇒ 외교부에 근무하는 13명은 외교관 6명,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며,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는 기술인력과 외교관의 협업이 업무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188]

〈표 85〉 슬로베니아 국제개발협력 인력 및 프로젝트 현황

(2015년 기준)

기관	형태 및 재원	직원 수(명)	프로젝트 수(개)	프로젝트 국가 수(개)	프로젝트 평균 규모(유로)
부처 및 공공기관	정부	n.a. (외교부: 13)	32	10	48,334
CMSR	비영리기구/정부지원	4	7	4	180,777
CEF	국제기구/정부지원	25	11	8	40,000
CEP	정부설립기구	10	15	8	12,679
ITF	정부설립기구	13	7	6	57,857
NGOs	비정부기구/MFA 지원	n.a.	24	14	24,853
전체		**65+기타 정부+NGO**	**96**	**25개국**	**60,750 (평균치)**

자료: OECD(2017)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2016년 OECD DAC의 동료검토 보고서는 슬로베니아 외교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력 개개인이 큰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으며, 2030년까지 증가할 예정인 ODA 규모에 맞춰 적정 규모의 인력과 전문기술을 확보할 것을 권고함.[189]

187) 슬로베니아 국제개발협력 수행주체 및 체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슬로베니아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zz.gov.si/en/) 참고

188) OECD. (2017) p58.

189) 상동

□ **(주요사업)** 전문적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다양한 사업 수행

○ CMSR, CEF, CEP, ITF 등의 사업 수행기관이 슬로베니아 외교부 및 해외기관의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주요 사업 대상국들은 대부분 서발칸 국가 등의 유럽지역에 분포하는 경향

○ 슬로베니아 외교부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86〉 슬로베니아 외교부 주요사업 개관

	CMSR - 에너지기술 품질보증 인프라의 평가방법론 개발 사업*	CEP - 서발칸 지역의 통합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ITF - 분쟁지역 위험 완화 사업***
배경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재생에너지 활용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 증대	• 서발칸 지역에 추진력 있는 젊은 사업가들의 수요 증가	• 코소보 사태 이후로 알바니아 및 인근 지역에 잔존하는 위험요인의 제거 필요
비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재생에너지 활용성 제고	• 서발칸 지역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및 창업 환경 개선	• 알바니아 인근 지역의 안보 확립 및 주민들의 안전 보호
전략 목표	•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현존하는 전송 및 분배 네트워크에 통합	• 긍정적인 창업정신을 확산하고 세계적 기업 허브(EU, 미국, 중국, 인도 등)와의 네트워킹 강화	• 알바니아는 2009년에 지뢰청정(Mine Free Status)을 선언하였으나, 잔존하는 위험물 제거를 위해 목표 재정립
중점 추진 분야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표준원의 역량 배양을 위해 슬로베니아의 금속기술원이 사업 수행자로 참여 • 표준화·도량형·인증역량 강화	•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사전경쟁행사 시행 •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선정 및 해외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등	• 위험물(미폭발위험물, 강화방사선무기 등) 제거작업 •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 사업(직업훈련 및 재활지원 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

*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the Infrastructure for Quality Assurance for Photovoltaic Renewable Energy Technology

** Establishing an Integrated Start-up Ecosystem in the Western Balkans

*** Hotspots Clearance in Albania - Towards Completion

자료: CMSR 홈페이지(http://www.cmsr.si/en/), CEP 홈페이지(https://www.cep.si/), ITF 홈페이지(https://www.itf.si/)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접속일: 2018. 04. 13.)

참고문헌

MFA of Slovenia. 2017. “Resolu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f the Republic of Slovenia,” first unofficial draft in Sloven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Ljubljana [unofficial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www.mzz.gov.si/fileadmin/pageuploads/Zunanja_politika/ZDH/Zakoni_in_dokumenti/ReMRSHP_ang_FIN.pdf (접속일: 2018.04.13.).

OECD. 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lovenia 2017.” Paris: OECD.

CEP 홈페이지: https://www.cep.si/ (접속일: 2018. 04. 13.).

CMSR 홈페이지: http://www.cmsr.si/ (접속일: 2018. 04. 13.).

ITF 홈페이지: https://www.itf.si/ (접속일: 2018. 04. 13.).

MFA of Slovenia 홈페이지: http://www.mzz.gov.si/ (접속일: 2018. 04. 13.).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24. 스페인(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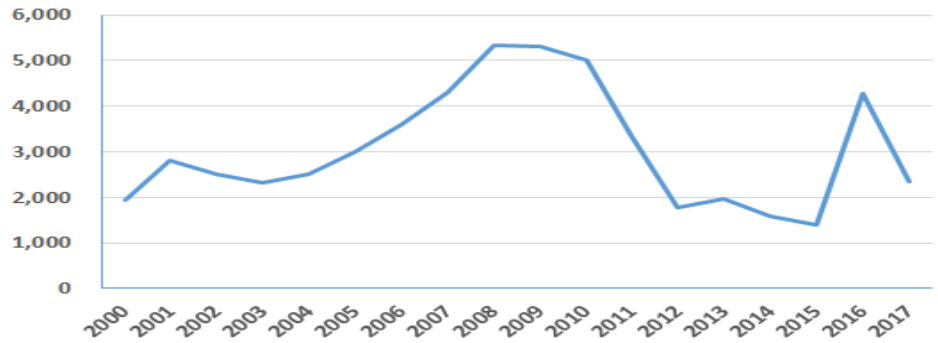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구 식민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국가 집중 지원

○ **(현황)** 스페인 원조규모는 2010년경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5년간 급감하였으나, 2016년에 원조규모를 다시 확대하였고 2017년 원조규모 2,351백만달러 및 ODA/GNI 비율 0.19% 기록

〈그림 127〉 스페인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구 식민지 국가인 중남미 지역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스페인의 대외원조 역사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짧으며, 1988년에 "국제개발협력법안(La Ley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을 통과시키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함.[190]

○ **(핵심문서)** 스페인의 종합적인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스페인 협력마스터플랜(Plan Director de la Cooperación Española)"을 2001년부터 매 4년마다 발표

○ **(분절화)** 주무부처인 외교협력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대표 원조기관인 개발협력청(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AECID)을 포함한 14개 중앙부처, 17개 자치정부 등이 ODA를 수행하며, AECID를 중심으로 원조분절화 해소 노력을 강구함.

190) 김종섭 외. (2012) p370.

□ **(예산)** 외교협력부에서 제안한 예산을 재정 및 공공기능부(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Function, 이하 재무부)가 조율하고 의회가 최종심의 및 의결

○ 기존에 ODA의 주된 공급자였던 외교협력부는 예산삭감의 영향으로 인해 스페인 ODA에서의 비중이 2017년 기준 23%(559백만유로)를 차지했고, 재무부의 비중이 40%(989백만유로)를 차지함.

○ **(원조예산 수립과정)** 정부의 ODA 규모가 정해지면 외교협력부와 AECID, 재무부가 협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수립

○ 스페인 지방정부 또한 각자의 예산을 배정하여 원조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주로 시민단체에 위임하여 운용[191]

〈표 87〉 스페인 ODA 예산항목

2017년도 ODA 예산 항목	백만유로	백만달러
외교협력부	559	620
장차관 및 일반	1.8	2
유럽연합 부문	0	0
국제협력 및 이베로-아메리카 부문	228	253
개발촉진기금(FONPRODE)*	199	221
수자원위생기금(FCAS)**	15	17
국제백신개발채권	9	11
개발협력프로그램	5	5.2
외교 부문	76	85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AECID)	228	253
스페인어 교육담당 기관(Instituto Cervantes)	24	27
재무부	989	1,098
유럽연합 기여금	989	1,098
경제경쟁력부	372	413
국제금융기관	322	358
부채탕감	49	54
기타	1	1.1
기타부서	258	286
자치 및 지방 협력	273	303
전체	2,451	2,720

* El Fondo para la Promoción del Desarrollo

** Fondo de Cooperación para Agua y Saneamiento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spain) (접속일: 2018. 0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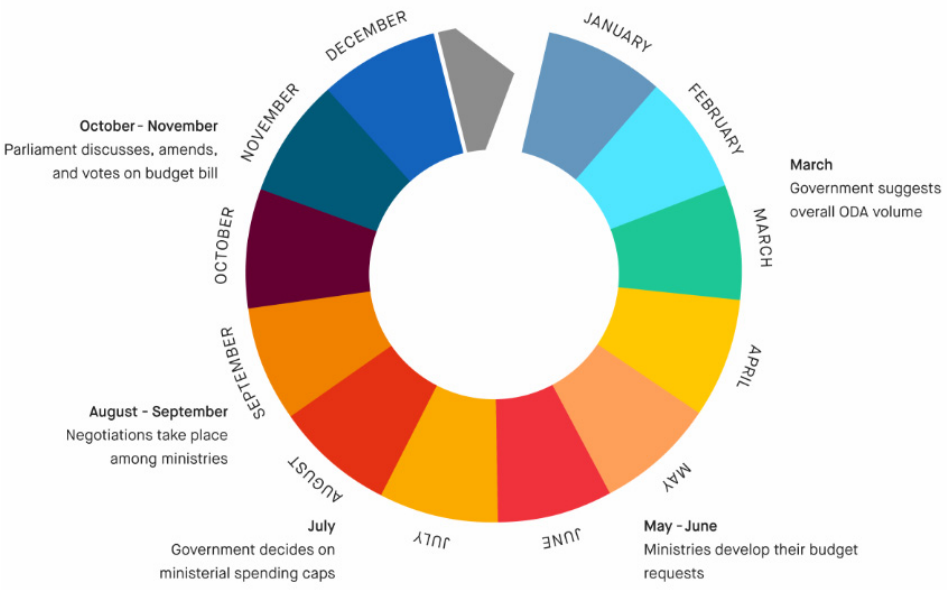
191) 김종섭 외. (2012) p382.

□ **(의회승인절차)** 정부가 전반적인 ODA 규모를 제안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친 후 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ODA 집행

○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가 큰 틀에서의 ODA 방향을 결정하며,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총리와 재무부장관, 외교협력부장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192]

○ **(의회승인 처리과정)** 1) 3월에 정부가 대략적인 ODA 규모를 제안; 2) 5-7월에 각 부처가 부처별 예산안을 작성; 3) 7월에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4) 8-9월에 부처별 협상이 진행되고 주무부처인 외교협력부가 재무부와 지출사항 협의; 5) 10-11월에 의회의 토의·예산안 수정·표결 과정이 진행됨.

〈그림 128〉 스페인 ODA 예산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spain) (접속일: 2018. 03. 09.)

192)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spain) (접속일: 2018. 03. 09.)

□ **(지역배분)** 최근 스페인의 원조는 중남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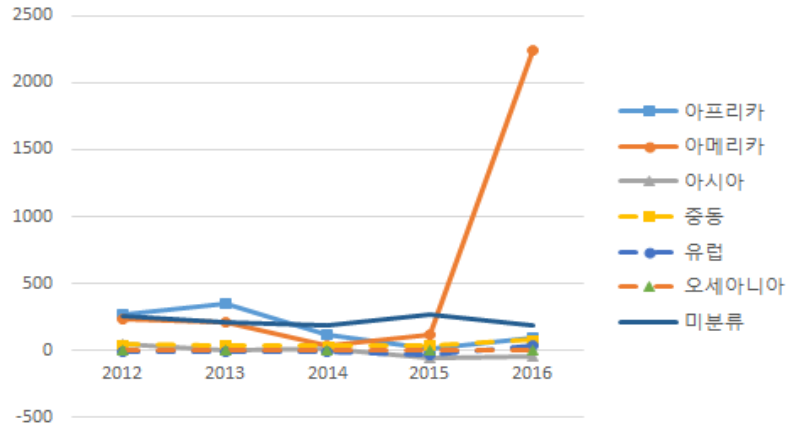
○ 스페인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2016년 아메리카의 원조비중이 급증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메리카(2,841, 56.9%), 미분류(1,119, 22.4%), 아프리카(849, 17.0%), 중동(240, 4.8%) 등

⇒ 2016년 쿠바에 대한 부채탕감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메리카 지역의 원조비중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129〉 스페인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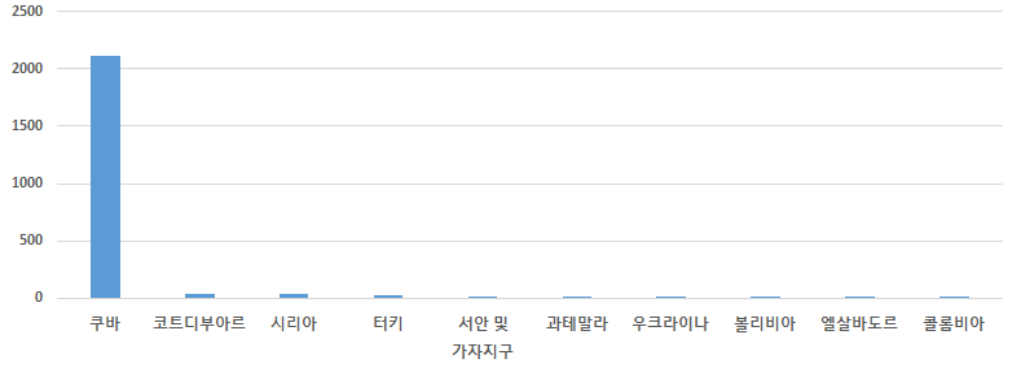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쿠바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쿠바에 대한 원조 규모는 2015년 126백만달러에서 2016년 2,118백만달러로 약 1500% (1,992백만달러) 증가

⇒ 스페인은 쿠바와 미국의 관계정상화 등 쿠바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쿠바와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부채탕감 단행

〈그림 130〉 스페인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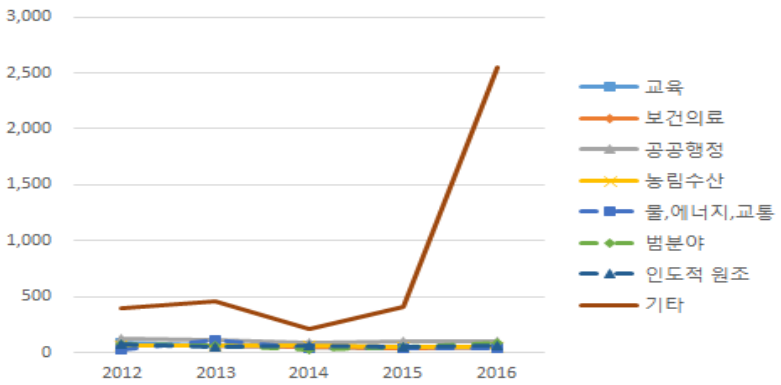
□ **(분야배분)** 일시적으로 부채탕감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에는 비교적 균등한 규모의 금액 지원

○ 최근 기타분야를 제외한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2016년 쿠바에 대한 부채탕감으로 인해 당해 기타분야의 비중이 급증

〈그림 131〉 스페인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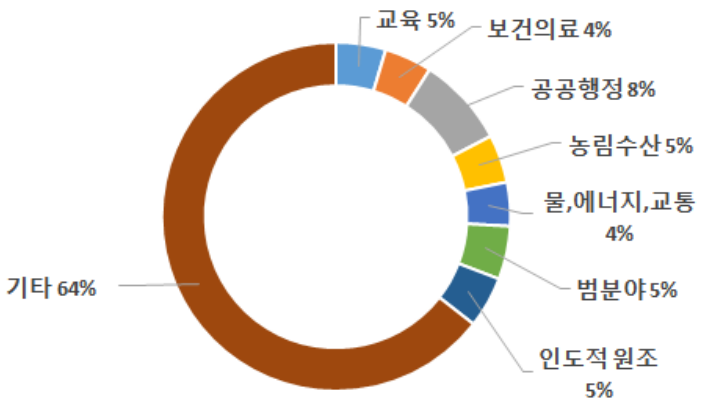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스페인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6,258백만달러이며, 그 중 부채탕감을 포함하는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4,033, 64.4%), 공공행정(522, 8.3%), 범분야(309, 4.9%), 인도적 원조(297, 4.7%) 등

⇒ 2012-2016년 부채관련 지원 금액은 부채탕감, 개발관련 부채스왑 등을 포함하여 2,640백만달러 규모로 나타남.

〈그림 132〉 스페인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스페인 개발협력청(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전략 및 목표)** 빈곤감소와 사회통합, 협력국 국민들의 인권보장 등을 주요목표로 설정하며 이를 위해 기술협력, 경제협력, 인도적 원조, 개발교육 등의 수단을 동원함.

○ 외교협력부와 AECID에서 4년마다 발표하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목표를 구체화하며, 전략과 지침을 관리

○ AECID는 외교협력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 개발 촉진; 2) 국제관계 균형; 3) 긴급사태 관리; 4) 민주주의 확립 등의 우선순위를 통해 목표를 설정

○ 외교협력부·AECID 마스터플랜의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국가들을 선정하며, "제4차 스페인 협력마스터플랜"에서는 23개의 파트너국가 선정

⇒ 파트너십 국가: 총 23개국으로 구성되며 중남미 12개국, 북아프리카·중동 4개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3개국, 중부·동부·남부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1개국으로 구성[193]

〈표 88〉 AECID 전략

전략목표	달성지표
1.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AECID의 역량 집중	• AECID에 의해 관리되는 4차 개발계획 대상국에 대한 양자 간 ODA 비중을 2017년까지 80%로 확대
2. 더 큰 효과를 위한 차별화된 계획과 시행전략	• 운용계획(Operational Plan)완료 협력국 비율 100%(23개국) 달성 • 중-고소득국과의 새로운 협약 7개로 확대 • AECID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양자 간 ODA 비율 32%에서 50%로 확대
3. 협력 주체들과 전략적인 관계 정립	• 민간분야와 진행하는 이니셔티브의 개수 25개로 확대 • 인도적지원사무소(Humanitarian Action Offices) 지원 매커니즘 조정
4. 결과지향 관리와 학습의 시행	• 운용계획 사후관리(follow up) 보고 완료율 100% 달성
5. 조직의 역량 강화	•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1인당 연간 교육시간 15시간 달성 • 폐쇄 해외협력사무소(External Cooperation Units) 수 5개에서 21개로 확대
6. 응집력 있는 조직 달성	• 통합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프로세스 20개로 확대
7. 개발협력에 관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매년 연차보고서 발간 • 시행되는 투명성 조치 비율 100% 달성
8. 효율성 개선 및 문화·과학 협력 강화	• 문화 활동과 관련한 공적·사적 협력기관 35개 달성 • 과학분야에 지속적 협의를 갖는 대사관 20개 확보

자료: AECID(2014)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스페인의 ODA는 외교협력부와 AECID, 경제경쟁력부(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Competitiveness), 재무부 등의 부처에 의해 운영되며, 지방정부 또한 스페인 ODA의 주요부분을 차지

○ 주무부처인 외교협력부는 ODA 정책을 총괄하고 AECID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경제경쟁력부는 국제금융기구 및 부채탕감 등 기금관련 이슈를, 재무부는 유럽연합에 대한 분담금을 담당

193) 중남미(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북아프리카·중동(모리타니, 모로코, 서사하라, 팔레스타인), 사하라이남(말리, 니제르, 세네갈), 중부·동부·남부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적도기니, 모잠비크), 아시아(필리핀) 지역의 23개국

⇒ 외교협력부 산하부서인 개발협력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SGCID)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계획·관리·수행·평가 업무를 비롯해 해외 문화활동 조정 업무를 담당

○ AECID 조직은 크게 6개의 주요부서로 구성되며 1)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협력부서; 2) 아프리카·아시아협력부서; 3) 다국적·수평적 금융협력부서; 4) 문화·과학부서; 5) 인도적행동부서; 6) 사업지원부서로 구분[194]

○ AECID 해외조직으로는 크게 기술협력사무소(Oficinas Técnicas de Cooperación), 문화센터(Centros Culturales), 교육센터(Centros de Formación)가 있으며 주로 현지 대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195]

⇒ AECID는 해외지역에 기술협력사무소 31개, 문화센터 13개, 교육센터 1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기술협력사무소 16개, 문화센터 11개, 교육센터 4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력)** 직원규모 및 동기부여, 성과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 혼재

○ 외교협력부는 2014년 기준 1,095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AECID 인력이 1,063명, SGCID 인력이 32명으로 집계

⇒ AECID 인력은 마드리드 본부에 460명, 해외사무소에 603명이 근무

○ ODA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의 전체적인 규모를 유지한 부분은 OECD DAC 동료검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직원 동기부여와 조직성과에 관한 문제점들이 개선필요 사항으로 지적됨.[196]

○ 고용형태: 본부의 경우 인력의 15%만이 계약직 직원이나, 해외인력은 모두 각기 다른 계약기간을 갖는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197]

---

194) AECID의 자세한 조직도 및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AECID 홈페이지(http://www.aecid.es/EN) 참고
195) 기술협력사무소(알제리,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필리핀, 과테말라, 적도기니, 아이티, 온두라스, 요르단,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멕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니제르,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세네갈, 우루과이), 문화센터(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교육센터(볼리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우루과이 등) AECID 홈페이지 (http://www.aecid.es/EN/aecid/structure/aecid-abroad-uce-directory) (접속일: 2018. 05. 23.)
196) OECD. (2016) p58.
197) OECD. (2016) p59.

〈표 89〉 AECID, SGCID 인력변화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AECID 전체	1,144	1,115	1,081	1,063
본부	505	485	472	460
해외	639	630	609	603
SGCID 인력				
본부	25	25	27	32
외교협력부 전체	1,169	1,140	1,108	1,095

자료: MAEC & SGCID(2015)의 내용을 OECD(2016)에서 재인용

□ **(주요사업)**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

○ 스페인의 ODA는 AECID에 의해 관리되는 수자원위생기금(FCAS), 개발촉진기금(FONPRODE) 등을 통해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에 집중되는 경향

○ 국제사회의 흐름은 최빈국의 빈곤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에 반해, 스페인은 저소득국보다 중소득국으로의 원조가 높은 비중 차지[198]

⇒ 스페인의 주요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지원으로 평가됨.[199]

○ AECID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198) 김종섭 외. (2012) p391.
199) 김종섭 외. (2012) p380.

〈표 90〉 스페인 AECID 주요 사업 개관

	수자원위생기금 (FCAS)	개발촉진기금 (FONPRODE)
배경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위생 취약 지역을 돕기 위해 2007년 말에 조성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활동 시작	• 개발원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원조기금(Fondo de Ayuda al Desarrollo)과 소액대출기금(Fondo para la Concesión de Microcréditos)을 통합하여 2011년에 출범
비전	• 수자원과 위생상태의 가용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국제농업개발기금 등의 다국적 개발 기관,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에 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원조의 효과성·일관성·투명성 확보
전략 목표	•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인권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SDGs 6 달성에 기여	• 불평등 개선과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달성 • 인권옹호 •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및 빈곤 근절
중점 추진 분야	• 19개 파트너 국가에서 수자원 관련 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경영 강화 •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 국가 간 지원 •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 간 지원 • 소액금융 프로그램 지원 등 상환 및 비상환 자금에 대한 지원 촉진

자료: AECID 홈페이지(http://www.aecid.es/EN/aecid)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접속일: 2018.03.09.)

참고문헌

김종섭 외. 2012.『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ECID. 2014. “2014-2017 Strategic Plan of the Spanish Agency for Cooperation.” Paris.

MAEC & SGCID. 2015. “Memorandum of Spain for the 2015 Peer Review.” Madrid: Ministry of Foreign Affiars and Cooperation.

OECD. 201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pain.” Paris: OECD.

AECID 홈페이지: http://www.aecid.es/EN/aecid (접속일: 2018. 03. 09.).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spain (접속일: 2018. 03. 16.).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25. 스웨덴(Sweden)

가. 원조개요

□ **(총괄)** 원조의 개념보다 '파트너십'과 '협업'의 의미를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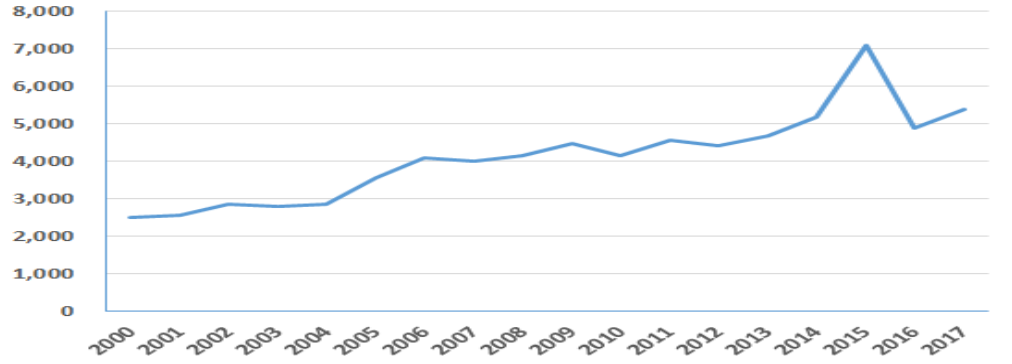
○ **(현황)**[200] 2000년 이후 스웨덴의 원조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며, 2017년 기준 5,380백만 달러를 공여

○ 스웨덴은 ODA/GNI 비율이 DAC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가로 2017년 기준 1.01%를 공여

⇒ 자국 GNI에서 최소 1%를 ODA 예산으로 할당할 것으로 설정하였고, UN이 DA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세운 GNI 대비 0.7%의 ODA 공여율 목표치를 197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회

〈그림 133〉 스웨덴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21.).

○ **(핵심문서)**[201] 스웨덴 외교부가 2016년 12월 14일에 제정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는 스웨덴 개발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스웨덴 정부의 최상위 원조정책문서로, 2013년에 제정된 "원조정책 프레임워크(Aid Policy Framework)"를 대체하여 수립됨.

200)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 (접속일: 2018.03.13.)
201) Government of Sweden. (2016).

○ **(정책일관성)** 2003년 5월 스웨덴 의회는 원조정책을 포괄하는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글로벌 개발정책(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을 채택하여 스웨덴 모든 분야의 정책이 국제개발에 가지는 효과와 함의를 고려하고, 일관성 있는 원조정책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202]

□ **(예산)**[203] 스웨덴 외교부가 스웨덴 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이하 Sida)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짐.

○ 외교부가 매년 연간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방향 등이 담겨져 있는 예산세출안(Letter of Appropriation)을 Sida 사무청장에게 제시

○ 스웨덴 정부의 2018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분야 7"인 개발협력 분야가 ODA 프레임[204]의 88%인 5십억달러를 차지

⇒ Sida는 "예산분야 7"의 예산 중 58%(2.9십억달러)를 관리

○ Sida가 관리하는 예산에는 특정 지역의 양자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할당, 주제별 개발협력과 시민사회와 인도적 원조에 대한 예산 할당이 포함

202)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ernment.se/) (접속일: 2018.03.13.)
203)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 (접속일: 2018.03.13.)
204) 'ODA 프레임': 스웨덴 정부는 GNI의 1%를 ODA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을 'ODA 프레임' 이라고 지칭함. ODA 프레임은 스웨덴 국제원조의 전체 예산 7개 분야와 기타 ODA 비용으로 분류된 자국 내 난민 비용, EU 분담금, 외교부 행정 비용 및 기타를 합한 금액임.

〈표 91〉 2018년 스웨덴 ODA 예산항목

구분	백만달러	백만스웨덴크로네
예산 분야 7: 국제 원조	5,020	42,984
Sida	2,897	24,800
양자협력	1,441	12,340
주제별 협력	566	4,845
인도적 지원	473	4,050
스웨덴 시민사회단체 지원	213	1,825
연구 협력	107	920
역량개발 및 아젠다 2030	78	670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18	150
외교부	1,771	15,164
다자협력 기관(UN 기관) 및 기금	1,209	10,350
다자개발은행, 채무 경감	415	3,550
전략적 무상원조	148	1,264
기타 기관	192	1,643
행정비용 (Sida 행정비용 포함)	161	1,378
기타 ODA 비용	698	5,972
자국 내 난민 비용	322	2,752
EU 분담금	240	2,059
외교부 행정 비용	49	416
기타(예: UN 산하기관 지원)	87	745
전체 ODA(ODA 프레임)*	5,718	48,956

* 총합과 각 세부항목의 합은 차이가 있으나 이 자료는 원 자료의 값을 그대로 반영함.
자료: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 (접속일: 2018.06.15.)

□ **(의회승인절차)**[205] Sida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에 제출하면 재정부가 신청한 재정정책입안서에 따라 12월경에 의회가 최종 승인

○ 예산안 작성 시의 주요 의사결정자는 Sida의 사무청장과 지역별 부서이며, 작성된 지출 추정치를 기반으로 재정부가 예산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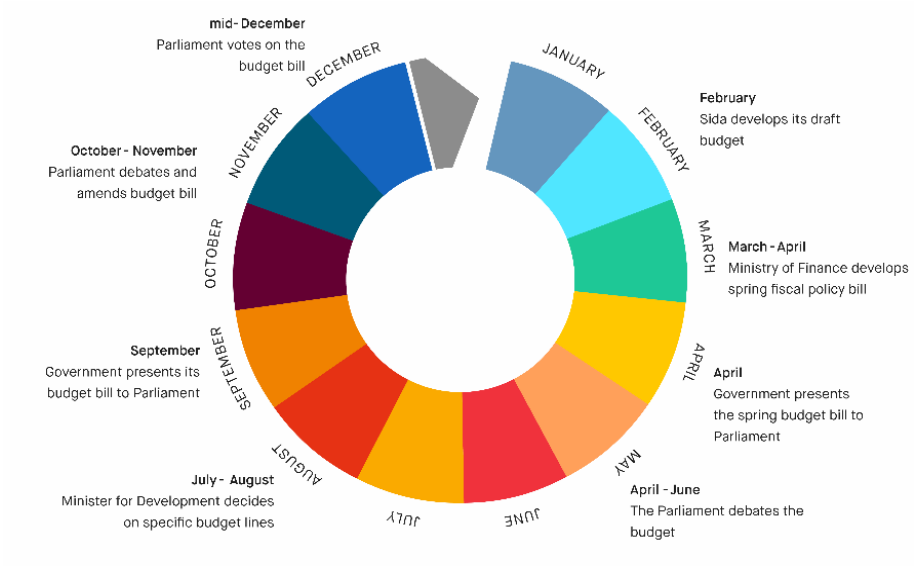
⇒ 스웨덴 ODA 예산은 GNI 규모에 따라 ODA/GNI 비율을 맞추기 위해 책정되는 형태

○ **(의회승인 처리과정)** 1) 정부의 예산안 제출; 2) 의회의 예산 심의·수정; 3) 의회 승인 및 정부지출 예산안 확정

⇒ 12월 중순 경 예산 최종결의가 내려지면 Sida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과 지역별, 주제별 이슈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할당이 이루어짐.

205)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 (접속일: 2018.03.13.)

〈그림 134〉 스웨덴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접속일: 2018.03.13.)

□ **(지역배분)**[206] 아프리카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형태

○ 2016년을 기준으로 미분류를 제외하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약 24.4%(842백만달러)를 차지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9,767, 53.9%), 아프리카(4,591, 25.3%), 아시아(1,527, 8.4%), 중동(963, 5.3%), 유럽(714, 3.9%) 등

○ 2015년 미분류에 대한 급격한 증가는 최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내유입 난민지원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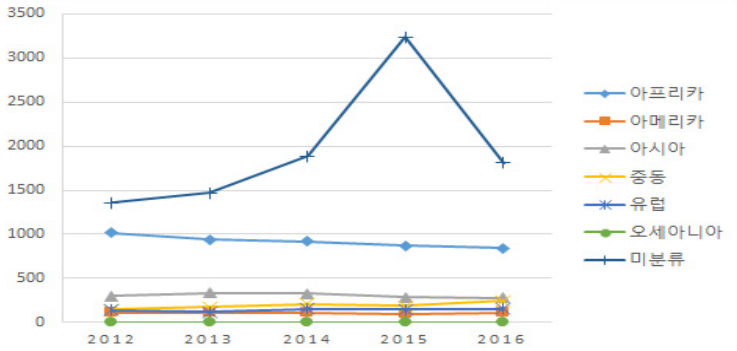
○ **Sida**는 2007년 67개국이던 파트너국가 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하는 원조경향이 나타남.[207]

206)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접속일: 2018.05.28.)

207) Sida 홈페이지(https://www.sida.se/English/)(접속일: 2018.07.10.)는 파트너국가로 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잠비크, 르완다,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아시아(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라크, 미얀마, 팔레스타인, 시리아), 유럽(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코소보, 몰도바, 러시아,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라틴아메리카(볼리비아, 콜롬비아, 쿠바, 과테말라)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135〉 스웨덴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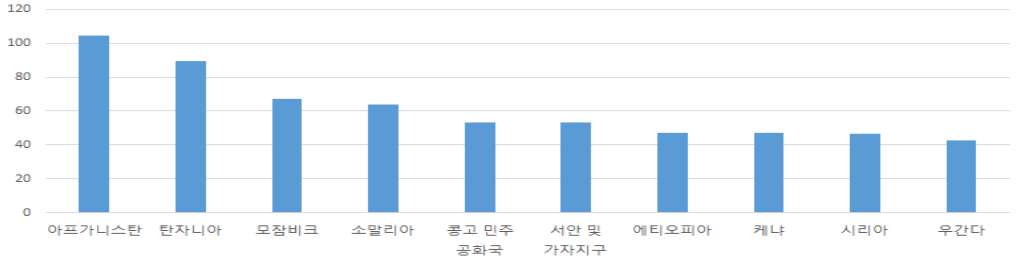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104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 모잠비크, 소말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이 차지

〈그림 136〉 스웨덴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분야배분)** 단일 분야로는 공공행정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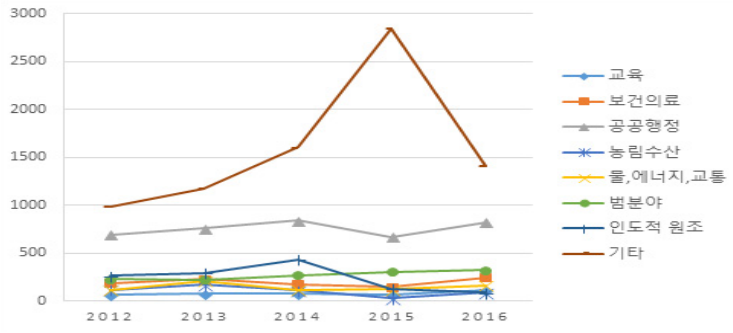
○ 2012-2016년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추이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

○ 2015년에 나타난 기타 분야의 급증은 공여국 내 난민지원에 기인하며, 기타 분야의 약 81%, 2015년 스웨덴의 전체 양자 간 원조 총액의 약 48.8%를 차지

⇒ 2012-2016년 기타 분야에서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63%, 금액으로는 총 5,179백만달러를 공여

〈그림 137〉 스웨덴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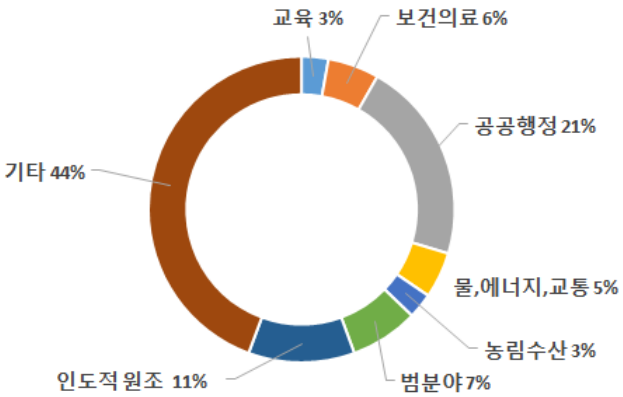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스웨덴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8,454백만달러이며 그 중 단일 분야로는 공공행정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8,189, 44.4%), 공공행정(3,950, 21.4%), 인도적 원조(2,070, 11.2%), 범분야(1,328, 7.2%) 등

⇒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스웨덴 원조의 특성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8]

〈그림 138〉 스웨덴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 05. 18.)

208) Donor Tracker 홈페이지(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접속일: 2018.03.13.)

○ 위에 나타난 분야 외에 Sida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제별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민주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2) 성평등; 3) 환경과 기후; 4) 보건; 5) 시장 개발; 6) 농업과 식량 안보; 7) 교육; 8)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9) 분쟁, 평화, 안보; 10) 인도적 지원

나. 스웨덴 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전략 및 목표)** Sida는 스웨덴 의회와 정부를 대표하는 스웨덴의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이며 외교부가 수립한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수행하는 역할을 함.

○ Sida가 수립하는 전략은 특정 분야 및 국가에 맞춘 개별 전략이며, Sida 조직의 포괄적인 전략은 스웨덴 외교부에서 수립한 전략문서를 따름.

⇒ 스웨덴 외교부가 수립한 개발협력분야 전략 문서 내에 Sida의 역할 및 행동 전략이 명시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Sida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외교부 발간 주제별 전략문서는 1) Sida를 통한 스웨덴의 인도적 원조 전략 2017-2020[209]; 2) 인권, 민주주의, 법치분야에서의 스웨덴 개발협력 전략 2018-2022[210]; 3) 환경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기후 및 해양,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 분야에 대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8-2022[211] 로 대표되며 각 전략문서에서 구분한 Sida의 역할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9) Strategy for Sweden's Humanitarian Aid provided through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Sida) 2017-2020

210) 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18-2022

211) 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Climate and Oceans,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2018-2022

〈표 92〉 스웨덴 개발협력 전략문서 내 Sida의 역할 및 전략

전략문서	Sida의 역할	
Sida를 통한 스웨덴의 인도적 원조 전략 2017-2020	1. 니즈에 기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대응 2.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증대된 보호 및 인도적 원칙과 국제 인도법에 대한 존중심 증대 3.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 증대 4. 인도주의 시스템에서의 수용력 및 효과성 증대	
인권, 민주주의, 법치분야에서의 스웨덴 개발협력 전략 2018-2022	1. 포용적 민주적 사회	•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의 원칙, 절차, 거버넌스 강화 • 민주주의적 참여 및 영향의 증대 • 표현의 자유를 가능케 할 전제조건의 강화
	2. 만인에게 동등한 인권	• 인권 향유를 위한 국제 및 국내적 절차와 시스템의 강화 • 차별에 취약한 국가에 초점을 둔 인권에 대한 존중심 강화 • 여성과 여아의 완전한 인권 향유, 권한 부여와 성평등을 위한 전제조건 강화
	3. 안보, 정의, 책무성	• 부패감소 및 투명성과 책무성의 증대 • 법치의 강화 및 정의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인권옹호 종사자들에 대한 안보 및 안전성 증대
환경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기후 및 해양,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 분야에 대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8-2022	1. 기후 회복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발전	• 기후 변화 및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 빈곤한 사람들의 취약성 감소 및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 자연 보호와 복원의 강화, 육상 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종, 농업과 임업 및 생태계 서비스를 포함한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사용 •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 도시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서비스 및 거주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예방 화학 물질 관리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3. 지속가능한 해양 및 수자원	• 해양, 연안 및 담수 생태계, 생물 다양성, 천연 자원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호 및 복구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사용 • 깨끗한 수자연과 해양, 오염 물질 및 쓰레기 배출 감소

자료: 상기 스웨덴 외교부 문서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212] Sida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개발협력의 정책 시행을 담당하며 정책 계획 및 예산할당에 관한 권한은 외교부 장관에게 있음.

○ 외교부 내의 국제개발협력부서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가 Sida업무의 관리와 평가를 담당함과 동시에 ODA 프레임워크 하에 ODA 예산을 할당받는 기관들의 예산 편성을 담당

○ Sida 본부의 경우 내부감사실과 사무청장실외에 8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며, 해당 부서들은 다섯 개의 사업실행 부서와 세 개의 업무지원 부서로 구분됨.

⇒ 8개의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1) 인사 부서; 2) 관리지원 부서; 3) 경영지원 부서; 4) 아프리카 부서; 5) 아시아·중동·인도적원조 부서; 6) 유럽·중남미 부서; 7) 파트너십과 혁신 부서; 8) 국제기구와 정책지원 부서

○ Sida는 조직 내에서 최상위 관리 기구인 간부회(Governing board)에 의해 관리되며, 간부회는 Sida 업무의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전책임을 갖고 있음.

⇒ 간부회의 사무청장은 간부회의 지침에 따라 Sida의 운영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인력)**[213] 여성인력 비율이 높으며 현지 사무소 대신 현지 스웨덴 대사관에 Sida 직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음.

○ 2016년 6월 기준 Sida의 인력은 총 782명이며, 150명 가량이 스웨덴 국외인 총 40개국의 스웨덴 대사관에서 근무 중에 있고, 총 인력 중 65% 가량이 여성 인력으로 구성

○ Sida와 스웨덴 외교부는 또한 유엔, 세계은행, 유럽연합과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 **(주요사업)** Sida는 주제별 중점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업무를 강조

○ Sida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업을 진행하며 협력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한 효과적인 빈곤감소를 지원 및 추진 중

○ 스웨덴 정부가 제정한 개발협력 정책의 수행자로써 역할 하는 Sida 조직의 특성상 Sida가 직접적으로 기획 및 실행하는 주요사업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

212) Sida 홈페이지(https://www.sida.se/English/) (접속일: 2018.03.13.).
213) 상동

○ Sida의 주요업무가 평가관리임에 따라 Sida는 독립적인 평가 전략을 갖고 있으며, 스웨덴 개발협력의 다양한 방법론적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특히 Sida는 스웨덴 개발협력 시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툴박스(Toolbox)를 개발함으로써 스웨덴 개발협력이 강조하는 주제별 분야에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Sida가 개발한 주요 방법론적 자료 및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93〉 Sida의 스웨덴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및 주요사업 개관

	Sida의 툴박스(Toolbox)	Sida의 인권기반접근*	국제 훈련 프로그램**
배경	• 스웨덴 개발 협력 운영 과정에서 직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도록 개발되기 시작	• 빈곤한 이들에 대한 스웨덴의 업무를 안내하는 인권기반접근의 법적 배경과 원리 및 이를 준수하는 Sida만의 적용법에 대해 소개	•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국가 및 참가생들이 스스로의 자본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 중저소득국가 출신의 자격을 갖춘 참가자들 대상으로 전문 훈련 프로그램 제공
비전	• 각 주제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련 지식 및 방법을 제공하여 '도구' 및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데에 목적을 둠.	• Sida 인권기반접근의 적용은 '어떤(what)' 인권의 달성과 '어떻게(how)' 이를 달성하는지 두 가지를 포괄하는 데에 목적을 둠.	• 개별 국가 및 단체에서 개혁의 결정권을 지닌 참가생들에게 훈련의 자격이 주어지며, 해당 프로그램의 이수가 관련 조직의 향상된 변화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둠.
전략 목표	• Sida의 직원이 주 독자층임에 따라 시의적절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업데이트와 구체적인 방법 제공	• Sida는 스웨덴 개발협력의 시행에 있어 인권기반접근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P.L.A.N.E.T.의 약어로 소개: 1. 참여(Participation) 2. 인권과의 연계성(Links to human rights) 3. 책무성(Accountability) 4.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5. 권한부여(Empowerment) 6. 투명성(Transparency)	• 개별 역량 강화 훈련이 아닌 참가자가 속한 단체 및 분야의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킴이 목적
중점 추진 분야	• 빈곤 툴박스 (Poverty Toolbox) • 젠더 툴박스 (Gender Toolbox) • 녹색 툴박스 (Green Toolbox) • 평화와 분쟁 툴박스 (Peace and Conflict Toolbox)	1. 주제별 분야: - 교육과 기술 개발 - 환경과 기후 - 민주적 거버넌스 - 건강 - 시장 개발 - 평화 구축 - 민간분야 협력 - 연구 - 지속가능한 시골 생계 제도 - 물과 위생 - 성평등 2. 장애인 인권 3. 성소수자 인권 4. 아동인권	•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분야는 협력국가의 사회적, 환경 적 및 경제적 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협력국이 선정한 우선순위와 니즈에 기반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t Sida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s, ITP

자료: Sida 홈페이지(https://www.sida.se/English/)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접속일: 2018.07.01.).

참고문헌

Government of Sweden. 2017. “Strategy for Sweden’s Humanitarian Aid provided through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Sida) 2017-2020.” Appendix to Government Decision.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16. “Policy Framework for Swedish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17. “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18-2022.”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018. “Strategy for Sweden’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Climate and Oceans,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2018-2022.”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 (접속일: 2018.03.13.).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sweden (접속일: 2018.03.13.).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05.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5.18.).

Sida 홈페이지: https://www.sida.se/English/ (접속일: 2018.03.13.).

26. 스위스(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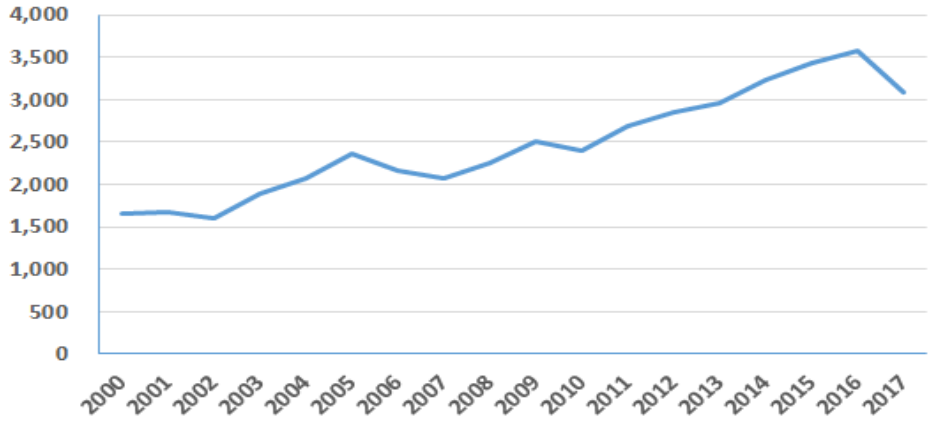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다년간의 인도적 지원 경험에 바탕을 둔 원조사업 수행

○ **(현황)** 2000년 이후 원조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7년에 감소하여 3,084백만달러 규모 및 ODA/GNI 비율 0.46% 기록

〈그림 139〉 스위스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1976년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에 관한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하 SDC) 출범

⇒ 원조업무 담당조직의 이름을 SDC로 변경하면서 스위스 개발협력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고자 하였으며 UN,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 강화 도모

○ **(핵심문서)** 2016년 "스위스 국제협력중기계획(Dispatch on Switzerla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2020)"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스위스의 책임성 강조

○ **(분절화)** 원조를 담당하는 SDC와 연방경제정책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이하 SECO)외에도, 기타 연방부처 및 자치단체가 ODA에 관여

⇒ 2013년 OECD DAC 동료검토는 스위스의 원조가 여러 국가에 산재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효율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원조 권고[214]

□ **(예산)**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에서 분야 및 기간별 예산을 결정함.

○ 2016년 스위스 연방정부 전체 ODA 예산 중 SDC와 SECO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며, 망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국의 비중이 약 20%를 차지

○ 연방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실시하는 경우 ODA 예산이 축소되며, 2016년에 이로 인한 175백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국제협력 분야 예산이 감소한 바 있음.[215]

⇒ 연방평의회에서 2018–2020 기간의 국제협력 예산을 450백만 스위스프랑 만큼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2020 중기전략의 일부 프로젝트에 수정 및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216]

214) OECD. (2014) p40-50.
215) SDC & SECO. (2017) p6.
216) 상동

〈표 94〉 2016년 스위스 ODA 예산 배분

(단위: 백만스위스프랑)

구분	양자 간 ODA	다자 간 ODA	전체 ODA
연방	2,666.6	768.2	3,434.8
개발협력청(SDC)	1,508.2	668.8	2,177
인도적 원조	424.6	56.2	480.8
개발협력	929.1	611.5	1,540.6
동유럽협력	154.6	1.1	155.6
연방경제정책청(SECO)	306.1	0.9	307
개발협력	227.3	0.4	227.7
동유럽협력	82.2	0.5	82.7
대출상환	-3.4	-	-3.4
외교부	108.9	36.3	145.3
분쟁조정 및 인권	73.6	20.6	94.2
기타 분담금	35.3	15.8	51.1
경제교육연구부	47.1	6.2	53.3
신흥시장을 위한 스위스개발기금	38	-	38
외국인 장학금	6.7	-	6.7
기타 부담금	2.4	6.2	8.6
이민국	682.1	-	682.1
망명관련	663.6	-	663.6
복귀지원	18.5	-	18.5
국방방재스포츠부	0.5	-	0.5
평화 및 안전 촉진	0.5	-	0.5
인도적 원조	-	-	-
환경부	8.4	39.6	47.9
국제기구 분담금	7.2	39.6	46.8
기타 연방 부처	5.3	16.4	21.7
지방자치단체	75	-	75
전체 ODA	2,741.6	768.2	3,509.8

자료: SDC & SECO(2017)

□ **(지역배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원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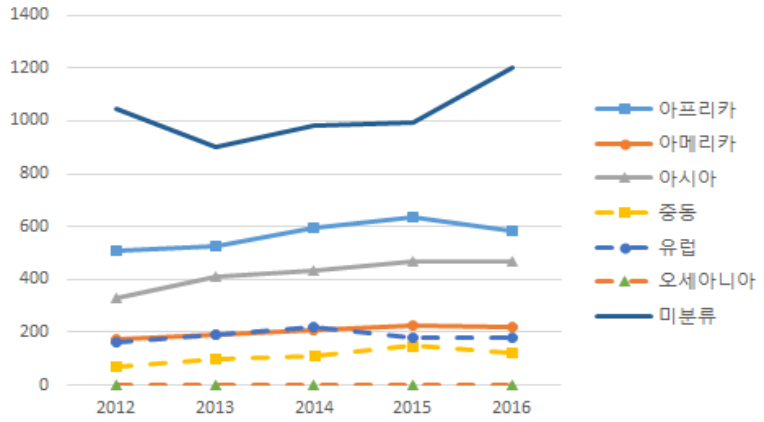
○ 단일 지역으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나, 미분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미분류(5,129, 40.8%), 아프리카(2,847, 22.6%), 아시아(2,108, 16.8%), 아메리카(1,016, 8.1%), 유럽(931, 7.4%) 등

○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데 반해, 최근 난민 관련 비용의 증가로 미분류 영역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140〉 스위스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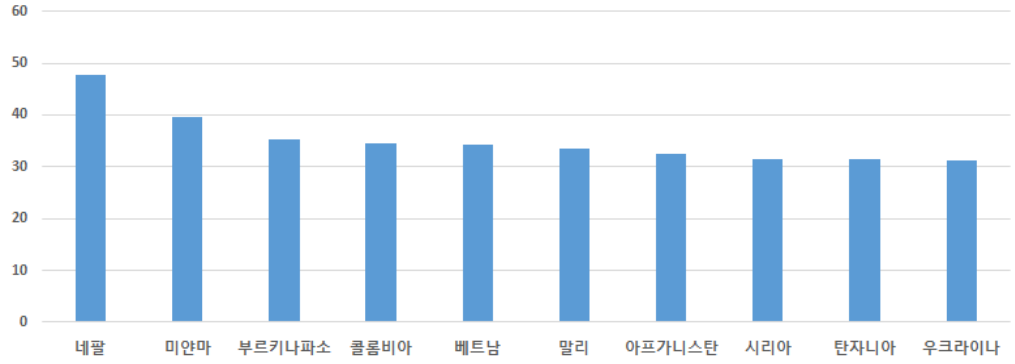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네팔,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콜롬비아 등의 순서로 많은 지원을 함.

⇒ 2016년 기준, 상위 10개 수원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약 13%(352백만달러)로,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분산된 형태의 원조 경향을 보임.

〈그림 141〉 스위스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 0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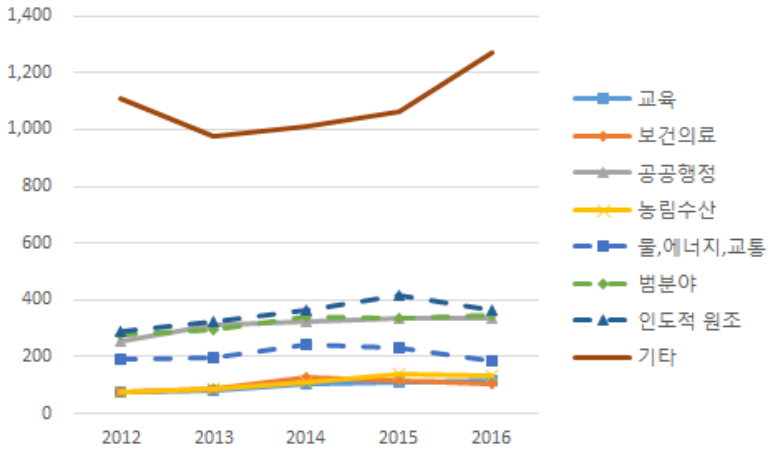
□ **(분야배분)** 주요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 가장 많은 비중 지출

○ 2012-2016년 난민 관련 비용 및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기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시기별로 일부 등락을 보임.

⇒ 난민 관련 비용은 2013년 416백만달러에서 2016년 691백만달러로 약 66% 증가하였으며, 인도적 원조 및 공공행정 분야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

〈그림 142〉 스위스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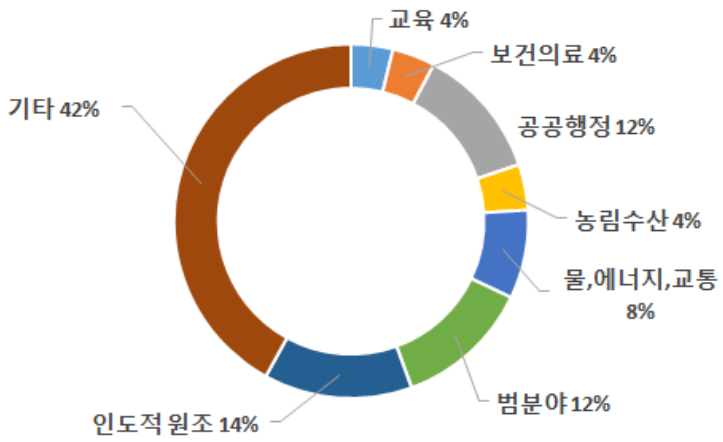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 05. 18.)

○ 2012-2016년 스위스의 양자 간 원조 지원 총액은 12,921백만달러이며 그 중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기전략에서 주요 전략목표로 제시된 인도적 원조 분야가 두 번째를 차지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5,425, 42.0%), 인도적 원조(1,750, 13.5%), 범분야(1,600, 12.4%), 공공행정(1,562, 12.1%) 등

〈그림 143〉 스위스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나.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전략 및 목표)**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위스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인류의 안전 및 가난의 종식을 강조[217]

○ SDC는 외교부(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의 산하에서 활동하며, 개발협력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SECO과 함께 스위스 ODA의 한 축을 담당

○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중기전략문서인 "스위스 국제협력중기계획"의 발표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시함.

217) FDFA & EAER. (2016) p3.

⇒ 빈곤퇴치 및 평화증진을 통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SDC는 아래의 다섯 가지 주요 전략목표(framework credits) 중 인도적 지원, 기술협력, 체제전환 협력분야의 업무를 담당함.

〈표 95〉 2017-2020 스위스 국제협력 중기전략

전략목표	담당기관	세부 과제
1. 인도적 지원 및 스위스의 인도적 지원 기구	SDC	• 증가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 충족(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 주제별 및 지리적 우선순위에 따른 인도적 지원(시민 안전 보호, 재난 위험 감소, 수자원 및 위생, 젠더기반 위험 완화 등)
2. 개도국을 위한 기술협력 및 금융 원조	SDC	•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양자 간 지원(SDC의 양자 간 원조 중 55%를 아프리카 및 중동에, 30%를 아시아에, 15%를 중남미에 지원) • 기후변화, 환경, 수자원, 식량 안보, 보건, 이주, 개발 등 글로벌 리스크 관리에 초점 •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와 소득창출 및 지역의 민간경제 활성화 • 기금, 네트워크 측면에서 국제기구(세계은행, 개발은행, UN 등)와의 공조 강화
3. 개발협력을 위한 경제 및 무역 정책	SECO	• 중소득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높이며, SECO의 경험 활용 • 고용 증대, 무역 경쟁력 확대, 친환경 경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4. 동유럽 국가에서의 체제전환 협력	SDC, SECO	•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확대, 민간 섹터의 잠재력 강화, 수자원 위생·발전 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네 가지 우선과제 설정
5. 평화와 인간안보를 위한 조치	HSD	• 인간안보부서(Human Security Division, HSD)에서 지역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평화정책, 인권정책, 이민정책 등에 관한 노하우 활용

자료: FDFA & EAER(2016)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SDC는 외교부 산하에서 다른 연방 기관들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 수행

○ 국제협력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 연방평의회 및 SDC와 SECO 등의 개발협력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정책 제시

⇒ 국제협력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의회, 비정부기구, 민간기업, 언론, 대학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20여명의 규모로 조직됨.

○ SDC 본부는 3개의 관리 조직(이사회직속부서, 재무계획 및 컨설팅, 제도적파트너십 담당)과 4개의 사업부서(글로벌협력부서, 남(South)협력부서, 동유럽협력부서, 인도적 지원부서)로 구성[218]

⇒ 4개의 사업부서의 경우, 각각 3개에서 9개의 하위 부서를 통해 지역별·분야별 사업 수행

⇒ 남협력부서는 아프리카 지역,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며 동유럽협력부서는 서발칸 지역을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및 신흥 유럽연합 국가들을 담당

○ SDC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며, 2017년 기준 양자협력 중점국 및 지역, 동유럽 지역, EU 국가, 인도적 지원 대상 지역으로 중점국가 및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음.[219]

□ **(인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높은 비중으로 현지인력 고용

○ 2015년 기준 553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369명이 베른 본부에, 184명이 해외사무소에, 1,170명이 해외현지 인력으로 근무[220]

⇒ SECO의 경제 및 개발협력 부서에는 93명의 본부직원, 24명의 해외사무소 직원, 104명의 해외현지인력 근무

⇒ 전체인력 중,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부문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동유럽 및 CIS국가 협력 부문에서는 해외현지 인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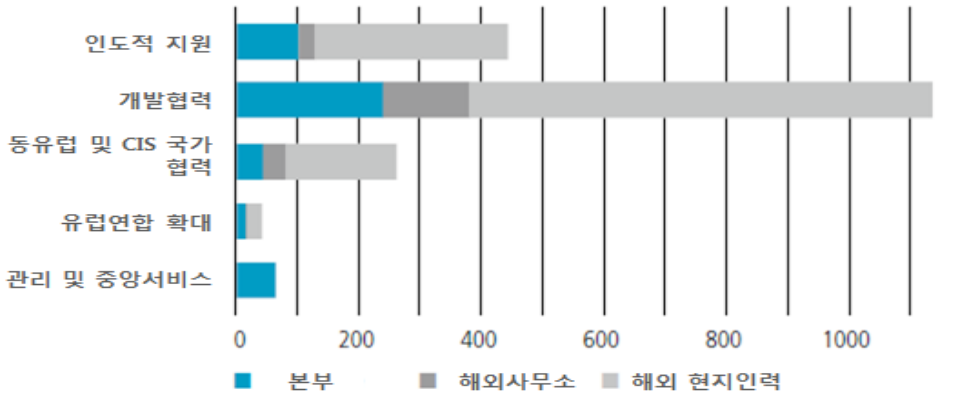
218) SDC의 자세한 조직도 및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SDC 홈페이지(https://www.eda.admin.ch/deza/en/home.html) 참고

219) 양자협력 중점국(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아프리카 대호수, 아프리카의 뿔,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남부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아프리카 및 중동, 힌두쿠시산맥, 방글라데시, 메콩, 미얀마, 네팔, 몽골, 볼리비아, 중앙아메리카, 쿠바, 아이티 등), 동유럽 및 CIS국가(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앙아시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몰도바, 세르비아, 남코카서스, 우크라이나), EU국가(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인도적 지원 수행지역(북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뿔(북동부 10개국), 아프리카 대호수(지구대 주변 호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차드지역, 남수단, 수단, 중동지역, 팔레스타인, 예멘, 미얀마, 북한, 콜롬비아, 아이티, 힌두쿠시 및 파키스탄) SDC 홈페이지(https://www.eda.admin.ch/deza/en/home.html) (접속일: 2018.05.23.)

220) SDC & SECO. (2016) p84.

〈그림 144〉 SDC 및 SECO 부문별 인력 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명)



자료: SDC & SECO(2016)

○ 2013년 OECD DAC 동료검토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개발협력 예산의 3.8%까지 인적자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SDC와 SECO의 인력 수준에 직접적인 제한으로 작용

⇒ OECD DAC은 SDC의 인력과 외교부의 인력을 통합하는 논리적 근거였던 '효율성의 개선'이 목표만큼 달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인적자원 관리 정책 및 인센티브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221]

□ **(주요사업)** 인도적 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중장기적 지원

○ 기술협력 및 금융 지원, 동유럽 국가 협력, 인도적 지원, EU 확장 등의 주요 분야에서 2015년 말 기준 1천개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을 도모하나, 연방평의회에서 채택한 2017-2019 지출 안정프로그램에 따라 ODA 사업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222]

○ SDC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221) OECD. (2014) p65.
222) FDFA & EAER. (2016) p38.

〈표 96〉 스위스 SDC 주요사업 개관

	아프리카 베냉 공공서비스 개선사업*	몽골 'Green Gold' 사업**	모잠비크 물 공급 및 위생 개선 사업***
배경	• 양질의 공공서비스 및 민주주의 활성화 필요성 증대	• 방목장 65% 이상이 손상되고, 몽골경제가 지나치게 광물 분야에 집중되는 문제 대두	• 모잠비크 니아사(Niassa) 주의 식수위생 수준이 국가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개선의 필요성 인식
비전	• 2020년까지 보르구(Borgou), 알리보리(Alibori) 주(Department) 14개 행정구역 주민의 삶 증진	• 지속가능한 방목지 관리, 마케팅 개선, 법·정책의 개선을 통한 목축업 가구의 생활개선	• 안전한 식수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위생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2021년까지 주민 삶의 질 개선
전략 목표	• 책무성 강화를 통한 지역 민주주의 확립 • 현지재원 동원 • 의사결정구조 개선 및 역량 증진	• 황폐화된 목초지 환경개선 • 품질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 가축의 건강상태 증진	• 물 및 위생인프라를 담당하는 관계당국의 역량강화 • 시민들이 관계당국에 관련 민원을 요청하는 능력 배양 • 정책 결정에 시민사회의 의사 반영
중점 추진 분야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체(civic engagement cells) 설립 • 미등록 기업의 등록 유도를 통한 세수 증대 • 교실 및 건강센터 건립 지원	• 목초지 관리 개선을 위한 협업 촉진 • 생산품 품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중간과정 간소화 • 농장주·수의사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강화(백신접종 등)	• 위생분야의 민간 협동조합 및 기술인 지원 • 공동체 기반 조직 및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강화

* Better Public Services in Fourteen of Benin's Communes

** Sustainably Managed Pastures and Healthy Animals: Mongolia's 'Green Gold'

*** Mozambique: Less Illness Thanks to Better Water Supplies and Sanitation

자료: SDC 홈페이지(https://www.eda.admin.ch/deza/en/home.html) (접속일: 2018.03.26.)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FDFA & EAER. 2016. “Dispatch on Switzerla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7-2020.” Bern.

OECD. 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witzerland 2013.” Paris: OECD.

SDC & SECO. 2016. “Swis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nual Report 2015.” Bern.

SDC & SECO. 2017. “Swis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nual Report 2016.” Bern.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5. 18.).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5. 18.).

SDC 홈페이지: https://www.eda.admin.ch/deza/en/home.html (접속일: 2018. 03. 26.).

27. 영국(United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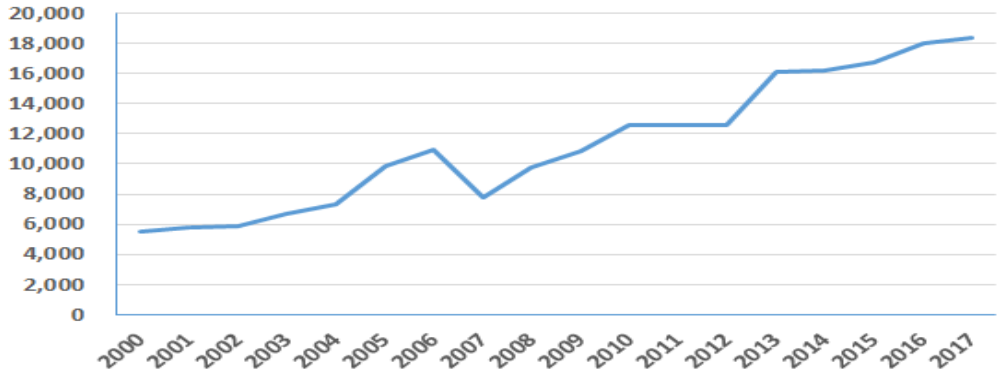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역사적·전략적 ODA 특성에서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변화

○ **(현황)** 영국의 원조규모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7년 기준 18,425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이래로 ODA/GNI 비율 0.7%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45〉 영국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구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책임감, 유대감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29년 "식민지개발법(Colonial Development Act)"을 제정하며 영어권 아프리카 및 영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조를 시작

○ 이후 "식민지 개발과 복지법(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과 "대외개발협력법(Oversea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을 거치며 세계빈곤퇴치가 영국 ODA의 주요목적으로 변화

⇒ 1970년대 국제수지 악화 극복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던 원조 경향에서 1997년 토니블레어 총리 집권 이후 빈곤해소를 최우선 방향으로 선회[223]

223) 한국국제협력단. (2013) p1.

○ **(핵심문서)** 1997년 백서(White paper) 출간으로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더 구체화시킨 “타겟전략문서(Target Strategy Paper, 2000)”발간 이후 빈곤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예산)**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는 영국 ODA 전체예산의 주요 집행기관으로 예산안은 연중 수정을 거침.

○ 2015-2016년 예산의 50%가 취약국 및 분쟁국가·지역에 할당됨. 또한 총 예산의 96%가 개발 및 원조 프로그램에서 집행되었으며 4%가 행정비용으로 지출됨.[224]

○ **(원조예산 수립과정)** DFID의 지출계획은 11개의 부서로 제출되어 진행되나 이는 임시 지출안으로 DFID가 수정 권한을 가짐.

⇒ 각기 다른 예산지출 주기로 집행되는 프로그램 및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할당과 지출에 있어 연중 수정이 가능

224) National Audit Office. (2016) p3-5.

〈표 97〉 2017년 영국 ODA 예산항목

예산 (회계년도 2016/2017)	백만파운드	백만달러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4,259	6,507
중동 아프리카	1,497	2,287
아시아, 카리브 제도 및 해외 영토	1,253	1,916
서남 아프리카	819	1,251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688	1,051
분쟁, 안정 및 안보 기금	128	196
중동 및 북 아프리카	50	76
아시아, 카리브 제도 및 해외 영토	47	72
분쟁, 인도주의, 안보 및 안정	20	31
아프리카	10	15
경제개발 사업부	2,145	3,277
국제재정	1,581	2,416
민간부문	451	689
성장및회복력	99	151
개발을 위한 무역	12	18
다자 효과성	1	2
국제관계 사업부	1,058	1,617
유럽개발	420	642
EC 공헌/유럽 연합	381	582
유엔 및 영연방 개발	256	391
글로벌 파트너십	1	2
글로벌 펀드 사업부	552	843
정책사업부	912	1,393
연구사업부	354	541
위기 대응	200	306
비 부서 공공부문	26	40
기타 중앙 프로그램	7	11
분쟁, 인도주의, 안보 및 안정 부	332	507
합계 (교차 기관 기금 제외)	9,978	15,245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kingdom) (접속일: 2018. 06. 05.)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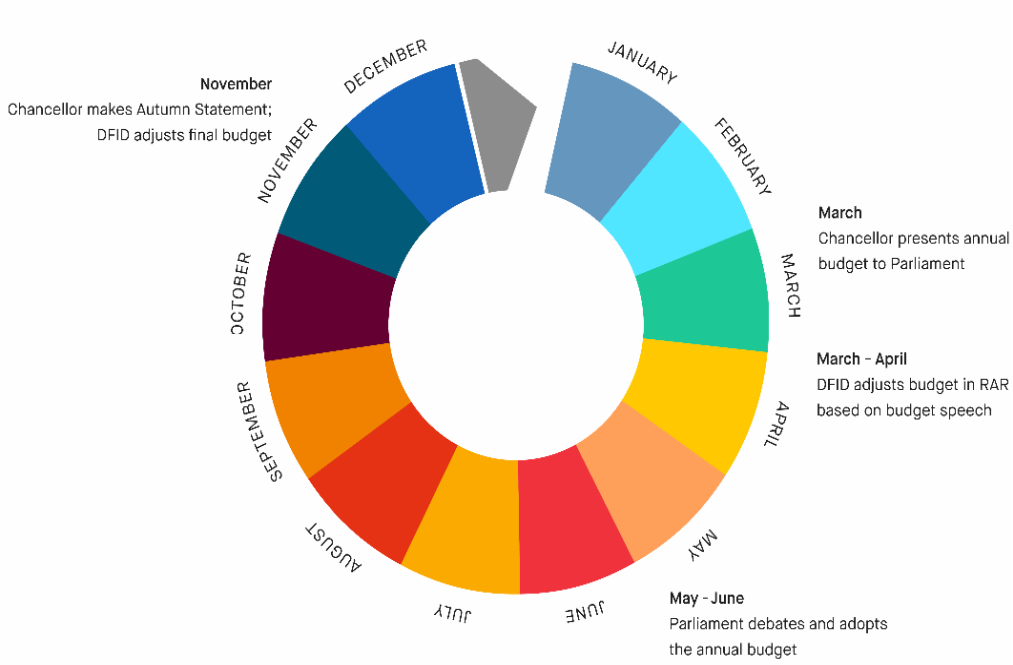
□ **(의회승인절차)** 다년도 예산절차 하에 연 단위 예산이 결정되며 다른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예산 승인절차를 거침.

○ 실제 예산 절차는 "포괄적 지출 평가(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이하 CSR)"를 시작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평가를 통해 차후 5년간의 각 부처의 지출 한도를 결정함.

⇒ CSR은 보통 새로운 의회 임기를 시작으로 발표되며 개발에 있어 영국의 장기적 지출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

○ **(의회승인처리과정)** 의회승인절차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침: 1) 총리의 연 예산안 의회 제출; 2) DFID의 예산수정; 3) 의회의 연 예산안 협상 및 채택; 4) 총리의 추계안 제출 및 DFID의 최종 예산안 수정

〈그림 146〉 영국 DFID 예산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kingdom) (접속일: 2018. 06. 01.)

□ **(지역배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원조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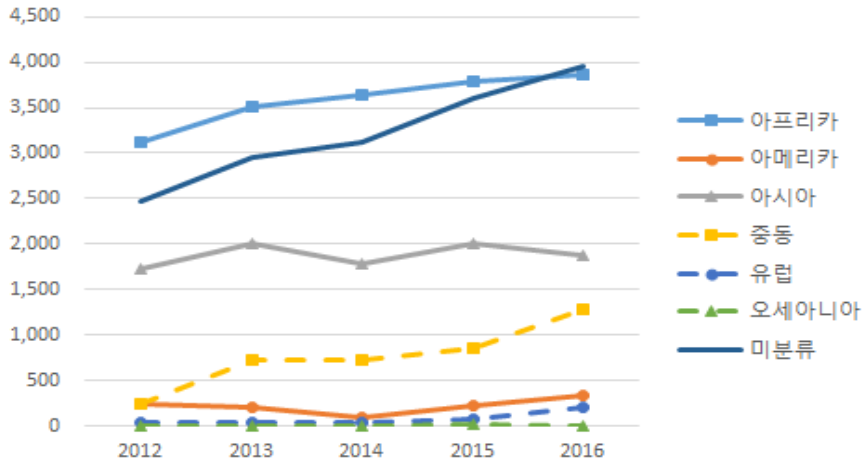
○ 2012-2016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 비율이 가장 높은 36.7%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미분류 지역으로 약 33%를 지원함.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17,923, 36.7%), 미분류(16,084, 33.0%), 아시아(9,402, 19.3%), 중동(3,852, 7.9%) 등

○ 에티오피아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원조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

〈그림 147〉 영국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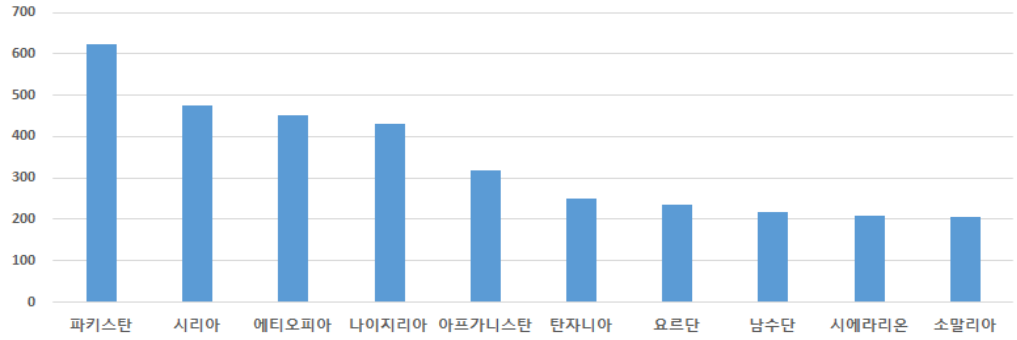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으나 비슷한 규모로 시리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사하라사막 이남지역과 중동지역에 대한 원조가 많음.

〈그림 148〉 영국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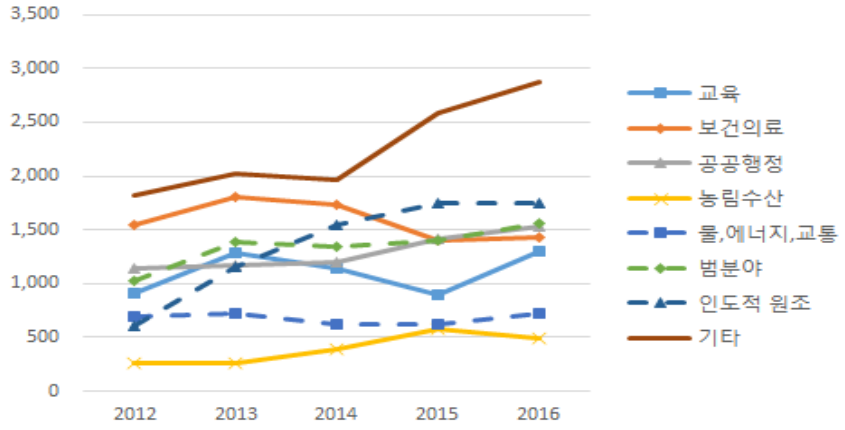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분야배분)** 영국의 분야별 원조 중 최근 기타 분야 지원이 급등하였으며 인도적 원조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WHO의 에볼라 사태종결 공표 시까지 시에라리온 지원을 중심으로 공여국의 지원을 주도[225]하였다고 영국 내에서 평가하였으나 실제 2014-2016년 사이의 보건의료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

〈그림 149〉 영국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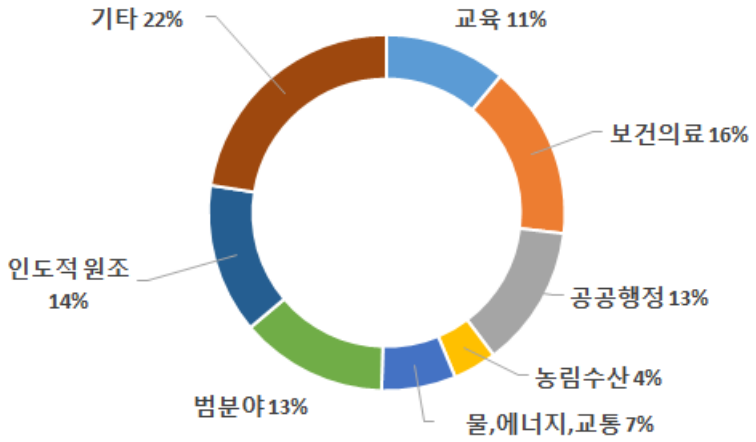
225) National Audit Office. (2016) p13.

○ 2012-2016년간 인도적 원조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5-2016년 지원 증가는 시리아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 예멘의 불안정, 네팔의 지진사태, 남수단의 식량 위기 등에 기인함.[226]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기타(11,290, 22.5%), 보건의료(7,920, 15.8%), 인도적 원조(6,824, 13.6%), 범분야(6,717, 13.4%) 등

〈그림 150〉 영국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나.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전략 및 목표)**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와 DFID의 "영국의 원조: 국익 속 글로벌 도전과제(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문서를 통하여 새로운 원조 전략과 목표 설정

○ 새로운 원조전략의 거시적 목적은 ODA/GNI 비율 0.7% 달성이며, 국제개발은 "세계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실현" 및 "국가 안보·외교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

226) 상동.

○ 전통적으로 수행해오던 일반예산지원을 중지하고 “금전가치 창출 접근(Value for money)” 기조를 표방하며 원조의 투명성을 강조

⇒ 재무부와 DFID는 영국의 모든 부처가 국제원조투명성 지수에서 최소 ‘양호(Good)’ 혹은 ‘매우 양호(Very Good)’를 5년 이내에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표 98〉 DFID–재무부 새로운 원조전략

전략목표	전략과제
1. 국제적 평화, 안보, 거버넌스의 강화	• 첫째, 글로벌 공중보건·건강제고(말라리아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해 향후 5년간 10억 파운드 추가 지원 • 둘째, 향후 5년간 DFID 연간 예산의 50%를 취약국가(fragile states)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위험지역에 지출 • 셋째, 국가안보와 국제개발문제가 긴밀히 연계된 사안관련 범부처공조체제 예산인「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를 증액하여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국외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넷째, 위기·비상시 예산으로 5억 파운드를 새로 편성, 시리아 난민문제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 (새 원조정책전략의 취지 및 방향성) 영국정부의 지속적인 GNI 0.7% ODA 예산지출은 세계빈곤층 지원이라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를 실천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해(national interest)를 실현[227]
2. 재해복원력 및 위기대응 강화	
3. 국제적 차원의 번영 도모	
4. 극빈의 해결 및 세계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자료: HM Treasury & DFID(2015)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집권당에 따라 성격과 지위가 변화해온 개발부서를 1997년 이후 DFID로 확정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을 총괄

○ DFID 조직은 경영이사위원회 하에 크게 1) 국가프로그램; 2) 일반정책·글로벌 프로그램; 3) 재정 및 기관운영; 4) 경제개발국으로 나뉨.

○ 2017년 1월 발간한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기존 인도지원국이 경제개발국으로 변경되면서 1) 경제개발; 2) 개발을 위한 무역; 3) 국제재정부로 개편

□ **(인력)** 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국내 및 해외사무소 근무인원 비율이 유사함.

○ 2017년 3월 기준 본부에 2,985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7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

227) 외교부 홈페이지(http://mofa.go.kr/) ‘영국정부, 새원조정책전략 발표’ 한글번역 일부 발췌 (접속일: 2018.06.05)

○ 2015-2016년 기준으로 전체 2,853명의 인력 중 1,484명이 영국 내에 근무하였으며 1,369명이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본부 및 해외사무소 근무 비율이 각 52%와 48%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99〉 영국 국제개발협력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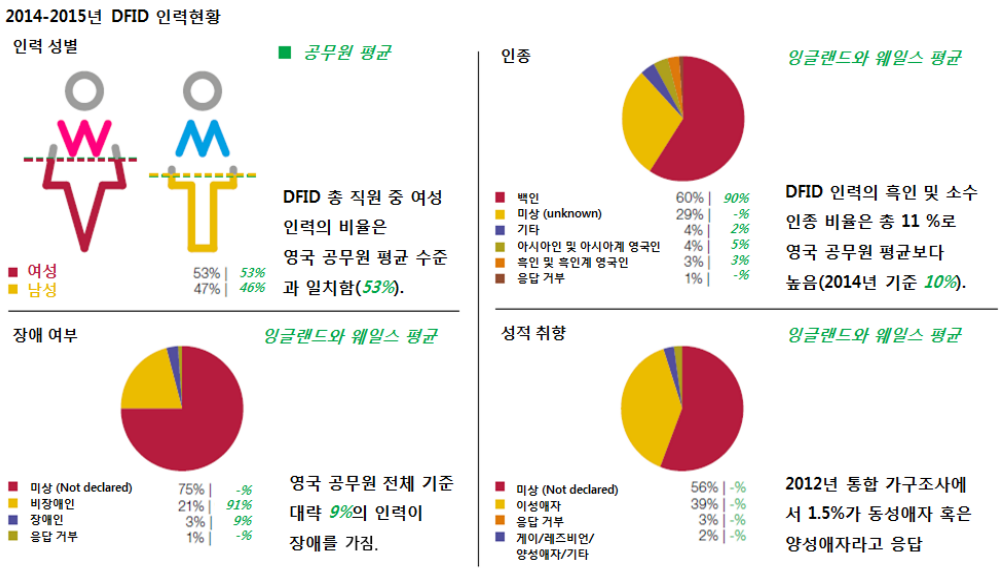
(2017년 3월 기준, 단위: 명)

	2016-2017년			
부서	정규 인력	장관	특별 자문가	전체
기업 평가	576			576
경영진	44	4	3	51
정책 및 글로벌 프로그램	709			709
국별 프로그램	1,493			1,493
경제 개발	156			156
전체	2,978	4	3	2,985

자료: National Audit Office(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근무 직원들의 성별(여성:53%, 남성:47%) 및 인종·장애여부 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세부적인 직원분석데이터를 공개(아래 그림 참조)

〈그림 151〉 영국 국제개발협력 인력 구성비



자료: National Audit Office(2016)

□ **(주요사업)** 국별 사업비율이 높은 가운데 민간부문 사업 증가 경향

○ 2017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 발표 후 경제부문 예산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하면서 경제포용 및 민간부문 개발사업 강조

⇒ ODA/GNI 0.7% 달성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약으로 경제성장 부분에 지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전가치 창출 접근은 모든 개발 사업에 통용되며 새로운 원조전략 하에 특히 투명성과 함께 강조됨.

○ 영국 DFID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100〉 영국 DFID 주요 사업 개관

	경제포용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	민간분야개발**	금전가치 창출***
배경	•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원조전략(2017) 문서에 중요 부분으로 포함	• 2012-2013년도와 비교하여 2015-2016년도에 2배 이상의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해 민간분야개발을 강조	• 2010년 원조영향평가를 위해 독립위원회 결성 후 ODA의 지출을 감독함. • 이는 정부간 예산 사용에도 적용되며 모든 정부의 ODA 사업에 적용
비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빈곤한 계층을 경제적으로 포용	• 민간분야개발은 빈곤감축에 있어 모든 목표의 중심	• 영국의 원조 접근에 대한 개혁: 빈곤감축 및 영국의 국익 지원
전략 목표	• 경제포용을 위해 취약계층에 양적, 질적으로 더 나은 직업창출을 목적으로 함.	• 경제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해 균형있는 민간부분개발을 표방하여 누적된 영향을 끼치고자 함.	• 전통적인 일반예산지원에서 목표에 부합한 재정지원으로 변화하였으며 더 이상 일반예산지원은 진행하지 않게 됨.
중점 추진 분야	• 극빈층의 고성장 가능 분야에서의 직업 창출 • 급성장하는 청년 인구에 대한 직업기회 제공 • 장애인구의 생산적인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 소녀와 여성에 대한 차별 퇴치 • 경제개발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소기업 및 소규모 생계형 농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 현대판 노예제 및 아동착취 타파	• 민간분야개발이 적용되는 부분은 매우 다양함: 거시적 차원의 규제당국의 개혁 이니셔티브에서부터 구체적인 상업적 차원의 개발, 소규모 사업을 위한 소액대출 등 • 민간분야개발은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단으로 활용됨.	• 5년 내 투명성지수에 있어 모든 정부가 양호, 혹은 매우 양호 수준을 달성 • 원조 집행 시, 수원국을 포함하여 모든 파트너들이 국제적 차원의 투명성 표준기준을 맞추는 것

* Economic Inclusion – Leave No One Behind

** Private Sector Development

*** Value for Money

자료: DFID(2017),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2014) 및 HM Treasury & DFID(20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한국국제협력단. 2013.『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DFID』.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DFID. 2017.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prosperity, poverty and meeting global challenges.” London: DFID.

HM Treasury & DFID. 2015.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 London: HM Treasury and DFID.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2014. “DFID’s Private Sector Development Work.” London: DFID.

National Audit Office. 2016. “Departmental Overview 2015-16: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National Audit Office.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http://mofa.go.kr/ (접속일: 2018. 06. 05.).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italy (접속일: 2018. 06. 05.).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6. 0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28. 미국(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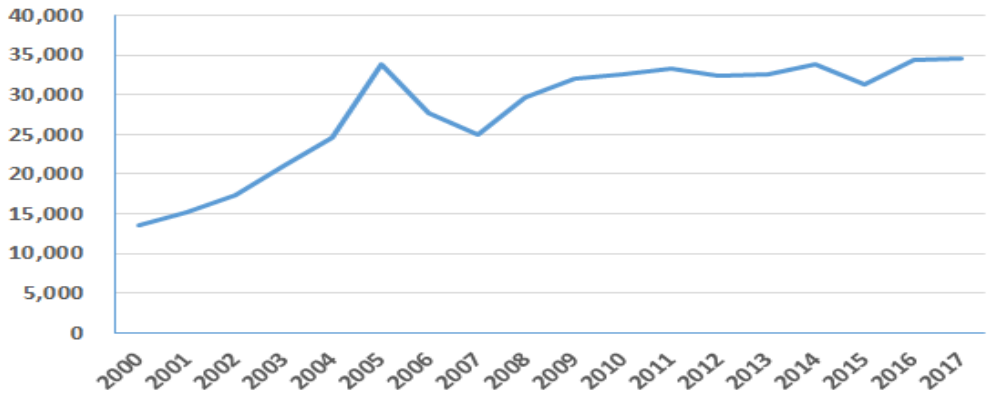
가. 원조개요

□ **(총괄)** 안보의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의 대외원조 및 분절화

○ **(현황)** 2000년 이후 미국의 원조규모는 현재까지 총 공여금액 면에서 계속적인 1위를 유지하여 2017년 34,638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2017년 기준 0.18%로 미비

〈그림 152〉 미국 2000-2017년 원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2017년 자료는 잠정치 사용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미국의 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은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원조의 목표는 3D 정책이라 불리는 외교(Diplomacy), 국방(Defence), 개발(Development)로 정치적 신념을 강조

⇒ DAC에서 정한 빈곤해소의 최우선 방향에 동조하고 있지 않음.[228]

○ **(핵심문서)** 2015년에 발표된 전략문서인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이하 QDDR)" 를 중심으로 국익의 발전을 전략적으로 강조

228) 주동주 외. (2009) p44.

○ **(분절화)** 대표 원조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이외에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국방부, 농림부, 상무부 등 정부 부처와 새천년도전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등 27개 부처에서 원조를 수행

⇒ 2016년 OECD 동료검토는 미국의 다양한 원조채널로 인한 상충점(trade off)이 존재함을 언급: 성과평가의 일관성 필요 등 강조

□ **(예산)**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

○ 미국의 원조예산 배분에 있어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원조집행을 지정하면 국무부나 USAID는 이를 집행

○ 사업의 예산 등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책과 연계되며, 정책형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원조예산 수립과정)** 국무부(대사관)와 USAID 사무소의 예산부서가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에서 각 기관에 제시한 예산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본부에 예산안을 제출

⇒ 이후 국무부의 관리·자원담당 부장관이 검토 후 백악관에 제출하며 백악관이 최종 결정[229)]

229) 손혁상 외. (2014) p188.

〈표 101〉 미국 개발협력 예산항목

구분	FY2016 백만달러	FY2017 백만달러
Title Ⅰ. 국가단위 홍보 및 국제기구	**16,458**	**18,087**
국제기구	3,907	3,267
기타	12,551	14,820
Title Ⅱ. 해외원조 행정비용(USAID)	**1,517**	**1,632**
Title Ⅲ. 양자경제원조	**24,124**	**26,912**
국제보건 프로그램	8,503	8,725
국제보건 프로그램(국무부)	5,670	5,670
국제보건 프로그램(USAID)	2,833	3,055
개발원조	2,781	2,995
국제재난 원조	2,794	4,427
경제원조 펀드	4,302	4,682
민주주의 펀드	151	211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원조	985	902
이민 및 난민 원조	3,066	3,359
긴급난민 원조	50	50
독립 원조기관 원조	1,364	1,368
재무부	24	30
기타	104	162
Title Ⅳ. 국제안보원조	**8,831**	**9,380**
Title Ⅴ. 다자원조	**2,629**	**2,110**
세계은행	168	147
녹색기후펀드	-	-
국제개발협회(IDA)	1,197	1,197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87	6
국제농업개발기금	32	30
세계 농업 식량 안보 프로그램(GAFSP)	43	23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339	339
기타	660	368
Title Ⅵ. 수출원조	**-696**	**-590**
합계	**52,863**	**57,530**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states) (접속일: 2018. 05. 31.)

□ **(의회승인절차)** 원조 예산은 백악관이 검토하여 의회가 승인하며 원조집행까지의 전 과정은 약 2년 6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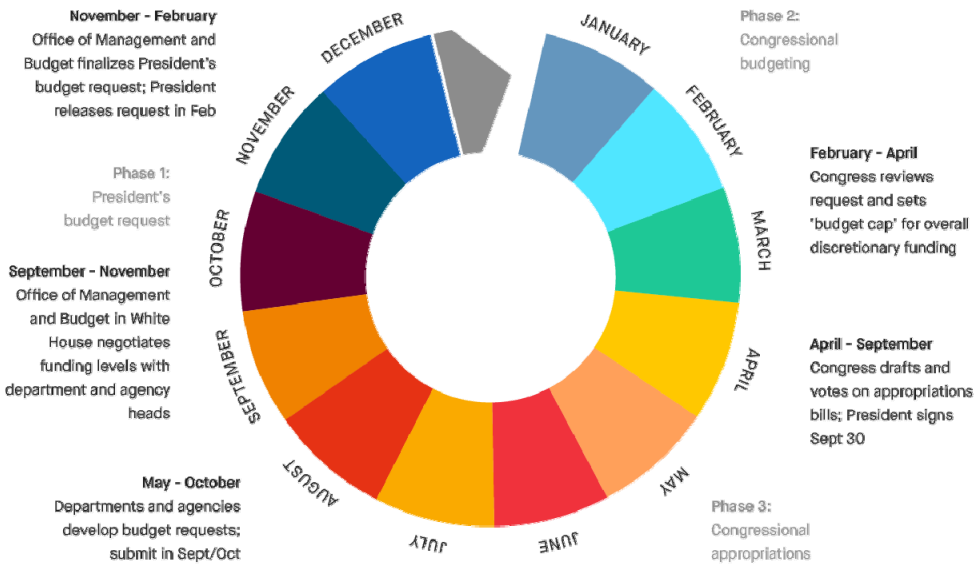
○ 실제 개발도상국의 집행을 위해 파트너 국가와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총 3년이 소요[230]

○ 미국 원조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합국별전략은 개발도상국 현지 공관에서 작성

○ **(의회승인처리과정)** 1) 대통령의 예산내역요구; 2) 의회의 예산승인절차; 3) 의회의 정부 지출예산안 확정

⇒ 1) 5–10월 사이에 요청된 예산신청내역을 기반으로 9–11월에 백악관에서 각 부처와 협의; 2) 11–2월 사이에 대통령이 예산내역 공포; 3) 2–4월에 의회검토 및 임의예산 설정; 4) 4–9월에 의회 초안 및 임시예산안에 대한 투표 후 대통령이 9월 30일에 승인

〈그림 153〉 미국 USAID 예산 의회승인절차



자료: Donor Tracker(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states) (접속일: 2018. 05. 31.)

230) 손혁상 외. (2014) p189.

□ **(지역배분)** 미국의 원조는 특정 국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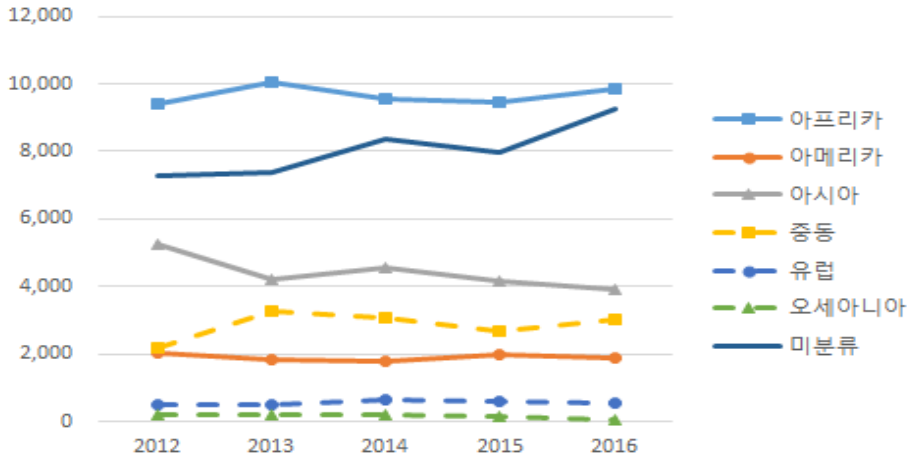
○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원조 비율이 가장 높으며 총 원조 중 약 35%를 차지. 두 번째는 미분류 지역으로 29.2%를 지원함.

⇒ 2012–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프리카(48,362, 35.0%), 미분류(40,277, 29.2%), 아시아(22,089, 16.0%), 중동(14,213, 10.3%), 아메리카(9,526, 6.9%)

○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중남미 대륙 전체 원조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

〈그림 154〉 미국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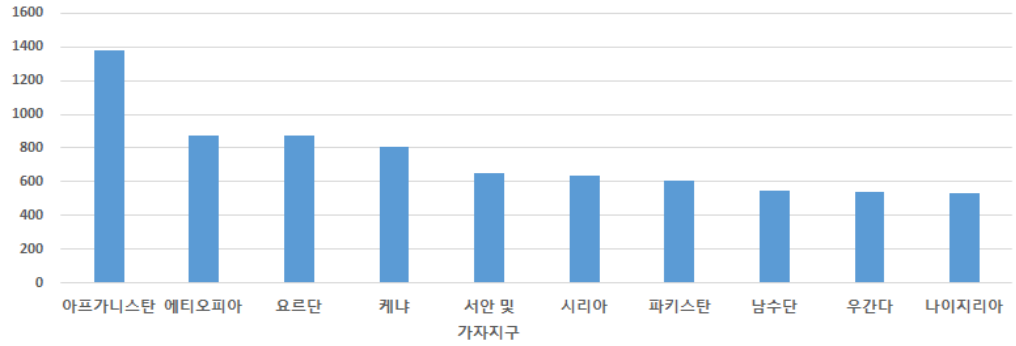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에티오피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국가들이 뒤를 이음.

〈그림 155〉 미국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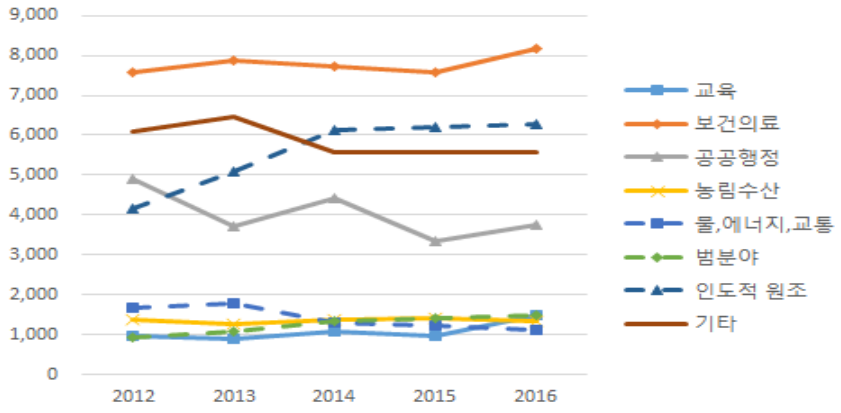
□ **(분야배분)** 보건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인도적 원조 비율은 증가 추세

○ 보건 분야 원조 비율이 가장 높으며 기타 분야, 인도적 원조, 공공행정 등의 분야가 뒤를 이음.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보건의료(38,969), 기타(29,278), 인도적 원조(27,901), 공공행정(20,154) 등

〈그림 156〉 미국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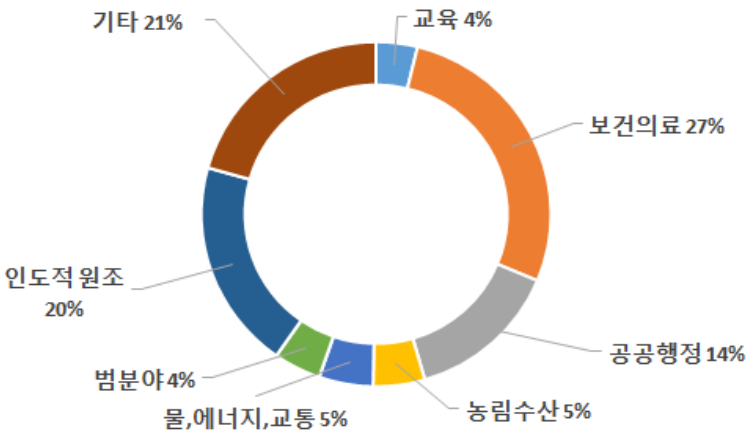
*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 최대 원조금액은 보건의료분야 지원으로 27.5%를 차지하며 이는 미 정부의 QDDR과 함께 수립된 개발우선순위에 따름. 다음으로 기타 분야, 인도적 원조, 공공행정분야 등에 지원

⇒ 2012-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보건의료(38,969, 27.5%), 기타(29,278, 20.6%), 인도적 원조(27,901, 19.7%), 공공행정(20,154, 14.2%) 등

〈그림 157〉 미국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총지출(Gross Disbursements) 기준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나.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전략 및 목표)** 국무부와 USAID의 "공동전략계획(Joint Strategy Plan, 이하 JSP)"을 통하여 국가안보전략 및 QDDR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JSP는 미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시장형성, 혁신도모, 극심한 빈곤의 근절 등을 포함하며 국무부와 USAID의 목표가 혼재

○ 미국의 개발정책·지역·국가의 우선순위 및 USAID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이하 CDCS)" 수립

⇒ CDCS 국가 및 지역: 아프리카 18개국, 아시아 10개국, 유럽·유라시아 9개국, 중남미·카리브 지역 11개국, 중동 5개국과 기타 중점지역들을 포함[231)]

〈표 102〉 USAID 2014-2017 전략(JSP)

전략목표	전략과제
1. 미국인의 경제적 접근성 향상과 긍정적인 경제 효과의 강화	• 미래시장, 투자, 무역의 접근성 확대 • 포용적 경제성장 도모, 절대빈곤 감축, 식량안보의 향상
2. 도전과제에 대한 미국외교의 영향력 강화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안전구축 • 향상된 외교, 안보협력, 개발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확보 • 위기와 갈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취약성의 원인 타개, 인도적 지원의 제공 • 외교적 개입과 개발협력을 통한 글로벌 안보과제의 해결 • 글로벌 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국노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저탄소 배출 및 기후회복력 달성국가로의 전환	•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의 강한 연대 및 주도적인 국제적 행동 표방 • 에너지 안보 및 깨끗한 에너지 접근성 도모, 깨끗한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4. 미국의 핵심 관심사항인 민주주의·인권의 향상과 시민사회의 강화 유지	• 안보, 평화, 번영을 위한 민주적 법치의 도모 • 건설적인 양자·다자적 개입 및 타겟그룹 지원으로 인권보호 및 향상을 도모 • 시민사회 역할의 강화·유지를 위해 지역 차원 역량개발의 역할 및 민주적 법치와 인권향상
5. 외교와 개발 방식의 현대화 도모	• 외교·개발 전문가 구성을 통한 영향력 증대 및 더 나은 효과성, 효율성, 협치 구현

자료: USAID(2016a)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조직체계)** USAID는 국무부 산하에서 다른 부처들과 협업하며 조직 내에서는 중앙·기능·지역국으로 구분

○ 국무부에서 정의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에 따라 원조실행주체로서 전략을 실행하며 국무부는 정책 영역, USAID는 시행의 영역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

○ USAID 본부의 경우 6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며 각각 1)아프리카; 2) 유럽과 유라시아; 3) 아시아; 4)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5) 중동; 6)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으로 구분[232]

○ 프로그램 단위의 부서로는 각각 1) 식량안보; 2) 경제성장·교육·환경; 3) 민주주의·갈등·인도적 지원; 4) 글로벌 보건의 4개부서가 존재

231) 아프리카(앙골라, DR콩고,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 환경프로그램, 동부·남부·서부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속가능개발 부서), 아시아(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키즈스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중앙아시아, 아시아 지역개발 미션(Regional Development Mission for Asia)), 유럽·유라시아(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조지아, 코소보, 몰도바,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중남미·카리브지역(중앙아메리카 및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동남부 카리브지역), 중동(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예멘)

232) USAID의 자세한 조직도 및 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USAID 홈페이지(https://www.usaid.gov) 참고

□ **(인력)** 광범위한 범주에서 고용하며 현지직원의 의존율이 높음.

○ 2015년 9월 기준 총 10,235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3,059명이 워싱턴 본부에, 7,176명이 해외사무소에 근무

⇒ 지역별 파견인력 현황: 아프리카 1,417명, 아시아 668명,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487명, 중동지역 436명,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307명, 유럽·유라시아 지역 298명 순[233]

〈표 103〉 USAID 인력현황

(2015년 9월 기준, 단위: 명)

인력 직위명	FS*	FSL**	Fellows***	PASA****	USPSC*****	TCPSC******	FSN	합계
아프리카 해외사무소	671	-	-	-	30	-	716	1,417
아시아 해외사무소	289	-	-	-	5	-	374	668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해외사무소	134	14	-	-	1	-	158	307
중동 해외사무소	162	-	-	-	20	-	254	436
유럽&유라시아 해외사무소	102	-	-	-	5	-	191	298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제도 해외사무소	220	-	-	-	6	-	261	487
정책, 기획, 교육 해외사무소	6	-	-	-	-	-	1	7
민주주의, 분쟁 & 인도주의적 원조 해외사무소	2	-	-	-	4	-	-	6
세부 합계(OE)	1,586	14	-	-	71	-	1,955	3,626
운영 경비	1,586	14	-	-	71	-	1,955	3,626
펀드	-	-	-	-	1	-	198	199
프로그램	-	77	35	16	304	137	2,782	3,351
합계	1,586	91	35	16	376	137	4,935	7,176

* FS(Foreign Service): 기관이 직접 고용한 해외 근무 인력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기술협력, 프로그램 계획, 평가업무 등을 담당

** FSL(Foreign Service Limited): 기관이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해외 근무에만 제한됨.

*** Fellow: 전문성 및 요구 학위를 충족한 인력으로 보통 1-2년 정도 워싱턴 혹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기술협력, 연구 보고서 작성, 평가 전략 및 방법 개발

**** PASA(Participating Agency Sercive Agreements): 타 정부 부처 또는 참여 기관 출신의 근무 인력

***** 미국시민개별계약

****** 제3국시민개별계약

자료: USAID(2016b)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233) USAID. (2016b).

○ 2016년 미 의회에 제출한 세부 인력현황에 따르면 절대빈곤감소 목표실현을 위하여 의회의 권한이양에 따라, USAID 내에서 각 분야에 합당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식을 채택

⇒ 전문성을 갖춘 현지 직원의 고용이 대부분으로 약 70%를 차지

※ USAID 고용형태 참고사항
- CS(Civil Service):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행정 및 해외 업무 지원 담당
- AD(Administratively Determined): 부서의 요청에 의해 후보자 심사를 거쳐 한정적 기간 동안 근무하는 임명직 인력
- PSC: 개별 계약 형태의 인력으로 법적으로 USG의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음

자료: USAID(2016b)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 **(주요사업)** 정치적 동기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 2007-2008년 세계식량위기에 따른 식량안보를 위한 이니셔티브, SDGs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종식을 반영하는 극빈의 종식 이니셔티브 등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및 원조예산 30% 삭감 등의 움직임으로 다년도 원조사업의 축소 등 불확실성 증대

○ 국가 내 협력 뿐 아니라 다각적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간·시민사회·다국적 조직 등과 국제적 파트너십 강조

○ 미국 USAID 사업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104〉 미국 USAID 사업 개관

	미래식량기금 (Feed the Future)	글로벌 보건구상 (Global Health Initiative)	극빈의 종식 (Ending Extreme Poverty)
배경	• 2007-2008년 국제식량가격 급등으로 빈곤과 영양결핍 인구의 증가	• 2010년 국가안보전략 및 QDDR의 수립과 더불어 주요 개발 우선순위에 해당 이니셔티브를 포함	•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목표
비전	• 지속적인 기아와 빈곤의 극복	• 모자의 성장을 위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	• 극빈한 상태의 종식과 안정과 번영을 위한 회복력 있고 민주적인 사회의 구축
전략 목표	• 통합적 농업부문 성장과 영양상태 개선(특히 여성과 아동)을 최상위 전략목표로 설정	• 지역정부의 자력화, 시민사회의 발전 및 민간부문의 촉진으로 변화하는 보건목표에 따른 책임있는 기초보건 서비스 제공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중점 추진 분야	• 통합적 농업부문의 성장 • 성차별 폐지 • 영양상태 개선 • 민간부문 참여 • 연구 및 역량강화 • 기후변화 적응 및 개발	• 산모 및 아동생존 • AIDS로부터 자유로운 세대의 구축 • 감염성 질병의 타파	• 식량안보와 영양상태의 개선 • 더 나은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기술과 지식의 증진 •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치의 보장

자료: USAID(2015a), USAID(2012), USAID(2015b)를 바탕으로 저자재작성

참고문헌

손혁상 외. 2014.『외교부 무상원조 정책 및 실행 선진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세종: 외교부.

주동주 외. 2009.『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서울: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USAID. 2012. “USAID’s Global Health Strategic Framework: Better Health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USAID. 2015a. “Feed the Future Human and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Strategy Review.” Washington D.C.

USAID. 2015b. “Vision for Ending Extreme Poverty.” Washington D.C.

USAID. 2016a. “Strategic Plan FY 2014-2017.”

USAID. 2016b. “USAID Staffing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Donor Tracker 홈페이지: 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states (접속일: 2018. 06. 05.).

OECD Data: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접속일: 2018. 06. 01.).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6. 01.).

USAID 홈페이지: https://www.usaid.gov/ (접속일: 2018. 06. 05.).

Ⅲ. 결론

1. OECD DAC 국가 비교[234)]

□ **(DAC 회원국 ODA 규모)** DAC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Net Disbursement)으로 볼 때 미국은 2016년 344억달러 가량을 원조한 최대 공여국임. 그 뒤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따르고 있음.

○ 한국의 원조규모는 2016년 기준 22.46억달러로, 29개(EU 제외, EU포함 30개) DAC 회원국 중 16위임.

□ **(DAC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로 볼 때,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UN의 권고수준인 0.7%를 초과 달성하여 경제수준 대비 높은 ODA 비율을 보이고 있음.

○ ODA 규모는 △MDGs 합의, △몬터레이 개발재원 합의 등 주요 국제사회 공약으로 2000년 이후 2배가 되었음. 그러나, GNI 대비 ODA 0.7% 달성 국가가 여전히 소수이며, 명확한 달성 계획을 가진 국가도 많지 않음.[235)]

-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은 2016년 기준 0.32%로, UN 권고 비율 0.7% 의 절반을 밑돌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역시 UN 권고 비율과 DAC 회원국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2016년 기준 0.16%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DAC 회원국의 지역별 지원현황)** 최근 2012년에서 2016년 동안의 DAC 회원국의 지원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꾸준히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가 두 번째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중동에 대한 지원은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234) 자세한 순위와 값은 <부록 2> 참조
235) 2017 OECD 개발협력보고서 : 개발재원 동향 분석

□ **(DAC 회원국의 분야별 지원현황)** 2016년 기준 DAC 회원국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보면 기타가 33%로 가장 크고 뒤를 물·에너지·교통, 인도적 원조, 보건의료가 따르고 있음.

○ 기타에는 난민관련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 DAC 회원국의 난민지원 증가의 결과로 기타가 분야별 지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 난민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DAC 회원국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2016년 기준 DAC 회원국은 대다수 국가가 양자원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일반적으로 원조 규모가 클수록 양자원조에 집중하고, 원조규모가 작을수록 다자원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폴란드가 전체 DAC 회원국을 통틀어 다자원조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77.5%를 기록함.

□ **(DAC 국가별 유·무상원조 비중)** 2012-2016년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중은 전반적으로 85% 내외로 2016년 85%를 기록하였으나, 동 년도 한국의 무상원조 비중은 61%에 그침.

⇒ DAC 회원국 중, 유상원조 비중이 높은 나라는 다음과 같음.: 일본(59%), 프랑스(45%), 폴란드(44%), 한국(39%), 포르투갈(27%), 독일(23%)

2. 각국의 ODA 수행기관 및 사업

□ **(DAC 회원국의 ODA 수행기관)** 많은 DAC 회원국 국가들에서 원조수행기관으로 외교부가 개발정책 및 개발협력 활동 전반에 관할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ODA 수행을 전담하고 있는 독립적인 기관(예- agency)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래와 같음.

⇒ 미국 USAID, 일본 JICA, 독일 GIZ, 스웨덴 Sida, 벨기에 Enabel, 프랑스 AFD, 스페인 AECID, 이탈리아 AICS, 포르투갈 Camões IP, 스위스 SDC, 체코 CzDA, 슬로바키아 SAIDC, 룩셈부르크 LuxDev, 오스트리아 ADA, 노르웨이 Norad.

- 구조적으로 원조 수행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원조 수행 기관은 외교부 산하기관이거나 외교부 내 전담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음.

□ **(DAC 회원국의 ODA 담당 조직체계)**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담당 주체, 그리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담당 주체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름. 같은 맥락으로 원조 예산 역시 한 나라 안에서 담당 주체에 따라 그 출처가 다름. 즉 ODA 담당 주체 및 조직 체계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남.

□ **(DAC 회원국 각각의 지역별·분야별 지원현황)** DAC 회원국의 ODA 사업의 지역별·분야별 지원현황은 그 나라의 ODA 정책, 기조, 예산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일반화하기 어려움. 한 나라 내에서도 사업과 지역의 지원현황이 큰 폭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여(예-특정시기의 난민 지원의 급증) ODA 사업의 지역별·분야별 특징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려움.

□ **(DAC 회원 각국의 주요사업)** DAC 회원 각국의 주요사업 역시 그 나라의 ODA 정책, 기조, 예산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일반화하기 어려움.

3. 향후 연구 방향

○ 국내 선행 연구 조사 결과, 여러 해외공여국의 원조체계 및 사업수행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음. 그러나, OECD DAC의 모든 국가가 아닌 주요 공여국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며 최신 원조체계 및 사업 동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었음.

○ 또한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부터 개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까지 선진공여국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사업 및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를 간결하게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선진공여국의 주요 전략 및 정책동향, 신사업추진 동향, 원조실시체계, 주요 핵심사업 동향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동향 및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선진공여국의 조직과 인력, 원조 방향성, 예산, 분야 및 지역별 사업 지원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 상시적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필요함. 개발협력 추세 변화를 감지하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제로 업데이트가 요구됨.

○ 따라서 DAC에 속해 있는 모든 공여국들의 개발협력 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개발 사업 및 전략의 기획 및 형성·실행·평가에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주기적 발행으로 최신자료 반영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

부록

부록 1 DAC 개요[236]

가. DAC 개요

□ 조직

○ 명칭: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 설립일자: 1961년 9월

⇒ 1960년 유럽경제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에서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 설립

⇒ 1961년 9월 OECD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DAG를 DAC으로 개편

○ 의장: Charlotte Petri Gornitzka (스웨덴/임기 개시일: 2016년 7월)

○ 설립 목적: DAC 회원국들 간 정책대화를 통해 빈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상호 조정 및 효율성 제고

○ 회원국: 29개 OECD 회원국 및 EU

⇒ DAC 회원국 가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됨: 1)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밝힌 전략,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존재 여부; 2) 용인될 정도의 척도 부합 여부(e.g. ODA/GNI 비율 0.20% 이상, ODA 규모 미화 1억 달러 이상 등) ; 3) 성과관리 시스템의 존재 여부[237]

236) 외교부. (2016) p59.
237)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dac/) (접속일: 2018.07.10.)

나. DAC 회원국

□ DAC 회원국 목록

○ 2018년 7월 현재 DAC 회원국은 29개의 OECD 회원국 및 EU이며, 헝가리가 가장 최근인 2016년 12월에 DAC 회원국으로 가입

⇒ 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DAC 회원국으로 참여

○ 전체 DAC 회원국은 다음과 같음: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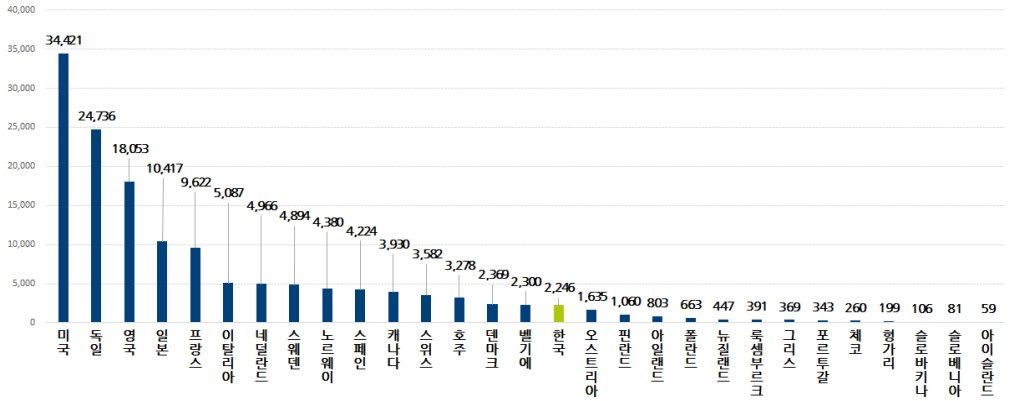
부록 2 DAC 회원국[238] 원조통계

가. 2016년 DAC 회원국의 총 ODA규모 및 ODA/GNI 비율

□ 2016년 DAC 회원국 ODA 규모

〈그림 158〉 2016년 DAC 회원국 총 ODA 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순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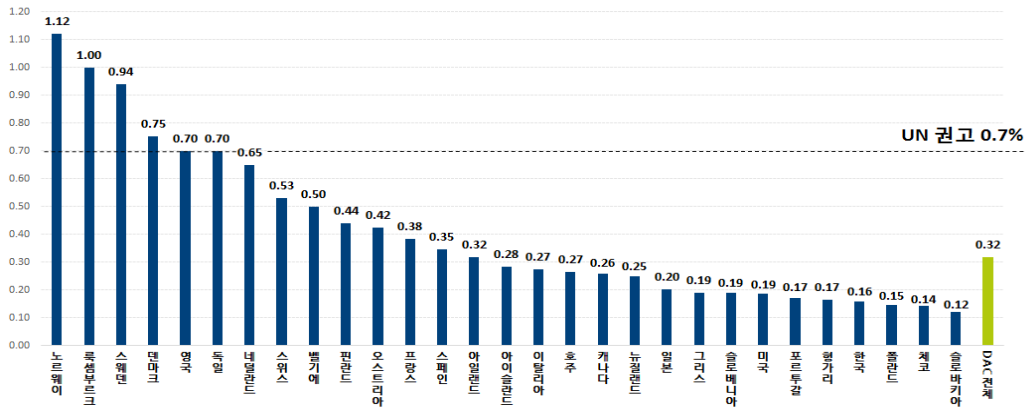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0.)

□ 2016년 DAC 회원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그림 159〉 2016년 DAC 회원국 ODA/GNI 비율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순지출)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0.)

238) 부록2에서 쓰인 'DAC 회원국'은 EU를 제외한 29개의 DAC 회원국을 통칭함.

나. 전체공여국의 ODA 현황

□ 2008년-2017년 전체공여국의 ODA 현황

〈표 105〉 2008년-2017년 전체공여국 및 DAC 회원국의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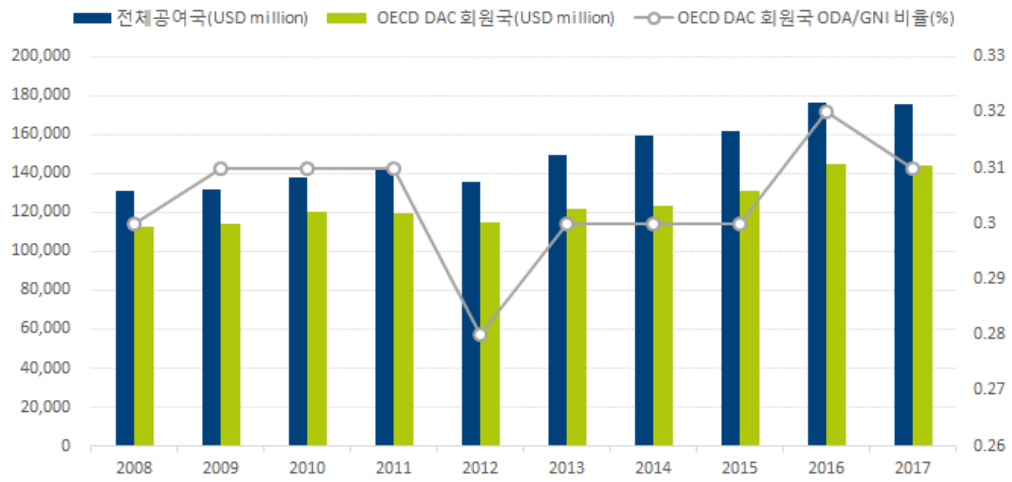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순지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239]
전체공여국 (EU포함)	131,019	131,446	137,739	141,757	135,950	149,233	159,115	162,057	176,537	175,325
OECD DAC 회원국	112,516	114,318	120,598	119,595	115,139	121,529	123,458	130,990	144,921	144,165
OECD DAC 회원국 ODA/GNI 비율(%)	0.30	0.31	0.31	0.31	0.28	0.30	0.30	0.30	0.32	0.31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0.)

〈그림 160〉 2008년-2017년 전체 공여국에서 DAC 회원국이 차지하는 ODA 비중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순지출)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0.)

239) 2017년 금액은 추정치임.

다. DAC 회원국의 유형별 지원 현황

□ DAC 국가별 유·무상원조 비중

○ 2012-2016년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중은 전반적으로 85% 내외로 2016년 85%를 기록하였으나, 동 년도 한국의 무상원조 비중은 61%에 그침.

⇒ 일부 공여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유상원조 비중이 양자원조 총액의 1/5 이상을 차지함: 일본(59%), 프랑스(45%), 폴란드(44%), 한국(39%), 포르투갈(27%), 독일(23%)[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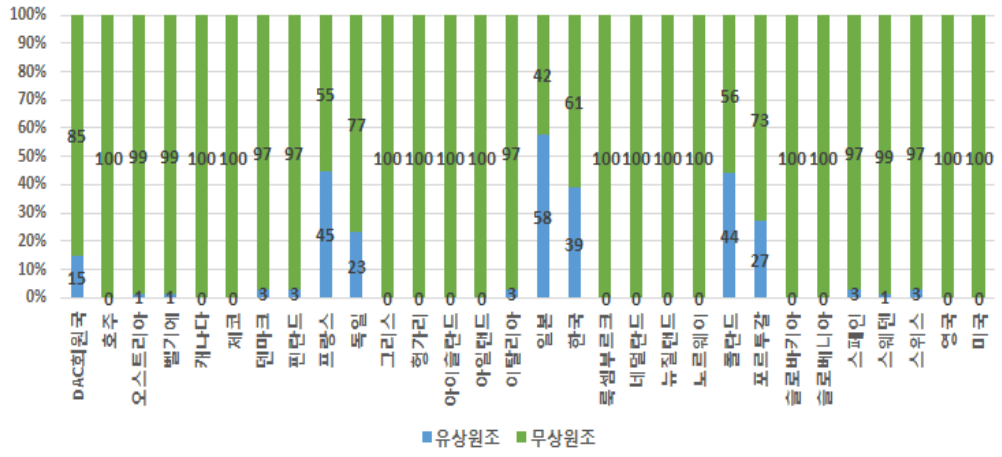
〈표 106〉 OECD DAC 회원국의 유·무상 원조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고정가격, 총지출)

연도	무상원조(A)		유상원조(B)		양자원조(A+B)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12	78,897	86.1%	12,702	13.9%	91,598
2013	84,504	84.1%	15,964	15.9%	100,468
2014	82,074	83.4%	16,327	16.6%	98,401
2015	88,430	83.4%	17,541	16.6%	105,971
2016	98,070	85.0%	17,332	15.0%	115,403

자료: OECD Stats(https://stats.oecd.org/) (접속일:2018.07.10.)

〈그림 161〉 2016년 OECD DAC 국가별 유·무상원조 비중(%)



자료: OECD Stats(https://stats.oecd.org/) (접속일:2018.07.10.)

240) OECD(2018a)

□ 2016년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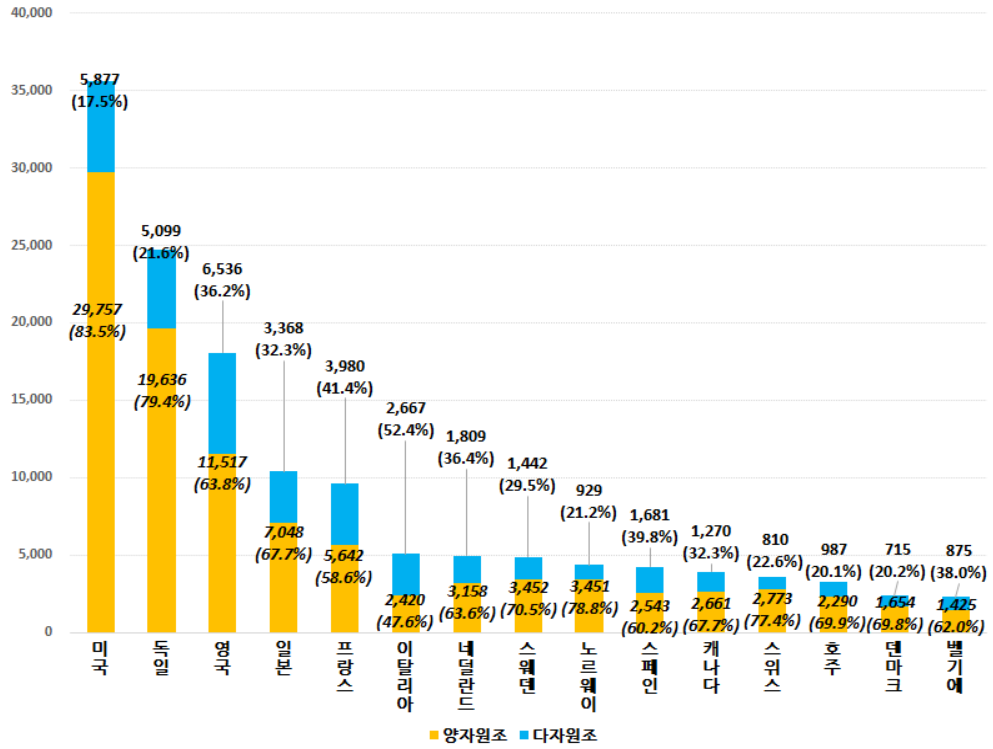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DAC 회원국 가운데 원조규모 상위 15개국의 양자 및 다자원조 현황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가 양자원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상위 15개국 중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다자원조에 가장 큰 비중(52.4%)으로 공여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양자원조에 대한 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83.5%를 공여하여 전체 DAC 회원국을 통틀어 가장 큰 비중으로 양자원조를 공여함.

〈그림 162〉 2016년 DAC 회원국 원조규모 상위 15개국의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순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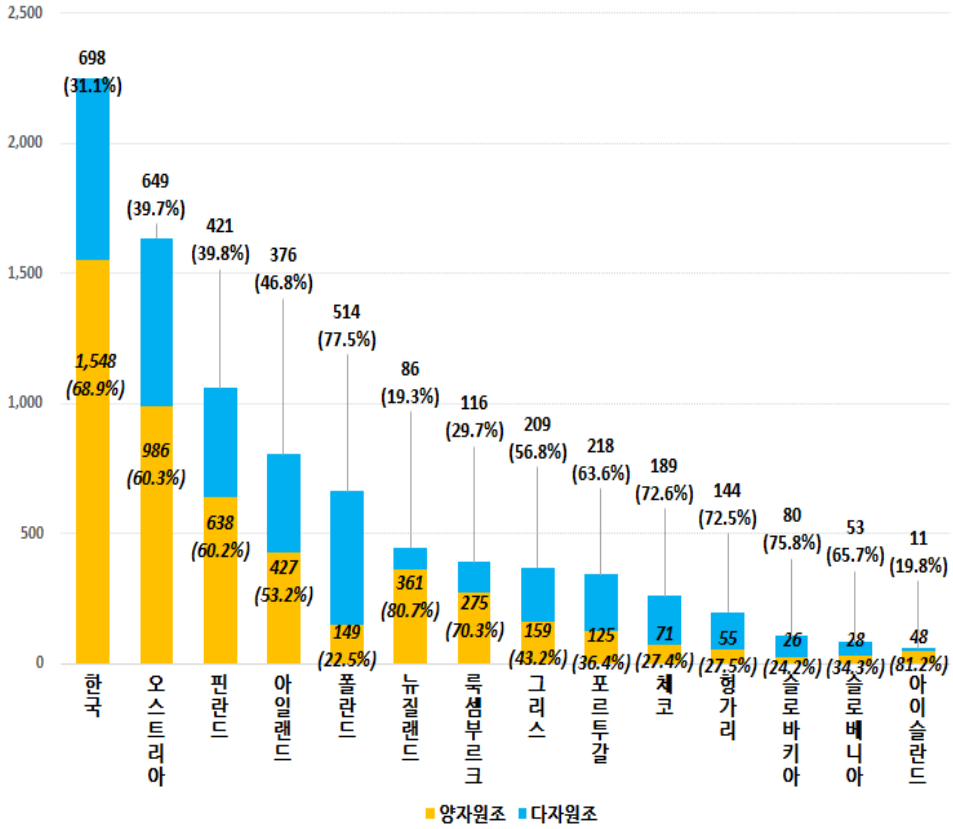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07.10.)

○ 2016년 기준 DAC 회원국 가운데 원조규모 하위 14개국의 양자 및 다자원조 현황에 따르면 원조규모가 작을수록 다자원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폴란드가 전체 DAC 회원국을 통틀어 다자원조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77.5%를 기록함.

〈그림 163〉 2016년 DAC 회원국 원조규모 하위 14개국의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순지출)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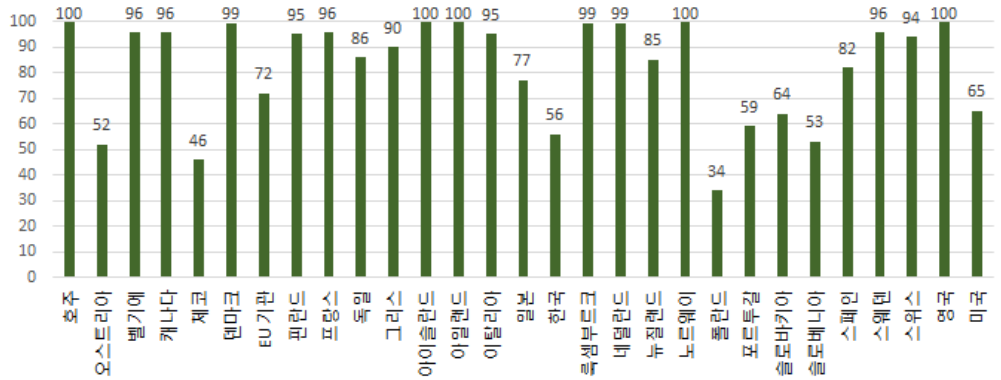
□ DAC 국가별 비구속성 원조 비중[241]

○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242] 권고사안에 관한 2018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동향은 2015년 75.5%에서 2016년 약 80%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임.

○ 특히 2016년에는 기존에 비구속성 원조율 DAC 평균치를 하회하던 다수 국가들의 동 수치가 아래와 같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오스트리아(36.4%→51.8%), EU(62.3%→71.8%), 그리스(14.5%→90.3%), 한국(48.7%→56%), 포르투갈(49%→59%), 슬로바키아(47.5%→64.3%), 슬로베니아(12.4%→53.4%) 등

〈그림 164〉 2016년 OECD DAC 국가별 비구속성 원조 비중(%)*



* 헝가리는 2016년에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해당연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에 관한 OECD CRS 통계치가 없음.

* 공여국 행정비용 및 공여국 내 난민비용 제외

자료: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OECD.2018b에서 재인용)

241) OECD(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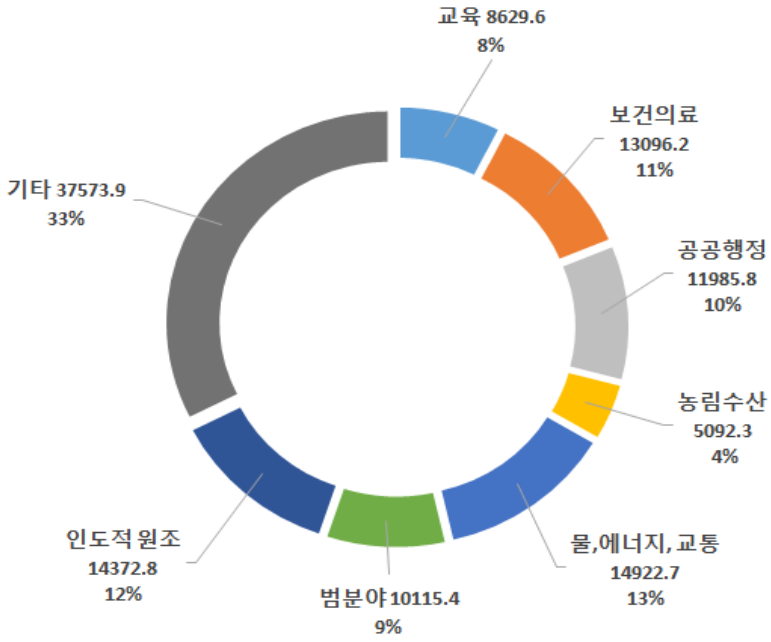
242) 1987년도 OECD DAC가 발표한 "조달에 따른 구속성, 비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를 위한 가이드라인(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Untied and Partially Untied ODA)"은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위해 물자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기업의 국적에 따라 원조를 구속성, 비구속성,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로 분류하고 있음. 구속성 원조(tied aid)는 ODA를 위한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의 국가에만 그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반면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는 ODA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partially untied aid)는 ODA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공여국 또는 모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일부의 한정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경우를 의미함(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ipm/os/link/relateLinkList.do?lang=ko, 접속일: 2018.07.10.).

라. DAC 회원국의 분야별 지원 현황

□ DAC 회원국의 2016년 분야별 지원 현황

〈그림 165〉 2016년 DAC 회원국 분야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2016년,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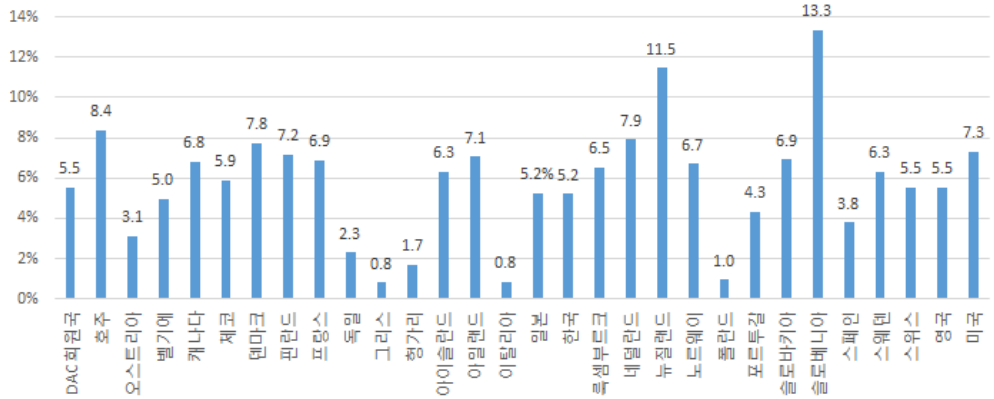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0.)

□ DAC 국가별 양자원조 대비 행정비 비중

○ 2012-2016년 OECD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 대비 행정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243]하여 2016년 6.0%를 기록함.

243) 2012년 7.8%, 2013년 6.8%, 2014년 6.7%, 2015년 6.6%, 2016년 6.3% 기록(OECD Stats: https://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1.)

〈그림 166〉 2016년 OECD DAC 국가별 양자원조 대비 행정비 비중(%)



자료: OECD(2018a)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마. DAC 회원국의 지역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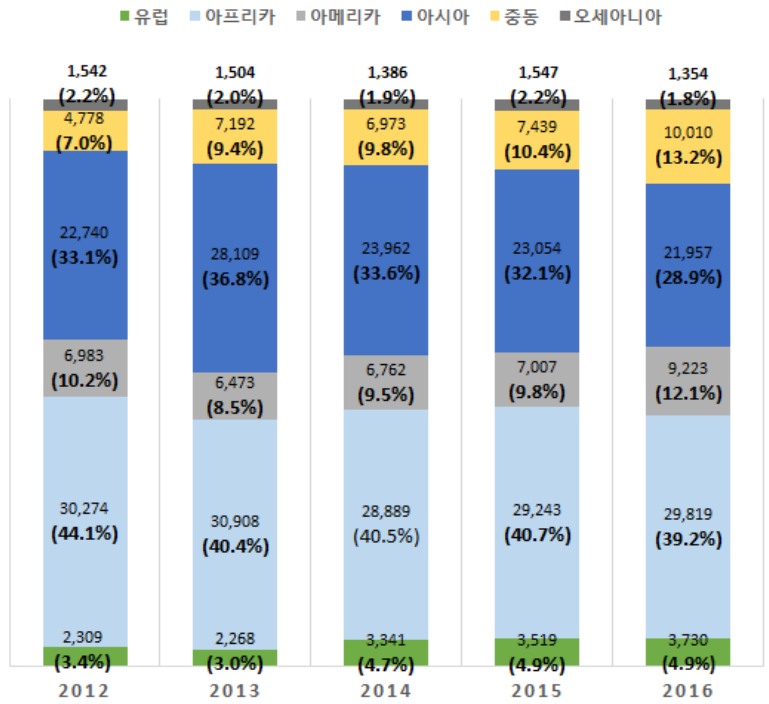
□ DAC 회원국의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현황

○ 2012년-2016년 DAC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꾸준히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경향을 보이며, 아시아가 두 번째로 그 뒤를 따름.

○ 중동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67〉 2012–2016년 DAC 회원국의 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총지출)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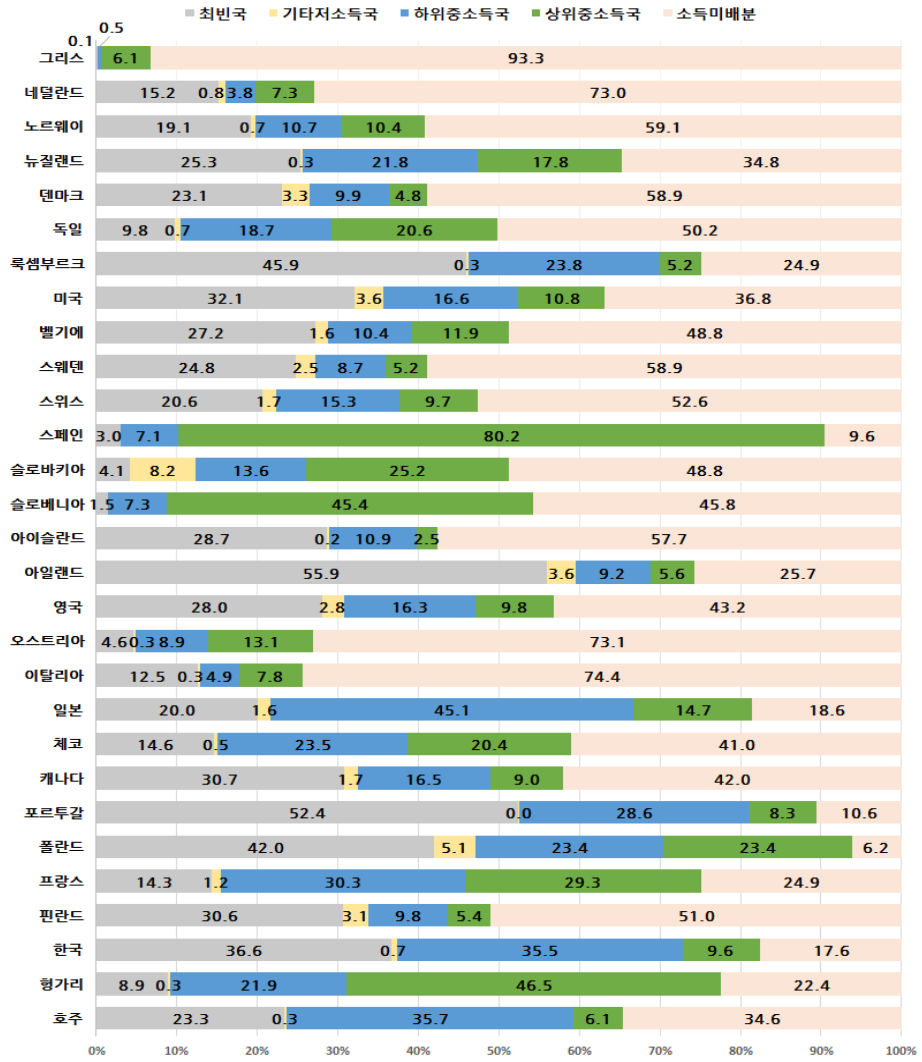
바. DAC 회원국의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 DAC 회원국의 2016년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 DAC 회원국은 2016년 총지출 기준 총 약 미화 1,154억 달러의 양자원조 중 23.8%인 약 274억 달러를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하위 중소득국에 20.2%, 상위중소득국에 15.3%를 지원하였음.

〈그림 168〉 DAC 회원국의 2016년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단위: 백분율(%), 2016년, 총지출)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0.)

부록 3 한국의 원조체계 및 지원추이

가. 한국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244)]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 2010년 한국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 및 발효됨. 동 법은 한국 개발원조의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 정책추진을 강조함.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 OECD DAC 가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범정부적 3대 ODA 선진화 전략으로 1)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2)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3) 국제활동 참여강화를 제시함.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으로 "제1차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이 수립된 후, 2015년에는 2030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동향과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이 수립됨.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원조 분절화 방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ODA 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제3자에 의한 사업평가 확대를 통한 '내실있는 ODA,' 시민단체·학계·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함께하는 ODA'가 기본 원칙으로 제시됨.

244) ODA KOREA 홈페이지(http://odakorea.go.kr/) (접속일:2018.07.10.)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 한국 정부는 현재 중점협력국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기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에 근거하여 유·무상원조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중점협력국(24개국): 아시아 11개국(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7개국(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중남미 4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동·중앙아시아 2개국(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나. 한국의 ODA 추진기관[245]

□ 한국의 ODA 추진체계

○ 한국 ODA 담당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으로 구성됨.

⇒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상원조의 주관 및 시행을 담당하고, 외교부와 KOICA에서 무상원조를 담당함. KOICA 이외의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음.

□ 총괄 및 조정기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0년 1월 창설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통합전략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국제개발협력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사업평가 등을 수행함.

⇒ 개발협력정책관실은 개발협력정책관(국장) 이하 3개과(개발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로 구성

245) ODA KOREA 홈페이지(http://odakorea.go.kr/) (접속일:2018.07.10.)

□ 무상원조 주관 및 시행기관: 외교부 및 KOICA

○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는 한국 무상원조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KOICA와 조정하여 ODA 사업을 진행함.

⇒ 외교부 개발협력국은 국장, 심의관 및 3개과(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로 구성

○ 무상원조 시행기관으로서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2016년 기준 159개국에 약 6조 274억원의 ODA 자금을 투입하였고,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KOICA 해외사무소 운영국: 아시아 14개국(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아프리카 16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DR콩고,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중남미 8개국(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동·CIS 6개국(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요르단, 이라크 바그다드·아르빌, 팔레스타인)

□ 유상원조 주관 및 시행기관: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을 총괄하고 유상원조 분야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함.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유상원조 관련 조직은 국제금융협력국 내 EDCF를 담당하는 개발협력과와 대외경제국 내 KSP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기획팀으로 구성

○ 한국수출입은행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함.

다. 한국의 ODA 지원실적 및 주요사업

□ **(연도별)**[246] 한국 ODA/GNI 비율은 2016년 0.16%로 29개 DAC 회원 중 16위로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향후 2020년까지 동 비율 0.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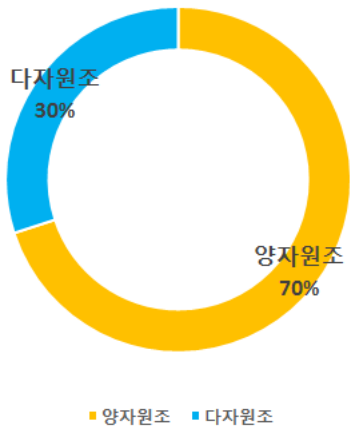
〈표 107〉 한국 원조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고정가격, 총지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ODA(A+B)	1,689	1,801	1,833	1,980	2,320
양자 간원조(A=a+b)	1,264	1,360	1,397	1,537	1,622
	74.8%	75.5%	76.2%	77.6%	69.9%
무상원조(a)	734	800	836	900	985
	58.0%	58.8%	59.8%	58.5%	60.7%
유상원조(b)	531	560	561	638	637
	42.0%	41.2%	40.2%	41.5%	39.3%
다자 간 원조(B)	425	441	436	443	698
	25.2%	24.5%	23.8%	22.4%	30.1%
ODA/GNI(%)	0.14	0.13	0.13	0.14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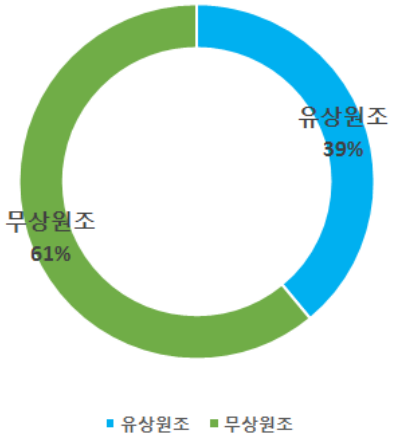
* 총합과 각 세부항목의 합은 차이가 있으나, 상기 자료는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반영함.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11.)

〈그림 169〉 2016년 한국 양자 및 다자원조 비중



자료: 상동

〈그림 170〉 2016년 한국 유·무상원조 비중



자료: 상동

246) ODA KOREA 홈페이지(http://odakorea.go.kr/) (접속일:2018.07.10.)

□ **(지역별)**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해왔으나 최근 아프리카 지역 원조가 점진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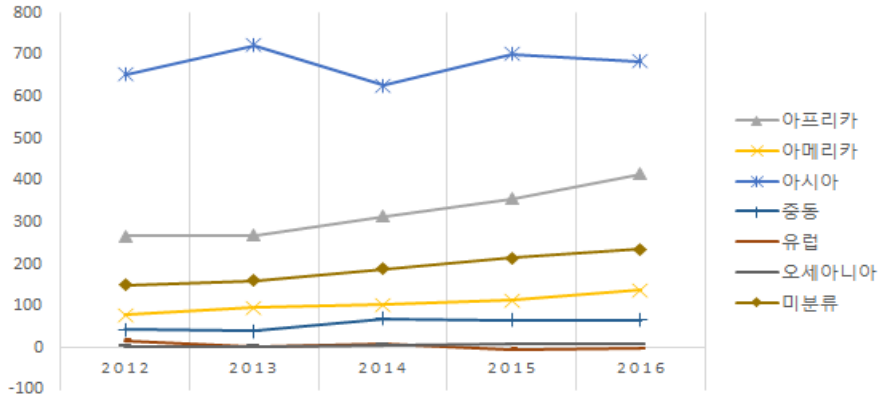
○ 2012-2016년 합계 기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가 3,393백만달러(약 50%)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1,623백만달러(약 24%) 지원

⇒ 2012-2016년 지역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아시아(3,393, 49.6%), 아프리카(1,623, 23.7%), 미분류(952, 13.9%), 아메리카(528, 7.7%), 중동(286, 4.2%), 오세아니아(31, 0.5%), 유럽(23, 0.3%)

⇒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6년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180백만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최다 지원

〈그림 171〉 한국 2012-2016년 지역별 원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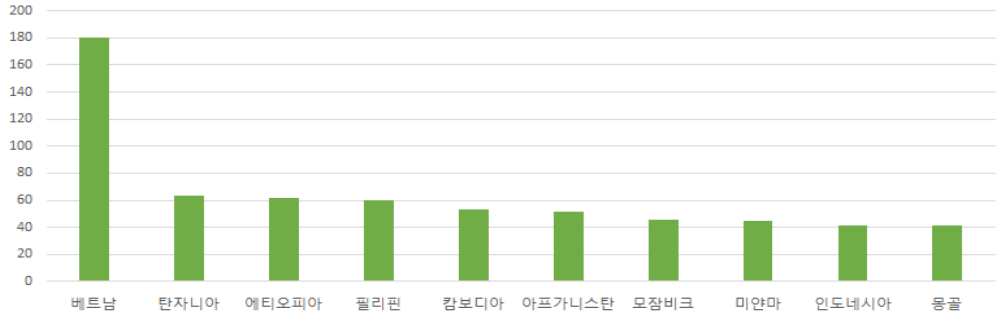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07.05.)

〈그림 172〉 한국 2016년 국가별 원조 지원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6년)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접속일: 2018.07.05.)

□ **(분야별)** 물·에너지·교통, 교육,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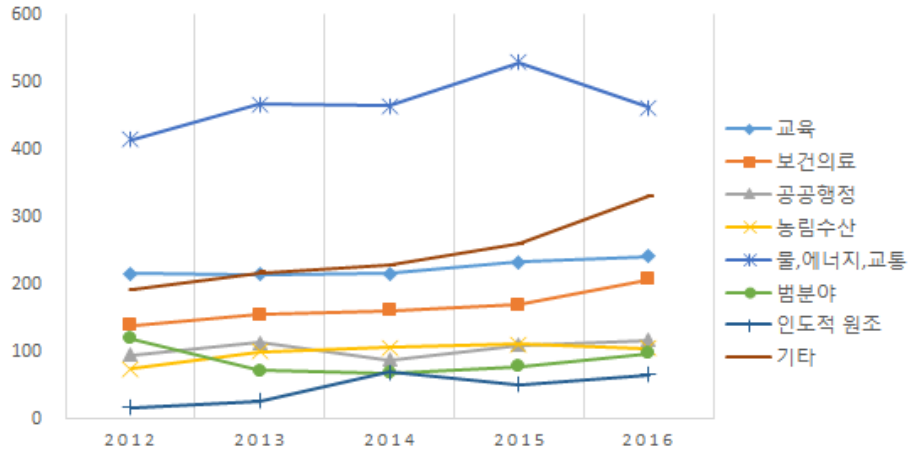
○ 2012-2016년 합계 기준 물·에너지·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이 2,334백만달러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기타 분야로 1,225백만달러 지원

⇒ 2012–2016년 분야별 지원 금액 합계(백만달러, %): 물·에너지·교통(2,334, 32.5%), 기타(1,225, 17.1%), 교육(1,117, 15.6%), 보건의료(828, 11.5%), 공공행정(521, 7.3%), 농림수산(493, 6.9%), 범분야(433, 6.0%), 인도적원조(229, 3.2%)

⇒ 2012–2016년 기타 분야 주요 세부항목: 공여국 행정비용 26.2%(321백만달러), 미분류 23.5%(288백만달러), 통신 20.5%(251백만달러),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12.9%(158백만달러) 등

〈그림 173〉 한국 2012–2016년 분야별 원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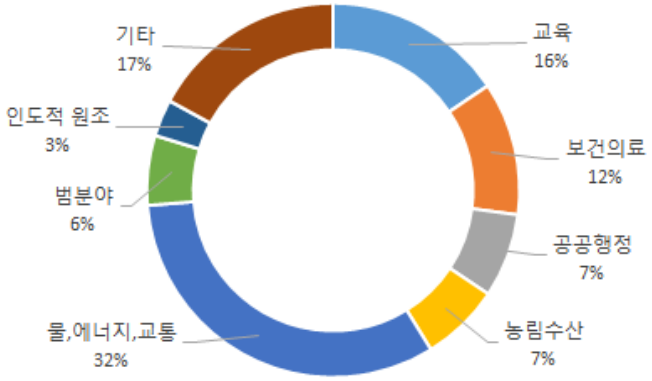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2016년)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05.)

〈그림 174〉 한국 2012-2016년 원조분야별 비중(%)



*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 Stats(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07.05.)

참고문헌

외교부. 2016. OECD 개황. 서울: 외교부.

OECD. 2018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 2018b. “2018 REPORT ON THE DAC UNTYING RECOMMENDATION.”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CD-DAC(2018)12-REV2.en.pdf (접속일: 2018.07.10.).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ipm/os/link/relateLinkList.do?lang=ko (접속일: 2018.07.10.).

ODA KOREA 홈페이지: http://odakorea.go.kr/ (접속일:2018.07.10.).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dac/ (접속일: 2018.07.10.).

OECD Stat 데이터 베이스: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 07. 11.).

연구정보 2018-01-153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발 행 2018년 8월
발 행 인 이미경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47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트프린팅
ISBN 978-89-6469-492-3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